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2014. 6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전 승 훈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장

국별연구원

▸ 모잠비크:

이 문 희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용 택 전남대학교 초빙교수

▸ 에티오피아:

이 명 수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김 후 경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콩고민주공화국:

김 장 생 연세대학교 교수
박 선 희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기획관

연구보조원 이 은 샘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문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발주에 의하여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수행한 아프리카 중점협력 3개국, 즉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로서, 본 편은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담은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농업 및 농촌분야 개발협력을 함에 있어서, 아프리카 농업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익숙한 농업,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협력해 온 아시아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 우선, 이들 국가들의 농업 문제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이들 국가의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지원과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 끝으로, 위 두 단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아프리카 중점협력 3개국의 농업 문제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분석해 볼 때, 이들 국가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여건은 한국이나 아시아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이들 지역에 있어서 농업이 국가개발에 갖는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위 3국이 속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세계 최빈 대륙

으로서 높은 빈곤율 및 기아인구를 시현하고 있어 빈곤 극복 또는 개발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당장 농업 이외에는 달리 길이 보이고 있지 않다. 농업 외에 빈곤 극복을 위한 길은 한국처럼 산업화를 하던가, 아니면 부존자원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어서 현재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여건에서 시장이 개방되어 산업화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후자인 자원 수입의 경우, 자원은 유한하니 영구적으로 의존할 것이 못될뿐더러 국가나 개인이 일하지 않고 자원 수입원에만 의존하여 장기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지역에 있어서 농업은 빈곤 극복과 개발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이들 국가의 빈곤 극복 전략들도, 농업 및 농촌개발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토지, 기후 등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보면 양호한 정도를 넘어서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조건이다. 모잠비크의 경우, 인구 2천 5백만 명에 경작가능면적은 3천 6백만ha이나 되며, 그 중 5백만ha가 경작되고 있다. 강우량은 다소 적다고 하지만 충분한 수자원 개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조량이 아주 좋고 기후도 경작에 좋은 편이다. 에티오피아는 인구 9천 380만 명에 국토면적이 120만km^2의 대국으로서, 중부 고원지대에서 변방의 저지대(사막)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강우량도 많고 토지도 비옥하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인구 7천 7백만 명에 국토는 한반도의 11배로서 2.3백만km^2, 경작가능면적은 8천만ha이며, 수자원도 풍부하여 아프리카의 저수지로 불린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자연적 조건 하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을 예로서 보면, 인구의 71%가 절대빈곤에 속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은 2.5% 이나 농산물 증산은 연간 3%에 불과한 실정이니, 우리로서는 기이하게 느껴질 일이기도 하다. 이들 나라들이 지금 빈곤 상태에 있기는 하나 이러한 엄청난 농업발전의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빈곤 극복과 개발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아울러 농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내지는 이들 3개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농업·농촌개발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셋째, 앞서 기술한 농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에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다수 국민들이 기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 제도, 농업 인프라 문제에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의 행태에서부터 농업생산 투입요소, 가공, 유통체제, 농업 금융 및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에서 절대적 취약 내지는 부족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깊다고 볼 수 있다.

- 농민 의식: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의식과 행태가 농업발전의 기본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농민들은 오랜 식민지 지배와 내전 그리고 사회주의 물결, 오랜 기간의 외국 원조 등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농민의 의식과 행태가 형성되어 왔다.
- 토지 제도: 이들 국가에 있어서 토지는 국유이며, 나라에 따라서 실제 소유권의 상당 부분을 부족장이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토지 소유 관계가 농민의 영농 의식 및 농업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 농업생산 투입 요소: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금융, 종자, 생산 기자재 등의 투입이 필요하나 빈곤 국가의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이들 투입 요소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 농가공 및 유통 체제: 농작물은 수확후관리, 가공을 거쳐서 유통 체제를 통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는데, 이러한 가치사슬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 농업 인프라: 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필요한 관개, 전력, 수송 인프라 등이 아주 미비 하다.

여기에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나름대로 천혜의 농업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인프라, 관리 등 인적 조건에 기인하여 농업이 오랜 기간 동안 정체에 머무르고 있고 그에 따라 빈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국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량이 미흡하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취약성 내지는 절대적 결여의 여건 하에서 어느 한 부분에 제약된 개발역량과 재원을 투입해 보아야 효과를 내기 어렵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떠한 정부에게도 없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을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적 및 한국의 지원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오랜 원조를 해온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 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 이들 공여기관 또는 양자 협력국들은 농업분야 협력을 해당 국가의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과 긴밀히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대화 그룹을 형성하고 해당 국가의 농업정책 당국자와 원조 공여자들 간에 자주 긴밀하게 정책적 대화를 통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 사업 규모는 다양하나, 대부분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다년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2차 또는 3차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현지화를 도모하고 있다. 많은 공여기관들 자신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현지 NGO 또는 적정 기관에 사업수행을 위임하고, 자신들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후 동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수원국 정책 당국자 및 원조 공여자들 간의 긴밀한 정책 대화에 의하여 원조 조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주요 양자 공여국들의 국별 협력전략과 협력사업 구성을 보면 자신들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 또는 우위 역량을 가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 협력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를 보면 현지의 문화 또는 관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두드러진 사유였다.
-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를 볼 때, 수원국이 농업에 두고 있는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충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들의 국별 협력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MDG 달성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또는 이들 3개국에 대한 농업 및 농촌 분야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들 3개국에 대한 협력 내용을 보면, 이들 국가의 농업 또는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이 분야에 대한 사업 비중은 높았지만,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았다. 우선 수원국의 정책기조 및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를 보다 충실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 있어서 원조 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단위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에 대한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에 대한 개발협력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비중 문제이다. 수원국의 다양한 빈곤 극복과 개발을 위한 협력 수요 중에서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를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극복에 있어서는 농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개발협력에도 이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빈곤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중점적 원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큰 성과를 볼 수 없었음은 이들 지역 빈곤 극복의 관건인 농업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한국은 선진 공여국들과는 달리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들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개발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농업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 다음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농업의 종자, 수확후관리, 기자재, 가공 등 여러 가치사슬 중에서, 그리고 농업생산, 기술 교육 또는 농촌개발 측면에서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적정 사업 분야가 해당 국가별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협력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선 해당국 정책 기조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질 것, 타 공여국들과의 원조 조화를 충분히 고려할 것,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정된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을 제약하는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원조사업이 현지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는 초기에는 소홀하기 쉬운데 나중에 이로 인하여 원조효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원조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해당 국가 정책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해당 국가가 동 사업에 대한 확실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규모가 일정 단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조 분절화로 여러 기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영세 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일에 우선하는 일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년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2차 또는 3차의 후속 사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지의 문화, 관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것들과 충돌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주로 PMC가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지에 위탁하는 것과 비교하여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직접 수행할 경우 그 장점을 잘 살리되, 사업 종료로 철수할 경우 현지의 사업관리자를 확실하게 하여 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개국에 있어서 농업의 문제는 여러 산업 중 하나로서의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빈곤과 개발의 열쇠가 되는 긴요한 유일의 산업이 아닌가 한다. 이들 지역이 지난 반세기 국제사회의 빈곤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중점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이들 지역에 있어서 농업이 정체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좋은 자연적 조건에 불구하고 농업이 그토록 정체되고 있음은 쉽게 풀릴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좁은 땅에서 농업생산성의 획기적 증대와 세계 농촌개발 역사에 있어서 그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농촌개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을 계속 증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농업·농촌개발 협력이 해당지역의 빈곤 극복과 농업발전에 한층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목 차

제1장 서론 ---- 7

제2장 국가일반 및 개발현황 ---- 15

제1절 국가일반현황 ---- 17

제3장 농업·농촌 여건과 개발현황 ---- 33

제1절 농수산 및 농촌 개발의 여건 ---- 35

제2절 농업·농촌개발 정책과 추진현황 ---- 47

제4장 농업·농촌개발 지원현황 ---- 67

제1절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 지원 전략 및 현황 ---- 69

제2절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지원전략과 현황 ---- 133

제5장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 ---- 163

제1절 사업 도출과 실시를 위한 주요 고려 요소 ---- 165

제2절 향후 對 DR콩고 KOICA 사업의 주요 요소 ---- 191

제6장 결론 ---- 221

참고문헌 ---------- 227

별첨 ---------- 235

[별첨 1]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별첨 2] 현지 기관 면담 회의록
[별첨 3] 주요기관 연락처
[별첨 4] 주요 공여국의 지원 사업현황
[별첨 5] 주요 국제기구의 지원 사업현황
[별첨 6] DR콩고 농업·농촌개발 공여기관 그룹(GIBADER)개요
[별첨 7] 농업농촌개발부 조직도
[별첨 8] 농업농촌개발 프로젝트 수행기관 리스트

표 목차

〈표 2-1〉 DR콩고의 경제성장(2009~2012) ---- 23
〈표 2-2〉 DR콩고 인구와 노동인력규모 변화 추이 ---- 25
〈표 2-3〉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과 비교한 DR콩고의 빈곤 관련 지수 ---- 27
〈표 2-4〉 농업생산 현황 ---- 29
〈표 2-5〉 DR콩고 식량 위기 유형 ---- 29
〈표 2-6〉 DR콩고의 식량 불안정의 조건과 결과 ---- 30
〈표 3-1〉 DR콩고의 농업 GDP ---- 35
〈표 3-2〉 DR콩고의 농업인구 ---- 36
〈표 3-3〉 Kinshasa-N'djili의 강수량 및 기온(2008) ---- 38
〈표 3-4〉 DR콩고의 농업면적 ---- 39
〈표 3-5〉 DR콩고의 농업용수 이용 현황 ---- 40
〈표 3-6〉 DR콩고의 주요 농산물 생산(2012) ---- 41
〈표 3-7〉 DR콩고의 주요 축산물 생산 ---- 45
〈표 3-8〉 DR콩고의 주요 곡물 수급 ---- 57
〈표 3-9〉 DR콩고의 주요 축산물 수급 ---- 57
〈표 3-10〉 DR콩고의 농산물 수출(2012) ---- 61
〈표 3-11〉 DR콩고의 농산물 수입(2011) ---- 62
〈표 4-1〉 DR콩고에 대한 ODA의 분야별 구성(2010~2012) ---- 70
〈표 4-2〉 ODA 공여주체별 DR콩고 지원현황 ---- 71
〈표 4-3〉 공여국별 농업·농촌개발 분야 지원 금액 ---- 72
〈표 4-4〉 DR콩고 농업지원의 세부분야 구성현황 ---- 74
〈표 4-5〉 ODA 공여주체별 DR콩고 농업·농촌분야 지원현황 ---- 75
〈표 4-6〉 세부분야별 지원 현황 ---- 77
〈표 4-7〉 분야별 지원현황 (AfDB) ---- 102
〈표 4-8〉 농업·농촌개발분야 지원사업 ---- 105
〈표 4-9〉 FAO Initiatives ---- 116
〈표 4-10〉 현재 진행 중인 FAO 프로젝트 ---- 116
〈표 4-11〉 FAO가 수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 ---- 118
〈표 4-12〉 IFAD 중장기 프로젝트 ---- 119
〈표 4-13〉 사업의 제약 요건 및 대안 ---- 123
〈표 4-14〉 주요 공여국/공여기구의 지원 방식 ---- 125

〈표 4-15〉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농업생산 관련지표 ---- 134
〈표 4-16〉 우리나라의 ODA 대상국가 ---- 137
〈표 4-17〉 농식품부와 양청이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 사업개요 ---- 139
〈표 4-18〉 농식품부와 양청의 국제개발협력 예산개요 ---- 140
〈표 4-19〉 농진청이 DR콩고에서 추진 중인 사업 ---- 140
〈표 4-20〉 농정컨설팅사업 대상 분야 ---- 142
〈표 4-21〉 무상원조의 분야별 지역별 배분현황 ---- 145
〈표 4-22〉 KOICA의 농림수산 분야 지원전략 ---- 148
〈표 4-23〉 KOICA가 아프리카에서 추진 중인 농림수산 분야 사업 ---- 149
〈표 4-24〉 농림수산 분야 개발협력의 국제동향과 KOICA 정책방향 ---- 151
〈표 4-25〉 EDCF의 아프리카 농림수산 분야 지원 사업 ---- 155
〈표 4-26〉 EDCF 사업 추진절차 ---- 157
〈표 5-1〉 대 개도국 전수 가능한 경험·기술 목록(안) ---- 168
〈표 5-2〉 비교우위가 있으며 전수가 가능한 분야 권역별 10개 분야 선정 ---- 175
〈표 5-3〉 대 DR콩고 한국의 농업 ODA의 부문별 역량 분석 ---- 178
〈표 5-4〉 세부분야별 지원현황 ---- 181
〈표 5-5〉 DR콩고에 대한 ODA의 분야별 구성(2010~2012) ---- 184
〈표 5-6〉 부문별 세부전략 ---- 185
〈표 5-7〉 농산업단지 선정지 ---- 189
〈표 5-8〉 한국의 농업부문 ODA의 분야별 분석표 ---- 194
〈표 5-9〉 DR콩고 농업부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분석표 ---- 195
〈표 5-10〉 새마을운동의 구성 ---- 197
〈표 5-11〉 아프리카 국가들 도로 포장률 ---- 200
〈표 5-12〉 대 DR콩고 공여국 협력 모델 ---- 207
〈표 5-13〉 DR콩고 농업 정책수립 과정 내 다양한 Actor의 역할 및 영향력 ---- 210
〈표 5-14〉 농업 정책프로세스 내 기관 간의 관계 정도 ---- 212
〈표 5-15〉 DR콩고 내 여러 기관의 노동 환경 인식(2010) ---- 214
〈표 5-16〉 농업 정책 프로세스 내 주요 기관의 역량 정도 ---- 215

그림 목차

[그림 2-1] DR콩고 지도 ---- 17
[그림 2-2] 지역별 언어 분포도 ---- 22
[그림 2-3] GDP 성장과 인플레이션 추이(1996~2012) ---- 24
[그림 2-4] DR콩고 GNI per capita 추이 ---- 24
[그림 2-5] DR콩고 및 아프리카 재정수지균형 비교 ---- 25
[그림 2-6] DR콩고 무역의 식량 비중(2011) ---- 26
[그림 2-7] DR콩고 농업 세부무역분야(2011) ---- 26
[그림 2-8] 국가별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어린이 책을 보유한 가구 통계 ---- 28
[그림 2-9] DR콩고 빈곤율 예상도(1990~2015) ---- 31
[그림 3-1] DR콩고 주요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GIS ---- 44
[그림 3-2] PNIA의 프로그램별 예산 배정 ---- 49
[그림 4-1] ODA 자금형태별 DR콩고 지원현황 ---- 69
[그림 4-2] 농업·농촌개발 분야 진행 중인 사업의 세부분야 ---- 76
[그림 4-3] 농업분야 진행 중인 사업의 세부분야 ---- 76
[그림 4-4] DR콩고의 식량위기 위험도와 공여기관 농업·농촌개발 프로젝트 현황 ---- 78
[그림 4-5] DR콩고의 인구분포도, 도로망, 불안정 지역 ---- 79
[그림 4-6] 분야별 벨기에 ODA 지원현황 ---- 81
[그림 4-7] 벨기에의 개발협력 체계도 ---- 83
[그림 4-8] 분야별 지원현황(2010~2013) ---- 84
[그림 4-9] 진행 중인 사업 지역 (BTC) ---- 85
[그림 4-10] DR콩고 정부와 BTC 협업기구 ---- 90
[그림 4-11] 분야별 지원현황 (USAID) ---- 91
[그림 4-12] 진행 중인 사업 지역(USAID) ---- 93
[그림 4-13] 2008~2012 주된 분야별 지원 규모 ---- 97
[그림 4-14] 진행 중인 사업 지역 (SIDA) ---- 98
[그림 4-15] SIDA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분야별 지원 비중 ---- 99
[그림 4-16] 진행 중인 사업 지역 (AfDB) ---- 104
[그림 4-17] 사업대상 지역 (World Bank) ---- 108
[그림 4-18] World Bank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 112
[그림 4-19]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지역 (FAO) ---- 114
[그림 4-20] FAO의 세부 지원 분야(2007~2012) ---- 115
[그림 4-21] 재정지원 파트너 Top 10(2007~2012) ---- 118

[그림 4-22] 진행 중인 사업 지역 (IFAD) ---- 121
[그림 4-23] 사업의 운영체계 (PAPAKIN 프로그램) ---- 125
[그림 4-24] 역량 및 협력에 따른 사업수행방식 ---- 127
[그림 4-25] 역량 및 지원규모 대비 사업지역범위 ---- 128
[그림 4-26] 농업·농촌개발 지원 추진체계 ---- 136
[그림 4-27] 농식품부 기획협력사업 선정 및 시행절차 ---- 141
[그림 4-28] KOICA의 에티오피아, DR콩고, 모잠비크 지원개황 ---- 146
[그림 4-29] KOICA의 프로젝트사업 추진절차 ---- 147
[그림 4-30] EDCF의 연도별 지원 실적 ---- 152
[그림 4-31] EDCF의 분야별 지원 실적 ---- 153
[그림 4-32] EDCF의 지역별 지원 실적 ---- 154
[그림 4-33] EDCF 사업 운용체계와 기관별 역할 ---- 156
[그림 4-34]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절차 ---- 159
[그림 5-1] 대 DR콩고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한국의 대내외 환경 ---- 165
[그림 5-2] 한국 CPS의 대 DR콩고 농업·농촌개발협력 추진 전략도 ---- 183
[그림 5-3] DR콩고 농업발전 전략(Two-Track) ---- 186
[그림 5-4] 농산업단지 조직도 ---- 187
[그림 5-5] 농산업단지 위치 ---- 188
[그림 5-6] 제2차 콩고 내전 양상 ---- 199
[그림 5-7] DR콩고의 교통 관계망 ---- 200
[그림 5-8] 공여국/국제기구 진행 사업 분포도 ---- 201
[그림 5-9] DR콩고의 인구 밀집도 ---- 202
[그림 5-10] 식량 위기 위험도 ---- 203
[그림 5-11] 한국의 농업부문 ODA 사업 제안 지역 ---- 204
[그림 5-12] DR콩고 부족현황 ---- 205
[그림 5-13] DR콩고 농업 정책수립 프로세스 내 주요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전망, 관계 및 영향력 ---- 210
[그림 5-14] 협의체 및 집행기구 ---- 218
[그림 5-15] DR콩고 원조사업의 프로그램적 구성 ---- 219

글상자 목차

[글상자 4-1] GIBADER 구성 현황 ---------- 80
[글상자 4-2] 쿵구(Kungu)지역 경제재건 프로젝트의 시사점 ---------- 101
[글상자 4-3] IFAD'Strategic Framework 2011~2015'주요 중점 목표 ---------- 120

주요약어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
BCC	*Banque Centrale du Congo* (콩고중앙은행)
BTC	Belgium Technical Cooperation (벨기에 개발협력청)
CARG	*Conseil Agricole Rural de Gestion* (농업농촌관리의회)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World Bank의 국가지원전략)
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국제농업연구 컨설팅그룹)
CNONGD	*Conseil National d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de Développement* (콩고 개발 NGO 발전위원회)
CPF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FAO의 국가계획프레임워크)
CONAPAC	*Confédération Nationale des Producteurs Agricoles du Congo* (콩고 농민조합총연맹)
COOPEC	*Coopératives d'Epargne et de Crédit* (금융협동조합)
COPEMECO	*Confédération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u Congo* (콩고 중소기업연맹)
COSOP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IFAD의 국가전략기획 프로그램)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DVDA	*Direction des Voies de Desserte Agricole* (콩고 농어촌도로공사)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EC	*Fédération des Entreprises du Congo* (콩고 기업연합)
FPM	*Fonds de Promotion Microfinance* (마이크로 파이낸스 진흥기금)
GIBADER	*Groupe Inter-Bailleurs pour l'Agriculture et Développement Rural* (농업·농촌개발분야 공여기관 그룹)
HIPCI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채무빈곤국 외채탕감프로그램)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World Bank Group 국제개발협회)
IITA	*Institut International d'Agriculture Tropicale* (국제열대농업연구소)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NERA	*Institut National des Etudes et de la Recherche Agricole* (국립농학연구소)
KAFACI	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KOPIA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한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me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
LGU	Local Government Unit (지방정부)
MINAR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업농촌개발부)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IC	*Programme Indicatif de Coopération* (벨기에 BTC의 협력프로그램)
PMURR	*Projet Multisectoriel d'Urgence de Réhabilitation et de Construction* (경제재건을 위한 다부문 긴급프로그램)
PNIA	*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국가농업투자계획)
PNSA	*Programme National de Sécurité Alimentaire* (국가 식량안보프로그램)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PRGSP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Paper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
PRONANUT	*Programme National de Nutrition* (국가영양프로그램)
REGIDESO	*Régie de distribution des eaux* (수도공사)
SENAFIC	*Service National de Fertilisants et Intrants Connexes* (국립비료센터)
SENASEM	*Service National de Semences* (국립종자센터)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SNV	*Service National de Vulgarisation* (콩고 농촌지도국)
SNHR	*Service National d'Hydraulique Rurale* (콩고 농촌 수도개발국)

SSADR	*Stratégie Sectorielle de l'Agriculture et du Développement Rural* (콩고 농업·농촌개발분야전략)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
UCC	*Université Catholique du Congo* (콩고 카톨릭대학교)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IKIN	*Université de Kinshasa* (국립킨샤사대학교)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 (유엔프로젝트서비스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청)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요 약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인 DR콩고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며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광활한 경작 가능 면적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지표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R콩고는 여전히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소득은 절대 빈곤치를 맴돌고 있는 수준이다. 이는 DR콩고의 빈곤 극복이 농업·농촌개발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대 DR콩고 공적원조사업(ODA)의 초점 또한 농업에 있음을 시사한다. DR콩고 농업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하여서도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도전들 때문이다.

① 농산물 수급 불균형: 오랜 내전이후 DR콩고는 옥수수, 쌀, 수수, 밀 등의 곡물과 돼지고기, 생선류를 수입하고 있다.
②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의 부족: DR콩고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산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수확 후 손실이 대단히 크다. 또한 수도를 제외한 지역에는 가공 공장은 전무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③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부재: 넓은 국토에 비하여 교통, 통신 시설이 부재하고 내전을 겪으면서 신용 대출이 사라졌고, 유통회사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④ 열악한 교통 시스템과 높은 운송비용: 도로 교통 인프라의 부재는 농산물의 운송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켰고 특히 장거리 운송이 어려운 소농들은 시장까지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⑤ 숙련된 노동력 부족: 전체 인구 대부분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이 부재하여 축적된 농업 노하우와 기술이 지역 농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⑥ 열악한 금융: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부재하고, 특히 소규모 농가들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⑦ 민간 부문 참여의 어려움: 토지 사용의 불안정, 관습법과의 충돌, 비효율적 행정 등은 농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DR콩고의 농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콩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국가 농업 투자계획(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NIA)

PNIA는 DR콩고의 농업 면적을 7,500만 ha로 추정하여 농업 GDP를 6% 상승시켜 농업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역할과 통치력, 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투자 계획의 효율적 활용, value chain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과 농산업의 근간 마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력 양성, 사회적·환경적 제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② 신 농업법

이 법은 사회·환경적 측면 통합, 농업 생산 및 자급자족 촉진, 투자의 중요 근간 마련을 위한 농산물 수출 촉진, 지역 부가가치 창출 촉진, 새로운 지속가능 에너지 기술 도입 등을 통한 농업 잠재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③ 정부행동계획 2012~2016(Programme d'Action du Gouvernement 2012~2016)

이 계획은 정부의 통치, 공공 자금 관리, 공공 행정의 현대화, 민간 주도 역량 강화, 인재 육성, 사회 기반시설의 격차 축소,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농산업단지(Agricultural Business Parks)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 허브를 건설하여 소규모 농민, 지역 주민, 거대 농산업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근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산업단지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생산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DR콩고가 다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많은 농업·농촌개발 사업으로 DR콩고 농업발전을 지원해 왔다. 2014년 2월 현재로 파악된 DR콩고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지원 금액은 약 11억달러에 이른다. 주요 공여국은 벨기에,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다. 특히 벨기에는 규모와 구성비율 모두에서 DR콩고의 가장 큰 공여국으로서, 자국이 DR콩고에 지원하는 총 ODA 중 22%를 농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통계상 나와 있는 인프라 지원(총 ODA의 26%) 중에서도 농촌지역 도로개선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때, 벨기에 ODA의 농촌개발분야 지원 비중은 사실상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업·농촌분야 다자지원기구로는 World Bank, AfDB, IFAD, EU 등이 두드러지게 지원이 활발하다. 지원 내용으로는 DR콩고의 장기적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지원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공 및 저장, 생산단체 지원 분야가 차례로 뒤를 잇고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종합적 농업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생산지원분야에 치중되었으나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과 조직의 역량 강화에 대한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 공여국들의 경험에서 향후 한국의 ODA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지역을 몇 군데 지역으로 한정 시킬 필요가 있다. ② DR콩고에서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기까지 선진 공여국 및 현지 NGO와 정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③ 사업 직접수행의 경우 현지 노하우와 경험 및 네트워크 확보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④ 사회·문화·정치·종교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수행해야 한다. ⑤ 사업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 (토지문제, 사업지속성 문제) ⑥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공여국 간 원조 분업 및 조정이 중요하다. ⑦ ODA 규모 및 역량에 따라 사업지역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⑧ 많은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사업경험에 비추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콩고 정부 및 프로젝트 관리 기관,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주인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농업 부문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검토 하였다. ①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정책(The 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The Government's 2012~2016 Action Plan, 2009 Strategic Plan for Agricultural Sector), ② 한국의 비교우위, ③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④ 대 DR콩고 지원전략(CPS), KOICA 농수산 지원전략 2013~2015, 2011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보고서, ⑤ 대외환경변화.

그 결과 향후 한국이 집중해야 할 ODA 사업 부문은 농업 교육과 지역종합개발사업이다.

농업 교육은 농업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인데 정부 공무원 역량 강화, Extension Service 강화 그리고 농민 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지역 종합 개발사업이란 농촌 지역의 생산 기반, 소득 증대, 치산녹화, 복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종합적 개발 사업이다.

이 두 가지 사업에 집중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지 선정이다. 사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②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③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④ 인구 밀집도가 높아 파급성이 커야 하며 마지막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의 농업부분 ODA 사업은 킨샤사에서 반경 150km 이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둘째, 각 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토지 등의 문제를 사업별로(case by case) 접근해야 한다. 셋째,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칠 권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넷째, DR콩고 정부와 일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INGO 등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하여 PMC는 한국에서 맡되 각 부문별 전문가는 현지에서 협력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여섯째, 사업 협의체를 구성하되, KOICA,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부, 총리실이 주관하는 상위 단위의 협의체를 두어 정부 부처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NGO, 농업부, 대학, 농업지도부서가 함께하는 집행기구를 구성하여 사업단위별로 전문인력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DR콩고는 최빈국으로서 식량권과 교육 같은 최소의 권리조차 억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내전과 기근은 콩고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지난 40년간 다각도로 DR콩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구조적 문제들로 인하여 진척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지난 40년간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DR콩고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협력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려하고 있다. 특히 KOICA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콩고인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여러 노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농업·농촌개발이다. DR콩고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을 경제 토대로 두고 또한 많은 인구가 농업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 DR콩고 개발의 핵심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DR콩고의 빈곤 문제와 농촌 개발을 연구하려는 것은 단순히 콩고인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함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인간의 자유와 정신에 대한 가장 잔혹한 구속을 자행하는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재 토대로서의 자유를 되찾으려는 인간의 자기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콩고인들의 자유정신을 탈취하여 식량과 물질에 대한 노예로 만들고 있는 빈곤으로부터 인간다움을 되찾기 위함이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DR콩고에서 인간성의 회복은 농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빈곤은 배고픔이며 또한 대부분의 콩고인들의 삶의 형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KOICA에서 발주한 아프리카 중점협력대상 3개국에 대한 농업·농촌개발 협력 전략 중 DR콩고를 다루고 있으며 DR콩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현황과 빈곤의 원인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KOICA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KOICA가 선정한 아프리카의 중점협력대상 3개국(모잠비크, 에티오피아, DR콩고) 중 DR콩고의 농업·농촌분야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발환경 조사를 통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DR콩고의 농업 및 농촌개발환경과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의 DR콩고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의 원조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DR콩고의 국가현황과 농업현황 조사를 통하여 DR콩고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DR콩고 빈곤 감축에 있어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보다 DR콩고에서 원조사업을 먼저 해온 이른바 선진 공여국들의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원조 사업의 경향성을 밝히는 것을 2차적 내용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이 ODA 사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제2장은 DR콩고의 국가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DR콩고 국민들의 삶을 규정짓고 있는 조건들을 국토, 인구, 지정학적 위치, 정치, 종교, 민족, 사회, 문화, 경제여건, 빈곤 및 보건 환경, 산업 및 무역, 식량 수급문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DR콩고의 농업 현황과 지형 및 기후, 토지 및 농지소유구조, 수자원 현황, 농업 생산 현황, 지역별 농업 현황, 수산 및 축산업 현황과 현재 DR콩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 및 농촌 개발 계획과 정책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DR콩고에서 활동 중인 공여국 및 기구들의 활동을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향후 KOICA가 수행할 수 있는 공여 부문을 DR콩고 정부의 농촌 개발 계획, 한국의 대 DR콩고 국가협력전략(CPS), 한국의 비교우위분야, KOICA 기본전략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식과 고려사항들을 설명하였다.

5.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헌조사, 국내외 유관기관 면담조사, 현장방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DR콩고 개발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조사는 기존 문헌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DR콩고 정부 측 문헌들과 연구소 및 국제기구들이 발간한 저널을 비롯한 각종 보고서들을 사용하였고 국내에서는 KOICA, 농수산부, EDCF 등 농업 공여사업 수행기관들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DR콩고 현지의 정부 및 주요 공여국의 관계관을 방문 면담하여 문헌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헌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 및 최신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국별 연구진 및 현지연구진의 1차 분석을 진행하고 1차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책임자 및 타 국가 연구진 전원과 2차 종합심층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문단 및 KOICA TF팀과의 확인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KOICA의 지원분야와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는 단계에서는 농촌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방법 및 추진단계 일정>

단계	연구일정	주요활동	조사방법
1단계	연구설계	• 연구 대상 선정 • 연구 영역 설계	• 문헌조사 • KOICA T/F 면담 • KOICA 착수보고회
	문헌조사	• 국가 일반 현황, 농업·농촌개발 현황조사 • 공여기관 정책 조사	• 문헌조사
2단계	현지조사설계	• 면담기관 및 면담자 선정 • 조사 체크리스트 작성 • 핵심 질문리스트 작성	• 문헌조사
3단계	현지조사실시	• 주요 정부 부처, 공여기관 방문 면담 • 공여기관 사업현장 실사	• 문헌수집 • 해외공여기관 심층 면담조사 • 서면질의
4단계	현지 조사결과 분석	• 현지조사 분석 내용 정리 • KOICA T/F 평가 수렴 • 시사점 도출(1차 분석결과)	• KOICA 경과보고회 실시 • 추가 문헌 분석
5단계	종합결과 분석	• 종합적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도출(최종 분석결과)	• KOICA 중간보고회 실시 • 추가 문헌 분석 • 추가 서면질의

6. 연구수행일정

본 연구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업 단계	시기
연구 Kick-off	2013년 11월
국내문헌조사 및 면담조사	2013년 12월 ~ 2014년 1,2월
현지조사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12일
[중간보고]	2014년 4월 18일
최종보고서 작성	2014년 4월 19일 ~ 2014년 5월 23일
[최종보고]	2014년 5월 26일
사업 종료	2014년 6월

7. 연구의 제약점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하여 DR콩고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DR콩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농업개발 전략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그룹별 면담 등을 토대로 연구를 심화시켰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약점 또한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DR콩고는 정부 역량이 대단히 약하고 내전 등으로 인하여 거버넌스 시스템이 붕괴되었기에 각 지역별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따라서 DR콩고의 지역별 특징 등을 세밀하게 연구할 수 없었다. 지역별 인적 구성 및 자연 환경 등의 특징들을 자세히 파악하기에는 기존의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지역 방문을 통하여 면밀한 지역조사를 하기에는 1회 15일 출장이라는 시간적 한계와 방대한 영토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어 킨샤사(Kinshasa)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웠다.

둘째, 통계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는 달리 DR콩고는 국제기구들 또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국제기구 간의 통계자료에도 통일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문헌자료의 한계를 현지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으로 보완하고자 했으며, 본 보고서에서 오류들을 첨삭하였음에도 여전히 통계자료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원조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도 OECD 자료에 포

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지에서 수집한 공여국 그룹의 통계자료에 중요도를 두고 참고하였다.

셋째, 본 보고서는 무상원조를 위주로 작성되었기에 현재 유상원조를 늘여나가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자료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넷째, 국제기구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직 많은 기구들이 대 DR콩고 농업분야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경우에 따라 작성 중에 있어, 이들의 정책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본 보고서에서 도출한 KOICA의 지원방안은 KOICA가 향후 몇 년간 DR콩고의 농업·농촌개발 분야에 투입할 예산 규모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도출된 것이며, KOICA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제2장
국가일반 및 개발현황

제1절 국가일반현황

1. 국토, 인구, 지정학적 위치

DR콩고는 면적이 2,344,858km^{2}로 세계에서 11번째,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알제리에 이어 2번째로 넓은 영토 (남한의 24배에 달하는 면적)를 가지고 있으며,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또한 DR콩고의 강우량은 연평균 1,500mm로 매우 풍부하여, 약 8천만 ha 이상의 농지가 경작이 가능하다. 강이 많고 일조량도 풍부해서 각종 농산물 생산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림 2-1] DR콩고 지도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2012), Country Report-Democratic Republic of Congo

또한 DR콩고는 세계 2위의 열대우림(1.12억 ha)과 풍부한 목재 등을 보유한 산림, 거대한 잔디밭, 4천만 두 이상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사바나 평원, 풍부한 수자원, 다양한 어업자원 등 많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의 다양성을 가진 자연환경 등이 여전히 보존되어 생태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후는 크게 적도 북쪽과 적도 남쪽으로 구분되어 다르게 나타난다. 적도 북쪽의 우기는 1월~10월이며 건기는 12월~2월이다. 적도 남쪽의 우기는 11월~4월이고 건기는 5월~10월이다. DR콩고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는 남부지방의 주기적 가뭄, 콩고 강 범람, 동부 지역의 활화산 등이 있다.

DR콩고의 국경은 10,730km에 이르며, 총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중앙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를 잇는 통로가 되는 국가이다(World Bank, 2012).[1] 또한 37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DR콩고는 총 11개의 주 행정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DR콩고의 수도는 킨샤사(Kinshasa)이며, 그 외 주요 도시로는 루붐바시(Lubumbashi), 음부지마이(Mbuji-Mayi), 카탕가(Katanga), 키상가니(Kisangani) 등이 있다. 2004년 기준 DR콩고 내 도로연장은 153,497km이다. 이 중 포장된 도로는 2,794km에 불과하며, 비포장도로가 150,703km이다.

DR콩고의 인구는 2013년 7월 통계 기준으로 75,507,308명이며, 인구증가율은 2.54%이다. 이 중 도시거주 인구 비중은 34.3%이다(CIA World Factbook, 2014). 또한 DR콩고는 20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이다. 2035년에는 DR콩고의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 이상이고 1인 당 GDP가 2천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정치

DR콩고는 영토 및 인구의 측면에서 대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고채무 최빈국, 정치사회적으로는 취약국가(Fragile state)로 분류되고 있어 불안정성이 큰 국가이다.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수(World Governance Index: WGI)에 따르면, 2011년 DR콩

1) DR콩고는 앙골라, 브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와 접경하고 있다.

고의 국가 거버넌스 지수는 0.408을 기록하여 179개 국가 중 178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적개발, 법치, 인권과 참여 등의 부문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 정책을 추진할 행정 체제도 상당히 미흡하다. DR콩고 정부 체제는 분쟁 후(Post-conflict) 긴급 복구를 위한 비상경제체제와 상시 경제 운용 체제가 복합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개발 기획 및 관리 기능이 여러 정부부처로 다기화 되어 있다. 연합 정부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원화된 통치 체제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 기획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DR콩고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조셉 모부투(Joseph Mobutu) 대통령 아래 오랜 독재를 겪었다. 1997년까지 32년의 독재기간 동안 모부투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민 경제 기반이 와해되었으며 국가 거버넌스 체제가 붕괴되었다. 모부투 정권 초기에는 공기업 국유화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1974년에는 중산층 육성을 위한 기업의 자국민화 조치, 1982년에는 농업 생산성 복원 계획 등이 추진되었으나, 어느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모부투 대통령의 장기 집권 하에서 거듭된 정책의 실패는 DR콩고의 정통성을 훼손시켰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였고 경제 수준이 최빈국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모부투 정권이 붕괴되면서 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 정부가 수립되었다. 카빌라 정부는 극히 불안한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진행되는 분쟁과 소요로 효과적인 국가재건 프로그램이나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내전으로 40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2,4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혼란을 겪었다.

2001년에는 지속되는 국내외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조제프 카빌라(Joseph Kabila) 정부가 수립되었다.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은 평화의 회복과 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반군지도자 및 주변 이해관계국들과의 평화 협상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지적 분쟁과 내전의 종결을 통한 평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 프리토리아 다자간 평화협정을 통하여 역내 평화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카빌라 대통령은 2005년까

지 과도정부 운영, 2006년 민주 합헌 정부 출범을 통하여 DR콩고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한 과도적 과정을 원만히 이끌어왔다. 또한 과도정부 운영 과정에서 마련한 “중간 빈곤경감전략(Interim PRSP 2002)”,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계획(PEG 2002~2004)”, “경제재건을 위한 다부문 긴급 프로그램(PMURR 2004)”의 시행으로 긴급 경제 복구 및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카빌라 정권의 출범과 함께 2006년부터 시행된 “빈곤완화 및 성장전략(PRGSP-I 2006~2008)”은 ① 좋은 거버넌스 및 평과기반 구축, ②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 ③ 사회개발 촉진, ④ HIV/AIDS 퇴치, ⑤ 지역사회 활성화 등 5대 과제에 역점을 두는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PRGSP-I에서 제시된 5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우선행동계획(Priority Action Plan: PAP)”과 “우선투자계획(Priority Investment Plan: PIP)”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DR콩고는 현재 PRGSP-I의 실행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제2차 빈곤완화 및 성장전략(PRGSP-II 2011~2015)”을 실행하고 있다. PRGSP-II는 기본적으로 PRGSP-I의 정책과 전략의 맥락에서 ① 정부 기능의 강화 및 효율화, ② 경제 성장과 거시경제의 안정, ③ 인적자본 강화와 사회 서비스 접근성 개선, ④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⑤ HIV/AIDS 퇴치 등 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PRGSP-I 이후의 전략인 PRGSP-II에서는 빈곤완화와 균형적이고 평등한 성장을 지향하는 ‘폭넓고 포괄적인(broad-based and inclusive)’개발 전략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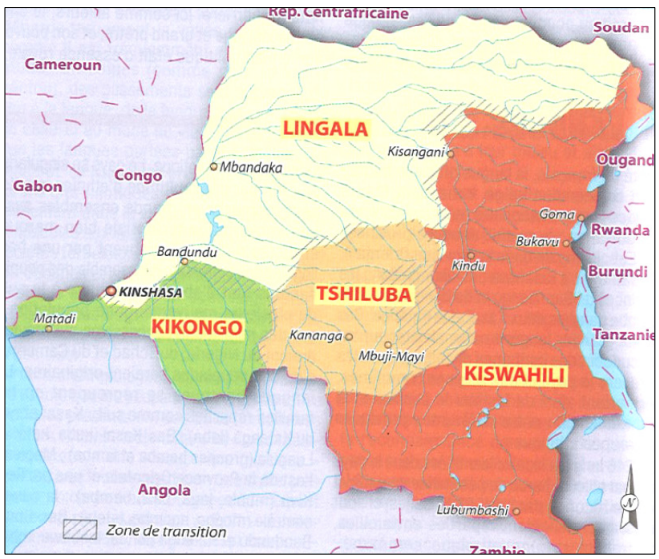
카빌라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정체성과 권위를 회복하고 역내 평화 정착 및 정치사회적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기구 등의 지원으로 마련된 빈곤 완화 및 성장 전략의 시행에 기반을 둔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성장의 시현을 통해 DR콩고 경제에 대한 신뢰와 발전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PRGSP-I에 대한 평가 결과, PRGSP-I의 달성률은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DR콩고는 2010년 7월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면제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국가개발전략을 보다 자주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DR콩고는 계속된 내전과 불안정한 동쪽(Orientale주 및 Nord Kivu, Sud Kivu지역)의 치안, 주변국 분쟁의 영향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AfDB, 2013). 2009년 3월에는 반군그룹 M23과 평화조약에 사인하였으나 2012년 이후 재점화된 갈등과 LRA군 등의 계속된 위협으로 현재까지 동쪽 지역에 2천6백 명 이상의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가 발생하였다. 그 후 2013년 12월 DR콩고 정부와 M23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14년 1월 M23 반군의 활동이 재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BBC News, 2013, Washington Times, 2014). 2013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난 쿠데타와 종교 갈등으로 난민유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난민의 수는 4만 8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에콰퇴르(Equateur)주의 우방기(Ubangi)지역과 오리엔탈(Orientale)주 바-우엘레(Bas-Uele)지역에 난민캠프가 형성되어 있다.

3. 종교, 민족, 사회, 문화

DR콩고의 종교는 가톨릭이 50%로 주를 이루며, 그 외 프로테스탄트 20%, 킴방귀스트(Kimbanguist) 10%, 이슬람 10%, 기타 토속신앙 10% 등이 있다. 민족은 2백여개 이상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반투(Bantu)족(Mongo, Luba, Kongo포함)과 망베투-아장드(Mangbetu-Azande)족(Hamitic)이 총인구의 45%를 이룬다. DR콩고의 공용어는 불어이고, 지역에 따라 링갈라(Lingala, 통용되는 무역언어), 킹와나(Kingwana, 키스와힐리 혹은 스와힐리의 방언), 키콩고(Kikongo), 취루바(Tshiluba) 등 크게 4개의 국어가 통용된다(그림 2-2). 이 외에도 국가 전역에서 약 2백여 개의 방언이 쓰이고 있다. DR콩고는 독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로서의 안정과 발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부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의식으로 뭉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지역별 언어 분포도



자료: Le Petit Futé: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2012)

DR콩고의 문맹률은 66.8%로 매우 높다(CIA World Factbook, 2010). 또한 2010년 기준 초등교육 이수율은 53.2% 수준에 불과하며, 15~24세의 문자 해독률은 65.3%에 불과하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경제개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개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2006년에 아프리카연합(AU)이 GDP의 1%에 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한 바가 있으나 공공부문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DR콩고의 경우 정부 지출에서 과학연구비의 비중은 2010년 기준 0.3%에 불과하다.

4. 경제여건

<표 2-1> DR콩고의 경제성장(200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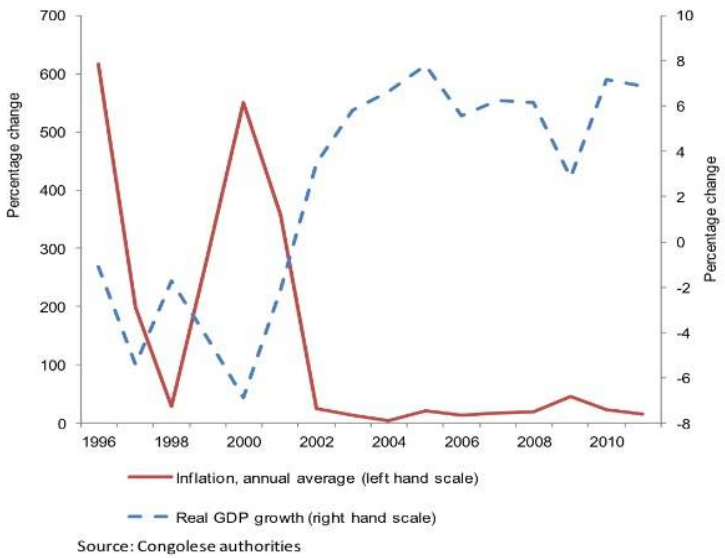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GDP (USD)	11,204,008,249	13,138,775,753	15,700,470,460	17,203,980,743
GDP 성장률 (연간, %)	3	7	7	7.2
1인당 GNI, PPP	330	340	360	390
인플레이션율 (%)	-	26.2	15.4	6.4

자료) World Bank, CIA World Factbook 재구성

DR콩고는 내전기간 동안 연평균 -4.5%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03년 정치적 안정 이후 연평균 6.2%의 GDP 상승률을 보였다(IMF, 2013).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타격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0년부터 구리, 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의 성장률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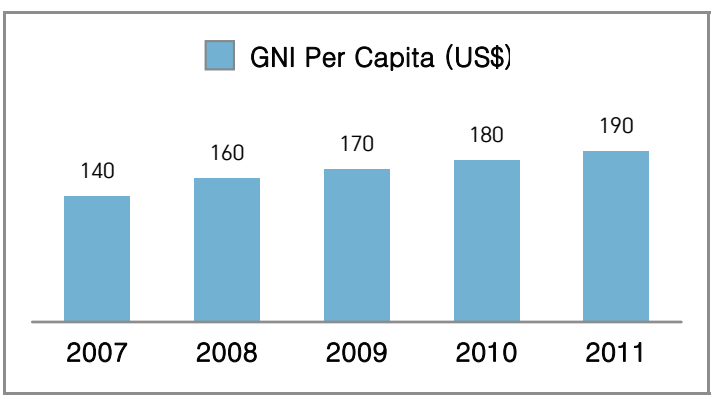
DR콩고의 국가 재정은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므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재정 관리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정부 통치력이 여전히 미약하고 세금수익도 30%로 낮다(CIA World Factbook, 2012). 또한 오랜 내전으로 인한 기간시설의 손상 혹은 부재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된 환율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한 자리수로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불안정하여 물가안정이 주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IMF, 2013).

[그림 2-3] GDP 성장과 인플레이션 추이(199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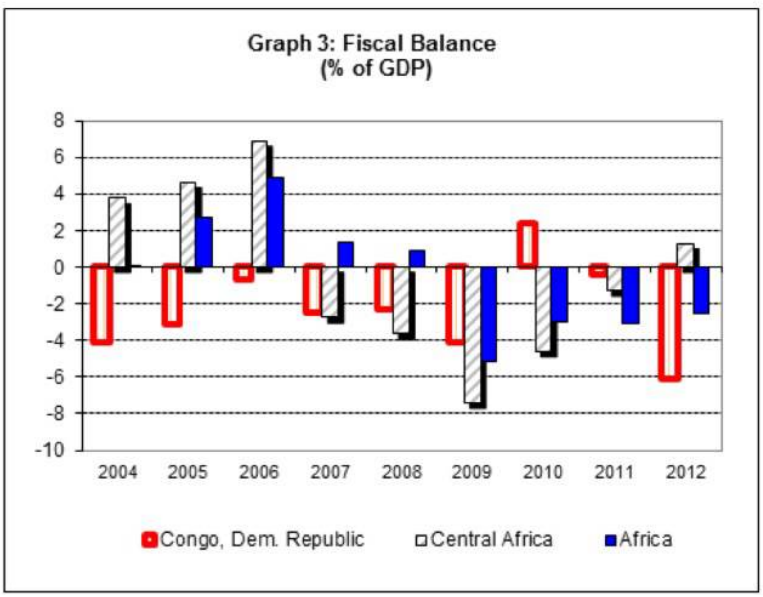
자료) IMF Working Paper, WP13/226

[그림 2-4] DR콩고 GNI per capita 추이



자료)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13

[그림 2-5] DR콩고 및 아프리카 재정수지균형 비교



자료) ADB Statistics Department, March 2013 PEA

<표 2-2> DR콩고 인구와 노동인력규모 변화 추이

	인력규모 (백만 명)				연간 성장률 (%)		
	1998	2003	2008	2013	1998-2003	2003-2008	2008-2013
총인구	47.37	54.10	62.48	71.42	2.69	2.92	2.71
농업인구	29.92	32.79	36.36	39.81	1.85	2.09	1.83
총노동인구	18.02	20.49	23.56	26.80	2.6	2.83	2.61
농업노동인구	11.38	12.42	13.71	14.93	1.76	2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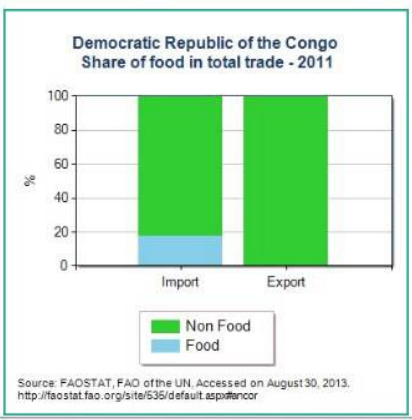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site/550/default.aspx#ancor

가. 산업 및 무역

DR콩고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업으로 전체의 46.3%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공업이 20.8%, 서비스업이 32.9%를 차지한다. 주요 생산 농산물은 커피, 설탕, 팜오일, 고무, 차, 면, 코코아, 퀴닌(quinine), 카사바(manioc), 바나나, 플렌테인 바나나(plantain), 견과류, 옥수수, 과일 등이다. DR콩고는 광물자원(코발트, 구리, 니오븀, 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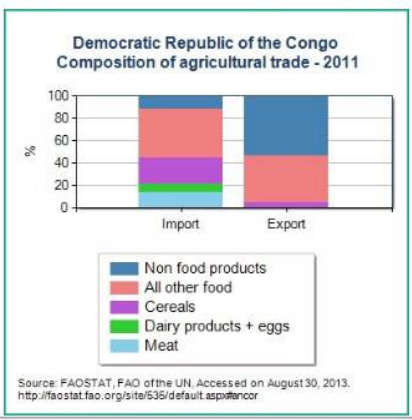
탈륨, 다이아몬드, 금, 은, 아연, 망간, 주석, 우라늄, 산호) 및 수자원, 목재 등도 풍부하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2억 4천 캐럿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매장량의 26%를 차지한다. 코발트는 세계매장량의 50%인 450만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콜탄은 세계매장량의 75%를 점하고 있다. 노동인구는 2013년 기준 2,680만 여명으로 추정되었다. 총 노동력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나, 광업과 무역이 GDP의 각 12%, 22%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더 중시되고 있다.

[그림 2-6] DR콩고 무역의 식량 비중(2011)



자료) FAO STAT

[그림 2-7] DR콩고 농업 세부무역분야(2011)



자료) FAO STAT

DR콩고의 기업을 살펴보면, 중·소규모 기업이 총 민간부문의 80%를 차지하며 수도인 킨샤사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은행 시스템이 열악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IMF, 2013). 또한 에너지 조달의 어려움 및 낮은 노동생산성, 기술력이 낮은 산업 경쟁력도 DR콩고의 산업 발전에 큰 장애 요소이다(AfDB, 2013). 이러한 민간기업의 대부분은 광업에 집중하고 있다.

DR콩고의 총 수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88억 7,2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다이아몬드, 구리, 금, 코발트, 목재, 원유, 커피 등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같은 해 기준으로 중국 54%, 잠비아 22.6%, 벨기에 5.7% 등이다. 총수입액은 81억 8,700만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식량, 광업 자재, 교통 수송 장비, 연료 등이다. 주요 수입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22.3%, 중국 15.3%, 벨기에 8%, 잠비아 6.9%, 짐바브웨 5.6%, 프랑스 4.9%, 케냐 4.7%이다(CIA World Factbook, 2014).

5. 빈곤

DR콩고의 빈곤율은 AfDB가 하루 소득 2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95%로 매우 높다. CIA에서 2006년에 각국 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발표한 빈곤율은 71%였다. 2013년 기준 기대수명은 56.14세이다. DR콩고의 영아사망률은 2013년 기준 천명 당 74.87명이며, 이는 세계 12위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모자사망률은 2010년 기준 10만명 중 540명이다. 이처럼 높은 사망률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및 말라리아, 기타 질병과 낮은 보건위생수준으로 인한 것이다. 2012년 기준 HIV/AIDS 유행률은 1.1%로 추정되었다(WFP, 2014). <표 2-3>은 DR콩고와 다른 개발도상국들 간의 빈곤 관련 지수 비교이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DR콩고의 상황이 대단히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과 비교한 DR콩고의 빈곤 관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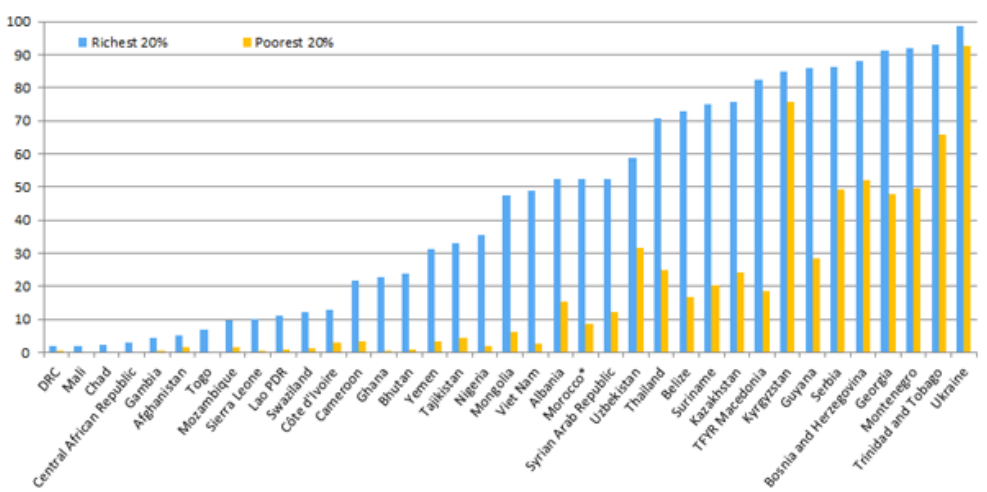
지표		DR콩고	최빈곤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간개발지수 (HDI)	2012	0.304	0.449	0.475
다차원적 빈곤 지수 (2012 HDI rank)	2012	186		
1인당 GDP (2005 PPP US$)	2011	329	1,621	
HIV 감염률 (%, 15~49세)	2012	1.1	2.3	4.7
기대수명	2012	50	62	56
영아사망률 (천명 당)	2012	100	56	64
영양결핍인구 (%, 5세 이하)	2006-12	24.2	21.8	20.8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비율 (%)	2012	31	37	30
향상된 식수원 사용 인구비율 (%)	2012	46	69	64
성인 문해율 (%, 15세 이상)	2010	66.8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Databas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R콩고의 빈곤 감축 및 경제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소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한 식량수급이다. 지방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이 식량 수급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약 640만명이 식량 불안정(food insecure)상태에 처해있다. 1인 당 열량 섭취량은 FAO 권고량인 2,500kcal에 훨씬 못 미치는 1,500kcal이며 인구의 23%는 비 전분류의 식량을 섭취하고 있다. 또한 5세 이하 유아의 반 이상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북부 키부(North Kivu) 지역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식량안보 위협상태에 처해있으며, 이는 2012년의 10명 당 3명의 수치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 결과 DR콩고는 2012년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와 IFPRI의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 최하위권(178개국 중 177위)에 랭크되었고, 포괄적 급성 영양실조(GAM) 또한 11%로 WHO에 의해'심각함'등급을 받았다(WFP, 2014).

가장 심각한 것은 극심한 빈곤이 인간 개발 중 어린이 교육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표는 집에 어린이 책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 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DR콩고는 사하라이남 지역에서도 어린이 책 보유량이 가장 낮은 국가다.

[그림 2-8] 국가별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어린이 책을 보유한 가구 통계



자료) UNICEF(2012) global databases, based on MICS, 2005~2011

본 통계는 DR콩고 가계 지출 중 교육분야의 지출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수입의 대부분이 식량 구입과 관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식량이 DR콩고 가계 지출의 62.3%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빈곤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IMF, 2013). 또한 DR콩고의 주요 재배 농작물이 수출을 위한 환금성 작물로, 식량의 1/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 식량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표 2-4> 농업생산 현황

(단위: 천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카사바	14.951	14.974	14.989	15.004	15.019	15.034	15.049	–
옥수수	1.155	1.155	1.155	1.156	1.156	1.156	1.156	–
바나나	486	487	488	489	490	490	491	–
땅콩(in shells)	364	368	369	369	370	371	371	–
쌀	315	315	316	316	317	317	317	–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site/550/default.aspx#ancor

2009년 WFP는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420만 콩고인들에게 식량을 보급하였는데 그 중 최소한 40%는 이른바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로 불리는 국내 실향민이었다. 이들은 내전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쫓겨난 이들 혹은 내전 후 돌아온 이들이며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DR콩고에서의 식량 안전 문제는 <표 2-5>와 같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USAID, 2010).

<표 2-5> DR콩고 식량 위기 유형

유형	분쟁 연계형 식량 불안정	영양, 위생, 가계 연계형 식량 불안정	만성적 식량 불안정	간헐적 식량 불안정
특징	주로 내전 등의 갈등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주로 발생함.	식량이 충분할 경우조차 비효율적인 식량 이용권에 의하여 발생함.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나타나는 빈곤임. 동일한 지역에서도 다른 층위의 식량불안정 문제 발생 가능함.	비정기적인 기상이변,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야기되는 간헐적 식량 문제임.

첫째, 갈등 연계형 식량 불안정 문제는 주로 북·남부 키부(Nord and Sud Kivu), 에콰퇴르(Equateur)주 동고(Dongo)지역, 오리엔탈(Orientale)주 동북부의 오-우엘레(Haut-Uele)지역에서 발생한다. 북부 키부(Nord Kivu)는 르완다 투치 민족 인민 군대(CNDP)의 반란으로 발생한 110만명의 이주민들에 의한 분쟁, 남부 키부(Sud Kivu)는 르완다 해방을 위한 민주 무장(FDLR)과 르완다 군대, 콩고 무장군(FARDC) 그리고 UN 평화유지군 사이의 분쟁 문제로 인하여 2009년 발생한 60만명의 이주민에서 식량 안정 문제가 발생 하였다.

둘째, 영양, 위생, 가계 연계형 식량 안정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① 가계 내 집중된 권력으로 인하여 돈과 식량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히 분배되지 않는 경우, ②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주요한 영양 요소들의 부족, ③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인 질병. 2007년 DR콩고의 인구, 건강 조사(EDS)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체중 미달 및 발달 지체 인구는 40% 가량 되며 카사이(Kasaï)주, 카탕가(Katanga)주 그리고 에콰퇴르(Equateur)주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셋째, 만성적 식량 불안정현상은 심지어 DR콩고의 가장 안정적인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개인의 역량 부족과 국가의 거버넌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식량 생산과 구입 모두가 어려운 현실은 DR콩고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넷째, 간헐적 식량 불안정은 최근 급속히 늘어난 기후 변화에 의하여 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강수에 의존해야 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후 변화는 대단히 큰 식량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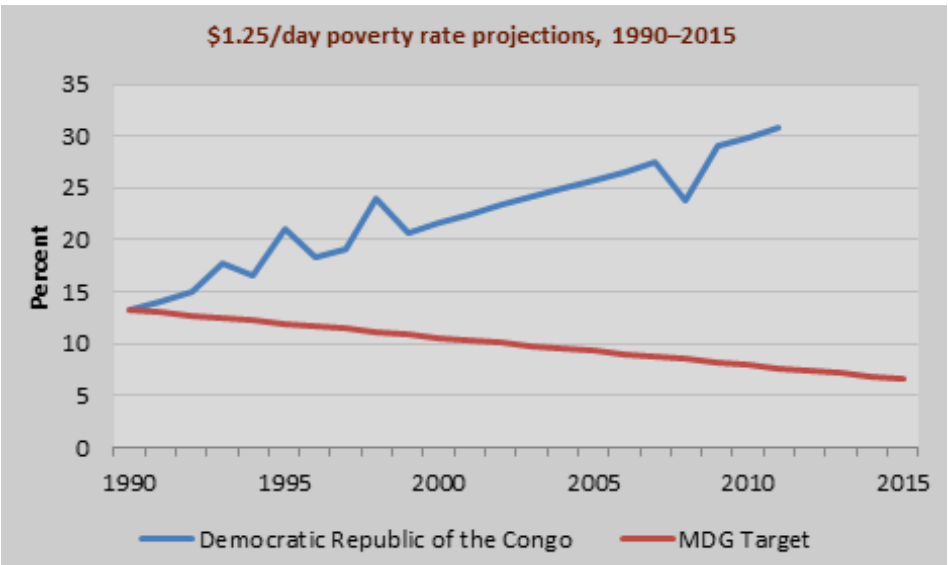
<표 2-6> DR콩고의 식량 불안정의 조건과 결과

구분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	간헐적 식량 불안정	식량 안정
조건	0.5ha 미만의 토지 소유, 토양 척박, 기후 난조건임.	1.5ha 미만의 토지 소유, 토양과 기후가 좋음.	5ha 이상의 토지 소유, 토양과 기후가 좋음.
결과	식량 생산이 충분치 않고 소득 창출이 어려움.	일반적으로 식량생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소득 창출은 어려움.	상업적 생산이 가능함.

자료) USAID(2010), AgCLIR: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가장 심각한 문제는 DR콩고의 이러한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2-9]는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DR콩고의 빈곤선 이하의 주민들의 분포도를 새천년개발목표(MDG)와 비교한 것이다. 2012년 현재까지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보고 있다.

[그림 2-9] DR콩고 빈곤율 예상도(1990~2015)



자료) ReSAKSS(2013), based on World Bank(http://www.resakss.org/region/congo-dem-rep/mdg-targets)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제3장
농업 · 농촌여건과 개발현황



제1절 농수산 및 농촌 개발의 여건

1. DR콩고 농업·농촌개발의 의의 및 중요성

DR콩고는 농업발전에 유리한 자연환경으로 농업성장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국가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인식하고 DR콩고 농업·농촌부문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DR콩고 정부도 2012년 주요 개혁 정책 중 하나로 농업발전을 꼽는 등 농업·농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3-1>에 나타나 있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살펴보면, DR콩고의 농업 GDP는 2012년 기준 약 72억달러이며, 이는 전체 GDP의 약 45%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같은 해 기준으로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2] 이는 DR콩고 농업·농촌개발이 빈곤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 DR콩고의 농업 GDP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 GDP	100만 달러	4,386	4,925	5,123	5,824	6,830	7,181
농업 GDP 성장률	%	3.3	3.0	3.0	3.0	3.0	3.0
농업 GDP 비중	%	45.9	44.1	47.4	46.1	45.5	44.9

자료)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country)

2) DR콩고 정부 자료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0%이상이라고 함.

<표 3-2> DR콩고의 농업인구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인구	만명	5,719	5,882	6,049	6,219	6,393	6,571
인구 증가율	%	2.8	2.8	2.8	2.8	2.8	2.7
농촌 인구	만명	3,878	3,959	4,040	4,122	4,202	4,282
농촌 인구 증가율	%	2.1	2.1	2.0	2.0	1.9	1.9
농촌 인구 비중	%	67.8	67.3	66.8	66.3	65.7	65.2

자료)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country)

Thirtle et al.(2001)의 연구는 DR콩고의 농업발전과 빈곤 감소 간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0%의 작물 생산량 증가는 하루소득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 인구 수를 5~10% 감소시킬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 10%의 생산량 증가로 절대빈곤 인구의 7.2%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10%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을 때 4.8%와 1%의 빈곤 감소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와 비교하였을 때, 아프리카에서의 농업 생산성 증가는 상대적으로 빈곤 감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아프리카 개도국들의 농업 무역이 1.5조 달러의 GDP 증가와 더불어 3억 2천만 명을 빈곤의 늪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De Janvry와 Sadoulet는 아프리카 농업 성장이 빈곤층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농업 고용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10%의 생산성 증가는 농촌 빈곤층 인구 수익에 7.6%의 증가를 가져온다(De Janvry and Sadoulet, 2002). 세계은행은 농업 개발이 식량 가격과 식량 안정에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지역 단위에서 생산되는 주식 곡물은 주로 동일 지역에서 소비되곤 하는데, 농업발전에 따른 시장 시스템과 인프라 개발은 타 지역의 곡물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식량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며 또한 도시 지역 빈곤층에도 일상적으로 용이한 식량 수송을 통한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World Bank, 2006).

DR콩고의 농업 생산물 수출은 경제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DR콩고의 농업 수출은 거의 전무하며 내전 전 수준보다도 낮다. 따라서 농업 수출은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둘째, DR콩고의 경우 농업은 서비스 산업이나 2차 산업보다도 더 전망이 밝다. 농업은 여전히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980~1990년대 2.5%, 1990~2002년의 0.3%의 성장률로 1980~1990년대 1.6%의 증가를 가져온 2차 산업 보다도 그 비중이 크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동일 기간 내 1.3% 그리고 10.5% 성장이 있었다. 셋째, 농작물 그리고 축산 생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익률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농산물 수출은 DR콩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생산물의 질 향상과 규격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DR콩고 농업 개발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키부(Kivu)에 집중되어 있던 대규모의 상업적 농업은 1970년대에 붕괴되었고, 2012년 기준으로는 생계형 농장이 대부분이다. 그 이후에도 DR콩고의 농업발전은 90년대 내전으로 인한 도로, 전력시설 등의 파손으로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현재에도 농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내전 직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세계은행 PRSP는 DR콩고 농촌 빈곤의 핵심요인으로 생산요소(자본, 농업 투입요소, 기술지원)의 결핍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수자원 부족, 교통 인프라 부족, 치안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DR콩고의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식량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600만 명 정도가 식량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식량가격의 50% 상승은 국가차원에서 빈곤발생률을 5%까지 증가시킨다(World Bank, 2008).

2. DR콩고의 농업·농촌 환경

가. DR콩고의 지형 및 기후

DR콩고의 북부와 남부는 고원, 동부는 산악지형, 중앙 지역은 분지로 되어있다. 중앙분지는 거대한 열대우림이며, 남부 및 동부의 고원지대에는 사바나가 펼쳐져 있다. 국가 전체가 열대성기후로 고온 다습하며, 적도부근을 제외한 북부 및 남부지방에는 건기가 존재한다. 연평균 기온은 동부산간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약 25도이며, 연중 기온의 변화가 작다. DR콩고의 지리적 특징은 국토 중앙부의 적도를 기준으로 북부

와 남부의 기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북반구는 우기가 4~10월, 건기가 12~2월이고, 남반구는 우기가 11~3월, 건기가 4~10월이다. 이는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번갈아가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역에 따라 농업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 Kinshasa-N'djili의 강수량 및 기온(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수량	0	10.2	0	4.1	0	0	0	0	0	5.1	35.1	34
기온	26.2	26.7	26.4	26.3	26.1	23.7	23.5	24.5	26.3	26.4	26.2	25.8

자료) UN 식량농업기구 Climpag
(http://geonetwork3.fao.org/climpag/agroclimdb_en.php?act=:@&act2=0.2)

나. DR콩고의 토지 및 농지소유구조

DR콩고 국토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1%가 농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실제 경작면적은 약 680만 ha이다. 이 중 곡물 생산면적은 약 227만 ha이다. 이처럼 DR콩고에는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넓은 토지가 있어 농업성장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개간능력의 한계 등 낙후된 농업기술로 1인 당 경지면적은 0.1ha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 노임은 하루 1~2달러 수준이다.

DR콩고 토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산림면적이 국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면적은 150만 km^2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국토의 약 68%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중 약 15%는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산림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벌목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KOICA, 2010).

<표 3-4> DR콩고의 농업면적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 면적	천㎢	257	257	257	258	258
농업 면적 비중	%	11.3	11.3	11.4	11.4	11.4
경지 면적	천ha	6,700	6,750	6,790	6,800	6,800
1인 당 경지면적	ha	0.12	0.11	0.11	0.11	0.11
곡물생산면적	천ha	1,976	1,977	1,979	1,980	2,273
영구작물 재배 비중	%	0.3	0.3	0.3	0.3	0.3
산림면적	천㎢	1,551	1,548	1,544	1,541	1,538
산림면적 비중	%	68.4	68.3	68.1	68.0	67.9

자료) World Bank(http://data.worldbank.org/country)

DR콩고 토지관련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국가를 유일한 토지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국가기관에 토지 사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토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족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부여받은 토지사용권은 행정 상 토지소유권 설정 시 증빙서류로 활용된다. 이처럼 이중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는 농촌 거주 및 농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농지 사용의 경우 최대 25년간 임대 형태로 사용하며, 재연장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와 같다고 볼 수 있다(KDS and KOICA, 2011).

다. DR콩고의 수자원 현황

DR콩고는 넓은 국토뿐만 아니라 수자원도 매우 풍부하여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간 강수량이 1,500㎜ 이상으로 연간 이모작을 하기에 충분하며, 작종에 따라서는 삼모작도 가능하다. 이처럼 강수량이 풍부하다보니 농민들의 대부분이 자연강우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관개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 따라서 <표 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댐 용량이나 농업용수 이용량이 매우 낮으며, 실 관개면적도 약 6,800ha에 불과하다.

<표 3-5> DR콩고의 농업용수 이용 현황

구분	단위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연도	관측치	연도	관측치	연도	관측치	연도	관측치
연간 강수량(depth)	㎜	1997	1,543	2002	1,543	2007	1,543	2011	1,543
연간 강수량(volume)	십억㎥	1997	3,618	2002	3,618	2007	3,618	2011	3,618
강우지수(NRI)	㎜	1997	1,534	2000	1,571	–	–	–	–
댐 총용량	㎢	1995	0.0529	2000	0.0529	2005	0.0529	2008	0.0529
1인 당 댐용량	㎥	1995	1.141	2000	1.008	2005	0.8705	2008	0.7603
총수자원 이용량	십억㎥	–	–	2000	0.5841	2005	0.6836	–	–
농업용수 이용량	십억㎥	1995	0.083	2000	0.0719	2005	0.0719	–	–
관개용수 요구량	십억㎥	–	–	2000	0.0196	–	–	–	–
완전 관개관리 면적	천ha	1995	10	–	–	–	–	–	–
완전 관개관리 실면적	천ha	–	–	2000	6.8	–	–	–	–

자료) FAO(http://www.fao.org/nr/water/aquastat/main/index.stm)

3. DR콩고 농업 생산 현황

가. 농업 생산 현황

DR콩고는 토양생산력이 낮으며, 비료, 종자 등이 부족하여 농업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은 주로 가족노동을 이용한 화전 및 돌려짓기 방식에 의존하여 농지를 일구고 있다. 화전은 건기인 6~8월에 초원이나 사바나 지역에 불을 질러 9월 말 우기가 시작되면 파종하여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KDS and KOICA, 2011). 동물이나 기계를 이용한 농업은 10% 미만의 농민들만이 이용하고 있다(KOICA, 2010).

현재 DR콩고의 주요 농산물은 카사바, 사탕수수, 옥수수, 서류, 플렌테인 바나나 등이다. 과거에는 고무, 팜유, 차, 키니네 등의 농가공 산업이 발전하였으나 내전 등을 거치며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없다. 팜유는 2011년 수입액 기준으로 농산물 수입 11위로 21,052톤이 수입되었다(표 3-6).

<표 3-6> DR콩고의 주요 농산물 생산(2012)

순위	품목	생산량	생산액
		천톤	천달러
1	카사바	16,000	1,654,694
2	사탕수수	1,950	61,663
3	옥수수	1,200	155,439
4	서류	865	125,736
5	플렌테인 바나나	510	104,662
6	신선 채소	400	75,376
7	미탈각 땅콩	371	148,187
8	쌀	350	91,958
9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325	194,729
10	바나나	322	90,685
11	고구마	265	17,613
12	파파야	230	65,275
13	파인애플	205	58,434
14	팜유	200	87,011
15	오렌지	182	35,173
16	건조콩	125	69,882
17	수렵육	110	239,563
18	감자	100	13,081
19	얌	100	22,444
20	신선과일	90	31,413

자료) UN식량농업기구 (http://faostat.fao.org/)

나. 지역별 농업 현황

킨샤사(Kinshasa)지역은 근교농업의 특징을 보여준다. 수도 킨샤사라는 큰 소비시장과 인접하여 지리적으로 농산물 판매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킨샤사(Kinshasa)지역 농민들은 녹색 채소 재배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약 4만여 명의 농민들이 있다. 카사바, 바나나, 옥수수, 벼, 과일, 콩류 등이 주요 농산물이며, 현재 가축 사육이 증가추세에 있다.

바콩고(Bas-Congo)주는 DR콩고에서 유일하게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력발전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력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주변에 킨샤사(Kinshasa), 카빈다(Cabinda), 소요(Soyo) 등의 시장이 있다. 바콩고(Bas-Congo)라는 지명은 '콩고 강의 하류 낮은 지역'이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 등 농업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반둔두(Bandundu)주는 DR콩고 농업의 중심지로 수도인 킨샤사(Kinshasa)와 가까워 시장 접근성도 좋다. 육로뿐만 아니라 콩고강 등 수로와 연결된 운송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수도의 식량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카사바, 콩, 바나나, 고구마 등이 주요 생산 작물이다. 특히 반둔두(Bandundu)에는 최대 수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잉가(Inga)댐이 있어 유일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축산 등 시설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에콰퇴르(Equateur)주는 연중 비가 오는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커피, 카카오, 팜, 파라고무나무 등 수익성이 좋은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해외농업자본 진출에도 유리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에는 국가 전체 산림의 72%가 분포하고 있어 목재산업, 조림업 등의 발전 잠재력이 높다.

오리엔탈(Province Orientale)주는 DR콩고 북동쪽의 가장 넓은 주로 금, 철, 다이아몬드, 석유, 산림, 수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빈곤한 주 중 하나지만 커피, 카카오, 파라고무나무, 팜 등 수익성 있는 작물의 산업원료 생산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북부 키부(Nord-Kivu)지역은 농업에 유리한 기후와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경지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농업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작물은 바나나, 수수속, 땅콩, 강낭콩 카사바, 감자, 옥수수, 벼 등이며 커피, 차, 가나나무, 담배 등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목축이 유명하여 치즈 등이 생산되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남부 키부(Sud-Kivu)지역에서는 주로 바나나, 수수속, 땅콩, 강낭콩, 완두콩, 대두, 옥수수, 벼 등의 식량작물이 재배된다. 키부(Kivu)산악지대가 있어 가축사육 및 채소 작물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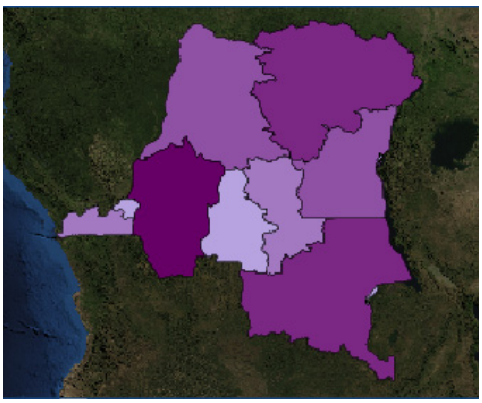
마니에마(Maniema)지역은 과거 DR콩고의 곡장지대였다. 북부에서는 카카오, 커피, 팜 등이 재배되고, 남부에서는 면화, 커피, 식량작물이 재배된다. 식량작물로는 벼, 옥수수, 카사바, 땅콩, 바나나 등이 재배되는데,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할 만큼 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다년성 작물로 로부스타 커피, 면화, 팜, 파라고무나무, 시트로넬 등이 키봄보(Kibombo), 루부투(Lubutu)지역에서 재배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카탕가(Katanga)지역은 천연지하자원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코발트, 아연, 구리 등 천연지하자원이 풍부한 DR콩고 제1의 광산지역이며, 주요 작물로는 옥수수, 카사바, 땅콩 등이 있다. 농업개발이 활발한 잠비아와 접근성이 양호하여 무역을 통한 농업의 발전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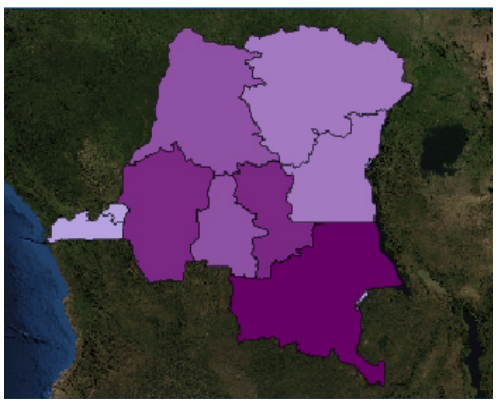
동부 카사이(Kasaï Oriental)지역은 전통적으로는 농업이 주가 되는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다이아몬드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곳의 다이아몬드는 산업용이며,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옥수수, 카사바, 벼, 강낭콩, 바나나 등의 식량작물이 생산되고, 산림지역에서는 팜유가 많이 생산된다. 남부의 사바나 지역에서는 목축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 카사이(Kasaï Occidental)는 DR콩고의 남중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콩고 중앙분지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평지에 속한다. 주요 재배작물은 옥수수, 카사바, 벼, 강낭콩, 바나나 등이며 특히 교통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주민이 고립되어 거주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은 물론 주민들의 이동도 어려운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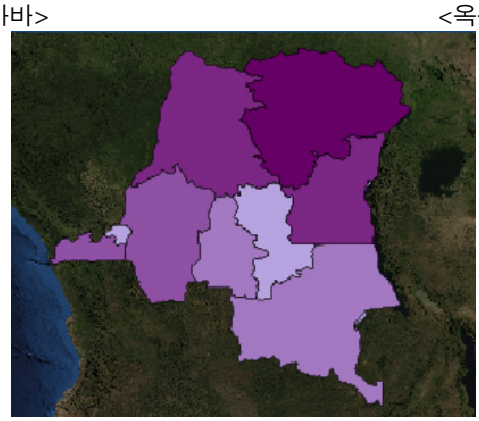
[그림 3-1] DR콩고 주요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GIS



<카사바>



<옥수수>



<플렌테인>

자료) UN식량농업기구 (http://kids.fao.org/agromaps/)

4. DR콩고 축산업 현황

DR콩고의 축산업 또한 내전의 악영향으로 가축의 수, 생산량 모두 크게 감소하여 그 후 큰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DR콩고의 축산업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형태는 염소, 양, 돼지 등의 가축을 전통적 형태의 소규모로 키우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축사나 수의사 등이 없이 행해지고 있다. 두 번째 형태는 근대적인 집약목축업의 형태로, 이는 선교사들이나 일부 민간 기업농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UN식량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DR콩고에는 2012년 기준 젖소 9,200두, 소 74만 5,000두, 돼지 100만두, 염소 406만 5,000두, 양 90만 5,500두가 있다(표 3-7). 목초지는 현재 기르고 있는 가축의 약 6배를 더 수용할 수 있으나, 목초지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육류 부족은 연간 13만톤으로 추산된다(KOICA, 2010).

<표 3-7> DR콩고의 주요 축산물 생산

품목	구분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우유	가축수	두수	8,676	9,032	9,100	9,100	9,200
	생산량	톤	6,788	6,863	7,500	8,000	9,000
	단수/도체	Hg/두	7,824	7,599	8,242	8,791	9,783
닭고기	가축수	천두	19,948	20,007	20,067	20,128	20,500
	도축수	천두	17,753	17,806	17,860	17,914	18,200
	생산량	톤	10,737	10,760	10,796	10,828	11,500
	단수/도체	0.1Gr/두	6,048	6,043	6,045	6,044	6,319
소고기	가축수	두수	752,630	751,200	749,779	748,349	745,000
	도축수	두수	79,251	79,100	67,480	67,352	69,200
	생산량	톤	12,340	12,320	12,200	12,260	12,000
	단수/도체	Hg/두	1,557	1,558	1,808	1,820	1,734
돼지 고기	가축수	두수	965,130	967,160	977,379	981,104	1,000,000
	도축수	두수	542,188	545,613	537,896	539,024	549,000
	생산량	톤	24,010	24,060	24,100	24,160	25,000
	단수/도체	Hg/두	443	441	448	448	455
염소 고기	가축수	두수	4,046,100	4,046,100	4,052,169	4,058,237	4,065,000
	도축수	두수	1,601,771	1,604,173	1,580,346	1,600,000	1,624,000
	생산량	톤	17,753	18,620	18,650	18,680	19,000
	단수/도체	Hg/두	111	116	118	117	117
양고기	가축수	두수	902,270	903,170	904,080	904,984	905,500
	도축수	두수	279,974	280,254	280,263	280,543	287,000
	생산량	톤	2,810	2,820	2,850	2,840	2,900
	단수/도체	Hg/두	100	101	102	101	101
수렵육	생산량	톤	89,055	89,160	110,100	110,100	110,100
계란	도축수	천두	2,798	2,800	2,850	2,850	2,900
	생산량	천개	214,000	249,000	254,000	254,000	257,000

자료) UN식량농업기구 (http://faostat.fao.org/)

5. DR콩고의 수산업 현황

DR콩고의 수산업은 전통적인 형태로 강, 호수, 대서양 연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수산자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편으로 연간 생산가능규모는 70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1년에는 이 수치의 30%에 불과한 22만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인당 연평균 4kg의 소비량에 해당하는데, 이는 국제 권장 소비량인 연간 36kg에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3)]

3) 이후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음.

제2절 농업·농촌개발 정책과 추진현황

1. 농업・농촌개발 계획과 정책

가. 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NIA)

DR콩고 정부는 사회적 문제, 공공 협의, 정보 공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농업발전이 국가 경제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 생산성이 좋은 토지 이용이 원활해지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농업 기술, 농업 다양성, 효율적인 농산물 가공 등에 대한 접근이 원활해지면 이는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소규모 농민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어 농민 소득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DR콩고 정부는 이처럼 농업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효율적인 농업 정책이 사회적 화합, value chain에 따른 다양한 생산자 조직 간의 상호 교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양성 평등,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 등 중요한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NIA는 이러한 DR콩고의 희망이 집약된 국가 계획이다(Goldberg 외, 2013).

1) PNIA의 목표

PNIA는 DR콩고의 농업 면적을 7,500만 ha로 추정하여 농업 GDP를 6% 상승시켜 농업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NIA는 가치사슬 발전에 기반한 농업과 비농업분야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장전략으로서 적용 범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PINA 하에서 농업 및 농촌 투자는 다음과 같은 성장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식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부문 발전과 농민 및 기타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업의 발전
- 연구개발 향상과 연구개발 결과의 이해관계자 공유
- 인력과 기관의 능력 향상 및 통합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영향력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취약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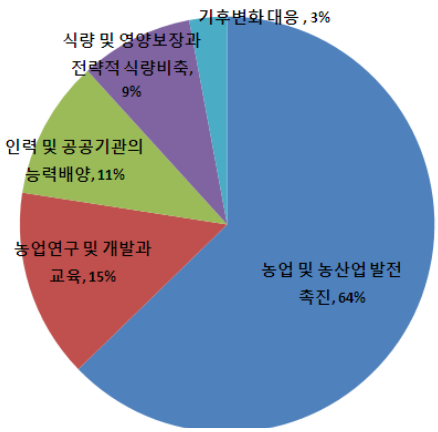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NIA는 총 5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18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하위 프로그램들은 6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PNIA 프로그램들의 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들에 좌우된다.

① 농업 발전과 관계된 공공 및 민간의 역할과 통치력
② 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투자 계획의 효율적 활용
③ Value chain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과 농산업의 근간 마련
④ 성평등과 Good Governance의 주류화
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력 양성
⑥ 사회적·환경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노력 등

PNIA의 2013~2020년 예산은 57억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64%)을 차지하는 부분은 농업 및 농산업 발전 촉진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으로 농업 연구 및 개발과 교육, 인력 및 공공기관의 능력 향상, 식량 및 영양 보장과 전략적 식량비축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3%를 차지한다(그림 3-2).[4)]

4) DR콩고의 PNIA를 평가한 NEPAD 보고서에 따르면, DR콩고는 농촌 인프라, 특히 농촌지역의 식수와 에너지 공급, 농산업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NEPAD(2013).

[그림 3-2] PNIA의 프로그램별 예산 배정



자료) DR콩고 정부, 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2013~2020 재구성

DR콩고 정부는 국가 투자가 인구 전망과 일직선상에 있다고 보며, DR콩고 인구는 2020년에 8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국가 예산의 약 10%를 농업, 연구, 교육 등을 관장하는 부서들과 지역정부들의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투자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 부문 교육·연구·지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불안정으로 인한 국립농학연구소(INERA)와 같은 농업연구의 주무기관들의 운영문제나 역량 부족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콩고정부의 예산지원 약속은 주목할 만하다.[5)]

2) PNIA하 기관간 협력

PNIA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서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타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농업부는 대체로 이러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영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반면 기관별 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재무부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DR콩고의 경우 재무부, 포트폴리오부, 광업부, 교통부, 농업부, 토지부와 국유 기업의 개혁을 관장하는 위원회인 COPIREP(Comité de Pilotage de la Réforme des Entreprises du Portefeuille de l'Etat)가

5) NEPAD 보고서는 INERA와 같은 연구기관들이 최근 몇 년간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인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많은 연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기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간 협력은 농업 및 농촌개발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농업 및 농촌개발부를 중심으로 하는 GT15(Groupe Thématique 15)는 농업 및 농촌 발전, 프로그램 계획과 수정, GIBADER(Groupe Inter-Bailleur Agriculture et Développement Rural), 생산자 조직, 비정부 조직, 민간 부문의 대표 등을 관리하고 관장한다. 그 아래 분과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관장하고 다양한 지역별 위원회가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관별 협력관계는 관계 부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GECAMINES[6]와 같은 국유 기업이나 다국적 채광기업에서 출발한 민간 부문, NGO 등이 모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같은 공여 기관이나 다국적 개발기관들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부처 내의 사무국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간 협력과 조화를 위한 책임을 갖는다. 이처럼 세부적인 협력 관계는 대부분 프로그램의 예산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편성되므로 프로그램의 타당성, 효율성,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New Agricultural Laws[7]

DR콩고는 PNIA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농업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사회·환경적 측면 통합, 농업 생산 및 자급자족 촉진, 투자의 중요 근간 마련을 위한 농산물 수출 촉진, 지역 부가가치 창출 촉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 도입 등을 통한 농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법안에 포함된 토지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이 법안에 명시된 토지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자급농민과 부유한 전문 농민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하였다. DR콩고의 소규모농가 연합은 언론을 통해 이 법안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어떠한 식량안보도 제공하지 못하며, 도리어 부유

6) La Générale des Carrières et des Mines: 콩고 국유 금속·광물거래회사
7) Loi Portant Principles Fondamentaux Relatif à l'Agriculture(2011)

한 농민이나 농산업 기업들의 이득을 위해 농민들이 토지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과 같은 인터뷰는 본 법안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Jeanne Botuli(Bas-Congo에서 채소 농장 운영): 우리 여성들은 10년 동안 아마란스, 당근, 양파와 같은 채소들을 몇 평짜리 아주 작은 땅에서 키워왔다. 우리가 땅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이 없더라도 지방 정부는 오랫동안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이 법은 2011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R콩고의 대다수 농민들은 2013년에도 여전히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점유권에 대한 논란은 DR콩고 농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마미 마쿠제(Mamie Makuze)라는 변호사는 이 법안이 가난한 소규모 생산자들과 가족농들의 삶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Goldberg 외, 2013). 이 농업법은 토지개발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농민에게만 농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의 제41조는 만약 점유자가 임시 임대차계약에 서명한 이후 18개월 이내에 농토개발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가 땅을 되찾아 다른 지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들은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식적인 문서 없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DR콩고 사업자 연합 또한 이 법이 국가로 하여금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공식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생산을 저해시키고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1973년에 식민지로부터 강제 수용한 토지를 콩고인들에게 주었던 "Zairianisation"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규모 농민들은 농업발전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각 지역에 조직되어있는 농업 및 농촌 위원회가 사용하는 법률들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농민도 위원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이해관계를 보호받고 있다. 이처럼 개인 생산자, 생산자 연합, 소작농 연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국가가 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일부 상품의 생산

자 그룹이 ‘전국 낙농 발전 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위원회를 조직하여 농민들이 보호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소규모 생산자들과 소비자까지의 전체 가치사슬이 외부의 이해관계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위원회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낸다면, 이러한 지적들은 단순한 우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이 쉽지 않다. 이 법안이 농민의 삶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권리를 알지 못하는 농민들이 사는 농촌지역의 토지를 관리 할 수 있는 위원회의 능력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소규모 농민들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소규모 농민 연합회의 주장이다. 소규모 농민 연합회는 이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들이 소작농들이 오랫동안 토지를 점유하고 농사를 지을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소작농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DR콩고 정부의 2012~2016 행동계획 (Action Plan)

DR콩고의 농업 개혁은 두 번째로 발표된 Poverty Reduction Strategy and Growth Strategy Paper(PRGSP-II)라는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PRGSP-II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빈곤율을 71%에서 60%로 낮춘다는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PRGSP-II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Programme d'Action du Gouvernement 2012~2016).

- 정부 통치 강화 및 평화 유지
- 성장 가속화를 위한 경제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 기초 사회 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인재 역량 강화
-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이 행동 계획은 정부의 통치, 공공 자금 관리, 공공 행정의 현대화, 민간 주도 역량 강화, 인재 육성, 사회 기반시설의 격차 축소,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 서비스 전달 향상, 일자리 창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농업 및 농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원을 근간으로 하여 포괄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 행동 계획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행동 계획의 진행 속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주요 기관들, 민간 기업들, 공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 정부들 또한 행동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은 국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행동 계획 수행에 있어 각 참여 기관의 역할을 지정하고 정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행동 계획의 목표는 "경제 발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다각화"이다. 행동 계획은 세계은행의 FY2013-FY2016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CAS는 DR콩고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고용창출과 경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DR콩고 정부는 행동 계획의 일부로 5개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s)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SEZ는 투자자들이 토지, 현대화된 기반 시설, 투명한 규제 제도 및 재정 구조 등으로 기업을 운영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는 2013년에 SEZ법의 초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DR콩고 내에서 8개의 성장극(Growth poles)이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 이로 인한 수혜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주요 수혜 그룹
  - 개발부문에 관련된 민간 운영자들, 중소기업, 농민 단체,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 프로젝트 지역 부근의 투자자들과 주민

- 직접 수혜 그룹
  - 5만명의 농민(여성 40%)

- 10개의 대기업과 30개의 중소기업
-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 간접 수혜 그룹
  - 프로젝트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가족
  - 킨샤사(Kinshasa) 거주자: 보마-킨샤사(Boma-Kinshasa)를 잇는 성장극을 통해교통, 가공, 유통 및 물류 환경이 개선되어 더욱 저렴한 농산물 구입 가능
  - 각 성장극의 지역 정부: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

세계은행과 DR콩고 정부는 2013년 6월 Growth Pole 프로젝트를 집행하기로 합의하였다.[8] 사업 주요 요소는 ① 바콩고(Bas-Congo)지역 농업 가치사슬 개선, ② 말루쿠(Maluku)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개발, ③ 주도적인 비즈니스 개발, ④ 조정,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및 평가 등이며 2019년 8월까지 1억 1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사업의 원안은 말루쿠특별경제구역(Maluku SEZ)을 위주로 한 인프라 지원이 중심이었으며 말루쿠(Maluku)지역에서의 사업 타당성은 민간 기업, 조직들과의 협력으로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DR콩고 정부가 말루쿠(Maluku)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조사했을 때 보마(Boma)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거대 팜유 가공 회사인 COD(Congo Oil and Derivatives)를 비롯한 약 20여개의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목적은 무너진 팜유의 가치사슬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또한 COD는 네덜란드 개발기구(SNV)와 마타디(Matadi)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제 NGO의 지원을 통해 팜유 생산 농민들 조직과도 협상을 하고 있다. 이 NGO는 COD 및 팜유 생산 농민 조직과 함께 팜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① 가치사슬 내의 조직 지원, ② 기존 마을 농장의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킴페세(Kimpese)의 미곡 제분 기업인 FERONIA와 바콩고(Bas-Congo)의 농업 서비스 및 농기계 기업인 SEMAG과 같은 민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8) Western Growth Pole은 DR콩고 서부의 Matadi-Boma-Kinshasa-Kikwit을 연결하는 corridor임.

그러나 본 프로젝트의 사업 범위는 이후 확장되었다. 정부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계은행의 Western Growth Poles 프로젝트는 농업 발전 잠재력이 높고,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킨샤사(Kinshasa) 시장으로의 접근가능성이 좋은 바콩고(Bas-Congo)와 킨샤사(Kinshasa)지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카사바, 쌀, 팜유 등의 가치사슬에 따른 3가지 농산업 발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콩고(Bas-Congo)에서 이루어질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한 연구는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농업 생산의 10% 증가는 빈곤한 가정의 소득을 16%까지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8%, 가공 산업의 경우 12%로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농업 투입요소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 강화는 여성의 삶의 질과 식량안보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다. 농산업단지(Agricultural Business Parks)

농산업단지(Agricultural Business Park Corporation: ABPC)는 민관이 파트너십을 맺어 농산업에 초점을 맞춘 특별경제구역이다. 이 파트너십에는 다자기구, 민간 투자자, DR콩고 정부가 참여하여 중앙 및 지방에서 협력하고 파트너로는 IFC, MIGA, Valmont(Nebraska의 Omaha에서 관개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 Heartland Global(Iowa의 농산업 기업), SRD Research USA(농업부문 컨설팅 기업) 등이 있다. 초기 투자자들이 경영을 맡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가 가장 큰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 허브를 건설하여 소규모 농민, 지역 주민, 거대 농산업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근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ABPC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생산을 지원하며, 나아가 DR콩고가 다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걸쳐 농업 트레이닝센터, 지역 기반시설, 에너지 관련시설, 건강 센터, 주택, 교통 등에 5년 동안 약 15억달러가 투자되었다. ABPC의 지원은 소규모, 중간규모, 대규모 농장 모두에게 지원되며, 고객은 협동조합과 비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진다. 협동조합은 지역 농민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비협동조합은 천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농산업 인큐베이

터, 농산업 기업, 대규모 상사 등과 5~20ha의 토지를 소유한 소규모 및 중간규모 농민을 포함한다.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 집하장, 창고, 주차장의 발전과 이는 품질, 측정, 테스트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구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킴페세(Kimpese)에서 한 교회가 운영하는 트레이닝센터가 모델이며 이 센터는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최근에 일본 자금을 지원받아 업그레이드된 상태이다. 이 기관의 확장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2,5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그 중 92%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하루에 카사바를 5톤 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지역 생산 잠재력과 이 서비스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면 매우 부족하다. 농산업단지 프로그램은 Growth Poles initiative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DR콩고 정부는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농산업단지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전략적으로 농산업 투자자들과 생산자 조직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 농업·농촌개발의 현황과 과제

가. 농산물 수급 불균형

DR콩고의 주요 곡물 현황을 살펴보면 쌀과 밀의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8). 쌀은 조리가 편리하고 반찬이 없어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DR콩고 내에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쌀은 국내에서 20만톤 가까이 생산되고 있으나, 매년 10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밀은 DR콩고 농산물 수입에서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작물이며 국내 생산량은 만톤 이하이다. DR콩고 기후 등의 농업여건을 고려하면 쌀과 밀을 제외한 농식품류에 대한 자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내전 이후 농산물 자급이 급격히 어려워졌으며, 물류인프라 등도 파괴되어 지역 간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현재 DR콩고는 주식인 카사바를 제외한 각종 식량작물, 육류 등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8> DR콩고의 주요 곡물 수급

품목	구분	단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옥수수	수확면적	천ha	1,350	1,350	1,695	1,725	1,700
	생산량	천톤	1,200	1,250	1,345	1,425	1,400
	수입량	천톤	10	10	5	10	10
	수출량	천톤	0	0	0	0	0
	단수	톤/ha	0.89	0.93	0.79	0.83	0.82
쌀(정곡)	수확면적	천ha	420	420	420	420	420
	생산량	천톤	198	202	202	200	200
	수입량	천톤	100	115	110	125	115
	단수	톤/ha	0.75	0.76	0.76	0.75	0.75
수수	수확면적	천ha	10	10	10	10	10
	생산량	천톤	6	6	6	6	6
	단수	톤/ha	0.6	0.6	0.6	0.6	0.6
밀	수확면적	천ha	10	10	10	10	10
	생산량	천톤	10	10	10	9	9
	수입량	천톤	375	375	375	375	400
	단수	톤/ha	1	1	1	0.9	0.9

자료) 미농무부 (http://www.fas.usda.gov/psdonline/)

<표 3-9> DR콩고의 주요 축산물 수급

품목	구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돼지고기	생산량	천톤cwe	24	24	25	25	25	25
	수입량	천톤cwe	15	21	15	16	18	20
	국내소비량	천톤cwe	39	45	40	41	43	45
고기	생산량	천톤	11	9	11	11	11	11
	수입량	천톤	47	60	67	69	67	70
	국내소비량	천톤	58	69	78	80	78	81

자료) 미농무부 (http://www.fas.usda.gov/psdonline/)

나. 농산물 저장 및 가공

DR콩고 농민들은 초보적인 전통 저장방식으로 농산물을 보관한다. 즉 흙, 대나무, 팜나무 잎 등으로 만든 저장수단을 이용하거나 저장소에 옥수수, 쌀, 카사바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저장 체계와 야생동물이나 벌레, 습기, 바람 등으로 인해 농가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개별 농가에는 과일이나 채소 저장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가공업은 수도 킨샤사를 제외하고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현실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농업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R콩고에는 맥주제조회사 2개소, 제빵회사 1개소, 담배제조회사 1개소, 커피제조회사 1개소, 과일주스 제조회사 1개소, 조미료제조회사 1개소, 생수제조회사 3~4개소, 소시지 가공공장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들의 주식인 카사바의 경우 소규모 재래식 시설에서 제분하거나 가정에서 직접 가루를 내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도정은 마을단위 재래식 도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KDS and KOICA, 2011).

다. 농산물 유통

KOICA의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DR콩고의 농산물 취급상인은 크게 자가 수송수단이 없는 소규모 이동상인, 자가 수송수단을 가진 운송업자, 소매를 위한 지역사무소나 점포를 소유한 기업, 비영리 판매기관, 농업회사 등 다섯 부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운송 인프라가 열악하고 농산물 저장시설 등 농업관련 인프라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유통이나 물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토가 광활하고 인프라가 부족해 육로보다는 수로 혹은 항공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 많다.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관이나 재원의 결핍도 농산물 유통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는 대규모 농산물 유통회사가 은행대출을 받아 트럭을 이용하여 농산물 운송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내전 이후 신용대출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회사들은 유명무실해졌다. 지금은 5~6명의 상인이 그룹을 조직하여 임대 트럭으로 150~200km 거리 내 농산물을 구매하여 킨샤사 등 대도시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은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유통이 열악하다보니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 킨샤사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인 조직이 도매기능을 조금씩 수행하고 있으며, 킨샤사 시내 대형시장의 인접 주차장 등에서 중간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시장의 전부이다. 농촌지역에는 2~3개 부락 단위로 주 1회 소규모 7일장이 서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농산물 유통은 과다한 유통비용, 정보제한 등 많은 문제점의 원인이 되며, 농산물 가격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농산물 가격 격차는 농민이 대다수인 농촌지역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큰 격차를 발생시킨다.

라. 열악한 교통 시스템과 높은 운송비용

DR콩고의 교통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여 빈곤과 경제발전 저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DR콩고의 공항은 2백개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많지만, 25개 공항만이 포장된 활주로를 가지고 있다. DR콩고 전체 도로 15만 km 중 약 3천 km만이 포장되어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인구 5만명 규모의 도시로부터 소요시간이 5시간 이내인 범위에 거주하는 인구가 15% 미만이었으며, 이는 동항이 40%로 나타난 우간다와 케냐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상 이동 속도는 시간 당 약 3km로 추정되며, 이는 우기에는 더 악화되어 시간당 2km로 추정된다. 도로가 포장되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시간당 80km, 우기에는 46km로 이동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킨샤사(Kinshasa)와 주도(province capital)들의 교통 연결상황을 살펴보면 육로로는 5개의 주도인 반둔두(Bandundu), 카낭가(Kananga), 마타디(Matadi), 음반다카(Mbandaka), 음부지마이(Mbuji-Mayi)만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킨샤사(Kinshasa)에서 수로와 항공으로 접근가능한 곳은 키상가니(Kisangani)뿐이고, 부카부(Bukavu), 고마(Goma), 킨두(Kindu), 루붐바시(Lubumbashi) 등 4개의 주도는 항공으로만 접근이 가능

하다. 해로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무안다(Muanda)지역에 40km에 달하는 대서양해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니만으로 연결되는 콩고강도 이용할 수 있다(Goldberg 외, 2013).

지역 간 교통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빽빽한 숲과 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간의 문화 및 언어 차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DR콩고 인구의 약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1km²당 약 2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킨샤사(Kinshasa)주에는 1km²당 57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이촌향도와 행정기관 및 기반시설이 수도에 집중된 결과이다.

이처럼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 농산물 운송비용이 과다하게 늘어 비교적 운송이 쉽지 않은 농산물의 마케팅 비용도 증대시키고 있다. 킨샤사(Kinshasa) 대학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DR콩고의 주요 농산물인 카사바 가격의 49%가 운송비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DR콩고 내 육로 운송 시 1톤 당 1km 운송비용은 0.16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아프리카 평균 운송비용인 0.05달러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로의 경우 운송비용이 약 0.05달러로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송비용이 10% 감축되면 농산물 생산성이 6%까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거리와 농산물의 시장 가격 그리고 시장 경쟁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튀넨의 이론(von Thunen effect)은 DR콩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Thuenen, 2013). 과일, 채소, 카사바 뿌리, 카사바 시쾅(chikwangue), 카사바 잎, 토마토, 피멘토, 등 상하기 쉽고 가격이 높은 작물들은 비교적 운송거리가 짧다. 반면 카사바칩, 땅콩, 옥수수 등 비교적 잘 상하지 않는 작물들은 운송거리가 훨씬 길다. 평균 이동거리를 살펴보면 카사바 칩은 337km, 땅콩은 373km, 옥수수는 323km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거리가 평균 107km인 채소들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거리이다. von Thunen effect는 개별 상품의 이동거리 표준편차가 전체 상품의 평균 이동거리의 표준편차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카사바칩과 옥수수만이 환금작물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높은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열악한 교통시스템과 운송비용의 부담으로 큰 타격을 받는 소규모 농민들은 대규모 농장이나 농산업 기업들과 달리 도로를 수리하거나 유지할 자원이나 능력이 없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지를 농산물 집결지, 농산물 가공센터, 시장 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력과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 농산물 수출입

DR콩고의 농산물 수출은 1960년대 GDP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활발했으나 그 이후 감소해왔다. 반면 주식인 카사바를 제외한 각종 식량작물과 고기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주로 농업 생산 기반과 농산물 유통 관련 기반 파괴에 따른 지역 간 농산물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

수출액 기준 DR콩고의 농산물 수출 순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향신료, 커피, 담배, 밀가루, 팜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수입의 경우 같은 해 기준으로 밀, 밀가루, 닭고기, 원당, 전지분유 순으로 나타난다. 같은 해, 전체 농산물 수출액은 56,951천달러이고 수입액은 837,534천달러로, 780,583천달러의 농산물 무역 역조가 있었다.

<표 3-10> DR콩고의 농산물 수출(2012)

순위	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출량 순위	단가
		천달러	톤		달러/톤
1	향신료	18,000	3,868	5	4,654
2	커피생두	15,541	4,483	4	3,467
3	미가공담배	3,206	1,165	7	2,752
4	밀가루	3,061	14,064	1	218
5	팜유	2,973	13,350	2	223
6	건조천연고무	2,630	831	8	3,165
7	밀겨	2,374	12,001	3	198
8	원당	2,300	3,500	6	657
9	코코아생두	2,274	818	9	2,780
10	팜핵유	1,200	800	10	1,500
11	절임채소	1,196	593	11	2,017
12	담배	969	213	14	4,549
13	신선채소	428	192	16	2,229
14	염장소고기	404	432	12	935
15	밀가루	100	430	13	233
16	식가공품	96	53	17	1,811
17	차류	90	35	19	2,571
18	냉동채소	55	29	20	1,897

순위	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출량 순위	단가
		천달러	톤		달러/톤
19	맥주	38	9	21	4,222
20	사료용씨꺼기	16	45	18	356

자료) UN 식량농업기구 (http://faostat.fao.org/)

<표 3-11> DR콩고의 농산물 수입(2011)

순위	품목	수입액	수입량	수입량순위	단가
		천달러	톤		달러/톤
1	밀	141,492	459,901	1	308
2	밀가루	101,016	140,736	2	718
3	닭고기	89,123	66,384	4	1,343
4	원당	81,360	102,378	3	795
5	전지분유	57,308	10,316	17	5,555
6	식가공품	56,413	18,193	11	3,101
7	제분가공품	41,301	13,953	13	2,960
8	정제당	39,378	46,836	7	841
9	몰트	28,904	47,036	6	615
10	식물성유	27,400	22,500	8	1,218
11	팜유	25,892	21,052	10	1,230
12	옥수수가루	24,793	59,726	5	415
13	토마토소스	21,438	14,095	12	1,521
14	무알콜 음료	18,603	21,422	9	868
15	돼지고기	15,464	10,318	16	1,499
16	설탕과자	14,674	6,264	22	2,343
17	맥주	13,860	13,601	14	1,019
18	칠면조고기	13,778	11,443	15	1,204
19	페이스트리	12,785	7,911	19	1,616
20	해바라기씨유	12,552	6,619	21	1,896

자료) UN 식량농업기구 (http://faostat.fao.org/)

바. 숙련된 농업 노동력 부족

DR콩고에서 숙련 노동자 부족은 농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DR콩고에서 농업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주로 농과 대학, 국가 기관,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농업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농촌지도국(SNV)을 통해 이루어진 농업 역량 개발 프로그램(Agricultural Capacity Development Program)이었다. 세계은행은 각 지역별로 SNV 사무소와 시범 농장 건립을 지원하여 각 지역에 맞는 지역형 농업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지역별 농업 지도자 숙련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위 사업은 두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숙련된 농업 역량을 지닌 지도자를 양성하여 향상된 기술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배가시켰고 SNV의 지속적인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질병예방, 신품종 개량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 집약형 농업 개발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2000년대 초 위 사업을 중단하였고, SNV는 예산확보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 활동이 거의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심각한데, SNV 관계자와 지역 농민들과의 면담 결과 농업 노동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진행되지 않으며 또한 유면 무실한 SNV 활동은 농업 기술 향상과 보급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위와 같은 숙련된 농업 노동력 문제는 산업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업의 9%가 숙련 노동자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이는 2006년의 1%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에 대한 세계은행의 2009년 리포트는 공식 중등교육과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트레이닝(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시스템의 낮은 효율성, 열악한 교육의 질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TVET시스템은 대부분의 피교육생들이 농업과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부문의 생산적 활동과 실제로 관련있는 기술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채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2012년에는 DR콩고 국가 GDP의 11%를 차지하고 1조달러 가량의 세수를 제공하면서, 많은 농업 노동력이 채광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 열악한 금융

DR콩고는 통화 재정 정책을 통한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하여 PRGSP에 따라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연평균 6% 대의 경제 성장에는 원조뿐만이 아니라 FDI 유입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DR콩고의 금융 시장은 최악의 금융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2008년 11월 IMF의 빈곤 감축 성장 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 참여를 승인받은데 이어, 파리 클럽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 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았고, 1억 2천만 달러의 공적 채무에 대해 채무이연을 얻어냈다. 둘째, 2010년 초에는 PRGF 및 고채무빈국 외채탕감프로그램(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s: HIPCI)의 지원이 재개되어 외채가 상당부분 경감되었고, 2010년 7월1일에는 HIPCI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HIPCI와 다자 채무탕감안 하에 123억달러 규모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0년 기준 경상수지는 -14억 7,100만 달러이고 총외채 잔액은 165억 5,500만 달러이며 이는 GDP 대비 1억 3570만 달러이다.

가장 심각한 부문은 농업 금융이다.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대안적 금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Mobile Finance Service)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2014년 현재 DR콩고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금융 서비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지 농민과 농업부 공무원과의 면담 조사 결과 열악한 금융 서비스는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통, 통신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킨샤사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둘째, 대부분의 농민들은 교육 부족으로 인하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현재 45%에 이르는 높은 금리를 소농들의 경우 감당하기가 어렵다. 조사 결과 일부 NGO의 소액대출금융(Micro Finance)조차도 이율이 35%를 상회하여 농민들은 상환이 어렵고, 이는 대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 넷째, DR콩고 정부는 농업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열악한 정부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 출연의 농업 전문 금융기관 설립은 어려운 형편이며 기존 금융권을 통한 서비스 제공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 민간부문 참여의 어려움

DR콩고 농업의 가치사슬의 발전과 소규모 농민들의 상업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부족(에너지와 교통), 취약한 정부 통치력과 기업경영 규정, 불충분한 숙련 노동자, 높은 금융 비용 등의 원인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모가 큰 농산업 기업들은 농촌의 도로 및 전력 문제, 노동력과 자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도 안정적인 토지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DR콩고 토지사용에 성문법과 관습법의 충돌,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의 부담, 농촌 토지 등기소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 통관 및 행정 절차

통관수속 또한 불투명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농업 투입요소의 수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개선은 생산 활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DR콩고 정부는 통관수속을 위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관련된 서비스와 행정절차를 잘 연결하여 수출입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예로, 현재는 물류 컨테이너를 추적하는데 3일이 소요되며 행정절차비용을 제외하고, 농업 생산에만 사용되는 투입요소 수입 과정에서는 관세와 수입세가 면제된다. 국경에서 수출입 대행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로열티와 비용은 수입액의 0.25%를 넘지 않으며 농업에만 활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항목별 계측을 신속하게 위해서는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Goldberg 외, 2013).

2012년에 DR콩고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상법재판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기업 등 민간부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DR콩고 정부는 2013년 4월에는 법인등록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본래 62일이 소요되던 절차가 3일로 단축되었다.

차. 전력 공급 상황

DR콩고에서는 인구의 거의 90%가 전력부족을 겪고 있을 정도로 전력공급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현재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력량은 6만 8천 메가와트(MW)에 불과하다. DR콩고가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전력은 십만MW이나, 그 중 약 2.4%인 2천4백 MW만이 실제로 개발되었으며, 그 중 7백MW만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력발전 시설에 투자하여, 12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댐을 건설하는 한편 잠비아로부터 임시로 전력을 구입하여 공급하기도 하였다(Goldberg 외, 2013). DR콩고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길고 저수량으로는 아마존 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인 콩고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 강에서 생산 가능한 수력발전량은 아프리카 전체에 공급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높다. 현재 DR콩고 전력의 98%를 수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DR콩고에도 전력생산 잠재력은 있으나 실제 전력 공급률은 아프리카 최하 수준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전기 이용 가능 인구의 평균은 24.6%인데 반해, DR콩고는 전체 인구 중 전기 이용 가능 인구가 6%에 불과하다. 도시 전기 이용 가능 인구는 30%, 농촌은 훨씬 더 열악하여 1% 미만만이 전기 이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생산된 전기도 대부분 광산에 주로 이용되며, 민간 이용은 제한적으로 킨샤사(Kinshasa)와 제2도시인 루붐바시(Lubumbashi)에만 주로 공급된다(관계부처합동 DRC CPS, 2012).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제4장
농업 · 농촌개발 지원현황



제1절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 지원 전략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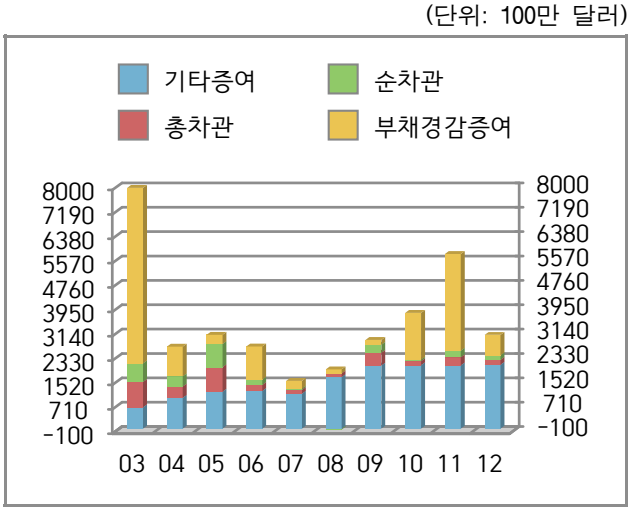
1. 국제사회의 대 DR콩고 지원 개황

가. 대 DR콩고 ODA 개황

DR콩고는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ODA 수원국으로서 총 수원액은 대 아프리카 총 ODA의 11%를 차지하는 55억 2,200만 달러이다.[9] 2003년 내전 직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 재건 관련 원조 규모가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 DR콩고가 받은 ODA는 국민총소득의 52%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지난 10년간 자금형태별 DR콩고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4-1], 2003년과 2011년의 ODA 규모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3년 대외부채의 80% 탕감, 2010년의 고채무빈곤국 외채탕감프로그램(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I)으로 약 12.3십억 달러의 부채탕감지원을 받은 이유이다.

[그림 4-1] ODA 자금형태별 DR콩고 지원현황

(단위: 100만 달러)



자료) OECD/DAC (http://www.aidflows.org/)

9) OECD - DAC Stats(2011년 기준), 2009~11년 평균 ODA 수원액은 38억 700만 달러임.

최근 3년간 원조의 분야별 구성을 보면 부채탕감(5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보건·인구 분야(9%), 사회분야(8.9%), 인도적 지원(8%) 순이다(표 4-1).

<표 4-1> DR콩고에 대한 ODA의 분야별 구성(2010~2012)

(단위 : %)

분야	2010	2011	2012	3년 평균
부채탕감 관련	64.4	68.6	23.0	59.0
행정 지원	0.1	0.1	0.3	0.1
경제 인프라	3.5	3.7	12.4	5.2
교육	1.8	1.3	4.0	2.0
보건위생 및 인구	7.1	6.5	19.5	9.0
인도적 지원	7.5	6.0	14.4	8.0
범분야 관련	2.3	1.4	3.5	2.1
사회 분야	7.8	7.4	15.0	8.9
생산 분야	1.3	1.7	5.3	2.2
사업 지원	4.1	3.3	2.4	3.4
기타	0.1	0.1	0.2	0.1
ODA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OECD/DAC, http://www.aidflows.org/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이 상위 공여국이며, 주요 공여기구는 세계은행(IDA), EU, AfDB, FAO, IFAD 등이다(표 4-2).

<표 4-2> ODA 공여주체별 DR콩고 지원현황

(단위: Disbursement, 100만 달러)

		국가	2010	2011	2012	3년 평균
DAC 회원국	1	미국	277.8	1827.9	291.8	799.2
	2	일본	80.4	1215.8	93.9	463.4
	3	프랑스	26.1	1162.2	29.5	405.9
	4	벨기에	652.8	341.8	131.1	375.2
	5	영국	251.2	383.3	223.4	286.0
	6	독일	77.1	93.9	599.6	256.9
	7	이탈리아	9.6	732.2	6.9	249.6
	8	네덜란드	422.2	18.3	22.2	154.2
	9	스웨덴	72.1	239.9	78.1	130.0
	10	스페인	306.2	30.3	16.6	117.7
	11	캐나다	26.5	36.7	101.0	54.7
	12	오스트리아	129.6	0.7	0.2	43.5
	13	노르웨이	28.3	31.8	32.6	30.9
	14	스위스	4.9	13.4	16.4	11.6
	15	아일랜드	8.8	10.3	12.9	10.7
	16	핀란드	6.5	8.1	7.4	7.3
	17	호주	8.2	10.4	2.7	7.1
	18	한국	5.7	6.0	6.9	6.2
	19	룩셈부르그	3.2	2.3	3.5	3.0
	20	그리스	1.1	1.0	0.6	0.9
	기타 DAC 회원국		6.5	3.2	0.9	3.5
	DAC 회원국 합계		2405.0	6169.6	1678.3	3417.6
다자 기구	1	IDA	1938.1	394.2	388.3	906.9
	2	EU	367.1	320.4	284.6	324.0
	3	IMF	552.7	156.3	–	236.3
	4	AfDF	315.8	70.3	76.6	154.2
	5	Global Fund	85.7	34.1	213.2	111.0
	6	AfDB	103.7	105.1	101.2	103.3
	7	UNICEF	57.8	59.9	52.8	56.8
	8	GAVI	42.3	65.5	10.9	39.6
	9	UNDP	15.9	18.6	15.1	16.5
	10	WFP	1.4	1.5	19.4	7.5
	기타 다자기구		14.7	63.6	24.5	34.3
	다자기구 합계		3495.1	1289.6	1186.6	1990.4
기타 ODA			7.0	0.8	–	2.6
ODA 총액			5907.1	7460.0	2864.8	5410.6

자료) OECD, DAC Stats 재구성

나. 농업・농촌개발 지원 사업 개요

2014년 2월 현재로 파악된 DR콩고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지원 금액은 약 11억달러에 이른다.[10]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공여국은 벨기에,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다. 특히 벨기에는 규모와 구성비율 모두에서 DR콩고의 가장 큰 공여국으로서, 자국이 DR콩고에 지원하는 총 ODA 중 22%를 농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통계상 나와 있는 인프라 지원(총 ODA의 26%) 중에서도 농촌지역 도로개선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때, 벨기에 ODA의 농촌개발 분야 지원 비중은 사실상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업·농촌분야 다자지원기구로는 World Bank, AfDB, IFAD, EU 등이 가장 지원이 활발하다.

<표 4-3> 공여국별 농업・농촌개발 분야 지원 금액

(단위: USD)

구분	공여국/기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총금액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대비(%)
1	벨기에	285,582,941	283,632,136	24.32
2	World Bank	230,000,000	230,000,000	19.72
3	미국(USAID)	226,185,367	226,185,367	19.39
4	AfDB	158,520,271	150,303,237	12.89
5	IFAD	180,620,000	146,755,000	12.58
6	EU	69,492,533	65,286,524	5.60
7	네덜란드	17,264,000	17,264,000	1.48
8	스웨덴	14,015,626	13,732,040	1.18
9	Pooled Fund	12,092,739	12,092,739	1.04
10	한국	9,184,000	9,184,000	0.79
11	UNDP	14,250,000	5,200,000	0.45
12	일본	2,600,000	2,600,000	0.22
13	독일	2,408,000	2,408,000	0.21
14	FAO	952,000	952,000	0.08
15	스페인	1,114,070	888,016	0.08
총액		1,224,281,54	1,166,483,059	100

자료) GIBADER 제공 자료 재구성

※ 프로젝트금액과 지원 금액의 차액은 DR콩고 정부 부담

※ 본 연구에 사용된 지원현황 통계자료의 경우, OECD DAC의 자료와 DR콩고 농업·농촌개발 donors group (GIBADER)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 GIBADER측 자료가 더 최신이며(2014년 2월 기준), OECD 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공여기관도 GIBADER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어있어서 GIBADER 자료를 우선으로 하여 참고하였음

10) GIBADER 제공 자료 참조(2014.2)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DR콩고의 빈곤 감소 및 성장전략(PRGSP II), 정부행동계획(Action Plan 2012~2016), 농업·농촌개발 분야 전략(SSADR), 국가 식량안보프로그램(PNSA) 등 DR콩고 정부의 개발계획과 전략에 맞추어 식량생산증진, 교육, 유통 및 판매, 저장, 인프라, 식수, 긴급구호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국가농업투자계획(PNIA)이 수립됨에 따라 향후의 공여국과 기구의 농업·농촌분야 지원방향은 PNIA의 중점분야에 조화될 것으로 보인다.[11] 세부 분야별 지원 현황은 <표 4-4>와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다.

11) PNIA의 4가지 중점목표: ① 식량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부문의 발전과 농민 및 기타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업(agribusiness)의 발전; ② 연구개발의 향상과 이해관계자와의 연구개발 결과 공유; ③ 인력과 기관의 능력 향상 및 통합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강화; ④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취약성 감소

<표 4-4> DR콩고 농업지원의 세부분야 구성현황 2012년도 Gross Disbursement, 100만 달러

	국가	농업 총액	세부 지원 분야																
			농업 정책	농업 개발	농지 자원	농업 용수	영농 자재	식량 작물	수출 작물	축산	토지 개혁	대안 개발	농민 교육	농업 연구	농서 비스	수확후 관리	농업 금융	협동 조합	축산 위생
1	벨기에	14.12	2.33	0.96			2.04	2.58	0.02	0.11	0.04		3.04	0.75	0.76			1.50	
2	미국	5.52	1.15	4.38															
3	한국	3.96		0.44	2.97								0.55						
4	아일랜드	2.05		2.05															
5	스웨덴	1.48		1.48															
6	독일	1.39		1.02	0.15	0.22													
7	룩셈부르그	0.98		0.64									0.24					0.10	
8	스페인	0.95						0.09					0.19					0.67	
9	캐나다	0.34	0.11	0.14				0.05					0.05						
10	이탈리아	0.24		0.04				0.03											
11	호주	0.13		0.13															
12	노르웨이	0.08		0.08															
13	덴마크	0.04		0.04															
14	프랑스	0.04		0.03									0.01		0.00				
15	오스트리아	0.01	0.01																
DAC 회원국 합계		31.34	3.60	11.42	3.12	0.22	2.04	2.75	0.02	0.11	0.04		4.08	0.75	0.76			2.27	
1	EU	23.25		13.96				8.27				1.02							
2	IDA	5.68	1.49			1.40		1.40		1.40									
3	OFID	3.33	3.33																
4	AfDF	2.61	2.61																
다자기구 합계		34.86	7.42	13.96		1.40		9.67		1.40		1.02							
기타 농업지원		–																	
농업 ODA 총계 (구성비:%)		66.20	11.02	25.38	3.12	1.61	2.04	12.41	0.02	1.51	0.04	–	4.08	1.77	0.76	–	–	2.27	–

자료) OECD(재구성): http://stats.oecd.org

<표 4-5> ODA 공여주체별 DR콩고 농업・농촌분야 지원현황

2010-2012 평균 Disbursemen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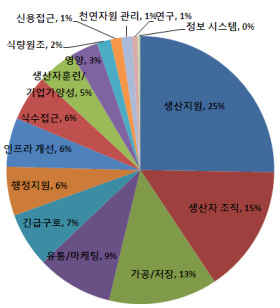
		국가	농업 생산 (AP)	농촌 개발 (RD)	농업·농촌개발 소계 (AP+RD=AR)	DR콩고 지원총액 (TT)	AR/TT (%)
DAC 회원국	1	벨기에	13.53	3.28	16.81	375.2	4.5
	2	미국	5.56	–	5.56	799.2	0.7
	4	한국	1.82	0.54	2.36	6.2	38.0
	3	아일랜드	1.91	–	1.91	10.7	17.9
	7	독일	0.92	0.62	1.54	256.9	0.6
	5	스페인	1.32	0.18	1.50	117.7	1.3
	6	스웨덴	1.01	0.07	1.08	130.0	0.8
	8	이탈리아	0.67	–	0.67	249.6	0.3
	9	룩셈부르그	0.35	0.04	0.39	3.0	13
	10	캐나다	0.29	–	0.29	54.7	0.5
	11	덴마크	0.14	–	0.14	3.2	4.4
	12	일본	0.11	0.00	0.11	463.4	0.0
	기타 DAC 회원국		0.26	0.15	0.41	3.5	11.7
	DAC 회원국 합계		27.89	4.87	32.76	3417.6	1.0
다자 기구	1	AfDB	10.40	9.35	19.72	154.2	12.8
	2	EU	16.10	–	16.1	324.0	5.1
	3	IDA	5.70	1.11	6.81	906.9	0.8
	기타 다자기구		1.60	0.15	1.75	34.3	5.1
	다자기구 합계		33.80	10.61	44.41	1990.4	2.2
기타 ODA			–	–	–	2.6	–
ODA 총액			61.69	15.48	77.17	5410.6	1.4

자료) OECD(재구성);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4-2]와 같이 DR콩고의 장기적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지원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공 및 저장, 생산단체 지원 분야가 차례로 뒤를 잇고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종합적 농업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3). 본 연구진이 현지에서 진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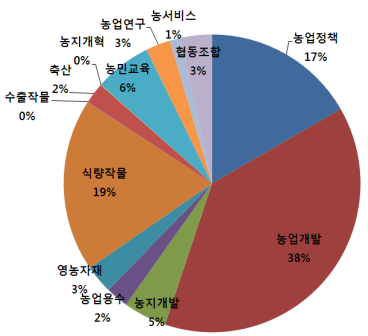
면담 결과, 과거에는 생산지원분야에 치중되었으나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과 조직의 역량 강화에 대한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4-2] 농업·농촌개발 분야 진행 중인 사업의 세부분야



자료) GIBADER 제공 자료 재구성

[그림 4-3] 농업분야 진행 중인 사업의 세부분야



자료) OECD DAC 자료 재구성

아래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DR콩고 농업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벨기에는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고, 특히 종자지원 등 생산지원과 농촌도로건설 등 인프라 지원, 가공 및 저장시설 지원, 농업정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프라 지원에는 AfDB와 벨기에, World Bank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업정책지원에 있어서는 특히 FAO의 역할이 크다. FAO는 농업농촌개발부와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전략수립에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생산조직지원은 가치사슬개선과 농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 농업연구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농업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지원활동에 한정되어 있다.

<표 4-6> 세부분야별 지원 현황

구분	다자지원				양자지원			
분야	AfDB	IFAD	FAO	World Bank	EU	벨기에 (BTC)	미국 (USAID)	스웨덴 (SIDA)
생산지원	21	8			27	19	11	25
생산자조직	5	17	17	25	18	14	6	17
유통 및 마케팅	5	8			16	14	22	8
가공/저장	16			25	16	16	17	8
인프라	16	25		25	4	6	11	
긴급구호					4	1		
식수접근		17			3			
천연자원관리	11				3	4		
행정지원	5		17		3	9		17
영양			33		3	4	17	
생산자훈련 /기업가양성			33		1	12	11	17
정보시스템		8				1		
식량원조	5					1	6	
신용접근								8
연구						7		
기타	16	1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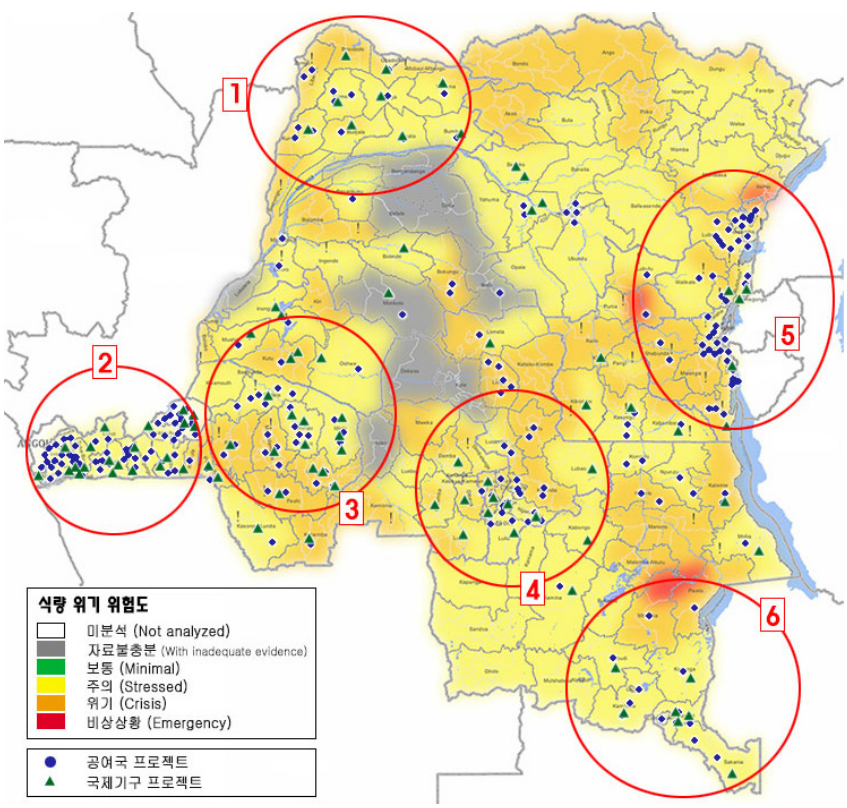
자료) GIBADER 제공 자료 재구성

농업·농촌개발 지원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프로젝트가 서부, 중서부, 북부, 동부, 중남부, 그리고 남부 등 6개의 지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는 DR콩고의 식량위기정도와 공여국 및 공여기구들의 사업 지역을 중첩시켜 나타낸 지도이다. 본 지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빈곤지역과 공여국/기구의 사업은 중첩되고 있다. 동부지역(Katanga, Maniema, Province Orientale, North Kivu, South Kivu주)이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북부지역(Equateur주) 역시 높은 단계의 식량위기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환경, 농업분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농축산 생산저하, 무력분쟁으로 인한 생계위기 등으로 장기적인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총 농촌인구의 11%에 해당하는 6,700만 인구가 식량 위기와 비상상태(food insecurity and emergency)에 처해

있다고 분석된다.[12]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농업·농촌개발분야 지원 프로젝트도 킨샤사(Kinshasa)주를 제외하고는 주로 식량위기도가 높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둘째, 공여국/기구의 원조사업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서부지역(Kinshasa주, Bas-Congo주)은 인구 집중지역으로서 공여국들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곳이고, 도로 인프라와 항구 등 접근성이 용이하여 프로젝트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 4-4] DR콩고의 식량위기 위험도와 공여기관 농업·농촌개발 프로젝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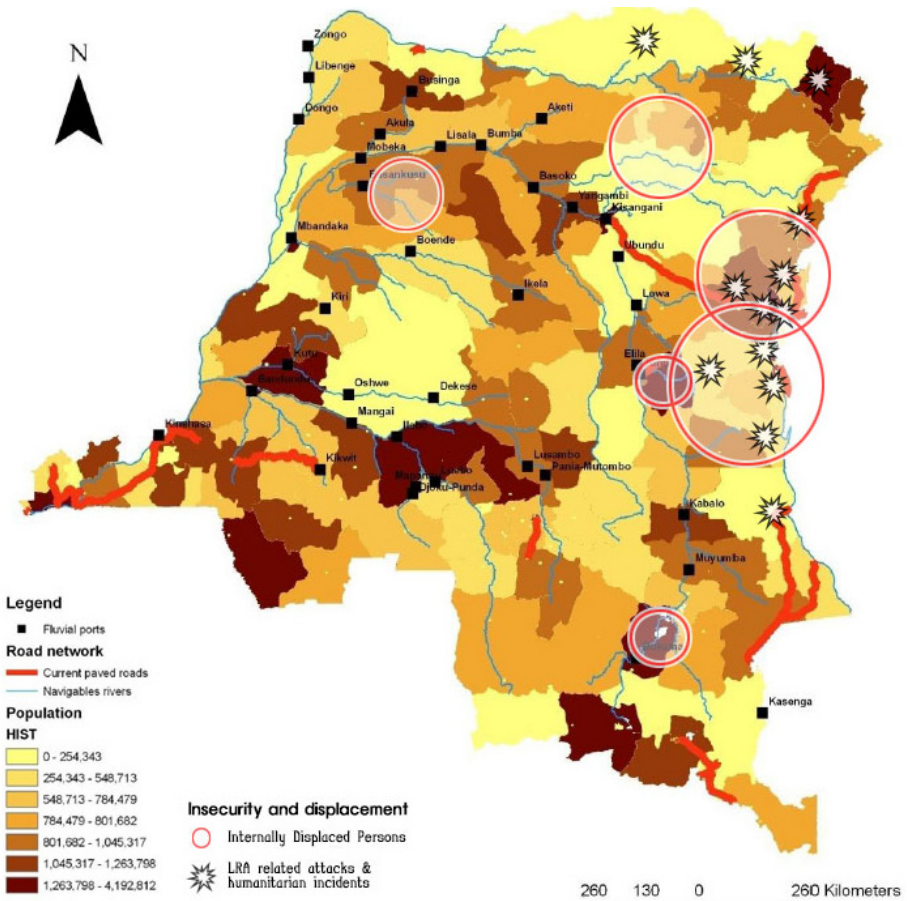


자료) IPC지도와 공여기관 자료를 종합하여 재작성

12) DRC IPC Technical Work Group(2013), 10th IPC Analysis(December 2013-June 2014)

셋째, 환경적 불안정성(insecurity), 교통인프라, 농업잠재력과 사업지역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림 4-5]의 지도와 비교해 보면 인구가 밀집된 곳(Bandundu주, Kananga주, Katanga주), 내전 또는 난민유입을 겪은 곳(Equateur주, North Kivu주), 그리고 도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곳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DR콩고의 인구분포도, 도로망, 불안정 지역



자료) IFPRI, Reliefweb 자료를 종합하여 재작성

DR콩고 정부는 농업·농촌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공여기관(GIBADER), 생산자조직, 민간부문, 시민단체, 등의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작업반(working group)으로서 G15(Groupe Thématique: GT15)를 운영하고 있다.[13]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은 별도의 Inter- donor Working

Group인 GIBADER(Groupe Inter-Bailleurs pour l'Agriculture et Développement Rural)[14]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지원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DR콩고 정부의 계획 및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벨기에가 의장을 맡아오다가 현재는 FAO-IFAD-WFP 컨소시엄이 의장을 맡고 있다. 최근의 국가농업투자계획(PNIA)의 수립에 있어서도 GIBADER가 기술적 자문활동을 조정 하였다. 원조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원조 조화를 꾀하기 위한 활발한 토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 모니터링(joint monitoring)을 기획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글상자 4-1] GIBADER 구성 현황

- 공여국: BTC, Belgium Embassy, Canada, China, British Embassy(DFID), German Embassy(FCP),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USAID,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The Netherlands Embassy, SIDA
- 국제기구: AfDB, EU, FAO, IFAD, IFPRI, IITA, UNDP, UNOPS, WFP, World Bank

2. 주요 공여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가. 벨기에/BTC

1) 벨기에의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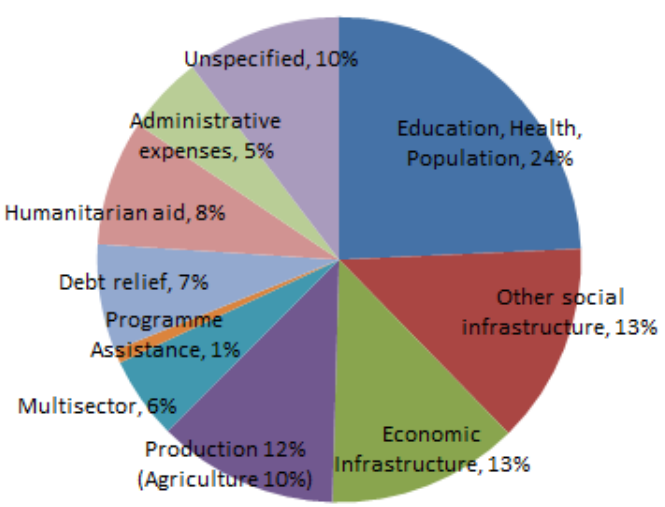
벨기에의 ODA는 2008년~2010년 사이에 꾸준히 15%의 증가를 이루었고, 2011년 경제침체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의 총 ODA는 23억달러에 이르렀다. 2015년까지 ODA 비중을 총국민소득의 0.7%까지 올리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이래, 벨기에 정부는 ODA 예산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 벨기에의 ODA는 총 국민소득(GNI)의 0.64%까지에 도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그해 EU의 목표치인 0.51%를 웃도는 수치이다(OECD, 2013).

13)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의장을 맡음
14) GIBADER (Groupe Inter-Bailleurs Agriculture et Développement Rural: Inter-donors group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벨기에의 ODA는 비교적 소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각 중점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기여도가 큰 공여국이다. 총 18개의 중점 지원대상국은 전세계 ODA 수혜국 10위권 내의 국가를 모두 포함한다. 주로 취약국가(Fragile State)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양자지원의 58%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DR콩고가 벨기에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국가이고, 르완다와 브룬디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이들 세 나라에 대한 원조가 큰 것은 과거 벨기에와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의 중점 지원 분야는 [그림 4-6]과 같이 교육, 보건, 식수 등 사회 인프라분야,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그리고 농업, 산업, 광업 및 건설 등 생산분야 순이다. 벨기에 정부는 생산 분야 지원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특히 현재 농업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15%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OECD, 2010). OECD DAC 회원국의 농업분야 평균 지원액 6%를 상당히 웃도는 비중이다. 농업분야는 벨기에의 18개 지원대상국 중 11개 국가에서 중점지원분야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르완다와 브룬디의 경우 총 농업분야 ODA에서 벨기에의 지원금이 각각 60%와 56%를 차지한다.

[그림 4-6] 분야별 벨기에 ODA 지원현황



자료) OECD(2013),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3: Ending Poverty, OECD Publishing

농업 및 식량안보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에 명시된 5가지 중점분야 중 하나로서 법 제정이후에도 개발협력부의 정책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15]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국의 정부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농업분야 지원, ② 농업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 ③ 소농들을 위한 농업생산요소 투입, 서비스 접근, 시장접근 향상(DGDC, 2002). 농업 식량안보 지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① 긴급식량구호자금지원, ② 벨기에 식량안보기금(Belgian Fund for Food Security), ③ 벨기에 개발협력청(Belgium Technical Cooperation: BTC)과 개도국을 위한 벨기에 투자회사(BIO)의 프로그램, ④ 농업연구기구 지원, ⑤ 대학, NGO와 농업조직에 보조금형태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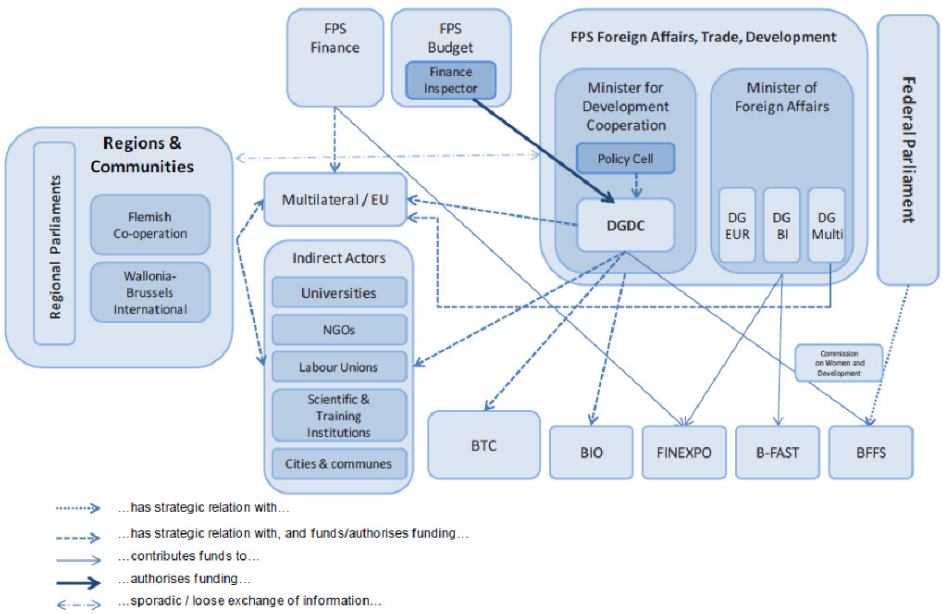
2) BTC[16]의 ODA 운용체계

[그림 4-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벨기에의 개발협력에는 정부부처, 연방차원의 기관인 벨기에 개발협력청(BTC), 벨기에 투자회사인 BIO, 벨기에 식량안보기금인 B-FAST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이 기관 중 일부는 개발협력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DGDC)이 총괄 관장하고 있고, 일부는 외교부의 연방공공서비스(Federal Public Service: FPS)가, 나머지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또는 국회가 조정하고 있다(OECD, 2010).

15) Royaume de Belgique(1999), Loi relative à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belge, Royaume de Belgique, Brussels. 이 법에 명시된 5가지 중점분야: (i) basic health care; (ii) eduction and training; (iii)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iv) basic infrastructure; (v) conflict prevention and strengthening of societies by promoting respect for human dignity

16) BTC(Belgium Technical Cooperation) 불어로는 CTB(Coopération Technique Belge: l'Agence d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그림 4-7] 벨기에의 개발협력 체계도



자료) OECD(2010),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Belgium, OECD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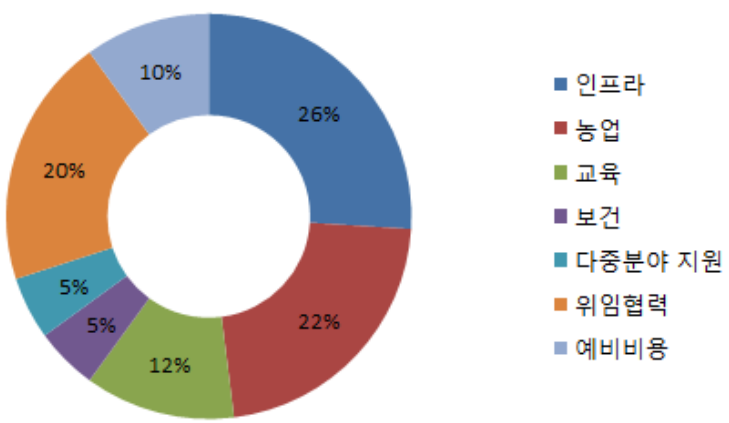
DGDC는 벨기에 총 ODA의 2/3를 담당하는 최대의 집행 기구이고, 개발협력부의 관리 아래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DGDC의 실행기관인 BTC는 벨기에 해외원조집행 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벨기에 개발협력 채널이 5군데 이상으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벨기에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DGDC 내의 정책지원부서(Policy Support Cell)와 개발협력부 산하의 Policy Cell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각 기관, 부서별 위임내용(mandate)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OECD, 2010).

3) BTC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전략(PIC)

BTC의 대 DR콩고 중점 지원 분야는 농업·농촌개발 그리고 기술 및 직업교육이다(BTC, 2014). 농업은 인프라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로서 DR콩고 농업·농촌개발 분야 지원은 다음과 같다(그림 4-8).

[그림 4-8] 분야별 지원현황(2010~2013)



자료) BTC, le Partenariat RD Congo-Belgique

-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증대: 소규모의 관개시설 구축, 농수 및 식수 관리, 소농들을 위한 종자, 살충제 및 비료 등 농업생산성증대를 위한 종자지원과 농업기술교육을 위해 콩고정부의 INERA(국립농학연구소), SENASEM(국가종자센터), SNV(농촌지도서비스국)와 협업하고 있다.
- 시장 접근성 개선: 소농들의 시장접근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소규모 농가공 사업 투자, 농생산자 조직화, 농업 금융기관 지원이며, 농촌지역 도로개선, 유통 및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NGO 및 민간분야, 정부와 밀접한 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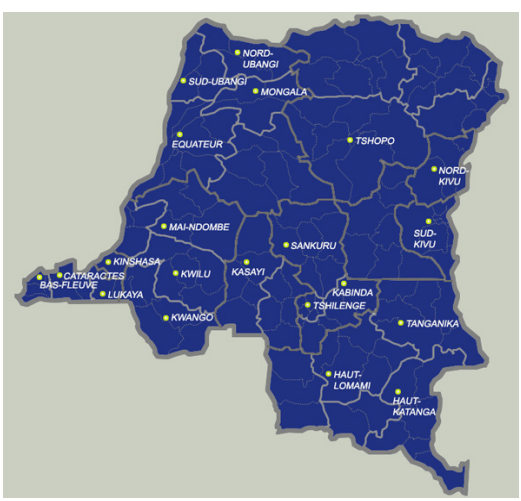
- 역량개발과 거버넌스 향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에서 정책입안단계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DR콩고 농업·농촌개발부의 개혁지원, 개발계획의 정책입안 단계 및 실행을 위한 기술적 자문을 하고 있다.

BTC는 농업 프로젝트 수행 시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 간의 조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개발에 관련되는 타 부처(상업부, 환경부, 경제부) 등과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DR콩고 정부가 국가적으로 시행중인 지방분권화에 대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4) BTC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현재 BTC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사업이 식민지 시대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및 DR콩고 국내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여 DR콩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그 중에서도 BTC의 주요 전략지역은 마니에마(Maniema), 반둔두(Bandundu), 동카사이(Kasaï Oriental), 오리엔탈(Province Orientale)주이다(그림 4-9).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약 50여개이며 그 중 주력하고 있는 몇 가지 지원사례는 다음과 같다(첨부 1-주요 공여국의 사업 현황 참조).

[그림 4-9] 진행 중인 사업 지역 (BTC)



자료) 연구진 작성

가) 프로젝트 관리지원 공동위원회(UCAG) 프로젝트

사업명	Mise en Place d'une unite conjointe d'appui à la gestion du programme sectoriel du PIC(UCAG-MINARD)
사업기간	2011~2015년
사업예산	€ 6,500,000
사업대상지	반둔두주(Kwilu와 Kwango), 오리엔탈주(Tshopo), 동카사이주(Sankuru, Tshilenge 및 Kabinda), 남 마니에마주
사업수행기관	BTC
사업의 목적	분야별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지방 관련부처와 MINARD의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 PIC 2010~2013년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중앙 및 지역 부처의 역량 강화, PIC와 이전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자료) BTC 자료 재구성

2011년 프로젝트의 실행, 모니터링 개선과 DR콩고 농업농촌개발부와 지방정부의 제도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지원 공동위원회(Joint Management Support Unit: UCAG)'가 설립되었다. UCAG의 두 가지 전략은 ① 벨기에-DR콩고 사업 공동운영 지원, ② DR콩고의 사업운영역량 강화와 코디네이션 지원이다. PIC의 중점분야에 따라 현재는 농업, 인프라, 교육 분야에 각각 하나씩 총 세 개의 UCAG가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UCAG는 벨기에와 DR콩고를 대표하는 National Leader, Co-Chair, 4개의 분과(기획과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행정과 재정, public market)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과에는 농업농촌개발부 소속의 공무원과 BTC 직원, 해외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농업농촌개발부 내 관리지원 공동위원회 본부를 두어 BTC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며 농촌개발 사무국의 기관적·운영적 역량을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UCAG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킨샤사(Kinshasa)와 기타 주의 농촌개발 사업지역의 장비 및 서비스 개선
-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 재건 및 유지보수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 조율 지원
- 농민과 지역 이해관계자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4개 주에 농촌개발 사무소(Maison de développement) 건립

- 공무원 연수 및 특수 자료보관 센터 건립을 통한 농촌개발 정책의 발전 및 시행 지원
- HIV/AIDS 퇴치, 젠더, 환경을 농촌개발, 초중등 및 직업교육 정책에 반영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 농촌 개발의 효과적인 행정을 위한 중앙, 주, 지역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
- DR콩고에서의 벨기에 협력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수행 모니터링
- 농촌개발 분야의 정보 제공 및 접근성 강화
- 농민, 투자자, 개발 파트너를 위한 믿을만한 기초 정보 구축

나) 퀼루(Kwilu)와 쾅고(Kwango)의 농촌도로 개발 및 프로그램(PRODEKK)/농촌개발 프로그램(PRODAKK)

사업명	퀼루(Kwilu)와 쾅고(Kwango)의 농촌 도로 개발 및 확충 프로그램 (PRODEKK)	퀼루(Kwilu)와 쾅고(Kwango)의 농촌 개발프로그램(PRODAKK)
사업기간	2011년 12월~2015년 12월(48개월)	2012년 11월~2017년 10월(60개월)
사업예산	€ 20,000,000 (26,000,000 US$)	€ 20,000,000 (26,000,000 US$)
사업대상지	반둔두(Bandundu)주 퀼루(Kwilu)와 쾅고(Kwango)	
사업수행기관	BTC	
사업의 목적	- 가족농가의 농산물의 집하장과 판매 센터까지의 운반 개선	- 지속가능한 농업분야의 회복을 통한 식량 결핍과 빈곤 감소
기대효과	- 지역 개발 우선순위에 대응하는 복합운송 네트워크 재건 - 적절한 네트워크 사용법 적용 -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 마련	- 가족 농가의 생산 및 생산성 개선 - 가족 농가의 농산품 가공, 저장 및 마케팅 개선 - 농업분야 거버넌스 개선 - 성평등 및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여성 역량 강화

자료) BTC, PRODAKK, PRODEKK자료 재구성

이 두 프로그램은 PIC 2010~2013의 전략에 따라 반둔두(Bandundu)지역의 농업생산성 증대와 인프라개선을 위해 구상 되었다.

PRODEKK 프로그램은 이 지역에 BTC의 프로젝트로 이미 구축한 2천km의 도로망을 확대하여 육로와 수로로 연결된 복합운송(multimodal)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구체적인 사업요소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종료 후 주(provincial)당국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 사업대상지를 시작으로 새로운 지역까지 확대를 위한 육로, 수로 네트워크 재건
- 기존 도로 유지보수
- 점진적인 콩고 정부로의 이전을 목표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도로 보수 국가기금, 통행료, 민간 자본 등)
- 과적 제한, 도로경계표 준수 등 도로망의 적절한 이용법 홍보

PRODAKK 프로그램은 퀼루(Kwilu)와 쾅고(Kwango)지역의 가족운영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와 지역의 식량 안보 개선을 목표로 한다. 토지, 물과 개선된 종자 및 비료 등의 생산요소 투입과, 농업기술, 신용에 대한 가족농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농촌 여성들에게 생산적인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제고한다. 또한 운영자와 개발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농업 및 가축, 어업에 있어서의 저장, 보존, 가공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젠더, 환경, HIV/AIDS 등과 같은 범분야 테마는 PRODEKK, PRODAKK 두 프로그램 모두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PRODEKK는 HIV/AIDS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 PRODAKK는 반둔두(Bandundu)주의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농업농촌개발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 두 프로그램은 같은 지역에서 농업개발 분야와 교통·인프라 분야로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수행 중에는 인력운영에 있어서 일부를 두 프로젝트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두 프로그램간의 상충효과를 제고하고 있다(BTC, 2012).

다) 동카사이(Kasai Oriental)주 농업개발 프로그램(PRODAKOR)

사업명	동카사이(Kasaï Oriental)주 농업개발 프로그램(PRODAKOR)
사업기간	2013년 10월~2018년 9월 (60개월)
사업예산	€ 21,000,000 ($ 27,300,000)
사업지	카빈다(Kabinda district), 산쿠루(Sankuru district), 치렌게(Tshilenge district)
사업수행기관	BTC[17]
사업의 목적	농업 생산 지역 개발 및 가족 기업방식 지원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기대효과	- 농업운영의 생산 및 생산성 증대 - 가족농장의 농산품 보존, 가공, 마케팅 환경 개선 - 동카사이(Kasaï Oriental)주의 농업분야 거버넌스 개선 - 동카사이(Kasaï Oriental)주의 농촌여성 리더십 강화

자료) BTC, PRODAKK, PRODEKK자료 재구성

이 사업은 PIC 2010~2013의 농업분야와 기술 및 직업교육분야 지원 전략 하에 구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 식량 작물의 개발
- 농가 차원의 종자생산 및 분배
- 농민 조직 강화
- 지역 자문위원회 기반의 협의체계 구축
- 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지원
- 유전자적 자원 다양화
- 농산품 저장·가공·마케팅 지원

젠더와 환경과 같은 범분야 이슈들은 이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국립농학연구소(INERA), 주정부농어업축산 감독원(IPAPEL), 그리고 다양한 지방정부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진행된다. PRODAKOR은 BTC가 동카사이(Kasaï Oriental)주에서 시행 중인 농촌인프라 개발을 위한 PRODEKOR과 직업 훈련 센터를 운영하는 EDUKOR와 전략적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17) GIBADER, 공여국/기관 프로젝트 현황자료 (Feb, 2014)

면은 사업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구조를 통해 원조조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BTC, 2013).

5) BTC와 DR콩고 정부의 협업 체계

BTC는 DR콩고 농업농촌개발부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DR콩고에서 일하고 있는 BTC직원은 본부에 25명, 각 지방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파견된 176명까지 합하여 모두 201명이다(BTC, 2012). 앞으로 UCAG로 역할을 넘기면서 DR콩고 파견직원 수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BTC는 사업의 효과성제고와 모니터링을 위해 DR콩고 정부 내 상설 협업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4-10).

[그림 4-10] DR콩고 정부와 BTC 협업기구



자료)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Joint Local Consultation Committee(SMCL)'을 두어 사업실행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 하부에 사업을 수행하는 'Technical Assistant Team'이 있다. SMCL은 도로건설 및 DVDA(Directorate of road and construction and drainage), Office of Road, 시민단체, 주민대표, 사무차관, 그리고 주정부장관으로 구성된다.[18)]

BTC는 FAO, IFAD, WFP 등의 국제기구와 협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DR콩고 정부 산하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립종자센터

18) MINARD, Secretariat of Rural Development 사무차관 면담 참조

(SENASEM), 국립농학연구소(INERA), 농촌지도서비스국(SNV), 국립비료센터(SENAFIC)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여는 DR콩고 정부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이고, 현지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역작목의 특수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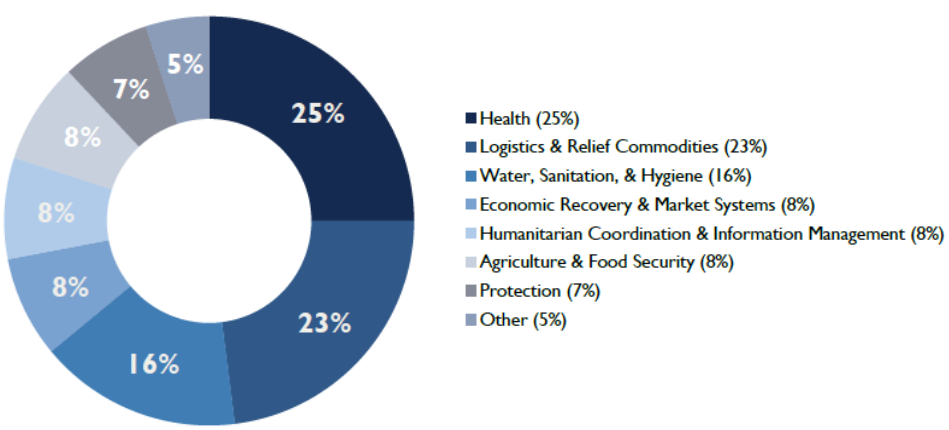
나. 미국/USAID

1) USAID의 DR콩고 지원 개황

USAID(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DR콩고가 독립한 첫 해 이래 지난 50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 미국은 DR콩고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벨기에를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원을 하는 국가이다.

미국 정부는 2013년도 기준 USAID/FFP는 긴급 식량지원의 일환으로 거의 8,650만 달러를 제공하였고, FY 2014년 현재, 5,600만달러를 인도주의지원으로 제공하였다. [그림 4-11]은 DR콩고에 지원되는 분야별 지원현황을 보여주고 있다(USAID, 2013).

[그림 4-11] 분야별 지원현황 (USAID)



자료) USAID 홈페이지

2) USAID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전략

USAID는 DR콩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지원 전략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 USAID는 세계은행 등의 타 공여기구와 협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적, 제도적 제약을 줄이는 지원활동을 해 왔다. DR콩고의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 USAID는 식량안보를 높이고 기초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빈곤상황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 시장 접근성 및 환경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USAID 프로그램 각각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관련되도록 통합적 접근 방식을 따른다. USAID의 활동들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새로운 작물 개발, 개선된 경작 및 수확기술, 가공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USAID의 전략은 정치 경제적 안정 촉진, 빈곤 완화, 광범위한 경제 발전 가속화 및 지속, 주변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국민의 기초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국가로의 성장 등이다. 주요 이니셔티브는 FFP(Food for Peace), Food for the Hungry, Global Hunger and Food Security and Feed the Future가 있다.

DR콩고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USAID의 전략 방향은 농업발전 증진, 효과적인 천연자원 관리, 기후 변화에 있다. USAID는 특히 산업적 접근방식과 농민 조직의 전문화, 신용 접근성 향상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와 상호보완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USAID는 발전된 농업을 위한 DR콩고 정부의 전략적 기획 및 조정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신용 접근을 제공하는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출담보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회계연도 2014년에 USAID는 DR콩고 정부와 협력하여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8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USAID는 DR콩고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식량안보개선을 위한 지원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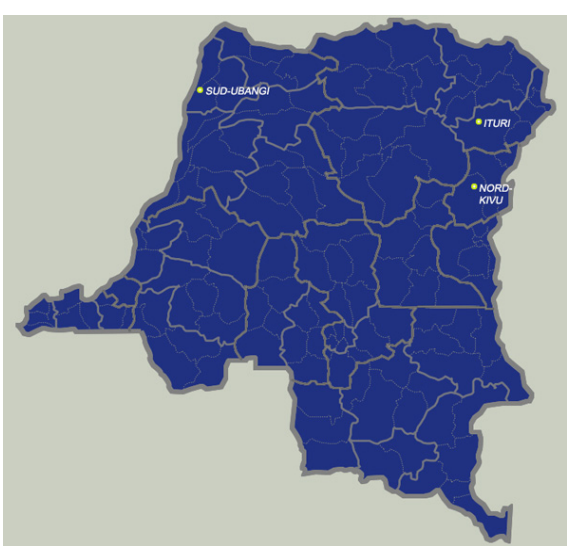
- 농업 생산, 주요 산물의 가공 및 마케팅 개선
- 농업의 기초가 되는 천연 자원 보존
- 재정 접근성 향상
- 농업 정책 개혁

3) USAID의 DR콩고 농업분야 지원 현황

USAID는 수원국인 DR콩고 정부의 분담금 없이 100% USAID가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형태는 대부분이 Cooperative Assistance로서 정부기관, 현지 NGO, 국제기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하고, USAID는 사업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한다. USAID의 규정상 수원국의 역량개발제고를 위하여 현지 NGO 및 정부기관과 협업을 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역량 있는 NGO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스크리닝 시스템과 감사시스템을 두어 NGO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19]

농업·농촌개발 분야 지원은 거의 국가 전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세 개의 주(Katanga, Kasaï Oriental, Kasaï Occidental)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 지원 특징을 살펴보면, DR콩고의 서부 지역에서는 주로 가치사슬 개선을 지원하며, 킨샤사(Kinshasa)지역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동부 지역에서는, 분쟁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프로그램으로부터 개발 지원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그림 4-12] 진행 중인 사업 지역(USAID)



자료) 연구진 작성

19) USAID 면담 참조

가) Non-Emergency 식량 지원 프로그램(NEFAP)

사업명	비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 Non Emergency Food Aid Program (NEFAP) / Tuendelee Pamoja (Moving Forward Together)
사업기간	2011년 8월~2016년 7월
사업예산	14,734,728 USD
사업요소	농업 회복 및 발전, 보건 및 영양, 수자원 및 위생
사업수행기관	-수행 기관: Food for the Hungry, Relief and Development -하청: Search for Common Ground,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사업의 목적	토지 관리 및 보존방법 개선, 식량 안보 개선, 수자원 및 위생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한 농가 소득 및 농업 생산 증대

자료) USAID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NEFAP은 농업, 보건, 수자원 및 위생 등 폭 넓은 이니셔티브를 포괄한다. 이는 카탕가(Katanga)주의 칼레미(Kalemie)와 모바(Moba)지역과 남키부(Sud Kivu)주 와룽구(Walungu)지역의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50만여 명의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하고 0세와 5세 사이의 저체중·저성장 아이들의 비율을 각각 10%, 15%까지 줄이며, 농업 활동을 통해 농가 생산 및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 고영양의 식품을 다양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영양활동 개선을 위한 장려활동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타 공여국과의 협력으로 수자원 및 위생 인프라를 제공하고 건강한 영양 및 위생활동들을 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농생산, 농가공 및 마케팅 프로젝트

사업명	Food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Project (FPPM)
사업기간	2011년 5월~2015년 5월
사업예산	20,500,000 USD
사업요소	식량안보 및 중소기업 지원Food security and support for SMEs
사업수행기관	- 수행기관: Development Alternatives Incorporated - 하청: International Fertilizer Development Center, Making Cent
사업의 목적	킨샤사(Kinshasa) 주변 지역 소농가와 중소기업의 주요산물 생산, 가공, 마케팅 증가를 통한 식량의 적절성 강화와 이를 통한 식량안보 증가

자료) USAID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FPPM는 농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새롭고 더 효과적인 농작법과, 마케팅 교육을 통해 농업생산 및 소득증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카사바, 옥수수, 콩, 동부콩, 땅콩 등의 주요산물의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식량 생산의 증가 외에도 생산이 시장까지 연결되는 끊어진 가치 사슬의 회복을 통하여 소농가의 소득창출을 강조 한다. USAID는 킨샤사 시장의 농업 가치사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수확 후 관리 기술 및 마케팅 서비스 등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농가공의 매 단계에서 농촌 인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있다. USAID는 카사바의 개선 종 개발 및 분배를 지원하며, 또한 바콩고(Bas-Congo)주, 킨샤사, 반둔두(Bandundu)주의 영농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FPPM은 중소기업과 함께 농산품의 생산, 저장, 가공 및 마케팅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4) USAID와 DR콩고 정부의 협업 체계

USAID는 DR콩고 정부 각 부처와의 MOU를 통하여 해당 부처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교부, 농업농촌개발부와 MOU를 맺었고, 이 부서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원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 사업에 있어서 농업농촌개발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타 부처의 장관, 전문분야 직원, 지방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3개월에 1회씩 정기회의를 농하여 USAID의 지원활동을 공유하고, 지원활동의 제약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20]

20) USAID 면담 참조

다. 스웨덴/SIDA

1) SIDA의 DR콩고 지원 개황

스웨덴은 2006년 이래로 국민총소득의 0.9%이상을 ODA로 지원하는 단연 선진 공여국이다. 전체 ODA 중 약 30%를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DR콩고는 스웨덴의 중점협력국 중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국가이다. 이는 DR콩고에 대한 스웨덴의 인도적 차원 원조정책 하의 지원이 컸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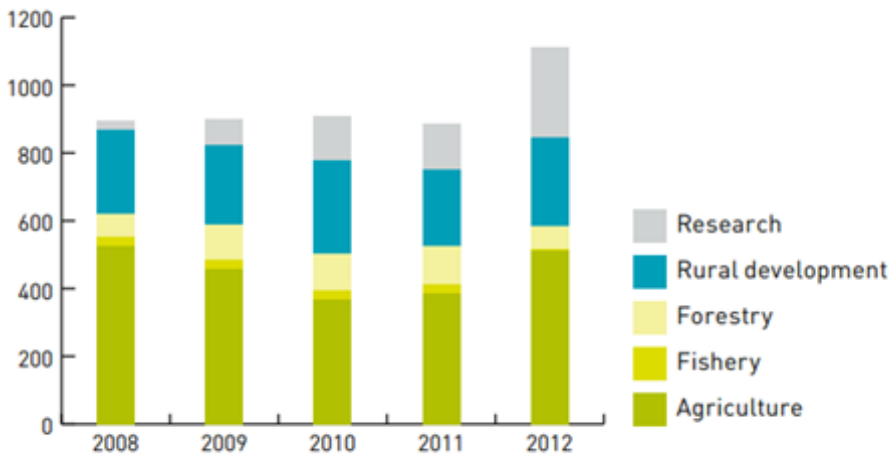
스웨덴은 2003년 글로벌 개발 정책에 입각하여 빈곤 감소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기후변화, 성평등과 개발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3가지 중점테마를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보듯이 스웨덴의 개발협력프로젝트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2011년 기준 스웨덴 ODA의 78%가 성평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된 것임이 평가되었다(OECD, 2013). SIDA는 성평등 주류화 체크리스트를 사업의 모니터링에 중요한 도구(tool)로 활용하고 있다.[21] 스웨덴의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 거버넌스, 시민사회지원 등 사회인프라 분야의 지원이 두드러진다.

2) SIDA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전략

SIDA는 국가별 농업·농촌개발 지원전략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있다. 대신 국가별로 수립한 개발협력전략에 포함된 농업부문 전략을 따르고 있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SIDA가 협력국에 지원한 농업·농촌개발 분야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농업분야가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농촌개발 분야 24%, 산림 6%, 그리고, 어업분야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분야 내에서 연구지원은 약 24%를 차지하였고, 특히 최근에 농업연구지원이 크게 늘었다(그림 4-13).

21) SIDA, Mainstreaming Tool: Checklist for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그림 4-13] 2008~2012 주된 분야별 지원 규모



자료) SIDA(2013) Portfolio overview, SIDA's Portfolio withi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Rural development

SIDA의 주요 지원내용은 농업기술개발, 농업지도(extension service), 토지정책개혁지원, 토지행정, 농가공 및 마케팅, 교육훈련, 축산 및 가축병치료지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이다. 특히 2012년에는 농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증진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다. SIDA는 특히 농업분야에서 성평등을 주류화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스웨덴의 대 DR콩고 지원은 DR콩고 협력전략(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DRC 2009~2013)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2)]

- 평화, 재건,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 빈곤 감소적 경제개발(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 보건(성폭력예방 및 피해자관리, 성·생식보건 및 권리증진을 중심으로)

22) 차기 협력전략인 대 DR콩고 협력전략 2014~2018은 보다 넓은 분야를 적용하여 인간안보, 생계지원(여성과 청년을 위한 직업창출을 중심으로), 환경,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포함할 예정이다.
– SIDA 면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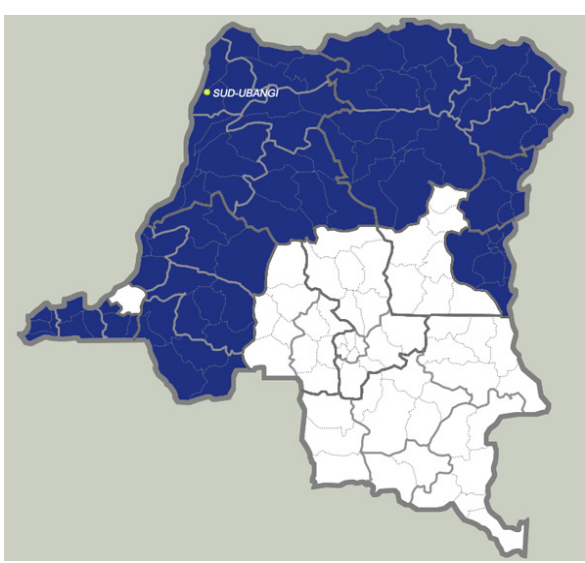
이 중 농업분야는 빈곤 감소적 경제개발 축의 일환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평화배당금'의 혜택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SIDA의 농업분야 지원은 농업생산성의 지속가능한 증대, 농업의 다각화와 산림자원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장접근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출시장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DR콩고 농업투자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전략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토지사용권, 재산상속권, 경제활동기회에 대한 권리부여를 중요한 요소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3) SIDA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SIDA는 현지사무소가 대사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현지 대사관과 SIDA가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SIDA는 주요 협력파트너인 국제기구, 현지 NGO, 협력국 정부기관 등에게 사업의 실행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며, 사업 모니터링, 정책대화와 자문제공은 직접 시행 방식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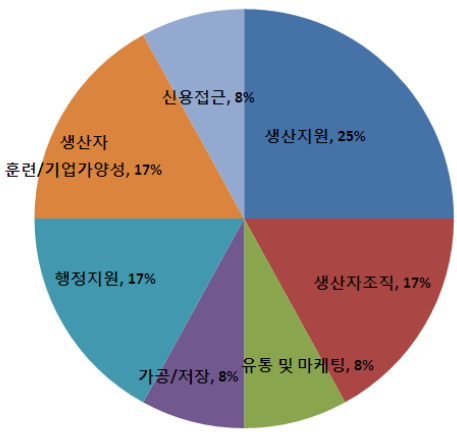
[그림 4-14] 진행 중인 사업 지역 (SIDA)



자료) 연구진 작성

2014년 2월 현재 진행 중인 SIDA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분야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1,300만 달러이며, 세부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15]와 같다. 생산지원과 생산자 조직지원 및 생산자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마이크로 파이낸싱 분야 지원에 있어서는 공여국 및 국제기구 중에서 SID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15] SIDA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분야별 지원 비중



자료) GIBADER 제공 자료 재구성

가)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원 프로그램(PASMIF II)

사업명	Programme d'appui au Secteur de la Microfinance en RDC, Phase II(PASMIF II)
사업기간	2011년 5월 3일~2014년 12월 31일 (48개월)
사업예산	22,216,200 USD
사업수행기관	UNDP, UNCDF(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사업의 목적	- 마이크로 파이낸싱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틀 개발 - 안보를 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 금융서비스 접근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급

자료) SIDA 자료 참고로 작성

이 사업을 위해 DR콩고 재무부, 중소기업부, 중앙은행(BCC)와 마이크로 파이낸스 진흥기금(Fonds de Promotion Microfinance: FPM), 마이크로 파이낸스 관련 기관, COOPEC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사업 시행에 협조를 하였다(DRC government and UNDP, 2012). 이 사업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관련 감시와 조사업무 담당 공무원과 BCC 직원 교육
- 고객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
- 이 분야의 변천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
- 킨샤사와 지방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관련 기관 및 COOPEC 39개 단체의 서류 감사 실시

나) 평화와 화해 지원을 위한 Kungu지역 경제재건프로젝트

사업명	Relance de l'économie locale de Kungu en appui au processus de réconciliation et de paix
사업기간	2011년 7월~2014년 12월
사업예산	28,815,800 SEK(4,565,660 USD)
사업지	에콰퇴르(Equateur)주 쿵구(Kungu territory)
사업수혜대상	직접적: 5천가구(3만여명), 간접적: 20만가구(30여개 마을)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기관	- 사업수행기관: FAO (FAO Mbandaka 사무소, FAO country office) - 협력기관: NGO, IPAPEL(주정부 농업, 축산업, 어업감시위원회), DVDA(농어촌도로공사), SENASEM(국립종자협의), 농민협회
사업의 목적	농업생산증대와 소득창출활동, 시장접근 개선으로 지역 경제를 부흥시켜서 분쟁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에 평화재건을 이룩하는 것
사업내용	- 생산자조직화로 시민 사회 강화 및 조직운영역량 강화 - 농업, 어업, 축산 생산지원, 농가공 설비 지원 - 인프라 개선(저장고, 커뮤니티 시장, 다리, 도로보수, 커뮤니티 라디오국 등) ※ 본 사업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귀환민(returnee)들이 약 5천여 가구가 상주
주요활동	기술 및 생산조직 지원, 생산개선지원(농업, 축산, 어업) - 지역의 농업생산물 연구로 농업부문 중점개발 분야 파악 및 확정 - 생산자조직화 및 교육: 워크숍 트레이닝 50회 실시(3,200여명을 대상) - 농생산 다각화, 생산의 양적, 질적 개선, 마케팅 환경 개선, 생산기술지원

자료) FAO, SIDA(2013), Project Advancement Report(January - December 2013), SIDA Programme Officer 면담내용 종합

이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으며, 1년여의 사업실행기간 동안 사회적 결속, 커뮤니티의 주인 의식 고취, 여성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사업의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23)]

[글상자 4-2] 쿵구(Kungu)지역 경제재건 프로젝트의 시사점

1) 사업의 긍정적 효과
- 사회적 결속 : 분쟁의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 농민조직 활동을 통한 주민의 삶의 희망 회복, 사회적 결속에 기여
- 현지 NGO를 이용한 성공적인 농민조직화: 농민 재조직, 역량 강화활동으로 양적·질적 생산 증대에 기여
- 커뮤니티의 공동체의식과 주인의식 고취: 커뮤니티 인프라 개선 작업에 주민들의 참여
- 젠더 측면: 여성 의견 반영을 통해 여성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통한 여성 역량 강화 제고(생산자조직 구성의 여성비율 30%이상, 워크숍 및 연수 참석자의 여성비율 40%이상)

2) 사업수행상 위험요인
- 우기의 도로 및 다리 훼손으로 인한 사업 수행지 접근의 어려움
- 건설자재가격의 상승과 자재부족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작업의 지연
- 하도급업체의 부실한 재원관리로 일부 건설작업 중단
- 낮은 교육수준과 보수적인 관습적 영향으로 생산자 조직관리위원회의 여성 참여 저조

3) 시사점
- 농생산자의 조직화 및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남성, 여성, 촌장 등 관습적 권력자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이 필요
- Farmer's Field School 형태로의 밀착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할 상주 인력의 배치가 중요
- 현지 사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운영역량이 뛰어난 현지 NGO와의 협력으로 사업효과 제고 가능





자료) FAO, SIDA(2013), Project Advancement Report(January - December 2013), SIDA Programme Officer 면담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23) SIDA는 이 사업을 성공사례로 소개했다.(SIDA 면담 참조)

2. 주요 국제기구의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가. AfDB

1) AfDB의 DR콩고 지원 개황

DR콩고는 1964년 9월 10일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에 가입하였다. AfDB는 DR콩고 지역사무소를 국가사무소로 재분류하였으며, 인프라 격차와 취약한 거버넌스 및 제도적 역량 등 DR콩고 취약성의 원인이 되는 2가지 요소를 공략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표 4-7> 분야별 지원현황 (AfDB)

분야	%
인프라	67.19
농업	17.87
사회분야	8.46
거버넌스	6.35
민간부문	0.13

자료) AfDB(2013), 2013~2017 Country Strategy Paper

AfDB의 DR콩고에 대한 가장 최근의 2013~2016년 국가전략보고서(CPS)는 AfDB의 2013~2022년 10개년 전략과 2011~2015 중앙아프리카 지역통합전략보고서(RISP) 및 AfDB의 취약국에 대한 강화된 개입전략 등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AfDB, 2013).

- 2011~2015년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문서(PRGSP) 및 우선분야 형성에 중점을 둔 DR콩고 정부의 2012~2016년 5개년 계획과의 일관성
- 분야 개입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한 우선 중점지역 선택
- 타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상호보완성 강화
- 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DR콩고 과거 및 현재 사업성과 통합

- DR콩고의 변화하는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및 운영 방안의 지속적인 조정을 보장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접근법을 통하여 융통성 강화

2) AfDB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전략

AfDB의 농업·농촌분야 지원의 첫 번째 전략은 민간 투자 및 농촌통합지원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총 세 가지의 단기목표를 가지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에너지, 천연자원, 교통 및 농촌 인프라분야 거버넌스 개선, 지역통합 강화이다.

양질의 인프라 기반시설 수립을 통한 민간투자 지원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취약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AfDB는 기후보호시스템을 적용하여 DR콩고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기후 변동과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녹색성장을 장려할 것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은 거버넌스 개선 지원과 병행하여 보다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DR콩고와 인근 국가들 간의 교역과 전력망 상호연결 개발을 목표로 위와 같은 모든 지원 활동에서 양성평등 확립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국고 세입 증대와 민간투자 실행가능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역량 개발이며, 이는 공공재정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과 경쟁력, 사업 환경 및 민간부문 증진이라는 두 개의 단기목표를 지닌다. 두 번째 중점분야는 첫 번째 중점분야를 뒷받침하며 경제규제 개선 및 공공재정 동원과 개발 재정지원에 대한 민간투자 개입을 통하여 경제 거버넌스를 증진하고 중앙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원칙은 또한 개발사업의 질적 영향보다 정확한 분석과 국가 차원에서 특정 이슈를 면밀히 참작하기 위하여 성별 등에 대한 분리자료 제공을 목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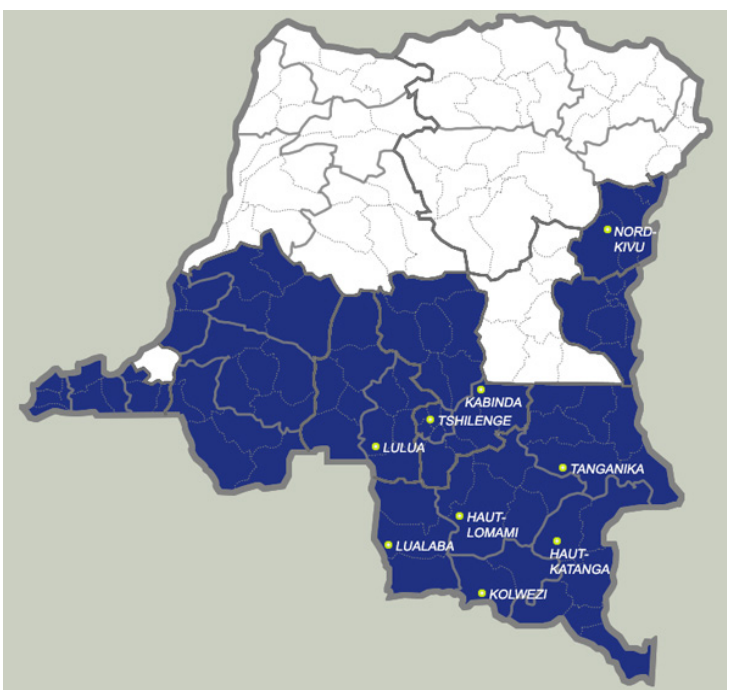
이에 따라 AfDB는 공공행정 인적자원 동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행정조직 개편 이행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또한 금융부문 역량 개발은 물론 정부의 법적 및 관리체계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목적은 민관협력 개발을 위한 체계를 수립

하고 PPP부서를 조직하여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것인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AfDB는 중소기업을 지지하는 선별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AfDB는 DR콩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위한 '아프리카 중소기업 프로그램' 산하 기술지원 사업자금을 지원토록 참여를 도모할 것이다.

위 원칙들에 기반을 둔 세부계획들은 AfDB 지원을 상호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프라 개발로 경제의 생산적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성장에 파생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의 역량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업분야 PPP 예비사업을 통해 이 두 가지 요소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3) AfDB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현황

[그림 4-16] 진행 중인 사업 지역 (AfDB)



자료) 연구진 작성

AfDB의 DR콩고 포트폴리오는 12개의 국가사업을 포함하여 3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4-8>에 보이듯이 그중 농업분야는 17.87%로 인프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AfDB, 2011).

<표 4-8> 농업·농촌개발분야 지원사업

단위: 100만 달러

사업	약정	지급	사업기간
농업분야			
Bas-Congo와 Bandundu주 농업농촌 재건사업 (PARSAR)	25.00	19.94	25/05/04–31/03/12
Katanga와 Kasaï주 농업농촌 재건사업 (PRESAR)	35.00	28.05	02/02/06–31/01/13
인프라분야			
Nselé-Lufimi와 Kwango-Kenge 도로 재건사업	52.45	34.02	29/12/05–31/12/11
준도시 지역 식수 공급과 위생 사업 (PEASU)	70.00	20.88	09/08/07–31/12/12
Inga 수력발전소 및 Kinshasa 분포그리드 재건 및 보강 사업 (PMEDE)	35.70	–	10/04/08–31/12/14
항공안전 우선사업 (PPSA)	88.60	–	02/11/10–31/12/15
농촌 및 도시외곽 전력공급 사업 (PEPUR)	69.69	–	10/03/11–31/12/15
사회분야			
Oriental 지역 보건 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PAPDDS)	25.00	8.27	25/05/04–31/03/12
사회경제적 재통합 지원 (PARSEC)	15.00	2.31	09/08/07–30/06/13
다분야			
인적자원 활성화 및 동원 (PRM-RH)	20.00	–	04/05/11–31/12/15
Total	483.3	114.98	4.6년

자료) AfDB 자료 재구성

가) 농업농촌분야 재건사업(PRESAR)

2005~2011년까지 진행된 농업·농촌분야 재건사업(PRESAR)은 농촌지역 식량안보와 빈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생산지원서비스 역량개발, 동물견인과 작업도구 현대화, 개량종자 보급, 생산 및 마케팅 인프라 재건 및 풀뿌리 공동체 조

성 등을 지원하였다. 다수의 훈련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자의 기술역량은 물론 자료처리, 조달, 노동집약적 업무분장, 농민 인식개선, 농업생산기술 홍보 등이 이루어졌고, 동물견인과 농업생산기술 홍보로 농경지대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졌으며, 식용작물(옥수수, 콩, 땅콩, 쌀)의 평균 수확량이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도 상승 하였다.

농업생산 증가는 농민소득 증대를 신장시켰으며 주거 개선과 농용 차량 및 트랙터 구입,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은 개인 생산자와 조합을 위한 농경지 확대 등을 가능케 하였다. 농촌도로 재건은 생산지역을 개방하고 이동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부터 대형화물 자동차까지 모든 차종이 생산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건된 도로 주변으로 시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아울러 수자원 계획(water schemes)에 힘입어 15만 7천명의 주민이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인성 전염병이 줄었고, 특히 이 사업 수혜자의 80%를 차지하는 여성은 이 덕분에 물을 구하는데 드는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었으며 학교 교육, 농사, 훈련, 아동교육 등에 시간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농촌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젝트(PADIR)

사업명	Project d'Appui au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Rurales(PADIR)
사업기간	2012~2017년
사업예산	7,500만 달러(50,870,000 UA) - 투자사업차관(Investment Project Loan)
사업분야	농촌 인프라
사업목표	농촌 인프라 재건과 역량 개발
사업요소	농촌 인프라 재건, 역량 개발 사업관리
사업집행기관	농촌개발부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자료) AfDB(2011), 농촌 인프라 개발 지원사업(PADIR)

PADIR 사업은 PARSAR, PRESAR 사업 경험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인프라 제약에 따른 농촌개발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서,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구상되었다. 농촌 인프라 재건과 역량개발을 증진코자 하며 2만 3,300개의 정규직 창

출, 상인 월소득 증대(150달러에서 250달러), 농업생산 마케팅 향상 등의 결과가 기대된다. 사업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농촌도로건설, 식수, 창고, 도살장 설치
- 직업훈련센터, 사회재통합센터, 작업장, 가공장
- 인프라 담당 공무원, 전문가 교육

PADIR는 PARSAR와 PRESAR(농업·농촌분야 재건) 사업지에서의 농산물 수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농촌 인프라와 기술서비스 및 지역사회조직 역량개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나.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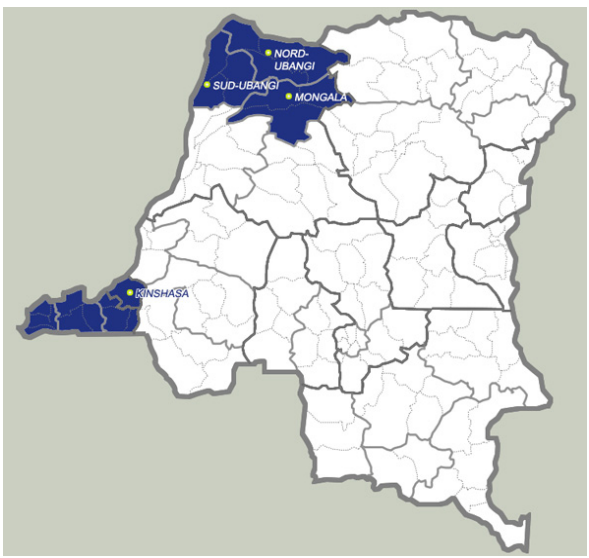
1) World Bank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전략

World Bank의 2013~2016년 국가지원전략(CAS)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목표에 달성을 하고자 한다. 두고 있다: ① World Bank 사업의 개발 효과 및 국가의 효과성 증진, 거버넌스 개선, ② 고용창출 등 민간부문주도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적 경쟁력 신장, ③ 인간개발지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개선, ④ DR콩고 동부 지역 취약성과 분쟁에 일조하는 개발적자 지적. 또한 젠더와 기후변화는 범분야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대 DR콩고 농업·농촌분야 지원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농업생산증대, 농촌지역의 여성 및 청년층의 직업창출, Agro-business 개발이 그것이다.

2) World Bank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World Bank의 DR콩고 포트폴리오는 총 31억 달러에 이르는 17개의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총 11억 달러에 달하는 두 개의 지역사업도 포함되어있다. World Bank 포트폴리오는 주로 인프라 재건사업(도로, 철도, 식수, 전기), 4개 지역 공공 금융관리 및 광업분야 거버넌스, 공기업 개편 및 사업환경 개선, 보건 및 교육 인프라 재건과 보건, 교육, 사회보호 서비스 개선 및 관리, 국유림 관리 그리고 농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17] 사업대상 지역 (World Bank)



자료) 연구진 작성

가) 농업 재건과 활성화 지원사업

DR콩고 농업 재건과 활성화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선별지역 소작농의 작물 및 가축 상품 마케팅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사업에는 세 가지의 중점분야가 있으며, 그 첫째는 농업 및 가축 생산 개선이다. 이 중점분야는 약 10만 5천개의 농가, 혹은 73만 5천인의 천수 농작물(Equateur), 관개쌀(Pool Malebo), 소형 반추동물 및 양계 생산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한다.

본 사업의 두 번째 중점분야는 사업지역 농민조합 역량개발을 위하여 농업 투입재(주로 종자)와 생산품 마케팅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민간 농산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지선도로 재건과 에콰퇴르(Equateur)지역 몇몇 지역시장 재건 혹은 건설을 포함한다. 세 번째 중점분야는 농업부와 농촌개발부, 사업관리에 대한 역량개발/제도적 지원이며, 이는 농업농촌개발부의 역량개발 지원,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M&E) 등의 세부중점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명	Programme d'Appui à la Réhabilitation et à la Relance de l'Agriculture (PARRSA)
사업기간	2010~2015년
사업예산	$130,000,000: 특정 투자 차관(Specific Investment Loan)
사업지역	Mongala, Nord Ubangui, Sud Ubanqui (Equateur), Pool Malebo (Kinshasa)
분야	농촌 서비스와 인프라 (68%), 농촌 정책 및 기관 (19%), 기타 농촌개발 (7%), 수자원관리 (4%), 농촌시장 (2%)
사업의 목적	소작농의 작물과 가축 생산량 개선 및 증대, 2,500km 도로 인프라 재건 지원
수행기관	MINARD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

나) 성장거점 프로젝트(Growth Poles Project)

West Growth Pole 사업은 네 가지의 중점분야를 두고 있다. 첫째 분야는 바콩고(Bas-Congo)주 농업 가치사슬 개발로 농민조합의 농업공급역량을 증진하고 선별된 가치사슬과 킨샤사(Kinshasa)를 포함한 공급시장 강화를 위하여 기초 농촌 인프라를 지원하며 또한 기술 협력을 위하여 농민조합과 수혜기관에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기술적 정책과 농촌 도로를 건설함은 물론, 전기 네트워크와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West Growth Pole 사업은 이에 따른 농업생산 역량 강화 및 농촌 인프라 지원 등의 세부중점분야를 두고 있다. 두 번째 중점분야는 말루쿠(Maluku) 특별경제구역(SEZ) 개발이며, 이는 2006년 투자 환경 분석에서 제약조건으로 분유된 중점 인프라와 투자자와 민간부문 사업자를 위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갖춘 산업용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 중점분야는 ① 민관협력(PPP) 촉진, ② SEZ 개발 관련 정부부처 역량 강화, ③ 물리적 인프라 등의 세부중점분야를 포함한다.

세 번째 중점분야는 주도적인 사업개발이며, 이는 투자를 촉진하고 선별된 가치사슬과 극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말 킨샤사(Kinshasa)에서 개발 파트너들의 지지를 받은 정부의 가치사슬별 전략적 파트너십 접근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중점분야는 ①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개발기금, ② 선별된 규제개혁, ③ 바콩고(Bas-Congo)지역 마타디(Matadi)항만 무역원활화 등의

세부중점분야를 두고 있다. 네 번째 중점분야는 조정,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및 평가이며, 이는 기술협력을 통하여 정부의 기존 구조에 기반을 둔 조정되고 통합된 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또한 유관부처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관할하여 조정(coordination)하는 것이다.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네덜란드 개발기구(SNV) 등 다수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World Bank는 현재 West Growth Pole에 이어 DR콩고의 동부지역의 부카부(Bukavu), 우비라(Uvira), 칼레미(Kalemie)를 연결하는 두 번째 Growth Pole 프로젝트의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개발 접근법은 물론 개발채널 (가치사슬) 및 농산업(agribusiness) 등에 기반을 두었다. 중점분야는 아직 설정 중에 있으며 현재 ① 지역 공동체 및 기관에 대한 개발기금을 포함한 지역사회기관 및 지역개발 지원, ② 가치사슬 개발 및 지역사회기관 지원과 같은 두 중점분야의 윤곽이 그려졌다:

사업명	Projet de développement des Pôles de Croissance Ouest (PDPC)
사업기간	2013~2019년
사업예산	$114,700,000: 특정 투자 차관(Specific Investment Loan)
사업지역	반둔두(Bandundu)주 콴고(Kwango), 바콩고(Bas-Congo)주 보마(Boma)
분야	<분야> - 농산업, 마케팅 및 거래 (30%) - 전반적인 농업, 어업, 삼림업 (28%) - 농촌 및 도시 간 도로 및 고속도로 (24%) - 공공행정 (14%) - 통신 (4%) <테마> -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 (57%) - 중소기업 지원 (17%) - 농촌 정책 및 기관 (17%) - 무역원활화(수속 간소화) 및 시장 접근 (6%) - 지역 통합 (3%)
사업의 목적	생산성 증대 및 선별된 가치사슬내 고용 확대
사업책임기관	Minstry of Finance

자료) World Bank(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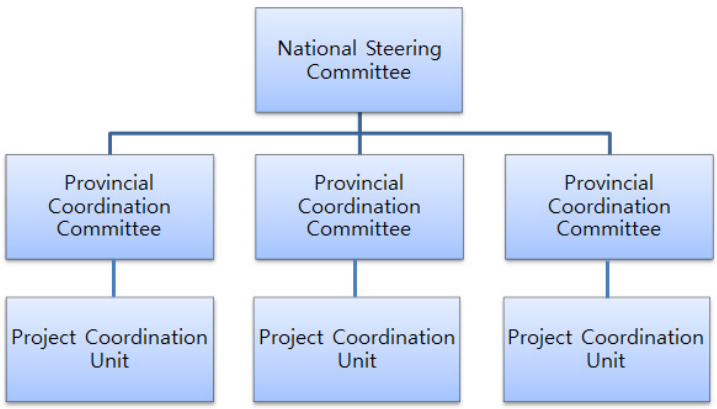
전술한 사업은 DR콩고 동부지역의 여건에 부합하여, 정치적으로 대립 중이나 토지 접근 등에 대하여 화해할 수 있는 인근 지역사회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위 사업은 사업기금의 30%를 Agribusiness(쌀, 육류 등)에 책정하고 50%를 농촌 인프라 개발(농업 서비스를 위한 도로, 저장소, 수력 전기)에 분담할 것이다. 또 다른 분야로서 ③ 사업 이행부서 및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 이는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의 나머지 5%는 ④ DR콩고 동부 접경국(르완다, 우간다, 부룬디, 탄자니아)과의 지역통합과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적인 대화 체계 구축에 쓰일 것이다. 또한 DR콩고 동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 반군과 의용군의 농업분야 경제활동을 개발할 것이다.

3) World Bank와 DR콩고 정부의 협업 체계

World Bank는 프로젝트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를 두어 지원 방향 제시와 의사결정, 연간 예산승인의 역할을 하고, 그 하부에 프로젝트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를 둔다.[24] 프로젝트가 농촌개발 사업이면 농촌개발 사무차관이, 농업부 사업이면 농업 사무차관이 이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맡아 운영한다. 이 운영위원회는 연간 1~2회의 총회를 가진다. 주(Province) 단위에서는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2~3개의 주 단위위원회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지방분권화 정책과도 상통한다. 조정위원회 아래 World Bank의 절차에 따라 기용된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단(Project Coordination Unit)'이 있어 사업기획 및 재무관리를 한다.

24) MINARD 농촌개발 사무차관 면담 참조

[그림 4-18] World Bank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자료)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Growth Pole 프로젝트의 겨우 재무부가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Fragile States Unit(Facilité des Etats Fragiles)을 구성하여 사업의 준비와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 관계부처, 사업지 주정부, 민간기관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의 요소에 따라 협업하는 기관이 아래와 같이 분담되어 있다.[25)]

- 농산업(Agrobusiness): MINARD, INERA(국립농학연구소)[26)], SENASEM(국립종자센터)[27)], DVDA(농어촌도로공사)[28)]등
- SEZ(Special Economic Zone):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정부기관 외에도,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CONAPAC(농민조합연맹)[29)], FEC(콩고기업연맹)[30)] 등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이 외 주요 협력 파트너는 프랑스 AFD(인프라), AfDB (Growth Pole project, 인프라), 벨기에(농업, 농촌도로,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 중국(기본인프

25) World Bank 면담(2014.1.31.)
26) Institut national pour l'étude et la recherche agronomique
27) Service national des semences
28) Direction des voies de desserte agricole
29) Confédération nationale de producteurs agricoles du Congo
30) Fédération des entreprises du Congo

라), DfID(PSD, 도로), European Commission(인프라, 농촌도로, 에너지), FAO(농업), UNDP/UNCDF(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이다.

다. FAO

1) FAO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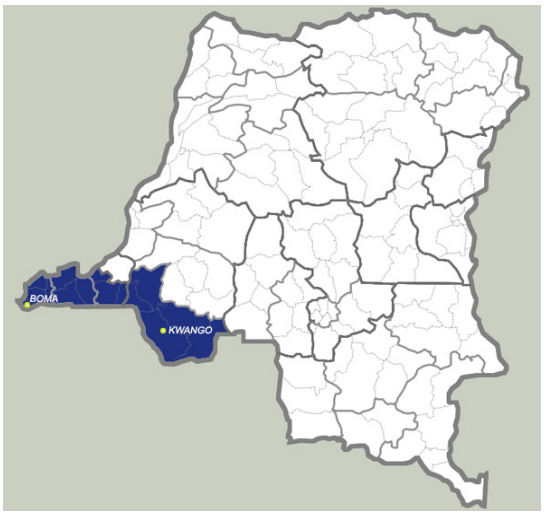
FAO DR콩고 사무소는 1978년 설립된 이래로 DR콩고 정부의 개발목표를 지원하며 운영되어왔다. '정부행동계획 2012~2016'에 따라 DR콩고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핵심 경제부문의 하나로 보고 있다 (FAO, 2013). 이러한 DR콩고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FAO는 DR콩고 정부와 2013~2017 CPF(Country Programming Framework)를 체결하였다. 이 5년간 FAO의 중점 지원 분야는 농업분야 거버넌스 개선, 농촌개발, 재생가능한 자원개발, 위기관리, 원예작물, 축산 및 어업분야 개발, 농산업(agrobusiness) 증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다. CPF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개발 파트너, FAO 본부 및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중앙아프리카 소지역사무소의 전문가 및 직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CPF는 제2차 빈곤감소 및 성장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Paper: PRGSP 2)와 국가 농업 투자 프로그램(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rogramme: PNIA) 등과 같은 DR콩고의 국가개발계획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CPF의 활동은 상당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약 2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2013년 3월 기준, 사용가능한 재정은 약 4,500만 달러로, FAO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여러 공여국의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2) FAO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DR콩고에서 FAO는 주로 DR콩고 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농촌개발부와 작업반(Working Group)을 만들어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정책입안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농업법 및 토지법 개정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주고 있다.

[그림 4-19]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지역 (FAO)



자료) 연구진 작성

FAO는 DR콩고가 내전을 겪으면서 지난 10여 년간 긴급구호와 재건에 주력해 왔으나, 점차적으로 복원력(resilience)있는 성장으로 사업의 중점방향을 전환하고 있다.[31] FAO 내에 카사바 및 카사바 가공설비, 쌀, 팜오일, 마케팅, 저장 및 포장 등 전문분야 그룹을 구성하여 폭넓은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킨샤사에 있는 국가 사무소 외에 전국에 걸쳐서 11개의 지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CPP 2013~2017에 따라 FAO가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FAO,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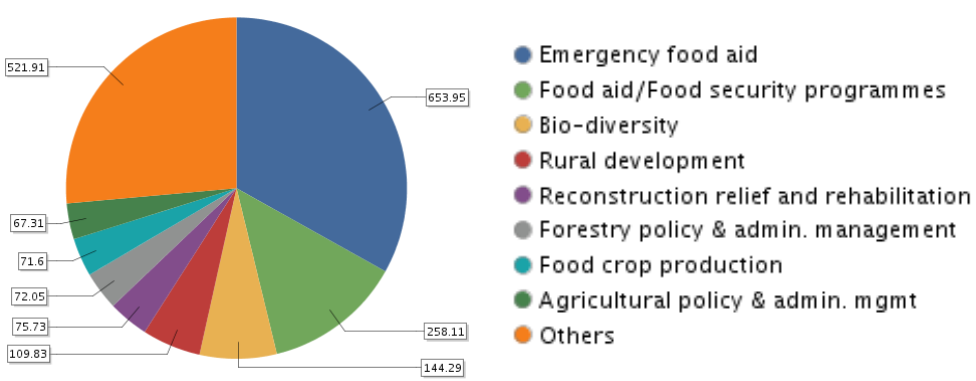
- 농업분야, 농촌개발 및 천연자원, 인도주의적 위기관리 등에 대한 정부 역량 강화
- FAO는 기술 및 기관 협력을 통해 분석, 진단, 결과중심 기획, 프로그래밍, 예산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중앙 및 지방체계의 역량 강화와 농업 위기에 대한 원조 조화강화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덧붙여 FAO는 국가의 농업 및 환경적 통계시스템 활성화와 농업, 식량안보, 영양에 대한 국가적 경보·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가치사슬(value chain)및 기업식 영농 접근법을 통한 원예작물, 축산업, 수산업의 발전

31) FAO, Country Representative, Deputy Representative, Project Coordinator 등 면담(2014.2.5.)

- FAO 지원은 상업적·경쟁적인 농산업의 점진적 발전을 지향하는 한편, 개선종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며 가치사슬 접근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투입요소, 발전기술 및 재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FAO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가공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여러 산업분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내전,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 비상키트와 유가변동, 유행병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긴급사태대책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충격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한다.
- 환경 보존 및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FAO는 참여적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추구하며 토지 자원, 물, 산림, 어업 등의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개발을 도모하도록 지원한다.

2007년~2012년간 FAO가 중점을 두고 지원한 세부분야를 보면, 긴급식량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식량안보지원과 환경정책 및 행정지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4-20).

[그림 4-20] FAO의 세부 지원 분야(2007~2012)



자료) FAO, http://www.fao.org/tc/adam/data/index.html#BROWSE

FAO가 지원한 사업은 <표 4-9>와 같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표4-10>과 같다.

<표 4-9> FAO Initiatives

프로젝트명	지역	기간	잠재적 효과
농업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킨샤사주	2010~2011	– 분야별 정책 컨설팅 (다양한 농업정책) – 활동 및 세부요소 아웃소싱 (multiplication of cuttings, small ruminants) –시너지효과 및 상호보완
대두 부문 발전을 통한 식량 안보 및 영양 지원*	반둔두 및 바콩고주	2011~2013	
식량안보, 영양, Konzo 대응 지원	반둔두주	2011~2013	

자료) IFAD(2013)“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 Programme d'options stratégiques pour le pays,”Other donor's Initiatives 참조

<표 4-10> 현재 진행 중인 FAO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간	전체 예산	가능 예산 (2013/1/1 기준)
기술협력 프로그램(TCP) 설비	2012~2013	42,329	42,329
남키부(South Kivu)주 Soy Kaziba지역의 분야개발 지원	2012~2014	297,000	229,520
DR콩고의 과일 생산 신장을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지원	2012~2014	296,000	168,918
Irumu의 최근 위기사태에 대한 긴급 농업 투입요소 지원	2014~2014	465,000	0
DR콩고 카사바 분야 밸류체인 증진 지원 프로젝트	2014~2015	392,000	0
바콩고(Bas-Congo)주 맹그로브 해상공원의 참여적 관리 지원	2014~2015	0	0

자료) https://extranet.fao.org/fpmis/FPMISReportServlet.jsp?div=&type=countryprofileopen&language=EN&countryId=

(a) 대두 부문 발전을 통한 식량 안보 및 영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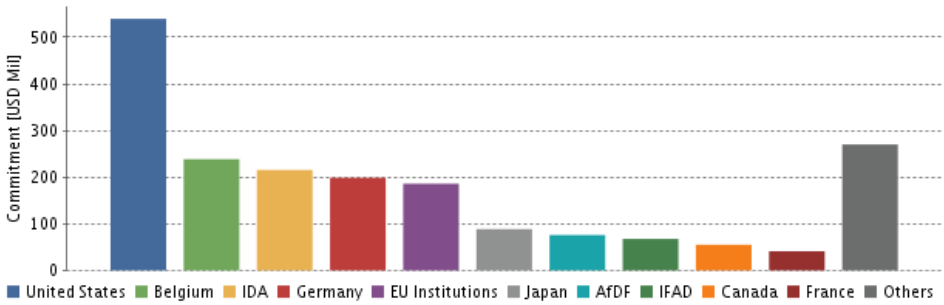
사업명	Appui à la sécurité alimentaire et nutritionnelle à travers l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Soja
사업기간	2011~2013년
사업예산	49만 5천달러 (100% FAO 재정지원)
분야	기술협력
사업의 목적	PAPAKIN 프레임워크에서 생산지원 및 생산 시스템 다양화를 위한 성과 자본화

자료) http://www.rdc-humanitaire.net/index.php/centre-de-presse/communique-de-presse/2827-lancement-officiel-du-projet-qappui-au-developpement-de-la-filiere-soja-dans-la-chefferie-de-kaziba-en-province-du-sud-kivuq

이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의 성장과 다양화를 지원하고, 보존과 가공을 통한 농산품 마케팅을 향상시키며 생산자(조직 및 협회)와 다른 가치사슬 관계자들의 기술적,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DR콩고 정부의 요청으로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생산의 증대와 다양화를 촉진하고, 특히 왈룽구(Walungu)의 카지바(Kaziba)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두산업 개발을 통해 식량 안보 및 영양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간단한 곡류 가공기술과 대두 상품의 저장과 가공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FAO가 개발한 '농촌학교(peasant's field school)'모델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을 강화와 농산물의 질 개선을 제고한다.

FAO는 기관 자체의 재정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21]을 보면 최근 5년간 가장 주목할 만한 재정지원 파트너는 미국, 벨기에, IDA 순이다. 미국과 벨기에는 주로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FAO에 위탁하였으며, IDA는 농산업분야(Agro-industry), 독일과 EU는 생태다양성 증진 분야의 사업 수행을 FAO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4-21] 재정지원 파트너 Top 10(2007~2012)



자료) FAO, http://www.fao.org/tc/adam/data/index.html#BROWSE

현재 타공여국과 국제기구의 기금으로 FAO가 수행중인 사업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FAO가 수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

공여국/공여기구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지원분야
벨기에	P4P project	$6,370,000	48개월 2010~2013	생산지원, 생산자 교육 가공/저장,
	Disaster Preparedness for Food Security Risks in the Great Lakes Region	$155,824	15개월 2012~2013	긴급구호
EU	Integrated Program response to malnutrition and food insecurity in the DRC	$2,860,000	36개월 2012~2015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가공/저장, 영양
스웨덴	Re-launch the local economy of Kungu, in support of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peace	$4,380,002	40개월 2011~2014	생산지원, 생산단체지원, 교육, 가공/저장
IFAD	Listening clubs, the fight against poverty, food security and gender	$700,000	24개월 2012~2014	생산지원, 정보시스템

자료) GIBADER 제공 자료 재정리

라. IFAD

1) IFAD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전략

IFAD는 DR콩고의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지원 규모가 World Bank, AfDB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기구로서, 1980년 이후로 지원해 오고 있다. 내전으로 인해 10여 년간 지원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 기간을 제외하고 1980년부터 1991년까지, 2004년부터 현재까지 7개의 사업으로 15,300만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해 오고 있다.[32] 2004년 이후 3개의 주(Province)에서 진행된 중장기 프로젝트는 아래의 <표 4-12>와 같다 (IFAD, 2011).

<표 4-12> IFAD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재정공동지원기관
농업 부흥 프로그램(PRAPE)	2005~2012	Equateur주	벨기에 식량안보기금(BFFS)
농업 재건 프로그램(PRAPO)	2007~2013	Orientale주	벨기에 식량안보기금(BFFS)
농업 통합 재건 프로그램(PIRAM)	2010~2019	Maniema주	OPEC 국제개발기금(OFID)

자료) IFAD(2011)

DR콩고에서 IFAD는 식수, 보건, 교육분야의 지원 비중은 줄이고 농촌지역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IFAD의 사업은 주로 소농을 대상으로 하며, 농민조직화(PO) 및 농민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농생산 증대를 목표로 진행되었다.[33]

IFAD의 '국가전략기회 프로그램(COSOP) 2012~2016'은 DR콩고의 농촌지역의 여성과 청년층을 위한 소득기회 창출 등 경제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식량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FAD의 두 가지 주요 전략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32) IFAD website, 총지원금액: US$ 2억 7,030만달러, 승인된 IFAD 차관: 1억 5,140만달러, 총수혜가구 수: 476,000가구
33)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COSOP) 2003~2008의 전략적 목표는 농생산 증대, 유통채널 개선, 소농 조직화 및 역량 강화, 소외지역의 사회기본서비스접근 개선 등임.

- 효과적인 생산 서비스, 적정기술과 지역 시장에 대한 소작농의 접근 개선
- 농촌지역 민간기업과의 경제적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한 농민 기관의 전문성 향상

전자와 관련하여, IFAD는 식량 생산을 증대하고 다양하게 하는 한편, 식량과 영양 안보를 개선하고 수입 식량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가공 기술발전, 작물 품종 개선 및 생산기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농민조직 역량개발을 위해 농민 조직화하고, 소작농들은 조직적 역량과 자치권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및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지 NGO를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높은 농업잠재력을 작목의 생산을 재개하고, 식량안보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DR콩고 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IFAD는 높은 농업 잠재력(농업환경 고려, ha당 높은 수확량), 높은 인구밀도(용이한 노동력 마련), 시장 개방성(운송비 감소, 수요에 대한 접근 촉진)이 좋은 지역을 사업지로 선택하고 있다. IFAD의 주된 지원 대상은 소농으로서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소득증대와 자립성 강화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가지 전략적 목표는 DR콩고 정부의 농업·농촌개발 분야 전략(SSADR)과 국가 식량안보 프로그램(PNSA)의 전략과도 잘 조화된다. DR콩고의 농업·농촌개발전략(SSADR)은 ① 시장접근, 농촌 인프라와 비즈니스 역량 개선, ② 농업, 축산업, 어업 생산 향상, ③ 재정지원, ④ 거버넌스와 제도적·인적자원 역량개발, ⑤ 농촌의 자율 경영 구조로의 조직화라는 총 다섯 가지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글상자 4-3] IFAD ‘Strategic Framework 2011~2015’ 주요 중점 목표

1) 농촌 빈곤층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 저하, 시장변혁 등에 유연한 천연자원과 경제적 자산 기반
2) 농촌 빈곤층의 빈곤 감축, 영양 개선, 소득 증대와 환경 변화에의 회복력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3) 농촌 빈곤층과 단체가 수익성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이 강한 농업과 비농업 사업을 관리하고 적절한 일자리 기회를 활용토록 장려
4) 농촌 빈곤층과 단체가 소득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 기관에 대해 영향력을 갖도록 지원
5) 농업생산과 전반적인 비농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 환경 허용

자료) IFAD(2011), Strategic Framework 2011~2015

2) IFAD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DR콩고 농업 및 농촌개발의 가장 주된 제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업의 구성요소를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시장 접근성 개선, 농업생산증대 그리고 자금 조달 지원으로 정하였다. DR콩고의 여러 가지 사업 환경적 제약요건을 고려하여 빈곤한 농촌지역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단순화된 사업목적에 초점을 두었고, 소농을 사업의 주요 수혜대상으로 한다.

[그림 4 -22] 진행 중인 사업 지역 (IFAD)



자료) 연구진 작성

가) Kinshasa 식량공급 센터 지원 프로그램(PAPAKIN)

사업명	Programme d'Appui aux Poles d'Approvisionnement de Kinshasa en Produits Vivriers et Maraichers
사업기간	2013년~2023년(10년)
사업예산	1억 1,490만 달러[34]
사업지	1) Kinshasha - Madimba – Mbanza-Ngungu – Songolo territory 2) Bulungu, Idiofa, Gungu territory
사업수행기관	MINARD
사업의 목적	PAPAKIN의 전반적인 목표는 식량안보 개선과 농민 소득증대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며, 세부목표는 소작농의 생산수준을 높이고 킨샤사(Kinshasa)에 채소와 식료품을 공급하는 마케팅경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킨샤사(Kinshasa)와 바콩고(Bas-Congo)의 만 5천명에 달하는 채소 생산자와 반둔두(Bandundu)주 크윌루(Kwilu)지구에서 자급용 작물을 생산 및 가공하는 십만 영세농가의 생산 촉진 • 킨샤사(Kinshasa)와 바콩고(Bas-Congo)주 외곽지역 채소 생산 통합 • 반둔두(Bandundu)주 크윌루(Kwilu)지구 영세농업 촉진 • 분권화된 농업 보급 • 젠더 주화와 취약한 지역사회 일원 통합

자료) IFAD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PAPAKIN은 생산자 단체/조합 역량 개발, 농업보급, 지역사회기반 생산자 단체에게 제공되는 시장 지원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 사업은 킨샤사 소비 시장에서 생산성 증대와 시장 기회 등의 잠재력을 가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작목에 주력하고 있다: ① 카사바: 농업생산시스템의 주요 작물이며 농촌 및 도시 인구의 주식, ② 곡실용 두과작물(grain legumes): 영양가가 높고 토양비옥도를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조성하여 점점 더 다양한 생태농업 지역에서 경작되고 있음, ③ Tenera종 야자나무: 소규모 영세농민들의 환금작물, ④ 원예작물: 영양 다양성제공, 가계수입증대와 여성과 청년들에게 고용 창출기여

34) IFAD grant: 68.400만 달러, DR콩고 정부 부담 7.200만 달러 (나머지 3,900만 달러에 대해서는 2017년 IFAD board의 승인 후 지원 예정)

3) IFAD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지원의 시사점

IFAD는 2004년에서 2011년 진행된 사업에 작용한 제약요건으로 사업지로의 낮은 접근성, 거버넌스, 참여의식 부족, 지역 사업수행자의 역량부족, 행정 및 재정관리 역량 부족, 그리고 사업지의 고립성 등을 들고 있다.[35] 특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의 강력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나, DR콩고의 경우 사업지역에 역량 있는 공무원이 부족하여 사업의 관리감독이 어렵다.[36] IFAD는 그 동안의 사업경험에 비추어 DR콩고에서의 농업·농촌개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4-13> 사업의 제약 요건 및 대안

제약요건	대안
사업지로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사업수행, 모니터링의 어려움	농업 잠재력 및 인구밀도가 높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하여 집중투자
코디네이션 부서의 기술역량 및 사업운영 역량 부족, 의사결정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	사업 수행 초기단계부터 금융관리와 조달 관련 훈련실시
분쟁이후 불신이 팽배해진 사회적 분위기로 참여적 접근이 어려움	참여형 접근법을 고수하되 사업 효과성개선을 위해 농민조직의 참여 제고
지역 사업수행자의 재정적, 기술적 역량 부족	사업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NGO를 파악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수행자로 활용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이행 어려움	지방정부의 사업 모니터링 참여 유도, 국립농업통계청(NASS)에 기초조사 참여 유도
지방정부, 주무부처 관계자간 소통 부족	사업관련 부처 및 지방당국 간 소통 증대 프로그램 운영
INERA의 양적, 질적 종자 제공에서의 역량 부족	종자 공급원 다양화

자료) IFAD(2013), PAPAKIN document de conception finale de programme을 참고하여 작성

35) IFAD, PAPAKIN document de conception finale de programme, February 2013; IFAD Country Programme Manager 면담(2014.2.3.)

36) IFAD Ms. Rasha Omar, Country Programme Manager 면담(2014.2.3.)

IFAD는 사업의 지속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에 현지 전문가를 투입한다. 단, DR콩고 인력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는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등 인근 국가로부터의 전문가를 기용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DR콩고 전문가가 섭외가 어렵지 않으나, 재정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강화, 관개전문가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역량 있는 DR콩고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IFAD측의 의견이다.

4) IFAD와 DR콩고 정부의 협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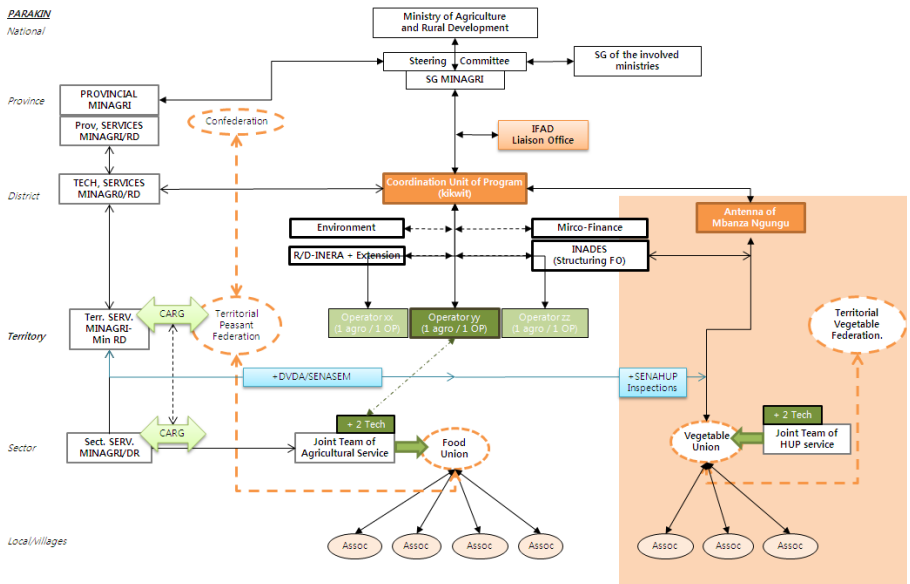
사업의 카운터파트는 농업농촌개발부이며, INERA, SENASEM 등의 정부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사업의 모니터링에 콩고 정부부처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데, 주무부처인 농업농촌개발부외에도 재무부와 기획부의 모니터링 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유상지원사업인 경우는 재무부의 역할이 더 요구되며, 사업의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37)]

IFAD 사업의 운영체계는 [그림 4-23]과 같다. IFAD 지원사업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COP) 사무국은 농업농촌개발부이며, 운영위원회는 전략 및 예산집행의 모니터링, 예산 집행 보고서 및 사업활동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농업농촌개발부의 사무국(General Secretariat)와 주지방 농업부이며, 사업을 수행의 조정기관(Programme Coordination Unit: UCP)는 환경분야, 소액금융, 농민조직, 농촌지도 등 사업의 요소별 수행기관인 국립 연구소와 현지 NGO를 총 관장한다. 주목할 점은 군(Territoire)단위에서는 농업농촌관리 의회(Council for Agriculture and Rural Management: CARG)를 사업관리 부서와의 고리역할을 하도록 하여 사업 모니터링에 참여케 한다.

IFAD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타 공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같은 사업지 내에서 활동 중인 AfDB, BTC, FAO, WFP, UNICEF, UNOPS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예로, 공동체 라디오 설치를 위한 FAO와의 협력, 에콰퇴르(Equateur)주 도로재건을 위한 World Bank와 협력 등을 들 수 있다(IFAD, 2011).

37) IFAD Ms. Rasha Omar, Country Programme Manager 면담 참조

[그림 4-23] 사업의 운영체계 (PAPAKIN 프로그램)



자료) IFAD(2013), PAPAKIN document de conception finale de programme

3. 공여국 및 국제기구 지원 내용 종합

앞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지원방식을 정리해 보면 <표 4-14>와 같다. 주 공여국 및 공여기구의 지원방식은 공여국의 축적된 역량과 네트워크 그리고 DR 콩고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4-14> 주요 공여국/공여기구의 지원 방식

	주원조 분야	원조금액 (100만 달러)	사업지역	지원방식
BTC	농업정책/농업생산	283	전지역	부처내 파견관, 직접 수행
USAID	농업생산	226	중북부	NGO, 정부기관 위탁
SIDA	식량안보	13	전지역	국제기구, NGO 위탁
World Bank	농업생산/agrobusiness	230	서부/북부	컨설팅 및 위탁
AfDB	인프라	150	중남부	컨설팅, 직접수행
IFAD	농업기술	146	서부/중부	컨설팅, 직접수행
FAO	농업정책/농업기술	0.95	동부/북부	컨설팅, 직접수행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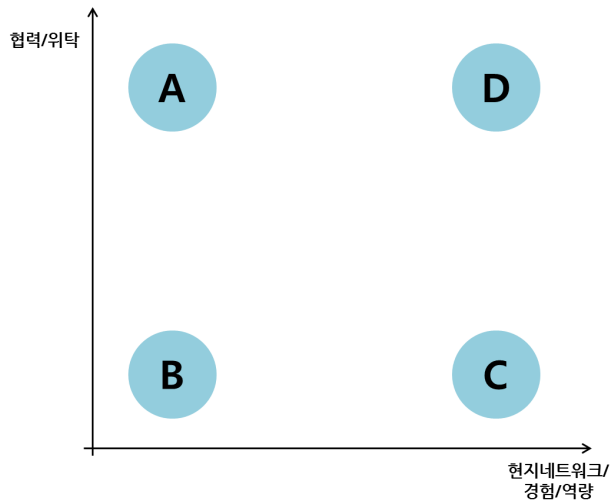
식민지시절로부터 전 지역에 걸친 네트워크와 2억 8천만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의 지원 금액으로 BTC는 DR콩고 농업분야를 포함한 각 부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처에 파견관 제도를 통하여 농업정책분야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공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SIDA는 내전지역에 대한 식량안보에 가장 큰 비중을 두다가 최근 들어서 농촌개발 분야에의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특이사항으로 SIDA는 ODA의 직접집행보다 현지기관 및 기구를 통한 간접집행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지전문화, 전문인력·기술·네트워크·노하우·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대신 SIDA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tool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사업방식을 볼 때 BTC와 SIDA 사이에는 AfDB와 FAO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fDB와 FAO는 현지 NGO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AfDB와 FAO 자체에 축적된 역량이 비교우위에 있을 경우 직접사업수행을 하고 있다. 대규모 생산증대사업의 경우, 선진공여국의 경험이 요청되기에 AfDB와 FAO의 자체 전문성을 우선시 하지만,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현지 전문 NGO 및 정부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AfDB는 그 동안 비교적 사업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나, 사업효과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몇 개 지역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추세이다. FAO는 DR콩고 전역에 걸쳐 지방 사무소를 갖고 있어서 지역사무소, 준지역사무소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며, 비교적 전국에 걸쳐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 IFAD는 직접사업수행 및 타 기관과의 협업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여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되고 있으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대 DR콩고 기술지원에 대한 다양한 기술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필요시에는 AfDB 및 FAO와 마찬가지로 현지 농업 NGO및 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IFAD는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조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를 중심으로 3개 주(Maniema, Bandundu, Bas-Congo)를 선별하여 집중지원하고 있다. USAID는 현지 NGO와의 협력을 우선시 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의 지속성과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이다. 대신, 사업의 투명성과 명확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하여 감시시스템을 두고 있다. 사업운영 및 전문성측면의 역량이 검증된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 사업진행방식과 역량

[그림 4-24] 역량 및 협력에 따른 사업수행방식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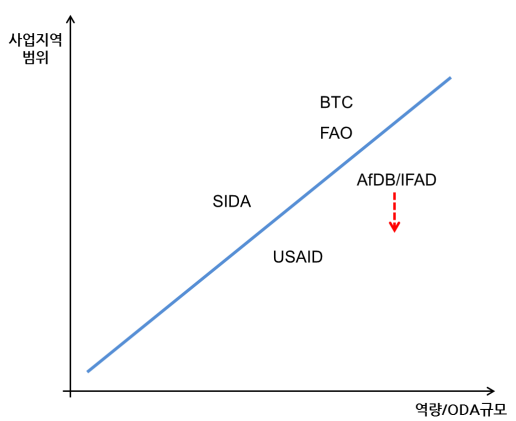
사업 수행방식은 지원 기관의 역량과 협력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림 4-24]와 같이 4가지의 모델로 정리 할 수 있다.

- A: 역량 약, 협력 강
  - 지역단위 및 현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농업기술의 경우 협력을 강화하여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의 역량을 제고함
  - 예: SIDA 에콰퇴르(Equateur)지역 농촌개발 사업 FAO에게 위탁, 지역단위 경험이 부족한 USAID의 경우 에콰퇴르주 농촌 마케팅 지원 사업을 NGO(Paul Carlson Partnership)에 위탁

- B: 역량 약, 협력 약
  - 기관의 약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접수행방식(현지기관과 제외)을 채택하는 공여사업들은 지속가능성과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예: World Bank의 카탕가(Katanga)주 식수지원사업의 경우 현지경험이 없는 해외 NGO와의 협력을 하였으나 현지 관습과 여성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의 부족으로 실패하였음
- C: 역량 강, 협력 약
  - 기관자체의 역량이 강하여 직접 수행하는 경우.
  - 예: IFAD 의 경우 카사바생산, 질병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DR콩고에서 카사바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모자이크병을 퇴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D: 역량 강, 협력 강
  - 기관자체의 역량이 강하고, 현지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효과성을 배가시키는 경우
  - 예: BTC는 오랜 기간 DR콩고 정부와의 협력을 기초로 농업부내 부처협력담당관을 두어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음

나. 역량 및 지원규모와 사업지역 범위

[그림 4-25] 역량 및 지원규모 대비 사업지역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선진 공여국들의 사업지역 범위는 [그림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량 및 지원규모와 비례하고 있다. AfDB와 IFAD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규모 대비 사업지역이 넓을 경우 사업효과성의 가시성이 낮으므로 사업지역을 몇 군데 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4. 타공여국 및 기구의 지원활동의 주요 시사점

위 선진공여기구들의 경험은 DR콩고 원조 후발 주자로서의 KOICA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 지원 지역 범위의 선택과 집중

KOICA의 지원 지역 범위 선정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몇 개 전략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선택과 집중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원조사업을 해왔고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선진 공여 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AfDB와 IFAD의 경우도 지원규모 대비 사업지역이 넓을 경우 사업효과성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몇 군데 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양기구와의 면담을 통하여 연구진은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지방 분권화가 진행된 DR콩고는 중앙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사업일 경우라도 지역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별 사업은 각기 지역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무원 및 농민들, 지역 지도자, 종교 지도자 등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고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 둘째, 콩고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단일 사업 지역에서라도 상당히 많은 투입이 요구된다. 기존에 존재하는 인프라를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OICA의 경우 DR콩고의 광활한 면적을 고려할 때, 여러 지역에 사업을 분포시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KOICA의 사업 역량을 고려할 때 여러 개로 분산된 사업 지역은 행정 비용을 상승케 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제2장에

서 전술된 바와 같이 DR콩고의 다양한 인종과 언어 그리고 문화는 농촌개발 사업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대인 관리를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게 한다. KOICA와 같이 경험이 많지 않은 기관은 소수의 전략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역에 적합한 작물, 가축 선택 등 생산성 증가 요소와 가공, 시장화 등 가치 사슬 변화를 위한 요소들 또한 오랜 시간의 경험 축적이 필요한 분야이다.

나. 타 공여기관 간의 협력

KOICA는 DR콩고에서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기까지 선진 공여국 및 현지 NGO와 정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선진 공여국들은 DR콩고에서의 사업 경험을 통하여 대인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설득하며 또한 개발 동반자로서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 공무원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정부의 협조를 담보하며 사업 후 관리를 도모할 것인가, 지역 지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풀어내며 역량의 역동성을 개발 동력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DR콩고에서의 농업·농촌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선진 공여국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DR콩고에서 짧은 지원 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KOICA는 향후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네트워크가 구축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노하우가 축적된 선진 공여국과 지역 NGO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아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카사바 생산성 증대는 이미 그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IITA와 IFPRI를 통하거나 지역 문화와 지역민과의 밀접한 친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CARITAS와 같은 NGO, 그리고 현지에 폭넓은 인적 풀을 가지고 있는 IFAD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은 KOICA가 가지고 있지 못한 가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줄 것이다.

다. 지역의 사회・문화・정치・종교적 요소를 고려한 사업 수행

선진 공여국들은 현지 지역의 사회·문화·정치·종교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KOICA 또한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이나 SIDA와 같이 직접 수행 보다는 현지 NGO와 협력 사업을 주로 하는 원조 기구들은 타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 종교적 특수성에서 찾고 있다. 원조기구는 해외에 거점을 가지고 있기에 수원국 및 각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기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지 기구들과의 협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반영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SIDA와의 면담을 통하여 연구진은 현지 지역 농민들과 해당 공무원들은 원조 사업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외부 원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서 인프라 및 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전통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IFAD는 현지 농민, 공무원들이 자신들과의 문화적 이질감을 발견하게 될 경우 협력에 큰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향후 있을 KOICA의 사업은 사업 도출을 할 때부터 현지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라. 수원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참여 제고

AfDB와 세계은행은 사업 수행에 있어 현지 공무원들을 통하여 지방정부와 현지 농민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하고 있다. 특히, 토지 문제와 같이 복잡한 문제일 경우 외국 기관이 직접 나서는 데는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하여 현지 지방공무원과의 협력을 중요시 해야만 한다. 세계은행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과거 세계은행의 사업 수행 시 일어났던 문제들이 지방공무원과의 협력 없이 중앙공무원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사업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 졌을 때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앙공무원에게는 지도 상에 나타난 지역 도로 건설의 문제이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수많은 토지 이용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에 이들의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인프라 건설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지 지역 공무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업관리도 어렵다. 가장 지속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업관리역량 강화

IFAD, AfDB, 세계은행, IITA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와 양자기구들은 한결같이 DR콩고 이해관계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를 사업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도전들은 다름 아닌 수원국 측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오는데, 심각한 부정부패,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은 사업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DR콩고 측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량 개발과 주인의식이 고취되어야할 대상이기도 하기에 향후 KOICA의 사업들은 사업에 앞서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지원전략과 현황

1. 농업・농촌개발지원 추진체계

가.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에 식량과 원료 그리고 질 높은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압축적인 성장과정을 뒷받침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경제발전에 성공하였으나 농업·농촌의 위상이 바뀌면서 비농업부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어 이제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이 다른 나라에 전수될 만한 비교우위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국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 나라에 속하는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의 농경지(초지포함)보다도 더 작은 180만 ha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좁은 농경지를 활동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생산성은 농업선진국인 이들보다 월등히 높다. 즉 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곡물, 채소 과일 생산량은 이들 국가보다 2~10배가 많으며 육류생산량도 뉴질랜드보다 많고 네덜란드의 70%를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표 4-15)(이정환, 2012). 이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한국의 농업·농촌이 다른 나라에 전수할만한 가치 있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4-15>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농업생산 관련지표

	단위	한국 (A)	뉴질랜드 (B)	네덜란드 (C)	A/B (%)	A/C (%)
농지면적	천ha	1,800	3,821	2,190	47.1	82.2
ha 당 농업생산액	US$	9,090	2,420	8,880	375.6	102.4
곡물생산량	천톤	6,817	899	1,861	758.3	366.3
채소생산량	천톤	9,994	960	3,616	1,041.0	276.4
과일생산량	천톤	2,504	982	612	255.0	409.2
육류생산량(지육)	천톤	1,742	1,430	2,423	121.8	71.9

자료) 이정환,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GS&J 시선집중 제 142호, 2012.8 (재구성)

물론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과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1970년대까지는 농촌빈곤과 식량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가 핵심과제였다. 1980년대에는 도시·농촌간의 소득불균형 극복에,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농촌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오류와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이제는 농업농촌의 기본 패러다임까지도 변화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가 걸어온 이 험난한 과정을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이기도 하다(박영호 외, 2009).

첫째, 1950년 농지개혁을 통해 비록 작은 규모지만(3ha 상한) 많은 소작농을 농지소유권이 보장된 자작농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증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둘째, 1975년을 기점으로 쌀 자급을 달성함으로써 기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농업 R&D기반과 기술보급체계 정비, 선진 영농기술 보급, 생산기반정비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며, 그 결과 우리의 농업생산성(특히 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와있다. 셋째,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극심한 농촌빈곤을 극복하였고, 1980년대 이후의 농촌종합개발로 농촌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나. 농업·농촌개발지원 사업추진체계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제7조) 개발협력의 기본계획, 연간시행계획,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개발협력 주관기관으로 기획재정부(유상협력)와 외교부(무상협력)를 지정하고(제9조)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매년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정책과 집행이 이원화되어있어 외교부가 무상지원정책을 수립하면 시행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담당하며 EDCF 차관을 통한 유상지원정책 수립은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시행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한다.

한편 해외농업개발 사업과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법 제1조) 2011년 7월에 제정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기본적으로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과 연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이상과 같은 법체계에 따라 농업농촌개발 지원은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 외교부(KOICA),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포함), 지자체 등의 연간시행계획에 각각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농업농촌분야의 개발지원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국립종자원 등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농식품부차관)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4-27]과 같다.

1) 우리의 대외개발협력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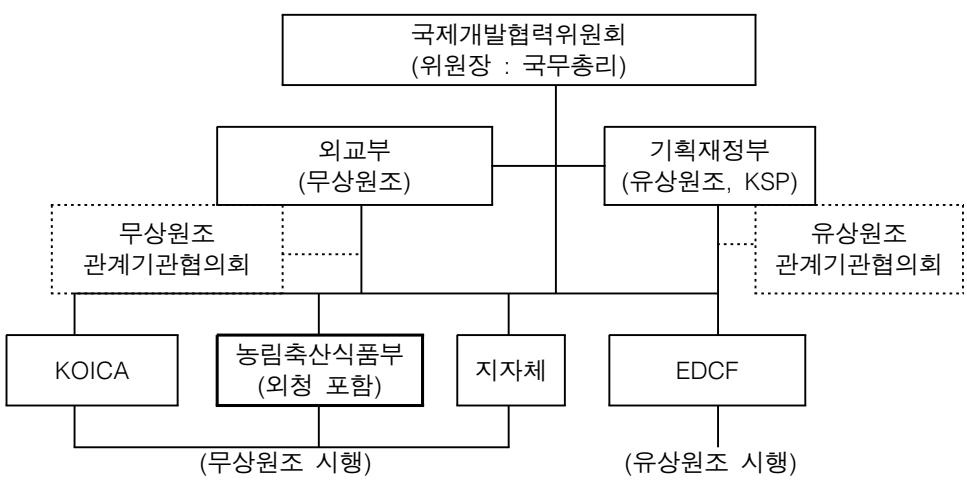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지원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억 9,750만달러(1조 7,990억원)를 기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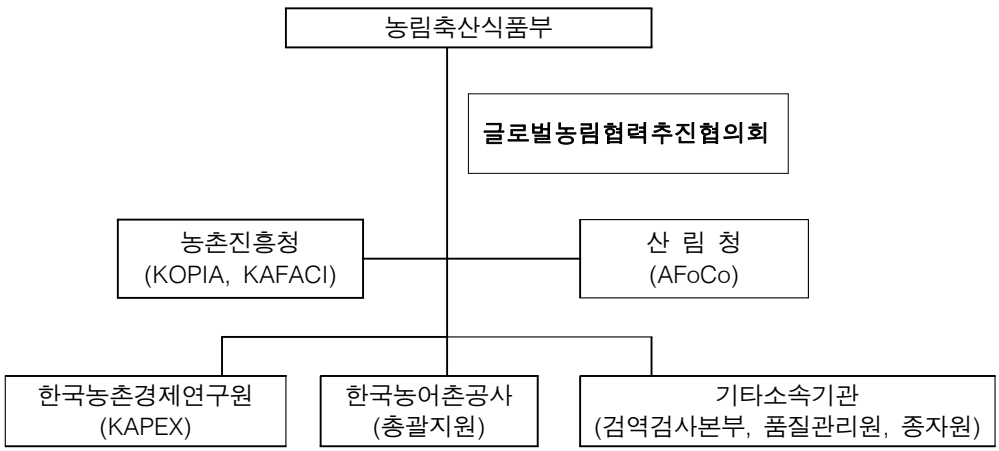
ODA/GNI 비율이 2011년 0.12%에서 0.14%로 상승하였으나 DAC 평균(0.3%)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원형태별로 보면 다자차원의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1~2012년에는 약 75%가 양자형태로 지원되었으며 대상지역은 아시아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4-16).

그러나 2000년대 초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아시아지역 편중현상은 그만큼 희석되었다. 이는 2006년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서울)을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정례협의체가 창설되어 개발협력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나아가 2009년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는 2012년까지 대아프리카 지원규모를 2008년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는 서울선언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 선언에는 식량생산 증진을 위한 농업개발 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포럼에서 채택된 '한-아프리카 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농업·농촌개발'분야 지원약속도 담겨져 있다.

그 결과 2012년의 경우 양자지원액의 22%인 2억 6,100만 달러가 아프리카에 지원되었으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19.5%인 2억 3,080만달러가 지원되었고, DR콩고에는 690만달러가 지원 되었다.

[그림 4-26] 농업·농촌개발 지원 추진체계





추진기관	담당부서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		044-201-2031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KAFACI	031-299-2270
		국외농업기술과, KOPIA	031-229-1080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042-481-41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02-3299-4357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국제농업협력부		031-420-3088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			지원사업별 관련부서

<표 4-16> 우리나라의 ODA 대상국가

		1991~1992	2001~2002	2011~2012
ODA총액 (100만 달러)		67	296	1,508
다자 ODA (%)		42.8	32.6	24.8
대상지역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1.7	2.4	16.9
	남·중앙아시아	8.9	21.2	22.1
	기타 아시아·대양주	32.0	53.4	35.6
	중동·북아프리카	2.7	3.5	5.5
	중남미	8.6	5.8	6.5
	유럽	0.4	8.5	1.7
	미 분류	25.7	5.2	11.7
합계 (%)		100.0	100.0	100.0
주요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7.4	베트남 10.6	베트남 11.7
		필리핀 5.5	중국 7.7	방글라데시 4.3
		나이지리아 2.5	인도네시아 6.4	캄보디아 4.0
		스리랑카 2.4	크로아티아 5.4	아프가니스탄 3.5

	1991~1992		2001~2002		2011~2012	
	가나	2.2	스리랑카	4.3	스리랑카	3.5
	몽골	1.5	캄보디아	4.0	인도네시아	2.5
	파키스타	0.9	몽골	3.3	탄자니아	2.4
	태국	0.7	우즈베키스탄	3.2	필리핀	2.3
	P.N.G	0.7	카자흐스탄	2.0	몽골	2.2
	에티오피아	0.6	필리핀	2.0	라오스	1.9
	사모아	0.5	파나마	1.9	요르단	1.8
	니제르	0.4	미얀마	1.4	우즈베키스탄	1.5
	바레인	0.4	요르단	1.0	네팔	1.4
	베트남	0.4	P.N.G	0.8	에콰도르	1.4
	케냐	0.4	파키스탄	0.8	세네갈	1.3

자료) OECD, http://www.oecd.org/statistics/

2.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발지원

정부 간의 다자 또는 양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기적으로 추진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2006년에 양자차원의 농업협력을 위하여 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롭게 ODA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규모가 증가하면서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2억 ⇨ 2013년 133억).

농식품부는 이와 같이 확대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글로벌 농림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10.2월)하고, “농림수산부문 ODA발전방안”을 마련하여(’11.5월) 초청연수 등 일회성 협력에서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최근에는 사업기간이 길고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소위 “기획협력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1년 7월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2013년 총 341억원) 우리나라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농식품부와 양청(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

각 전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무상협력 추진 주체가 농업부문 내에서도 다원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달성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양자 및 다자차원의 농업기술협력 사업을, 그리고 산림청은 개도국의 조림 등 임업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양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의 내용과 예산개요를 정리하면 <표 4-17> 및 <표 4-18>과 같다.

<표 4-17> 농식품부와 양청이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 사업개요

	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
농식품부	① 기획협력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12개국(아프리카 5개국) 15개 사업 추진 중 ② 농정컨설팅사업(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KAPEX)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시행 -2013년 3개국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③ 분야별 기술전수사업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이 부정기적으로 시행 -초청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개도국 기술전수 ④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FAO 2개 사업, IFAD 1개 사업 추진 중
농촌 진흥청	①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2009년 출범, 20개국 운용(에티오피아 포함) ② 다자기술협력체를 통한 기술전수사업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2010년 출범, 18국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si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FACI) : 2009년 출범, 11국 참여
산림청	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사업 ② UN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관련 다자협력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를 재정리

<표 4-18> 농식품부와 양청의 국제개발협력 예산개요

	'12년 예산	'13년 예산
총 계	2,770,700만원	3,409,500만원
○ 농식품부	10,987	13,293
- 본부	10,510	12,816
- 소속기관(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477	477
○ 농촌진흥청	12,071	13,893
○ 산림청	4,649	6,9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농업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미포함)

DR콩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과 각각 양자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DR콩고는 벼 등 식량작물 관련 기술지원에 중점을 둔 KOPIA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다자간 농업기술전수를 위한 KAFACI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농진청이 DR콩고에서 추진 중인 사업목록은 <표 4-19>와 같으며, 이하에서는 이 지원 사업들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4-19> 농진청이 DR콩고에서 추진 중인 사업

시행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3년 예산
농진청	DR콩고 KOPIA 사업	10~	계속	484
	DR콩고 KAFACI 사업	11~	계속	13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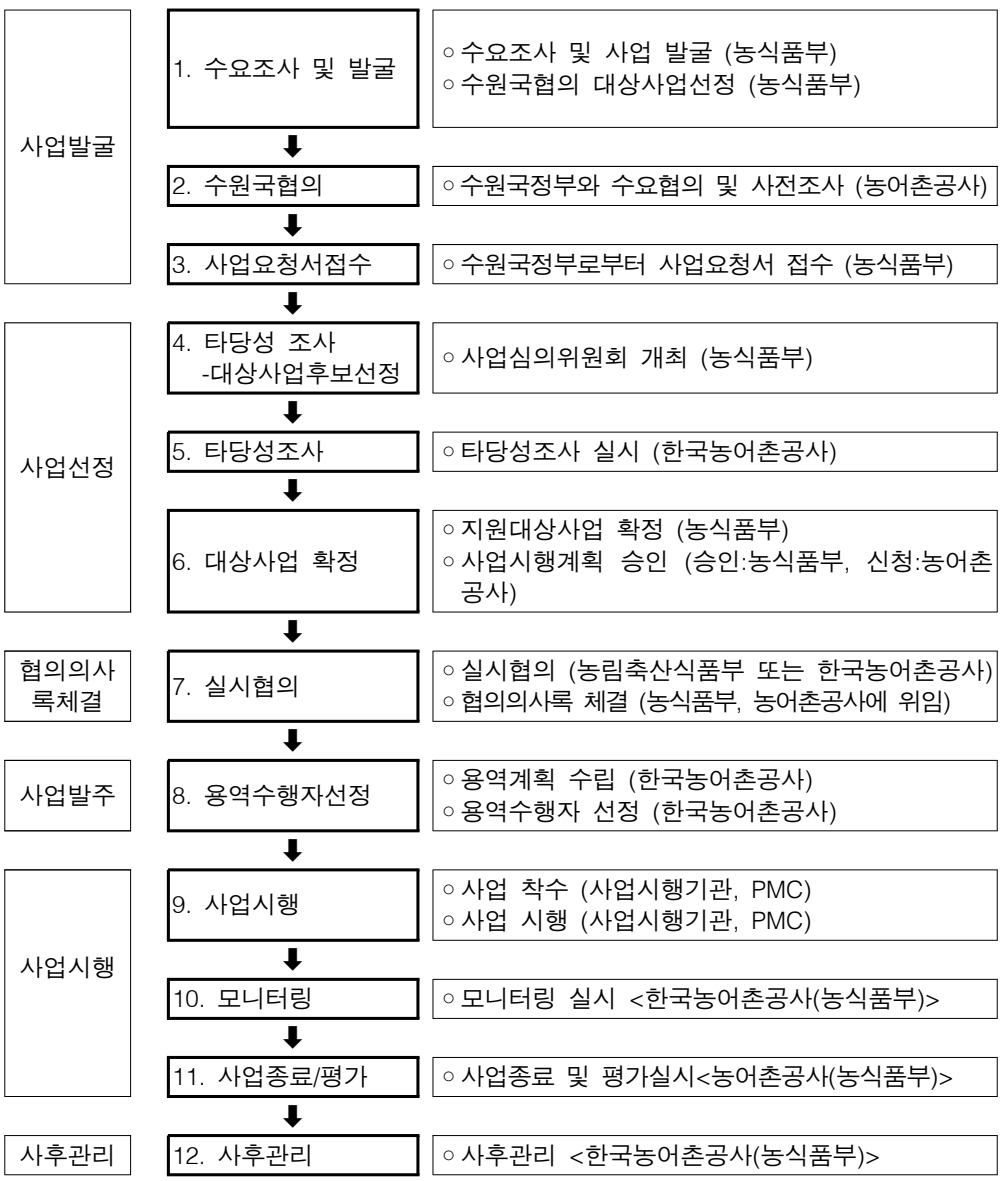
가. 농식품부 기획협력사업

1) 사업선정 및 시행절차

2010년에 시작된 농식품부의 '기획협력사업'은 상대국과 협의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26건이며 그 중 11개 사업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기획협력 사업은 ①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발굴되는 경우, ② 외교채널을 통한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 ③ 농업관련기관이 수원국과 교류

하는 과정에서 발굴되는 경우, ④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후속조치로 시작되는 경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발굴된다. 이렇게 발굴된 기획협력 사업은 [그림 4-27]과 같은 사업선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그림 4-27] 농식품부 기획협력사업 선정 및 시행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

나. 농정컨설팅(KAPEX)사업

KAPEX사업은 ① 식량문제와 빈곤 탈피를 위해 개도국 스스로 농업·농촌정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는 역량지원, ② 상대국 수요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농업농촌분야 전문지식과 발전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③ 그리고 우리 농정성과의 체계적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 3개국(에티오피아, 라오스, 캄보디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의 기본구도는 맞춤형 정책 컨설팅이다. 즉 우리 농업·농촌분야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국제적 우위가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상대국이 선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컨설팅을 추진한다.

<표 4-20> 농정컨설팅사업 대상 분야

△ 농촌종합개발, △ 식량작물생산성향상, △ 농업생산기반구축, △ 관·배수시스템개발, △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농업인력 육성, △농산물유통체계구축, △ 농업협동조합, △ 가축사육 및 관리, △ 농지제도 및 관리, △ 영농기계화, △ 친환경 농업, △산림녹화, △ 임산자원 개발, △ 농촌특화사업 개발, △ 가축질병 관리 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자료

KAPEX사업은 농업·농촌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의 협력전략(CPS)에 농업·농촌개발이 중점협력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가, 해외농업개발 또는 농산업 해외진출 등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 그리고 정부 간에 농업·농촌개발협력이 합의된 국가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공동조사 및 연구: 상대국 수요에 근거하여 개발 잠재력이 있고 식량안보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하여 공동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 활동
- 초청 및 현지연수: 공동조사 및 연구에 참여하는 상대국 정부 관계자 등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상대국 내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와 현지 정책워크숍: 공동조사 및 연구팀은 핵심 이슈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우리의 정책 경험 및 공동조사결과 등을 발표·협의하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농촌개발 지원모델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축적

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사업

1)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농촌진흥청은 단편적인 농업기술지원을 탈피하고 대상 국가별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개국에 KOPIA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KOPIA센터에는 현지에 상주하는 소장과 6개월간 파견되는 연구보조원이 근무하며 주재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무실, 시험포장, 현지 인력 등과 같이 활동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수시로 파견되기도 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6개국에 설치되어 있던 KOPIA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 15개국, 현재는 20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는 에티오피아 외에 DR콩고, 케냐, 알제리에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는 각국의 KOPIA센터별로 소수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현지에 확산시킨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방침이다.[38]

DR콩고 2010년 국립대학인 킨샤사대학교와 KOPIA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10월 킨샤사 대학교 부지 내 건평 480㎡의 청사를 준공하였다. DR콩고 KOPIA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 콩고에 분포하는 농업유전자원 탐색 및 유용정보 수집, ②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현장지원, ③ 농업인과 전문가 대상 선진농업기술 훈련과 교육 실시, ④ 국내 농과계와 이공계 학생의 해외 인턴과정 운영이다. 현재 한국산 벼, 옥수수, 땅콩의 농가시범재배, 카사바의 깍지벌레 저항성 유전자원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38) 농촌진흥청 업무자료 참조

2)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공동개발, 농업자원보전 및 이용기술개발,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등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제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KAFACI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사무국을 두고 24억원('1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지원사업이란 대상국가가 원하는 기술을 한국연수를 통해 습득케 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 그 경험을 재현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2013년 현재 아프리카 15개국 43명이 농진청에서 3개월간 필요한 분야의 훈련을 받았다. KAFACI는 이와 같은 국가별 지원사업 외에 "권역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증산 또는 가축개량 등을 위하여 여러 회원국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DR콩고에서는 우리나라 통일벼품종 적응성을 검정하기도 하였다.

3) 산림협력사업

산림청은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를 운영하면서 황폐화된 지역의 산림복원사업을 위한 양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에 대응한 황사방지를 위해 몽골에 그린벨트 조림사업 및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지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산림기술지원, 한-인니 우호의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에 대하여는 UNEP와 MOU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2년간 가나, 튀니지, 모로코에서 정화된 오수를 활용한 사막화방지 조림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3. KOICA의 농업·농촌개발지원

가. 개발협력사업 추진개황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된 외교부산하 정부출연기관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서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프로젝트사업, 국내초청연수, 해외봉사단파견, 해외재난긴급구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는 KOICA의 무상원조사업 총액 중 농림수산분야 사업은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18.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원총액 기준으로 아프리카 지역이 20.4%로 아시아지역(46.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농림수산분야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높은 28.9%가 되어 아프리카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지원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4-21).

<표 4-21> 무상원조의 분야별 지역별 배분현황

분야별 배분 (2012년 기준)			지역별 배분 (2012년 기준)		
분 야	비율 (%)		지 역	비율 (%)	
	전 체	아프리카지역		전 체	농림수산 분야
교육	26.6	30.4	아시아	46.9	48.2
보건	16.1	17.6	아프리카	20.4	28.9
공공행정	15.0	20.0	중남미	11.0	8.3
산업에너지	13.1	9.4	동구 및 CIS	4.5	5.7
농림수산	13.0	18.4	중동	3.6	0.5
기타	16.2	4.2	기타	13.6	8.4

자료) KOICA,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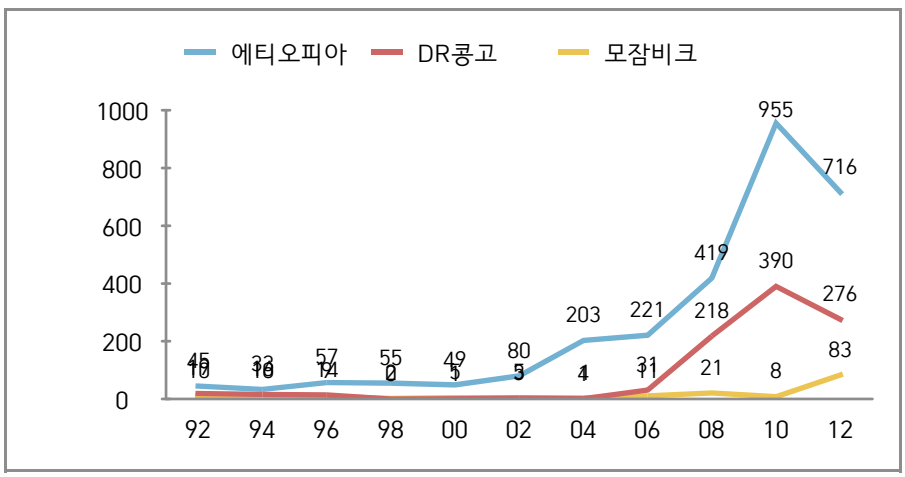
KOICA는 정부의 무상원조 기본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지역을 우선시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체 ODA의 70% 이상을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선정한 26개 중점협력대상국 중 12개국이 아시아국가로 되어 있는 구조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3개국(에티오피아, DR콩고,

모잠비크)을 비롯하여 8개 나라가 중점협력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매 3년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조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KOICA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본 연구대상인 아프리카 3국에 대한 지원규모도 [그림 4-28]과 같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아프리카 포럼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바뀌지 않고 에티오피아, DR콩고, 모잠비크가 중점협력대상국으로 남아 있는 한 이 3국에 대한 KOICA의 지원규모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8] KOICA의 에티오피아, DR콩고, 모잠비크 지원개황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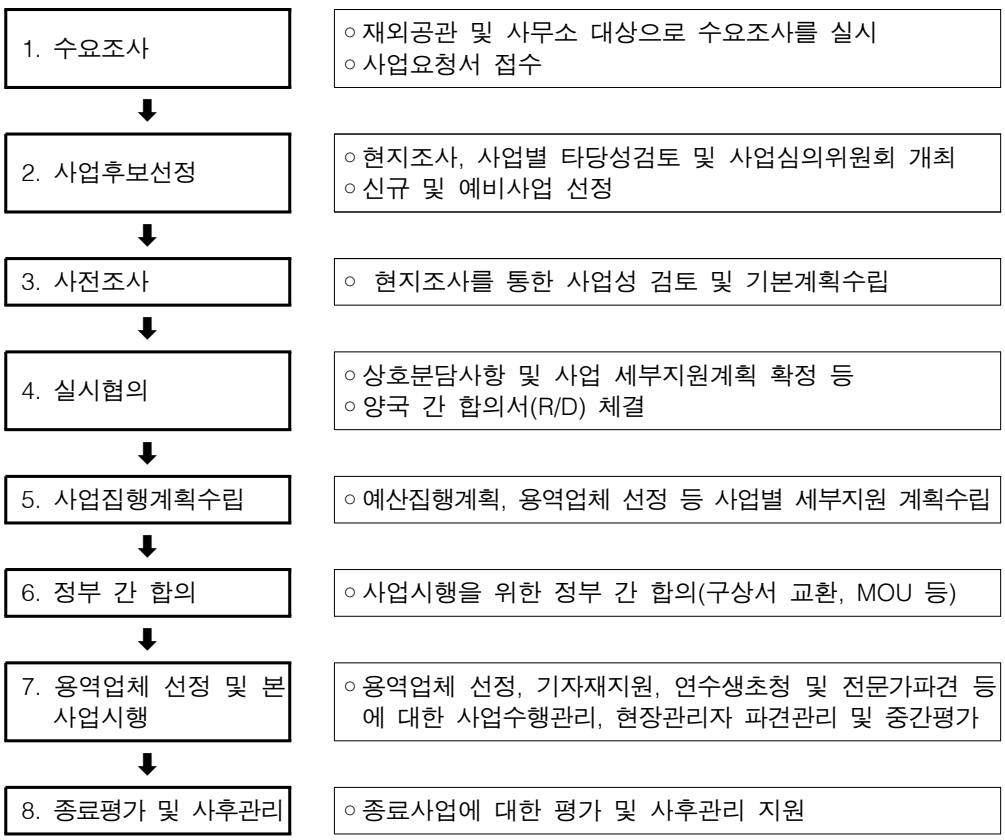
자료) KOICA, "KOICA 국별 지원현황(에티오피아, DR콩고, 모잠비크)"

KOICA 지원을 내용별로 보면 5대 중점분야(보건,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 분야가 포함된 것은 협력대상국들의 원조수요가 많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사업 등 지역협력 프로그램은 정부의 국가별 협력전략(CPS)을 기초로 하여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KOICA지원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사업은 농업·농촌개발과 같은 특정목표달성을 위해 시설이나 기자재 등 물적 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

생초청 등 인적수단(Software)을 패키지화하여 2~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림 4-29]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수원국과 협의하여 분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원국가는 부지 및 현지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고 KOICA는 인적·물적·기술적 수단을 지원한다.

[그림 4-29] KOICA의 프로젝트사업 추진절차



자료) KOICA, http://www.koica.go.kr/

나. 농업・농촌지원전략

KOICA가 설립된 1991년 농림수산 분야 지원은 전체의 6%를 구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대폭 증가한 13%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후 전체규모가 팽창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도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KOICA는 이 분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 가고 있다. 우선 기존전략을 세분화하여 <표 4-22>와 같이 농림수산 분야의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개발협력사업 발굴 등과 관련해서는 선택과집중 차원에서 세 가지 접근전략을 설정해 놓고 시행 중이다.

<표 4-22> KOICA의 농림수산 분야 지원전략

5대 전략목표	ⓐ 농어촌 인프라구축 - 농업생산인프라 확충, 전력과 통신설비 확충, 농촌주거환경 개선 ⓑ 농어업생산성 향상 - 생산자조직육성지원, 농업기술지원, 농업정책수립 역량 강화 ⓒ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 수확 후 가공, 유통망개선, 마케팅활성화, 수출역량 강화 ⓓ 농어가 소득원 다양화 - 농촌금융활성화, 직업훈련지원, 농공단지조성, 농촌관광 상품개발 ⓔ 농어촌 종합개발
선택과 집중 차원의 접근전략	ⓐ 국가협력전략(CPS) 중심의 사업지원 - 수원국의 국가발전전략과 농업농촌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지원전략을 반영하여 CPS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조일치(Alignment)와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영세소농과 농촌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 영농과정의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실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 고리 단절 ⓒ 비교우위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 -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의 경험과 지식 중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수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기타 접근전략	ⓐ 원조의 효과성증진: 프로그램 형 지원모델개발, 수원국의 발전단계별 프로그램 적용,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강화 ⓑ 파트너십 강화: 국내 농업농촌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수원국 현지의 원조조화(Harmonization) 강화, 국제원조 네트워크강화

자료) KOICA, 「KOICA 농림수산 분야 전략 (2013~2015)」

다. DR콩고지원 사업현황

농업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는 전항의 <표 4-21>과 같이 이 분야 에 대한 KOICA 지원총액의 28.9%를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와 함께 농림수산 분야 무상원조의 주요대상지역이 되었다. KOICA가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 사업을 전략목표에 따라 분류하면 <표 4-23>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ICA가 DR콩고에서 두 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3> KOICA가 아프리카에서 추진 중인 농림수산 분야 사업

목 표	대상국가	사업내용
농어촌 인프라 구축(4개)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도도타군 농업관개 역량 강화사업 (2013~2015년/1,500만 달러)
	우간다	과일가공공장 건립사업(2011~2015년/7.400만 달러)
	알제리	사하라사막 새우양식장건립 및 기술이전사업 (2010~2014년/600만 달러)
	수단	농업기술훈련원 건립사업(2011~2014년/600만 달러)
농어업생산성 향상(4개)	우간다	[새마을] 농업지도자연수원 건립사업(2011~2014년/3.500만 달러)
		농산물가공 전략수립 사업(2013~2015년/2.500만 달러)
	알제리	씨감자 생산기술지원 2차 사업(2011~2014년/48만 달러)
	앙골라	수산자원조성기술 역량 강화사업(2011~2016년/600만 달러)
농수산물시장 접근성 개선	-	-
농가소득원 다양화(1개)	우간다	[새마을] 북부 농민소득증진사업(WFP/2012~2013년/200만 달러)
농어촌 종합개발(5개)	가나	[새마을] 다웨냐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2011~2014년/3.600만 달러)
	DR콩고	[새마을]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2010~2014년/7.500만 달러)
		[새마을] 키치니 농촌종합개발사업(2013~2015년/300만 달러)
	르완다	[새마을]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2013~2015년/500만 달러)
	탄자니아	[새마을] 모로고로 농촌종합개발사업(2010~2013년/4.500만 달러)

자료) KOICA, http://www.koica.go.kr/

1) DR콩고 추엔게(Tshuenge) 농촌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은 DR콩고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되어 KOICA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협력사업이다. 수도 킨샤사 인근의 추엔게(Tshuenge)강 범람을 막고 관개·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생산기반을 정비함으로서 이 지역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2010~2014년 기간 동안 총 86억 2,500만원(750만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지역사회 인프라 건설: 마을진입로(800m), 학교(1개소), 보건소(1개소), 공동화장실(2개소), 유지관리사무소(1개소)
- 농업생산기반 정비: 용수로, 배수로 등 관개시설(750ha), 영농 및 기술보급시설
- 기자재 지원: 포크레인, 펌프 등
-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농촌개발부 공무원 15명을 2주 동안 초청하여 농업·농촌개발정책, 관개시설운영 등을 교육하고, 분야별 전문가도 파견(40MM)

2) DR콩고 키치니(Kitshini) 농촌종합개발사업

이 사업도 위의 추엔게(Tshuenge)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같이 수원국가 요청으로 발굴된 사업이며 수도 킨샤사(Kinshasa)주 키치니(Kitshini)마을의 농업가치사슬(생산, 유통, 가공, 판매)을 개선하고 주민의 역량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13~2015년 기간 동안 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 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시설건축: 농산물 집하장 및 저장고, 학교 등
- 기자재: 농산물 가공·유통관련 기자재와 차량 등
- 초청연수/전문가파견: 공무원 15명과 대상지역 주민 15명을 4주 동안 초청하여 관련 정책과 기술을 교육하고, 70MM의 관련 전문가 파견도 추진

라. 향후 농업・농촌지원 방향

농업·농촌지원사업의 향후방향은 KOICA가 이 분야의 국제적 현실과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KOICA의 농림수산 분야 전략(2013~2015)'에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표 4-24>와 같다. 별도의 여건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농업·농촌 분야의 신규 사업은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

<표 4-24> 농림수산 분야 개발협력의 국제동향과 KOICA 정책방향

농림수산 분야 개발협력의 국제동향	ⓐ 농업·농촌발전의 지속가능성 중시 -OECD/DAC: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UN MDG: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명시 -대부분의 국제원조기관: 농업농촌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설정 ⓑ 농업부문의 원조대상을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단계로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결합을 전제 -단발성지원에서 가치사슬 전 단계가 결합된 자생력지원으로 전환 필요 ⓒ Program Based Approach 확대 -통합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Program형 지원만이 빈곤문제 해결가능 ⓓ 조화(Harmonization)와 파트너십(Partnership) 강조 -원조기관간의 조화와 NGO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의 필요성 증대 ⓔ 영세소농과 농촌여성의 지원확대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소농과 여성가장 농가가 주된 지원 대상
KOICA 정책방향	ⓐ 농업·농촌개발과 빈곤감소의 직접적인 연계강화 ⓑ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타 분야와의 연계 강화 ⓒ 농촌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자료) KOICA(2013), 농림 수산 분야 전략 2013~2015 참고하여 작성

4. 기획재정부의 농업・농촌개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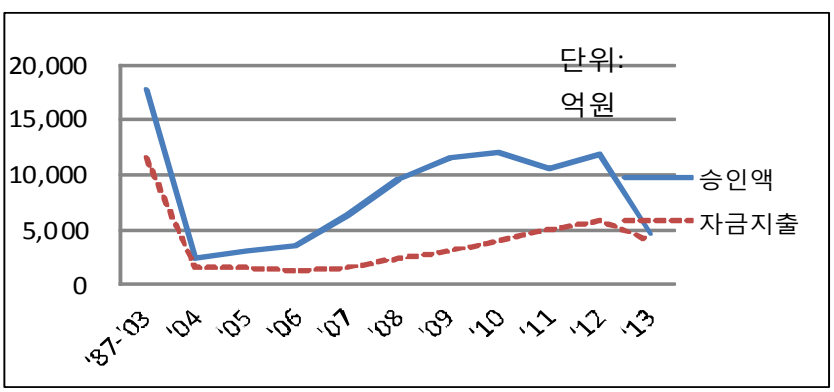
가. 개발협력사업 추진개황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KDI가 시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이다. KSP는 수원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책컨설팅 사업이며, DR콩고에서는 ‘조세행정과 시스템 개혁’이라는 주제로 2013년 KSP가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EDCF를 중심으로 농업농촌개발 지원현황을 살펴본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에 설치되었다. EDCF를 이용한 ODA 사업은 주로 저개발국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지원하며 상업차관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의 원리금상환을 전제로 하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형식의 사업이다. 우리나라 ODA정책을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분야별 기본계획(2011~2015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양자 유상협력은 2011~2015년간 약 4조 2천억 규모이며, 대상을 중점협력국가, MDB와의 협조융자,[39] 기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4년 1월 EDCF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306개 사업에 대해 총 9조 3543억원의 EDCF 자금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지원사업이 승인되었으며, 2012년에는 18개 사업에 대해 1조 1,951억원이 지원되었다(그림 4-30). 대부분 교통, 수자원개발, 에너지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와 보건 및 교육 등 비농업부문의 사업에 많이 지원되었다. 이는 유상원조의 특성상 협력대상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투자수익률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4-30] EDCF의 연도별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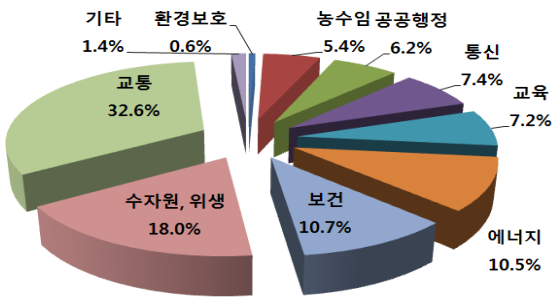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jsp

39)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협조융자(co-financing)란, ADB, IDB, WB, AfDB, EBRD 등 MDB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MDB와의 협조융자는 통상적으로 양국간 협의에 의한 사업발굴방식 보완, 시간·노력·비용 측면에서 용이성 증대, EDCF 단독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MDB 협조융자사업은 국제원조사회에서의 가시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EDCF와 MDB간 인적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제원조사회에서의 EDCF 위상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과거 EDCF 사업발굴은 정부 간 협력이 아닌 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가시적 효과를 내기 어렵고 사업발굴도 쉽지 않은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1996년 중국 농업부의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자재 차관을 시작으로 EDCF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농림수산부문을 다 합해도 전체지원액 대비 5.4%에 불과하다(그림 4-31).

[그림 4-31] EDCF의 분야별 지원 실적[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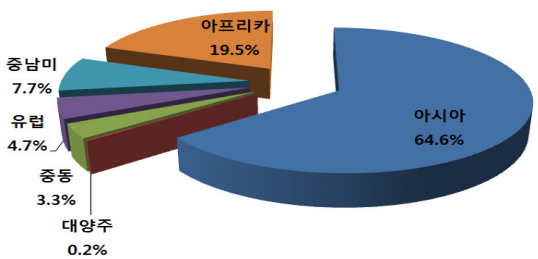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 jsp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식량수요증가 등의 이유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지원액이 2,22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EDCF의 농업농촌개발협력은 주로 농업개발과 축산관련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상원조에 비해 실질적인 농업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송유철 외, 20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EDCF가 지원되는 농업분야는 경제 인프라 분야에 속한다.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개도국 정부의 수요가 가장 크고,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분야는 농업기반정비를 위한 대규모 농촌개발, 관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40) 1987~2013년 총누계 기준 비중

EDCF는 무상원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아시아 중심의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대상지역을 다원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협력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그림 4-32). 2010년 한-아프리카 경제장관회의에서 2010~2014년간 10.9억달러의 지원승인을 공약한바 있는 우리 정부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AfDB 등의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2] EDCF의 지역별 지원 실적[41]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jsp

DR콩고의 경우, 킨샤사 남동부 렘바임부(Lemba Imbu)에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용수공급을 건설하는 '렘바임부(Lemba Imbu) 상수도사업'에 대해 DR콩고 정부와 한국의 수출입은행 간 차관 계약의 서명이 이루어졌다.[42]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DR콩고 국회와 상원에서 모두 승인되었으며,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과 대통령령의 공포를 남겨두고 있다.[43]

농업·농촌부문의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지역이 확대되면서 아프리카의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금까지 아프리카 농림수산부문에서 이루어진 기획재정부의 유상원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25>와 같다.

41) 1987~2012년 기준
42) 679억 1,500만달러규모. 조건: 186개월 거치, 25년 상환, 이자 0.01%. 양측간 서명은 2013년 8월 13일 이루어졌다.
43) DR콩고 재무부 국제협력담당관 서면 질의 내용(2014.4.28.)

<표 4-25> EDCF의 아프리카 농림수산 분야 지원 사업[44)]

(단위: 100만 달러)

국가	사업명	승인금액 (승인연도)	사업내용
말리	관개개발사업	21.58 (2009년)	-목적: 식량 증산을 통한 말리의 식량 안보 확보 및 빈곤 감축 -범위: ① 보, 부속시설 등 관개시설 건설 ② 쌀, 야채 농지, 양식장 및 목초지 개발 ③ 교육훈련 및 지역 주도 사업 지원
	마칼라 (Markala) 사탕수수농장 개발사업	25.03 (2011년)	-목적: 국내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설탕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사탕수수 농장개발
앙골라	어선건조사업	9.50 (1998년)	-목적: 자국적선 확보를 통해 앙골라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내전후의 식량난 완화에 기여 -범위: 연근해 어업용 220t급 트롤어선 4척 건조
	농업현대화사업	31.44 (2005년)	-목적: '국가농업개발계획'상의 전략적 경제작물인 면화의 생산기반을 재건하여, 농촌의 안정적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도시 지역에 유입된 전쟁난민의 농촌지역 정착을 지원 -범위: 크완자 술(Kwanza sul)州 면화농장 관개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영양개선사업	49.00 (2007년)	-목적: ① 전후 피폐된 지방농가 육성을 통한 식량 안보와 빈곤퇴치 ② 양계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산성향상 및 수입대체 (당시 전량 수입) -범위: 양계 인프라 구축 및 도계공장 시공
	농업현대화사업 (보충융자)	18.50 (2010년)	-목적: 면화의 생산기반을 개선하고 농촌 인프라 구축 등 농업생산을 지원하여 도시에 유입된 전쟁 난민의 농촌정착 유도 및 농촌생업기반 조성 -범위: 크완자 술(Kwanza sul)州 면화농장 배수로개선 등 농업기반 개선 및 농업훈련센터, 창고건립 등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개선사업	50.00 (2011년)	-실시기관: 잔지바르 농업자원부 -차관조건: 연 0.01%, 상환기간 40년 -범위: 운구자(Unguja)섬의 4개 지구, 펨바(Pemba)섬의 2개 지구 총 6개 지구 2,105ha에 대한 관개용수개발 및 평야부 개발

자료) EDCF(재정리), http://www.edcfkorea.go.kr

44) 1990년대부터의 EDCF 사업 중 농림수산 지원 사업

위 사업들 중 가장 최근의 말리 마칼라(Markala) 사탕수수농장개발 사업을 실례로 보면, 우리의 EDCF의 운용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AfDB, IDB, BOAD 등 11개 국제 공여기관과 함께 비구속성 협조융자방식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총사업비 3.1억달러 중 EDCF가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선진 공여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규모, 지역정보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연히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MDB 협조융자사업이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제고하면서도 국제다자기구 사업 중 우리 기업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나. EDCF 사업 추진체계

"EDCF 운용위원회"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EDCF 사업의 추진창구 역할은 외교부가 담당한다. 또 수출입은행은 정부로 부터의 수탁사업 형식으로 EDCF의 운용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EDCF 사업의 추진체계와 기관별 역할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그림 4-33]과 같다.

[그림 4-33] EDCF 사업 운용체계와 기관별 역할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

다. 사업추진절차

EDCF 사업은 크게 사업 발굴 및 선정, 사업시행,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발굴과 승인 과정은 대부분 수출입은행의 현지 사무소가 수원국가 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협의를 마치면 해당사업에 관한 지원요청서가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제출된다. 그 다음 해당사업은 심사와 승인을 거쳐 수원국가에 통보되고, 수원국가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양국 차관계약이 이루어진다. 사후관리는 사업에 대한 당초계획과 비교하면서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완공 2년 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결과는 향후 정책결정, 유사분야 사업의 심사 및 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된다.

<표 4-26> EDCF 사업 추진절차

발굴·선정	사업준비	사업심사	차관협의	사업실시	사후관리
사업 발굴 ⇨ 조사 (한국정부· 수원국 EDCF)	F/S와 I/P작성 (수원국) 차관요청 (수원국)	심사의뢰 (한국정부) OECD 통보 심사승인의뢰 (EDCF) 차관승인 (기재부 등 관련부처)	시행약정 또는 F/A 체결 (한국정부· 수원국) 차관계약 체결 (EDCF·수원국)	구매입찰 (수원국) 구매계약 (수원국· 공급자) 계약이행 (공급자) 자금지출 (EDCF)	완공평가 (수원국) 사후평가 (EDCF)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

5. 경상북도의 농업・농촌개발지원

가. 새마을사업 추진개황

경상북도는 2005년에 새마을운동을 세계빈곤퇴치의 실천모델로 확산·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새마을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5년이 지난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그 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아프리카(에티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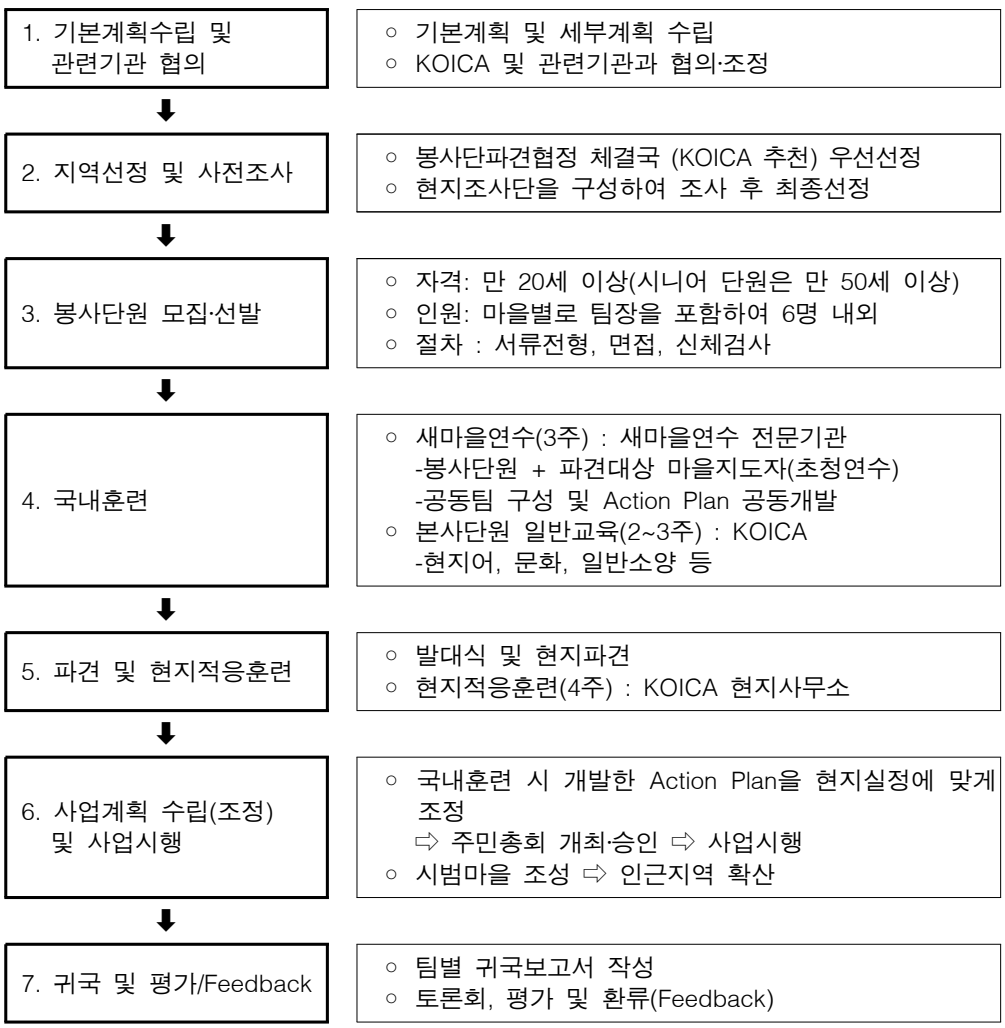
아, 르완다, 탄자니아, 카메룬)와 아시아(인도, 필리핀) 6개국에 봉사단을 파견하여 새마을사업의 세계화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에 더하여 2012년에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하여 새마을사업의 세계화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활동은 우리의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함으로 인류공동번영을 구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또 새로운 국제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의 세계화는 기존의 원조 방식과 달리 현지 주민의 주인의식과 자립역량제고 등을 통하여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청연수(주민주도) → 시범새마을조성(경험공유) ⇨ 인근지역 확산' 형식의 모델에 따른 접근을 하고 있다.

나. 사업추진절차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와 KOIC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KOICA는 봉사단원의 훈련과 파견을 담당하고 경상북도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요원을 선발하여 봉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활동에 필요한 훈련을 시켜 파견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내훈련과정에 봉사단원에 대한 일반훈련 외에 파견대상국의 현지지도자를 연수생으로 초청하여 봉사단원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양측이 함께하는 팀을 이루어 현지의 Action Plan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포함한 사업추진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4-34]와 같다.

[그림 4-34]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절차



자료) 새마을세계화재단(2013), “새마을리더 봉사단파견-시범마을조성 모델”

6.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지원 평가와 과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여러 기관이 농업·농촌분야 ODA에 참여하고 있다.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많은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무상지원을 해 온 KOICA이며, 다른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의 정부

부처들(외청 및 소속기관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OICA를 제외한 정부기관 중에서 농업관련 원조를 가장 많이 해 왔으며, 기획재정부는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농업관련 정책자문 사업을, 안행부는 새마을 운동 경험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전수하는 등 각각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관별로 분야별 특성과 역량에 비추어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 공여국들에 비해 ODA의 역사가 짧고, ODA의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하여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원조의 분절화 문제이다. 원조가 여러 기관을 통해 집행됨으로 인해 원조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원조의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원조 받는 나라의 요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동일한 국가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집행됨으로써 원조의 중복성 또한 지적되고 있다.[45] DR콩고의 경우, KOICA, 농림수산식품부, EDCF 등이 유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경험의 공유가 진행되지 않아 기관차원에서의 노하우 축적이 어려웠다.

둘째, KOICA에 비해 상대적으로 ODA 사업경험이 적은 정부기관들은 그 동안 대상국별 지원전략이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 결과,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목표성이 부족한 단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사업의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DR콩고에서 현지 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부처들의 경우, 사업별로 선정되는 PMC의 현지 네트워크와 경험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 정부 및 주민 참여시스템과 사후관리의 미비로 인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어렵다. 전술된 바 선진 ODA 공여국들의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으로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현지 사정에 걸맞은 주민 및 지방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공여 사업들이 이와 같은 현지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5) 예를 들어 KOICA, 행안부, 농진청,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각각 초청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기관들은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원조의 분절화 및 중복집행을 줄이기 위해 원조전담기구를 통한 조정과 협의체를 통한 관계부처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발족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은 한 예로서, 이것은 그동안 안행부, KOICA,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실시해 오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조정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 그동안 유사한 지원사업의 이력을 종합 관리하여 사업의 중복 및 분절화를 예방한다. ② 관계부처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개도국 정부와의 일관성 있는 협의 및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한다. ③ 관련분야의 전문가 풀을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발협력분야 인적역량 강화를 제고한다.

그 다음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수원국의 실정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목표성이 부족한 단기사업이 아니라 후속사업 및 타사업과의 연계성 까지도 고려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업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및 운영과 평가 단계에 있어서 수원 기관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수원기관 측의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원조를 통한 시설이나 장비가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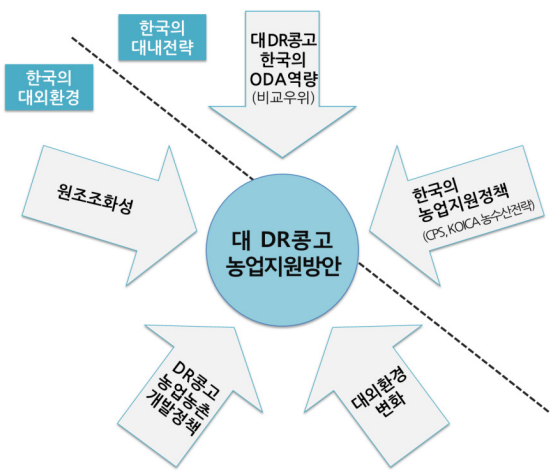
제5장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제1절 사업 도출과 실시를 위한 주요 고려 요소

향후 한국의 대 DR콩고 ODA 사업은 다음의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도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①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정책(The 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The Government's 2012~2016 Action Plan, 2009 Strategic Plan for Agricultural Sector), ② 한국의 비교우위, ③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④ 대 DR콩고 지원전략(CPS), KOICA 농수산 지원전략 2013~2015, 2011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보고서, ⑤ 대외환경변화.

[그림 5-1] 대 DR콩고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한국의 대내외 환경



자료) 연구진 작성

1. DR콩고 농업 · 농촌개발 정책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DR콩고 정부의 농업·농촌개발 정책은 The 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The Government's 2012~2016 Action Plan, 2009 Strategic Plan for Agricultural Sector이다. 제3장에서 설명된 위 정책들의 주요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식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부문의 발전
② 농업 소득 창출 위한 농산업의 발전
③ 농업 연구개발의 향상과 연구개발 결과의 이해관계자 공유
④ 농업부문의 정부 역량 강화
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취약성 감소
⑥ 새로운 법률적 체계 마련: 사회·환경적 측면 통합, 농업생산 및 자급자족 촉진, 투자의 중요 근간 마련을 위한 농산물 수출 촉진, 지역 부가가치 창출 촉진, 새로운 지속가능 에너지 기술 도입 등을 통한 농업 잠재력의 발전을 지원
⑦ 정부의 거버넌스 강화
⑧ 공공 자금 관리 및 안보 강화
⑨ 공공 행정의 현대화
⑩ 민간주도 역량 강화
⑪ 사회기반 인프라 확충

농업 ODA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DR콩고 정부가 제시한 위의 10가지 분야는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공여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DR콩고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농업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ODA 사업 종료 이후에도 수원국 정부가 스스로 사업 기조를 유지하며 성과 관리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ODA 사업과 수원국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는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2. 한국 측 비교우위 분야

정우진(2010)은 원조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을 통하여 원조 분야를 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① 최근에 성공적 개발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수원국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② 공여국의 역량이 확연히 두드러져 타 공여국과의 비교에서 타당하게 그 우위가 드러난 분야

③ 타 공여국과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틈새시장 분야
④ 공여국이 비교우위 분야에 있어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분야
⑤ MDG와 같은 국제적 개발협력의 목적과 규범에 부합하는 분야로서, 공여국의 국익이나 자원 확보를 위한 분야는 특화된 원조분야에서 제외되어야 함
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근접 관계에 있는 분야
⑦ 국가적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는 분야

이 중 ②와 ④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우위란 타 공여국 및 기구들과의 농업 원조 역량 비교를 통하여 그 탁월성이 드러나는 한국의 개발 협력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한국의 ODA 역량이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의 기술, 정책, 인적·물적 자원, 경험과 노하우가 타 공여국 및 기구에 비하여 월등히 탁월하여 대 DR콩고 농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바가 큰 부문을 의미한다.

허장 외(2011)는 이러한 농업 분야 비교우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개도국 현지에서 테스트되지는 않았지만(“untested”)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술 및 경험
- 농림수산 분야에서 그동안 시행된 협력사업의 결과가 일정한 성과를 보임으로써 (“tested”) 향후 보다 확대된 형태로 전수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술 및 경험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허장 외(2011)는 보고 있다.

① 생산성 향상: 한국은 종자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투입재 확대, 인프라 개선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②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유통, 마케팅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 부문에서의 기술개발
③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개발 경험

국내에서의 상반된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일관된 개념 정립 없이 새마을운동은 많은 개도국에서 이미 강력하게 고려되고 있는 개발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소득개발 차원을 넘어 생활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 사업들이 농촌사회의 전통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주민동원과 의식개발과 결합하여 추진됨으로써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동기부여를 주어 왔다. 산업화 단계에서 대량 이농으로 농촌 주민의 수가 크게 줄고 생활여건이 악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종합적 개발형태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의 방법론적 특징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허장 외(2011)는 농업분야 대 아프리카 비교 우위 분야를 생산, 가공 저장 처리 및 유통 등의 가치 사슬 분야에서 벼 품종 개발, 옥수수, 화훼, 유통 관련 기술, 농기계,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등 25개 분야, 농업 정책 일반, 농촌개발 등의 농정 및 농촌 개발 분양에서 새마을운동, 농외소득증대, 유통구조개선, 농촌 지도, R&D 기반 구축, 농업개발 자금 등의 15개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5-1> 대 개도국 전수 가능한 경험・기술 목록(안)

농업 분야			경험/기술
가치사슬		구분	
생산	품종/축종	곡물 및 원예	벼 품종 개발, 개량, 육종 기술
			-벼: 다수확성신품종육종과 내내성품종육종 기술 (안전다수성통일품종육성을 통해 주곡자급달성의 발판마련, 자포니카 계통의 고품질 다수성 벼 품종으로 고품질, 기능성, 부가가치 증대를 이룸.)
			옥수수 품종 육종
			-내병다수성신품종 육종(곡실용으로 단수증가의 혁신), 단교잡종신품종(사일리지용 옥수수로 축산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성장, 고품질의 식용 찰옥수수 개발되어 단경기 소득작목으로 성장함.)
			과일, 과채, 채소 품종육종, 육묘 및 보급
			-다수성 고품질 과수품종 육종, 웅성불임성 및 자가불화합성 이용 잡종 육성기술, 병충해 저항성 조기검정기술, 종간교잡, 약배양 및 배배양 기술, 식물체 재분화기술 등 (채소품종의 조직배양기술을 통한 종자육종 기술은 세계적 수준임.)

농업			
분야			경험/기술
가치사슬		구분	
			화훼 품종 육종
			-교배육종기술 (화훼 육종 및 재배기술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난, 장미, 국화, 백합, 선인장품종 육종기술이 성장함. 특히, 호접란 계통의 품종 육종과 심비디움 계통란의 재배기술이 뛰어남.)
		축산	축종개량(일반)
			-인공수정, 세포조직배양, 수정란 착상, 유전자조작, 체세포복제기술 (1980년대 인공수정을 통한 보증종모우 탄생 이후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등은 선진국 수준이며, 최근 핵치환 기술을 통해 복제양과 소의 우수한 축종개량을 이룸.)
			축종개량(한우, 젖소, 돼지, 가금)
			-한우: 종축능력검정, 종축육종기술: 인공수정을 통한 개량에 역점을 두고, 수정란 이식을 통해 우량 종축 선발(종축선발, 육종체계, 교배방식, 혈통관리기법 등), 최근 분자 유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소품종의 유전 특성 분석, 한우 특이마커를 개발하여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함. 이는 자국의 고유 소유전자원을 육성하려는 개발도상국에 좋은 교훈이 될 것임.)
			-젖소: 후대검정사업(두당 산유량 증대), 인공수정, 다배란 수정란 이식기술(MOET)을 통한 개량(한국형 종모우 선발용 후보종모우를 기반으로 젖소능력개량을 본격화하여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임.)
			-돼지: 인공수정과 동결정액 및 수정란 이식기술(우량돼지혈통을 위한 개량, 80년대 재래종복원사업 추진), 지방축적이 없는 사양기술개발과 질병이 거의 없는 종돈 생산기술 개발(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에 기여함.)
			-가금류: 개량기술, 양계 부화 및 육추기술(계통 간 교잡으로 국산계 품종 육성,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사업을 통해 실용계 사양관리기술 체계를 확립함.)
	작물재배/사양기술	곡물 및 원예	곡물(벼) 재배기술(손이앙 다수확 재배기술, 기계이앙기술, 육묘기술)
			-곡물(벼) 재배기술: 육묘기술(부직포육묘, 어린모 공장자동육묘기술로 규모화 재배에 기여), 생력재배기술(건답직파, 부분경운직파기술 등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시비기술(완효성비료 이앙 동시 측조시비기술 등 노동력절감과 시비량 절감으로 수질오염 줄임), 잡초방제기술(저항성 잡초방제기술 확립 등), 웃자람경감기술(도복경감기술 확립으로 직파재배 안정성 확보) * (손이앙재배기술(물못자리) → 다수확재배기술(비닐 보온절충못자리) → 종묘 기계 이앙(상자육묘, 건답 및 담수직파, 부직포못자리, 마른못자리)

농업			
분야			경험/기술
가치사슬		구분	
			다수확재배기술(손이앙 다수확 재배기술, 기계이앙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 멀칭재배기술 등), 육묘 기술(부직포이용육묘기술, 폿트 육묘기술,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 기술)
			벼 병해충, 냉해, 도복, 염해경감기술
			-벼 병해충 경감기술, 벼 냉해 경감기술, 도복 경감기술, 염해 경감 기술/잡초방제기술
			시설원예 기술(과수, 과채, 채소 재배기술)
			-시설원예기술: 수경재배기술, 비가림 하우스 설치, 비닐멀칭, 보온기술을 통해 비닐온실 재배기술 (주년공급의 백색혁명 이룸.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원예기술은 기술전수에 충분한 수준에 올라 있음.) -과수재배기술: Y자형초밀식재배기술(규모화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함.) -버섯재배기술: 볏짚이용 느타리버섯 재배법, 봉지재배, 병재배기술 등 -감자재배기술: 씨감자 수경재배 기술(생산성 증식, 품질향상, 농가보급 기간 단축 등의 성과)
			잠업재배 기술
			친환경적 재배기술
			-농업생산성 유지와 환경의 질 보전을 목표로 작물별 생력, 저비용 친환경 품종 개발기술, 친환경 토양관리 및 시비체계 확립, 천연생물농약, 환경복원관리기술 등 작물별, 분야별 친환경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함.
	방역위생기술	축산	가축 질병 방제, 검역 및 위생관리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체계적 위생관리 및 처리기술(사육, 집유, 보관, 운반, 판매 단계의 HACCP) 등
			가축 질병 진단 및 예방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기술과(면역증강제, 다중유전자 동시진단법 등) 가축질병 진단 기술(질병진단기법 및 시약개발: 우결핵, 부루세라병 진단기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진단키드개발)
	자재/인프라	곡물 및 원예	화학비료 생산 및 공급
			-다수확신품종 기술과 함께 사료, 비료, 축산분뇨, 시비법의 투입재관리가 농업성장에 큰 역할을 해옴. 최근 증산/다수확에서 환경보전/고품질 안전생산으로 변해가면서 자연물 투입재 활용이 커짐.
			토양분석 균형시비, 토양개량기술

농업			
분야			경험/기술
가치사슬		구분	
			-토양관리기술(토양분석 균형 시비기술, 객토,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기술은 생산성향상에 기여함.)
			친환경농업 자재
			-유기질비료(혼합유박 등), 부산물(축분퇴비) 이용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 따라 유기질퇴비가 새로운 상품기술 혁신을 이룸.)
			기계화기술(수도작 공정기계화기술 등)
			-수도육묘, 이앙, 농약살표, 수확, 도정, 가공의 공정을 기계화함 (노동생산성을 높임.)
		축산	배합사료 생산
			-균형잡힌 영양소를 갖춘 농후사료기술(생산성 향상에 기여), 사료산업의 제품 다양화, 질적 고도화를 이룸. (펠렛, 우레이크형 사료 개발과 특수 가축용 사료 생산 등)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퇴비화기술(퇴적발효처리방식, 교반송풍발효처리방식등), 가축분뇨처리기술(농가형 축분발효기 및 혼합기 개발, 버켓 엘리베이터 발효시설, 가축분뇨 속성 유기질 비료같이 제조설비 기술개발 등), 축산뇨/오수 정화 처리 기술 등
		인프라	수리시설(저수지, 양배수장, 보, 암거, 관정, 용배수로)
			-지하수개발 및 관리(농업, 생활용수확보를 위한 수자원 인프라 기술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임), 배수관리(암거관 설치, 심토파쇄), 관개기술(휴간관개,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정량모터에 의한 점적방법, 수분센서를 이용한 자동급액장치와 컴퓨터를 이용한 최적 관수조절 등)
			농업생산기반정비(경지관리, 배수개선, 간척정비, 기타)
			-농업용수개발관련사업(개발, 시설관리), 경지정리관련사업(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대·포장 등), 배수개선사업, 간척정비사업(대단위종합개발, 서남해안 간척, 담수호, 인공습지) 등의 사업(지속적 용수개발로 인해 수해 등 재해발생 피해 최소화, 안전 영농기반 조성, 지역농 촉진,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 농외소득증대 효과 등에 기여함.)
			농업생산기반정비(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1970년대 4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영농의 기계화, 농지개량사업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확고히 하여 농업발전과 식량증산에 기여함.)

농업			
분야			경험/기술
가치사슬		구분	
			농기계
			-농업기계화 정책(1960년대~80년대까지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제도적 지원과 농기계보급 등), 벼농사의 경우 경운, 이앙, 수확 및 방제부분의 기계화 달성함(수도작의 토지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농업기계와 가공기계기술(벼 직파재배 기계기술, 미곡종합처리기계화 기술 등의 경종용 농업기계기술과 수확후 처리작업의 기계화 기술, 사료 건조기, 벼품위자동판정기, 비닐하우스용 농산물건조장치 등의 가공기계기술 확립)
가공·저장·처리 및 유통		곡물 및 원예	벼 수확후 관리 및 가공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건조/저장/도정/포장/유통 기술 -RPC, DSC(증산효과와 품질 유지, 위생적 가공처리 등에 기여함. 쌀의 도정과 가공, 저장기술로 선진국수준에 도달해 있음.)
			채소, 과일 저장 및 가공기술
			-치유 및 예냉기술 개발 보급, 수확 후 관리기술(채소, 과일의 수확 후 가공기술은 경쟁력을 인정받음, 신고배 저온저장 중 과피흑변방지기술, 기능성포장재 이용기술, 질소치환밀봉포장기술 등)
			유통관련 기술
			-콜드체인시스템, 바코드시스템, 농산물 자동포장기, 농산물 선별시스템 (비파괴 기술 등)(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높은 농산물 공급에 기여, 특히 바코드기술, 생산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은 농산물 유통 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룸.)
농정		농업 정책 일반	농촌지도, 농업 R&D 기반 구축
			-1960년대부터 농업인에게 필요한 기술과 정보 교육을 통해 기술을 보급하고 실천되도록 하는 사업임. 식량자급달성과 농업인 육성에 기여함 (특히, 농촌진흥청의 농업분야 R&D 기반과 농업기술 보급체계는 주곡 자급자족에 기여하는 등 국제기구가 인정한 우수한 시스템임.)
			산림녹화
			-산림복구와 산림자원 소득화에 기여함(정부의 1,2차에 걸친 10개년 계획 하에 70년대에 산림자원의 소득화, 산림소득의 주식화 등을 계획하여 실시함.)
			양곡관리, 이중곡가제
			-곡물 가격보장과 증산유도를 위한 국가양곡수매제도와 이중곡가제 도입

농업		
분야		경험/기술
가치사슬	구분	
		(쌀 증산 유도와 농가소득 향상, 식량증산을 위한 신품종 보급에 기여함.)
		미곡증산정책
		-개간사업과 토지개량사업, 정부의 관련법령과 제도정비(다수확시상제도, 농자재 보조금지급제도 등 도입)를 통해 농업증산과 생산과정의 근대화 촉진에 기여함.
		농가소득지원정책(직접지불)
		-쌀산업 보호를 위한 직접지불제, 농업/농촌 환경보존을 위한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친환경 축산 직불제등을 실시하여 정부가 생산자에 대해 직접소득보조를 함(농민소득 보전과 친환경농업확산으로 환경부담 경감에 기여함.)
		농업구조개선(규모화)
		-농지규모화지원(농지관련법 제도 개선), 대규모 경영추진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 지원(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경영규모 확대와 농업의 기계화 및 전업농화에 기여함.)
		유통구조개선(도매시장, 산지시장, 유통구조 개선, 직거래, IT기반 유통체계)
		-생산자의 적정가격 보장과 소비자의 안정된 가격의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유통관련 법령 제정 및 구조 개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장법, 축산법 제정,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확충 등 국내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농업개발자금
		-농업기계화 기금, 축산진흥기금, 종합개발자금계정 등 농업개발자금의 다양화와 특정분야에 대한 기금설치를 추진(사채에 의한 고리채 부담을 제거하고 농업 자재 확대로 자원위주의 농업에서 기술위주의 농업 전환에 크게 기여함.)
		종합농협
		-1960년대 구매, 판매사업의 정부위촉사업을 시작으로 곡물을 주로 하는 공판사업에서 이동농협, 종합농협으로 발전(농민조합원의 출자와 저축을 기반으로 한 조합금융기반마련, 자금관리, 현물융자, 신용사업과 구판사업의 연계, 영농기술지도 등 농업금융전담기관으로 지도금융체제발전에 기여함.)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70년대 정부주도형 정책으로 소득증대, 인프라개발, 생활환경개선, 근면/자조/협동정신계발등의 정부주도에 의한 주민 참여형 농

농업		
분야		경험/기술
가치사슬	구분	
		촌개발임 (농가소득개선을 통한 빈곤극복, 전국농촌도로정비, 전국마을단위 간 이상수도설치 등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함.)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농촌지역의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연계하여 광역의 농촌지역개발임(70년대와 달리 80년대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은 농촌중심지의 도시개발과 시장,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 농경사회적 성격과 산업사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개발방식으로 여겨짐.)
		농외소득증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부업단지정책, 새마을공장 중심의 농촌공업화정책, 농공단지 조성정책, 특산단지 조성정책 등(도농 간의 균형성장, 농외소득증대, 농촌지역의 공업화정책 수립에 기여, 농업중심 개발도상국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활용 가능함.)
		농촌정주생활권개발
		-농어촌지역종합개발로 마을정비, 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정비, 복지시설확충 등 지역개발과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농촌지역개발정책으로 도농 통합적 개발, 종합적 개발, 밑으로부터의 개발의 특징을 가짐(1980년~90년대 시장중심의 민간주도, 지방자치체의 실시 등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 개발방향, 개발사업과 개발전략의 선택 등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연계하여 추진함.)
		마을종합개발 정책
		-농촌 환경정비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촌마을 중심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려는 정책으로 정부 관련부처의 녹색농촌 체험마을가꾸기사업, 테마마을 가꾸기사업 등이 있음.(도시민유치와 농가소득증대,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함.)
		농촌도로
		-농촌도로는 1970년대부터 새마을도로건설, 농어촌소득원도로건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을 통해 90년대까지 이루어짐(정부의 법령제정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촌소득원개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함.)

자료) 허장 외(2011), 농림수산분야 발전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모델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위의 경험 기술 중 아프리카 지역에 대하여 비교 우위가 있는 10개 분야는 <표 5-2>와 같다.

<표 5-2> 비교우위가 있으며 전수가 가능한 분야 권역별 10개 분야 선정

순위	분 야
1	옥수수품종 육종
2	벼 품종 개발, 개량, 육종기술
3	벼 재배기술
4	잠업 재배기술
5	벼 병해충, 냉해, 도복, 염해경감기술
6	토양분석 균형시비, 토양개량기술
7	벼 수확후관리 및 가공기술
8	산림녹화
9	농촌정주생활권개발
10	과일, 과채, 채소 품종육종, 육묘 및 보급

자료) 허장 외(2011), 농림수산분야 발전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모델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그러나 허장 외(2011)가 제시하고 있는 대 아프리카 농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한국 농업 ODA 절대 비교우위 분야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첫째, 위의 비교우위 분야의 선정 방식은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것이기에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석적 판단 기준 없이 제시된, 한국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허장 외(2011)가 밝히고 있는 바대로, 비교우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다른 공여국에 비하여 기술수준, 인적자원 보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적 맥락, 경험 및 기술의 단위나 수준 그리고 정책적 적용의 과정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국가끼리의 경쟁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을 수 없다. 셋째, 수원국에서의 비교우위 분야란 공여국의 수원국 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공여국내 절대적 비교우위와는 달리 수원국내에서의 역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A국에 대한 역량 집중을 하고 있는 한국이 B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경우, 비교우위 분야는 B국에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의 A국에서의 비교우위 분야가 B국에서는 통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절대적 비교우위 분야를 정밀히 분석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바 한국의 절대적 비교우위 분야는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절대 비교우위 분야가 직접적으로 ODA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절대 비교우위 분야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현장 비교우위 분야란 타 공여국, 기구에 비하여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는 수원국 내에서 공여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진 현장 전문성의 보유가 현장에서의 비교우위로 나타나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유되지 않는 제각기 다른 특수한 자연, 인간, 사회 환경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농업·농촌개발 사업은 현지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국 내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비교우위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여국 내에서의 비교우위 분야일 뿐이다. DR콩고의 문화와 관습, 정치, 자연 환경, 경제,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비교우위 분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ODA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절대 비교우위 분야 및 현장 비교우위 분야가 확연히 드러날 지라도 ODA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에서 한국의 ODA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DR콩고에서 고려 가능한 농업 부문 ODA 사업 분야가 될 것이다.

① 농업 정책 개발: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 수출 증진 국가 전략, 농업 생산, 유통, 마케팅, 가공 증진, 농업 이해관계자별 이익 공유 등의 DR콩고 농업 발전을 위한 선진 농업 정책 전수 및 컨설팅

② 농생산성 증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및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단위 면적 당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킴
③ 가공, 저장 등을 통한 수확 후 관리를 통한 가치 사슬 강화
④ 수확 후 관리 및 농가공: 수확된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자의 손에 도달되는 전 과정에서 수확된 산물의 선별, 예냉, 저장, 포장, 수송 등의 개선과 산물에 대한 1, 2차 가공을 통하여 농사물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것
⑤ 농산업 육성: 농산물 생산의 가공·포장·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산업화
⑥ 관개/농업용수 분야: 하천·저수지·지하수 등 3 가지 수원을 도수, 배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농업 생산을 통한 경제효과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
⑦ 농업 인프라: 농도로 등의 생산기반시설 및 농지조성을 통한 농생산, 가공, 유통의 물리적 기초 토대 마련
⑧ 농업 교육: 농업 생산 기술, 조직, 마케팅 등의 농업 역량 개발
⑨ 농업 금융: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수송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조달과 공급 위한 자본 산업
⑩ 농촌 지역 종합개발 사업: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기초 생활환경정비, 공동소득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의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DR콩고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부문을 다루는 인적, 물적 토대가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자국에서의 해당부문 발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타 공여국/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접근과 해결 방식이 탁월해야 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ODA 규모가 적합해야만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역량을 분석하면 <표 5-3>과 같다. 한국의 부문별 역량이 타 공여국/기구들에 비하여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를, 한국이 일부 공여국이나 기구들에 비하여 우위를 어느 정도 점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를 그리고 타 공여국, 기구들이 한국에 비하여 확연한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경우 X를, 마지막으로 비교 우위 자체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는 ?로 표시 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점수로 정량화하기 위하여 ○에 2점, △에 1점, X에 0점을 부여하였고 본 점수는 절대 평가 지수가 아닌 비교 평가를 위한 비교 지수이다.

<표 5-3> 대 DR콩고 한국의 농업 ODA의 부문별 역량 분석

○: 확연한 우위 (2점) / △: 비교적 우위 (1점) / X: 확연한 비우위 (0점)

	농업 정책	농생산 증대	수확후관리/ 농가공	유통/ 마케팅	농산업 육성	관개/ 농업 용수	농업 인프라	농업 교육	농업 금융	농촌종합 개발
한국 ODA 규모 적합성	○	○	○	○	X	△	△	○	△	○
해당 분야의 절대 비교우위	? (대 BTC, World Bank, FAO 열세 예상)	? (대 IFAD, FAO 열세 예상)	? (대 IFAD, FAO 열세 예상)	? (대 SIDA, USAID, BTC 열세 예상)	? (대 World Bank, USAID, BTC, FAO 열세 예상)	? (대 AfDB, World Bank 열세 예상)	? (대 AfDB, World Bank 열세 예상)	△ (대 Local NGO 열세 예상)	? (대 USAID, SIDA, World Bank 열세 예상)	○ (비교 상대 없음)
현장 비교우위	X (대 BTC, FAO 등)	X (대 IFAD, IFPRI 등)	X (대 USAID)	X (대 IFAD, USAID 등)	X (대 World Bank, FAO 등)	X (대 World Bank, AfDB 등)	X (대 AfDB, World Bank 등)	△ (대 현지 NGO, SNV 등)	X (대 SIDA, USAID 등)	△ (비교 상대 없음)
혁신적 문제 접근/ 해결 방식보유	X	X	X	X	X	X	X	X	X	○
총점	2	2	2	2	0	2	3	6	1	7

자료) 연구진 작성

한국의 무상 ODA 규모 면에서 본다면, 사업별 500~700만 달러는 농산업 육성, 관개/농업 용수 및 인프라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 자원 투입이 주로 요구되는 농업 정책, 교육 분야는 대규모의 투입이 요청되지 않으며, 인적, 물적 인프라가 함께 요구되는 농생산 증대, 수확 후 관리, 유통 마케팅, 농촌 종합 개발 분야는 사업 범위 조정을 통하여 지역별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금액을 넘어서는 대단히 많은 ODA 자금과 기자재 그리고 인력 투입이 요청되는 기초 농업 인프라 관련 분야는 한국의 무상 ODA 규모로는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역량 및 발전도 측면에서 한국은 선진 농업국 및 국제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지녔다고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스웨덴, 미국과 같은 농업 강국들은 농업 정책 및 생산 및 생산 후 관리, 농업 인프라,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발전된 물적, 인적 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한국이 이들을 발전 모델로 삼고 있기에 한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농업 기술 개발에 있어 인적 물적 역량을 최고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는 FAO, IFAD 그리고 인프라 건설을 주로 해온 World Bank, AfDB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역량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새마을운동과 같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온 농업 교육 및 농촌 종합 개발 분야는 한국의 역량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분야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전통과 상당히 깊이 연관되어 발전하여 왔고, 한국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타 공여국 및 기구들은 이와 같은 한국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결여되어 있는 반면, 오직 한국만이 한국형 종합개발사업의 핵심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짧은 ODA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장 경험 및 노하우 측면에서 한국은 타공여국 및 기구보다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ODA 사업은 현지의 자연, 문화/전통, 사회, 정치 이해를 요구하며 이는 대단히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미 식민지 시절부터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벨기에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 사업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스웨덴과 국제기구들에 비하여 10년 안팎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하라이남 지역 중 중서부의 농업 기술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고 전문 인력 또한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농기계, 종자, 질병관리 등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타 공여기구들이 큰 주위를 가지지 않은 분야인 농촌 종합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은 비교 대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문제 접근/해결 방식 노하우 보유란 DR콩고가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접근 방법이 혁신적이고 우수하여 경험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탁월성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정책, 인프라, 기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선진 공여국, 기구들의 원조를 통하여 농업 발전을 이루어 왔기에 그 영향 아래에 있었고 문제 해결의 대원칙 방향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농민들의 자치적이고 자립적인 발전 의지를 도모하는 방식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라 할 수 있고, 타 공여국 및 기구들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 방식을 UNDP 또한 1980년대 초부터 Participation Based Development Methodology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였지만 성공여부는 확실치 않고 한국의 성공 사례와의 비교는 계속되고 있다.

3.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원조 조화란 파리 선언에서 다루고 있는바 중복적인 원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공여국들 사이의 원조정책, 절차, 예산, 접근방법 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표 5-4>는 DR콩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공여기관의 프로젝트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DR 콩고에서는 AfDB, IFAD, FAO 등의 다자기구와 BTC, USAID 등의 양자기구들이 다양한 농업·농촌개발 공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5-4>는 공여사업을 세부분야별로 보여주고 있다. 양자 기구들이 가장 많은 공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분야들로는 생산자 조직, 생산지원이며 그 뒤로 가공/저장, 인프라 사업 그리고 생산자 훈련/기업가 양성과 유통 및 마케팅 순이다.

<표 5-4> 세부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

구분	다자지원			양자지원			계		
분야	AfDB	IFAD	FAO	World Bank	EU	벨기에 (BTC)	미국 (USAID)	스웨덴 (SIDA)	
생산지원	21	8			27	19	11	25	111
생산자조직	5	17	17	25	18	14	6	17	119
유통 및 마케팅	5	8			16	14	22	8	73
가공/저장	16			25	16	16	17	8	98
인프라	16	25		25	4	6	11		87
긴급구호					4	1			5
식수접근		17			3				20
천연자원관리	11				3	4			18
행정지원	5		17		3	9		17	51
영양			33		3	4	17		57
생산자훈련 /기업가양성			33		1	12	11	17	74
식량원조	5					1	6		12
신용접근								8	8
연구						7			7
기타	16	17		25					58

자료) GIBADER(Inter-donors group) 제공 자료를 재구성. 본 자료는 OECD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으나 OECD 자료에 비하여 구체성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농업·농촌개발 사업들은 가치사슬(value chain)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성 증가와 증가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저장하며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여국들 사이의 원조 조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본 통계를 사용해야만 하나, 본 통계가 사업의 분야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위 사업들이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가장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자 지원과 조직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는 본 통계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KOICA가 중요하게 여겨볼 사항은 위와 같은 다양한 원조 사업들이 있음에도 현재 DR콩고에서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표 5-4>에서 볼 수 있는 바, 거의 모든 해당 분야별 공여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분절화 되어 있는데 생산자 조직,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 훈련 등의 사업들은 각기 연계성을 가진다고 보기 보다는 분야별로 내적 충족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공여국들이 이러한 분절화 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범위를 주민들의 삶의 자리가 아닌 행정 구역 혹은 구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DR콩고에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범위는 씨족, 종교, 문화, 역사 전통 등에 의거하여 의식주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위 사업들은 이를 크게 뛰어넘는 행정 구역 및 구획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업의 범위가 삶의 자리 범위를 뛰어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게 상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또한 사업의 파급성과 효과성을 단일 사업에서 성취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른바 IRDP라 불리는 농촌종합개발프로그램(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gramme)은 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으나 지역단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권력 구조와 문화·종교 상관관계 그리고 정치적 상호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도전들을 처리할 경험을 공여국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46)]

그러나 DR콩고의 최종 수혜자들이 되어야 할 농촌 주민, 소농들의 입장에서는 공여사업의 효과는 사업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야 비로소 입증될 수 있다. 각각의 전문 분야별 공여 사업이 실제 삶과 유리된다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달성이 어렵게 된다. 소농, 농촌 거주민에게 가장 밀접히 연계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다른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종합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며, 한국의 경우 위에서 추론된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타 공여국들과는 달리 한국의 ODA 규모는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적정한 규모이며, 지난 40년간 농촌종합개발사업의 노하우와 경험은 종합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내적 난관들을 극복할 역량이 되기 때문이다.

46) http://www.un.org/en/ecosoc/docs/pdfs/an_integrated_approach_to_rural_development.pdf. 1장 참조.

4. 국내 농업 부문 대 DR콩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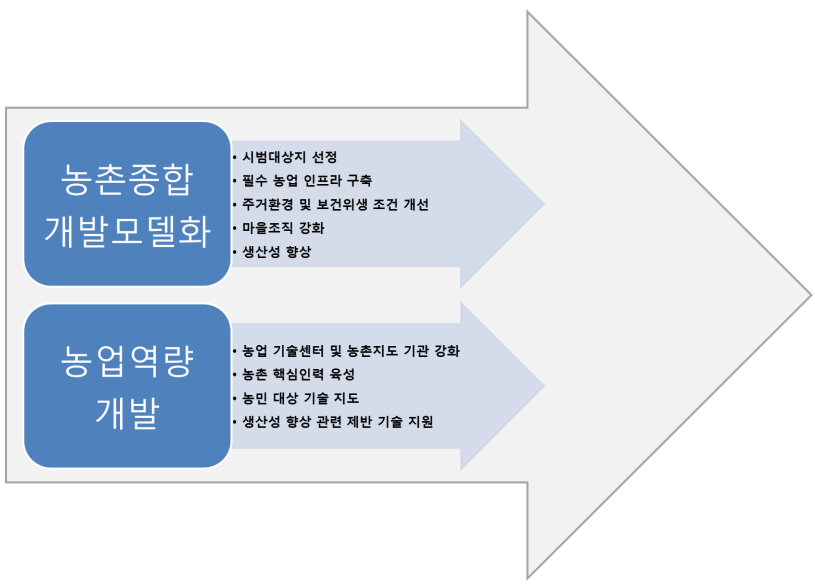
가. 콩고민주공화국 국가협력전략 2012~2015(CPS)

콩고민주공화국 국가협력전략(2012~2015)은 공무원의 역량 부족, 농민의 낮은 교육 수준, 영농지도자의 부재를 가장 큰 농업 개발의 장애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영농지도자 육성, 농촌 생활여건 개선 분야로 보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세부 사업 내용을 제시한다.

① 농촌인력자원 개발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② 농업 생산 기술 향상과 교육.

아래의 [그림 5-2]는 한국 CPS의 핵심 전략인 농촌종합개발사업과 농업역량 개발을 통한 농업·농촌개발협력 전략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 한국 CPS의 대 DR콩고 농업・농촌개발협력 추진 전략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종합 프로그램 형식의 지역 개발 사업인데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개선, 보건위생조건개선, 지역 차지 참여, 지역 조직 활성화를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내용으로는 지역 주민의 주인의식 강화와 농촌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범대상지를 선정하고 필수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며 주거환경과 보건 위생을 개선하며 마을의 조직 강화 등을 공자로 하는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을 모델화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지도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농촌핵심인력을 육성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 토지 질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 관련 제반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다.

나. KOICA 농림수산 분야 전략(2013~2015)

KOICA는 농촌 지역의 소득원 다양화, 농수산물시장 접근성 개선, 농어업 생산성 향상, 농어촌인프라 구축을 기본 틀로 하는 농림수산 분야 전략을 가지고 있다. 각 부문별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5-5> DR콩고에 대한 ODA의 분야별 구성(2010~2012)

(단위: %)

분야	2010	2011	2012	3년 평균
부채탕감 관련	64.4	68.6	23.0	59.0
행정 지원	0.1	0.1	0.3	0.1
경제 인프라	3.5	3.7	12.4	5.2
교육	1.8	1.3	4.0	2.0
보건위생 및 인구	7.1	6.5	19.5	9.0
인도적 지원	7.5	6.0	14.4	8.0
범분야 관련	2.3	1.4	3.5	2.1
사회 분야	7.8	7.4	15.0	8.9
생산 분야	1.3	1.7	5.3	2.2
사업 지원	4.1	3.3	2.4	3.4
기타	0.1	0.1	0.2	0.1
ODA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OECD/DAC, http://www.aidflows.org/

<표 5-6> 부문별 세부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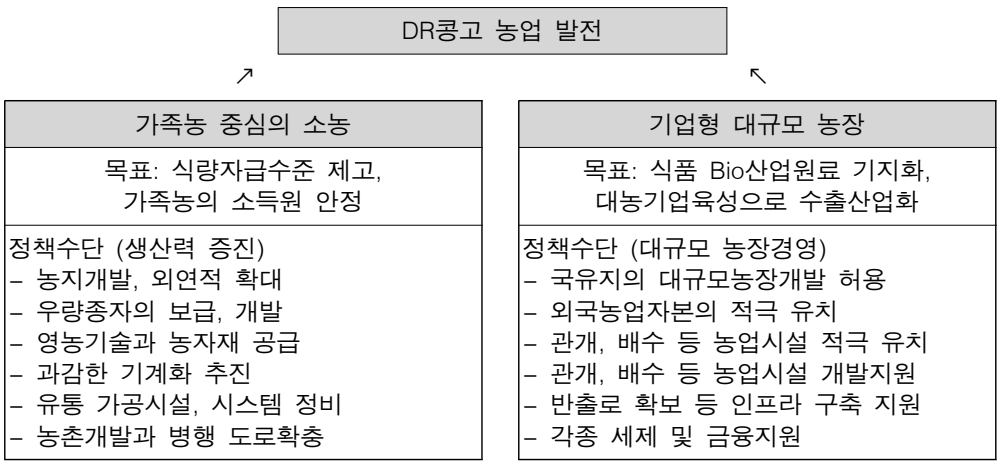
5대 전략목표	ⓐ 농어촌 인프라 구축 -농업생산인프라 확충, 전력과 통신설비 확충, 농촌주거환경 개선 ⓑ 농어업생산성 향상 -생산자조직육성지원, 농업기술지원, 농업정책수립 역량 강화 ⓒ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수확후 가공, 유통망개선, 마케팅활성화, 수출역량 강화 ⓓ 농어가 소득원 다양화 -농촌금융활성화, 직업훈련지원, 농공단지조성, 농촌관광 상품개발 ⓔ 농어촌 종합개발
선택과 집중 차원의 접근전략	ⓐ 국가협력전략(CPS) 중심의 사업지원 -수원국의 국가발전전략과 농업농촌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지원전략을 반영하여 CPS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조일치(Alignment)와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영세소농과 농촌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영농과정의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실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 고리 단절 ⓒ 비교우위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의 경험과 지식 중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수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기타 접근전략	ⓐ 원조의 효과성증진 : 프로그램 형 지원모델개발, 수원국의 발전단계별 프로그램 적용,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강화 ⓑ 파트너십강화 : 국내 농업농촌개발협력 파트너십강화, 수원국가 현지의 원조조화(Harmonization) 강화, 국제원조 네트워크강화

자료) KOICA(2013), 농림수산 분야 전략(2013~2015)을 참고하여 작성

다.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보고서(KOICA, 2011)

KOICA가 2011년 발표한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보고서는 KOICA의 농림수산 분야 전략을 DR콩고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가족농 중심의 소농 지원 전략과 기업형 대규모 농장 지원 전략을 큰 틀로 가지고 있고 그 목표 또한 가족농 수준에서의 식량자급수준 제고와 안정적 소득원 확보 그리고 기업형 대규모 농장을 통한 식품 BIO 산업원료생산과 농업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목표 성취를 위하여 각각 다른 수준의 정책 수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5-3] DR콩고 농업발전 전략(Two-Track)



자료) KOICA(2011),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위 보고서는 DR콩고 농업 발전을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소농개발과 기업형 대규모 농장 개발이라는 이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소농개발은 가족 단위의 식량자급 수준 제고와 소득원 안정을 목표로 하며, 기업형 농장 개발은 대농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산업화 촉진과 식품 Bio 산업 원료 기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는 주민으로서의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농산업 육성에 초점이 있다. CPS가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이를 위한 역량 개발에 주안점이 있다면 동 보고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단위의 경제개발을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CPS와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5. 대외 환경 변화(민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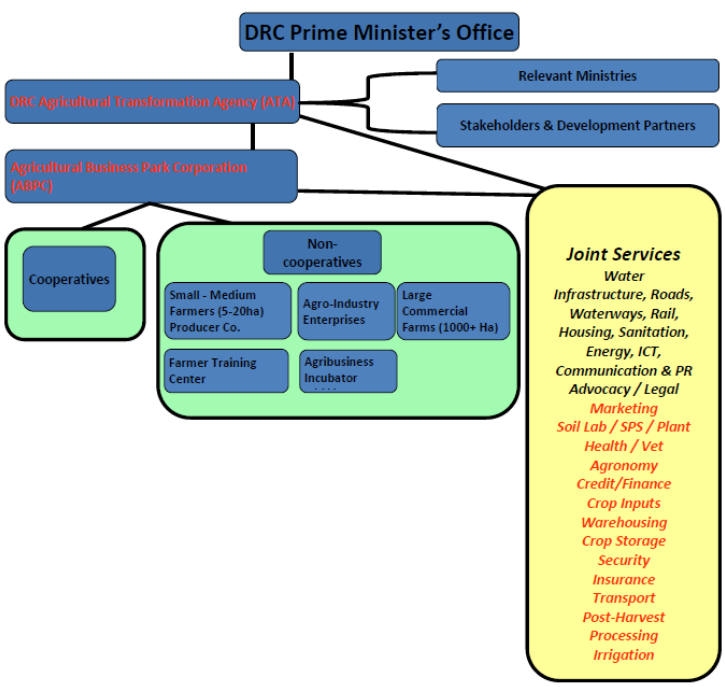
2001년부터 DR콩고 정부는 World Bank의 지원으로 DR콩고의 농업 역량과 그 장애요인들을 분석하였고 그 요인들과 이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 농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 민영화를 제시하였다.

DR콩고 정부가 분석한 농업발전의 장애 요인은 ① 시장 접근성 약화, ② 취약한 권력 구조, ③ 인적 자원의 부재, ④ 취약한 정부의 개발 프레임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DR콩고 정부는 농업개혁 정책을 제시 하였는데, 그 정책의 핵심에는 농산업단지 개발이 있다. 농산업단지는 총리실 산하에 집행 기구들을 두고 각 지방에 설치하여 이곳에서 농업뿐 아니라 축산 및 낙농, 양어장까지 경영한다는 구상이다(그림 5-5).

DR콩고 정부는 구상 중인 농산업단지의 추진과 관련해 계획의 지속성, 투명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SOPAGR(농업공사)를 설립하여 민간 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ACTA(농업개혁국)을 설립하여 농산업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을 감독하며,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그림 5-4]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도이다. 총리실 산하 관계 부처 그리고 개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농업 변혁처가 있고 그 산하에는 협동조합과 비협동조합 조직들(중소농 생산자 연합, 농민 교육 센터, 농산업, 대단위 상업농)이 포함된 농산업단지 공사가 있다.

[그림 5-4] 농산업단지 조직도



자료) DR콩고 총리실 제공 자료

각 지역에 설치될 농산업단지의 위치는 [그림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킨샤사(Kinshasa)를 중심으로 한 바콩고(Bas-Congo)지역, 에콰퇴르(Equateur)주 북부지역과 오리엔탈(Orientale)주 그리고 마니에마(Maniema)주와 남키부(Sud Kivu) 그리고 카사이(Kasaï)주 일대에 퍼져 있다.

[그림 5-5] 농산업단지 위치



자료) DR콩고 총리실 제공 자료

<표 5-7> 농산업단지 선정지

Province	Region	Site	Size of site (ha)	Cultures	Livestock/fishing	Start of Work
Bandundu	Kenge	Bukangalonzo	75,000			2014
Equateur	Bumba	Bumba	110,000	Corn, legume, soy, rice, avocado, banana, Plantain banana, groundnuts, Igname	Goat, fish, pig	2014
Equateur	Businga	Businga	65,000	Corn, Soy, groundnuts, legume, sunflower	Cattle, chicken, goat, fish, pig	2014
Bqndundu	Idiofa	Dibaya Lubwe	ND			2014
Kinshasa	Maluku	Dumi	14,000			2014
Equateur	Gbadolite	Gbadolite	77,000	Corn, soy, groundnuts, legume	Cattle, chicken, goat, fish and pig	2014
Katanga	Kalemie	Kalemie	42,000			
Katanta	Kaniama	Kaniama Kasese	30,000			
Maniema	Kasongo	Kasongo	75,000	Corn, soy, rice, groundnuts, legume	Cattle, chicken, goat, fish	2014
Bandundu	Bulungu	Kiminga	20,000			
Maniema	Kindu	Kindu	150,000	Corn, soy, rice	Cattle, chicken, fish	2014
Bas-Congo	Mbanza Ngungu	Kinzau	1,000	Cabbage, Spinach, tomato		2013
Orientale		Lotokila	95,000	Corn, soy, rice	Chicken, fish, cattle	
Kasai-Occ	Luiza	Luiza	120,000			
Kasai-Occ	Mweka	Mweka	ND			
Kasai-Or	Ngandajika	Ngandajika	ND			
Bas-Congo	Luozi	Nkundi	30,000		Chicken, Cattle, Goat, lamb, fish, pig	
Sud Kivu	Uvira	Ruzizi	80,000			2013
Orientale		Yangambi	85,000	Corn, Soy, Coffee, Cacao		2014
Bas-Congo	Tshela	Tshela	ND			

자료) DR콩고 총리실 제공

본 농산업단지 조성은 막대한 양의 투자가 필요하고 부족한 정부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DR콩고 정부는 본 사업을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하여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2014년 1월 콩고민주공화국 재무장관이 미국 하버드대에서 개최된 농업 관련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을 밝혔으며 현재 IFC와 MIGA와 같은 국제 금융기구는 자본을 투자하고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VALMONT, HEARTLAND GLOBAL, SRD research USA와 같은 미국 업체들은 관개시설, 농업 및 낙농부문 전문가 파견, 남남협력의 방식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본 사업의 투자와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농업 생산은 급격히 향상되어 국내 식량 부족문제 해결과 수입 대체 효과가 이루어 질 것이며 더 나아가 농업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단지는 외자기업의 직접 경영과 DR콩고 조합의 경영으로 양분될 예정인데, 투자자의 영향이 대단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본 사업의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외자기업의 직접경영이 조합 투자를 크게 앞지를 것으로 향후 소농들의 몰락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

민영화는 광대한 농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농산물 수출역조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콩고와 같은 농업여건에서는 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농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은 분명하며 이는 소농들의 농산물 시장 접근에 대단히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위의 <표 5-7>에 나와 있는 대로 농산업단지의 대부분의 생산물이 기초 식량 농산물이며 대부분의 경우 일반 소농들의 생산물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농과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조합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투자자 직접 투자가 아닌 경우 투자대비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 DR콩고 ODA의 최종 수혜자가 소농들임을 고려할 때, 민영화라는 대외환경변화는 향후 KOICA가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할 사업들을 분명히 구분한다. 민영화에 대한 편승보다는 예측되는 소농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할 전략을 찾는 것은 ODA 사업에 주요한 전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향후 對 DR콩고 KOICA 사업의 주요 요소

농업·농촌개발 관련 가능한 사업들 가운데 사업 결정 주요 요소들의 복합 스크리닝(screening)을 거치면 인적자원 개발과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1. 가능한 사업

위 제1절 제2장에서 밝힌 바대로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 가능한 농업부문 ODA 사업은 농업 정책, 농생산성 증대, 수확후관리/농가공, 유통/마케팅, 농산업육성, 관개/농업용수, 농업인프라, 농업교육, 농업금융 그리고 종합농촌개발 사업이다. 또한 위 사업들은 DR콩고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 목록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수확 후 관리 및 농가공, 관개/농업용수 등의 인프라와 유통·마케팅, 수확 후 관리 및 농가공 등의 부가가치 증대 사업과 중복되지만 이들과 대별되는 차이점은 농촌종합개발 사업은 소규모 농촌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나머지 사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일 사업만을 의미한다.

2. 사업 결정 주요 요소 기반 ODA 사업의 선택과 집중

위에서 제시된 농업·농촌개발 사업 분야들은 대부분 DR콩고에서 일정정도 추진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ODA 역량과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몇 가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년에 1~2개 사업이 수행되고 있고 사업 당 500~700만 달러인 KOICA의 사업 규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 위에서 이미 밝힌 대내 전략과 대외환경은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그림 5-1). <표 5-8>은 향후 KOICA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대내 전략으로서의 ‘CPS’와 ‘KOICA 농림수산분야 전략’ 그리고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은 향후 KOICA의 대 DR콩고 농촌·농업개발 사업의 사업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고려되어야만 한다.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업 기조는 향후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여기에서 벗어난 사업들은 산발적이고 파편적이 되어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며 또한 종합적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표 5-8>에서 각 분야별 농업·농촌개발 사업 중 3개의 대내 전략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에는 ○,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 분야에는 △, 그리고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X로 표시하였다. <표 5-2>에서 본 바대로 CPS는 농업 교육과 종합농촌개발 사업에 주안점에 두고 있기에 양 사업에 ○를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는 X로 표시 하였다. <표 5-6>에서 본 바대로 KOICA 농림수산분야 전략의 부문별 세부 전략과 <표 5-3>에서 본 DR 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지원 사업의 가족농 중심의 소농과 기업형 대규모 농장 지원의 사업 내용들은 세부 분야별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모든 사업에 ○을 표시 하였다.

대외 환경으로서의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정책'은 DR콩고 정부가 도출해 낸 농업개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는 수원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DAC의 원조 규범에 맞추어 KOICA의 농업부문 원조 사업은 사업 발굴 단계부터 DR콩고의 정책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수원국 농업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개발 당사자인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5-8>에서 DR콩고의 정책이 콩고의 농업 개발을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분야에는 ○를, 어느 정도 감안한 분야에는 △를 그리고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경우 X로 표시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 제3장 제2절 1에서 본 바대로 DR콩고 농업·농촌개발 정책인 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Government's 2012~2016 Action Plan, 2009 Strategic Plan for Agricultural Sector은 KOICA의 가능한 모든 분야별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에 모든 분야에 ○를 표시 하였다.

DAC는 국제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공여국 사회의 원조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DR콩고에서의 KOICA 사업 또한 이를 중히 고려해야 한다. 각 사업별 혹은 프로그램별로 공여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타 공여국의 약점과 조화를 이루거나 이른바 Bottle Neck이라 불리는 지역별 개발 사업의 취약점에 집중하여 공여사업 전체의 파급효과를 증진시키고 최종 목표 성취를 가져 오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각 부분별로 현재 공여사업들의 Bottle Neck이거나 타 공여국의 취약점을 한국이 극복할 수 있는 경우 ○를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에 △를 전혀 원조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경우 X로 표시 하였다. <표 5-4>에서 본 바대로 현재 거의 모든 세부 분야별 원조사업은 선진 공여국들에 의하여 집행되어 왔지만, 농업 금융과 종합농촌개발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지 못하며, 농업교육과 유통/마케팅의 경우 시행되고 있지만 그리 많지 않기에 △로 표시 하였다.

한국 측 비교우위 분야는 타 공여국에 비하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개발의 경험과 노하우가 뛰어난 분야를 의미한다.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명백한 경우 ○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를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X로 표시 하였다. <표 5-3>에서 본 바대로 한국의 역량이 우위를 월등히 점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에는 ○를, 어느 정도 우위를 지니고 있는 농업교육의 경우 △를, 나머지 우위를 지니고 있지 못한 경우 X를 표시 하였다.

대외 환경변화는 위에서 밝힌 대로 민영화를 비롯하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DR콩고 농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표 5-8>에서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필요한 사업에는 ○를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에는 △를 그리고 전혀 필요치 않은 경우 X를 표시 하였다. 위에서 밝힌 대로 민영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농들에게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소농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사업인 종합농촌개발사업과 농업교육에는 ○를 표시하였다.

<표 5-8> 한국의 농업부문 ODA의 분야별 분석표

○ 2점
△ 1점
X 0점

구분	DRC 농업·농촌 개발 정책	한국 측 비교 우위 분야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CPS	KOICA 농림 수산 분야 전략	DR콩고 국가개발 전략수립 지원사업	대외 환경 변화	계
농업정책	○	X	X	X	○	○	X	6
농생산증대	○	X	X	X	○	○	X	6
수확후관리/농가공	○	X	X	X	○	○	X	6
유통/마케팅	○	X	△	X	○	○	X	7
농산업육성	○	X	X	X	○	○	X	6
관개/농업용수	○	X	X	X	○	○	X	6
농업 인프라	○	X	X	X	○	○	X	6
농업교육	○	△	△	○	○	○	○	12
농업금융	○	X	○	X	○	○	X	8
종합농촌개발	○	○	○	○	○	○	○	14
비고	DRC 농업 농촌 개발 정책의 주요 항목	ODA 규모, 혁신적 접근 방법, 절대 비교 우위 분야 및 현장 우위 분야의 합	전체 사업 • 100건 ~ 80건 이상: X • 79건 ~ 20건: △ • 20건 이하: ○	중점 협력 분야	중점 협력 분야		농산업 단지 추진에 따른 소농 보호 프로그램	

자료) 연구진 작성
※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의 경우, 이미 해당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 배점

위의 <표 5-8>에서 각 분야별 점수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선택과 집중을 위한 상대적 점수일 뿐이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ODA로서 가능한 분야별 사업 중 가장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사업은 14점인 종합농촌개발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12

점인 농업교육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농업 금융 8점, 유통 마케팅 7점, 나머지 사업들은 6점이었다. 위의 분석에 따라 향후 KOICA가 가장 집중해야할 양대 분야는 종합 농촌개발사업과 농업교육 사업으로 고려된다.

가. 농업교육 (인적자원 개발)

농업 교육은 농업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인데 DR콩고의 경우 정부역량 강화, Extension Service 강화 그리고 농민역량 강화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정부역량 강화란 중앙,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로서 의식 교육, 사업관리 역량 배양, 기술 역량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중앙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야별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할 수 있다. Extension Service는 SNV를 통한 농민 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며, 지역별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SNV 및 유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민 역량 강화는 지역 NGO, 지방 정부, SNV와 함께 농촌지역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의식, 기술, 사업 관리, 조직 역량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표 5-9> DR콩고 농업부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분석표

구분	정의	관련 사업	비고
정부역량 강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로서 공무원들의 기술역량, 사업관리역량, 의식 등을 개발함으로써 전반적인 정부의 역량 개발	- 농업부 중앙, 지방 공무원 중/장기 초청연수	- 중급직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기능직별, 지역별 초청연수 필요
		- 농업 역량 개발 센터 건립 및 운영	- 중앙 센터 건립 후 지역 거점 센터 운영 - DR콩고 농업부 공무원들의 약점으로 지적된 주인의식 강화, 하위직 기술 역량 개발 등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농장 운영, 소규모 농가공 공장 등의 운영 필요
Extension service 강화	정부의 역량이 농민들의 역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 DR콩고 농업부 산하의 Extension Service 담당	- SNV 등 DR콩고 Extension Service 주관 부서의 지도력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구분	정의	관련 사업	비고
	유도하는 것이 Extension Service의 궁극적 목표. 정책적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직접 농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역량의 확산은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확산을 위한 역량 개발을 요구함	부서의 교육법(Pedagogy) 및 지도력 개발을 위한 초청 연수	농민 교육 역량 개발
		– Extension Service 담당 부서(SNV)를 대상으로 한 농민 교육 프로그램 강화 프로젝트	–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커리큘럼 및 운영 방법 제시
		– 지속가능한 지역 Extension Service 사무소 개발 프로젝트	– 현재 World Bank의 재정 지원이 끊긴 후 유명무실화 된 Extension Service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시적 재정 지원보다도 재원 확보를 위한 농장 운영, 유통 및 마케팅 대행 등의 다양한 방법 제시
		– 농업 역량 개발 센터 건립 및 운영	– 중앙 센터 건립 후 지역 거점 센터 운영 – DR콩고 농업부 공무원들의 약점으로 지적된 주인의식 강화, 하위직 기술 역량 개발 등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농장 운영, 소규모 농가공 공장 등의 운영 필요
농민역량개발	– 농촌사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조직 등의 역량 개발	– 시범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력 개발 프로젝트	– SNV, 지역 NGO 및 타 공여국 과의 협력을 통한 주인의식 개발, 기술 역량 개발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지역종합개발(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지역종합개발 사업이란 농촌 지역의 생산 기반, 소득 증대, 치산녹화, 복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종합적 개발 사업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대표적인 한국의 독특한 농촌 지역종합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0>은 새마을운동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구성 요소들 중 주인의식, 공동체 의식, 개척정신 등의 구성원들의 의식을 발전적으로 도모하는 정신교육은 가장 우선시 되어 지역민들이 스스로 동원하며 조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새마을운동의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표 5-10> 새마을운동의 구성

부 문		세부 사업명
공통		정신 교육
생산기반	농촌도로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가설, 농촌교통
	농업구조	논두렁 정리, 경지정리, 농업용수 시설
	전기통신	전기사업, 마을통신
소득증대	증산사업	퇴비증산, 시한영농, 협동영농, 마을소득사업
	복차사업	소하천 가꾸기, 국토 가꾸기, 다목적 소류지, 마을양묘
	새마을공장	새마을공장, 농가공예품
치산녹화	소득조림	산지조림, 마을 안 식수, 화전정비, 연료림 조성
	사방녹화	사방사업, 초지조성
	연료대책	아궁이 굴뚝개량
복지환경	주거환경	지붕개량, 주택개량, 하수구 정비, 취락정비
	농촌위생	간이급수시설, 위생우물, 이동병원
	공동시설	마을회관, 창고, 구판장, 목욕탕

주) 새마을사업의 마을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사업 일람표(40개 사업)임.
자료) 정갑진(2009), “1970년대 한국새마을운동의 정책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재구성

이를 토대로 하여 농촌도로개량, 농업구조 개선, 전기 통신 개축을 위주로 하는 생산 기반 구축과 퇴비, 협동영농 등을 위주로 하는 증산 사업, 소하천 관리와 양묘 등을 통한 복차 사업, 농가공예품 등을 위주로 하는 새마을 공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 증대 사업이 그 구성요소가 된다. 그 외에도 소득조림, 사방녹화, 대체연료개발을 중심으로 한 치산 녹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농촌 위생 향상, 공동시설 구축 등을 위주로 한 복지 환경은 새마을운동의 구성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ODA 사업으로서의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의 차이로 인하여 위의 새마을 사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인한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 추진 그리고 중화학 공업의 부흥으로 인한 농업기계화, 비료, 농약, 비닐하우스 등의 농기자재 등이 가능하였던 한국과 달리 내전 등으로 인한 국가 정체성 위협과 거버넌스의 약화 등은 DR콩고에서 한국에서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현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나 위 새마을운동의 세부 사업 중 농업기계화, 메탄가스시설 등의 기술이전이 어렵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파급 효과가 작은 사업들은 현 단계에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위의 새마을운동의 큰 부문들을 기초로 하되 각각의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따라 다른 사업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업 개발 단계에서 BDS까지 지역의 면밀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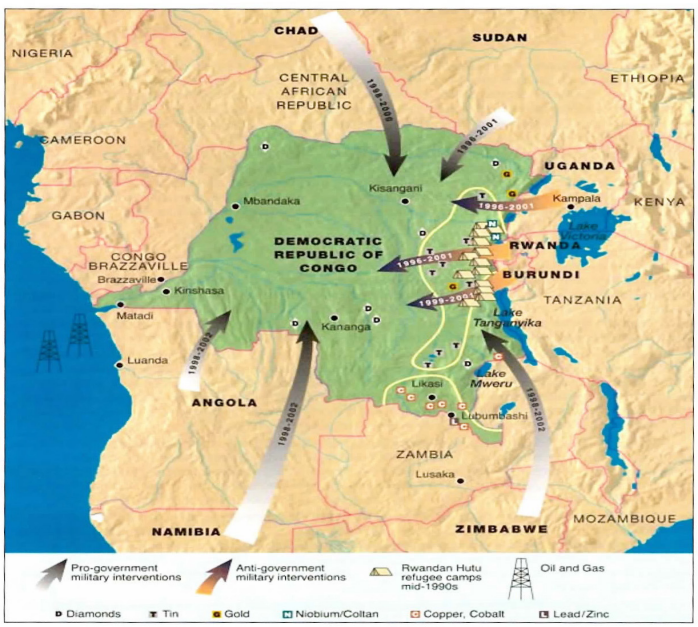
3. 사업선정 및 시행 상 고려요소

가. 지역선정 시 주요 결정 요소

1) 사회적 안정

DR콩고는 벨기에로부터의 독립 후 끊이지 않는 내전과 인접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하여 대단히 큰 정치 및 거버넌스의 불안정에 도전받고 있다. 르완다,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등의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는 DR콩고의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 국가의 이해관계와 부족 정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부투와 카빌라 전 대통령 사이의 내전에 깊숙이 관계되었지만 DR콩고의 풍부한 자원과 약한 거버넌스는 인접국가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 5-6] 제2차 콩고 내전 양상



Map 3: Regional actors in the Second Congo War
Carte 3: Acteurs régionaux de la Seconde guerre du Congo

Source: *The New Internationalist*

자료) The New Internationalist

벨기에와 같이 오랜 시간동안 DR콩고 내에서 사업을 해 왔기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위험요소 차단이 가능한 벨기에와 같은 국가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USAID, FAO, IFAD 등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특히 최근 쿠데타의 위협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문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가능한 위험지역에서 떨어진 장소를 사업 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업지 접근을 위한 교통 인프라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R콩고는 단위 면적 당(100km²) 도로 길이가 6.5km 이며 도로 포장률이 100km² 당 0.117로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낮은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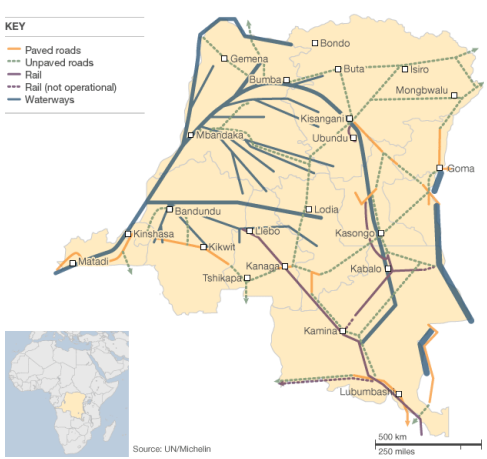
<표 5-11> 아프리카 국가들 도로 포장률

국가명		국토면적	도로망 총연장	도로 포장률	면적 100km² 당 도로 길이 (km)	면적 100km² 당 포장도로 길이
중부 아프리카	DR콩고	2,344,885	152,000	1.8	6.5	0.117
	카메룬	475,443	50,000	10	10.5	1.05
	가봉	267,667	9,170	10.2	3.4	0.3468
	콩고	475,442	17,289	5.0	5.1	0.255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	196,722	13,576	29.3	6.9	2.0217
	나이지리아	923,768	193,200	15	20.9	3.135
	기니	245,857	44,348	9.8	18	1.764
	부르키나파소	274,000	92,495	4.2	34	–
	감비아	11,000	3,742	19.3	34	–

자료) Beltrade-Info n°23(2010.10.21)

도로 및 도로 포장률이 낮다는 것은 사업지까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지 네트워크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단위에서 본다면 일부 지역에 한하여 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며 포장된 도로는 더욱 희소하다.

[그림 5-7] DR콩고의 교통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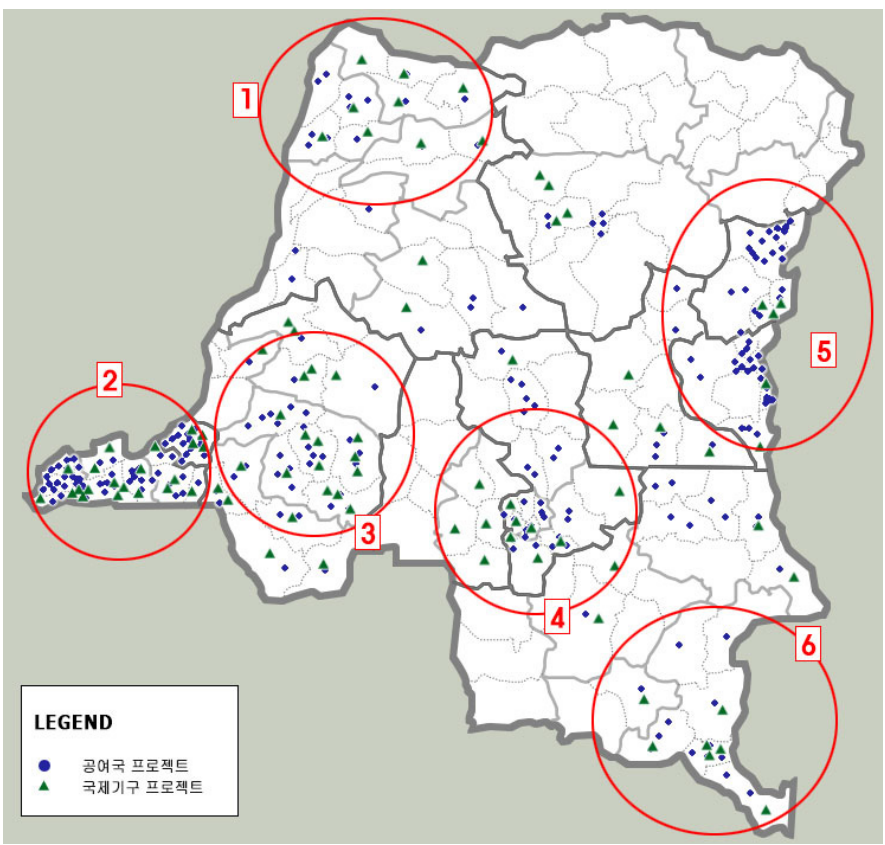


자료) UN

3) 타 공여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과의 원조 조화

제4장에서 밝힌 바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서부, 북부, 동부, 남동부, 남부 등의 6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 한국의 ODA 사업이 참여하는 것은 파급성 제고, 안정성 도모, 상호 연계성 강화 등 원조 조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5-8] 공여국/국제기구 진행 사업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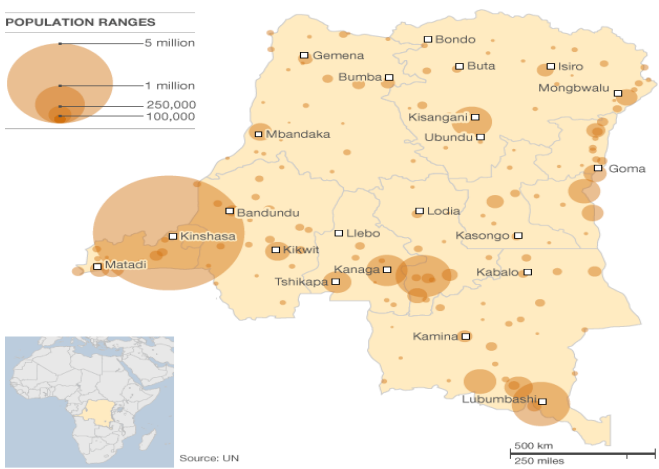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4) 파급성을 고려한 인구 밀집도

DR콩고의 인구는 수도 킨샤사(Kinshasa)와 인근 지역과 남동부의 루붐바시(Lubumbashi), 중부의 카낭가(Kananga)와 동부의 고마(Goma)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지역 선정에 있어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업의 파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직·간접적 사업 파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9] DR콩고의 인구 밀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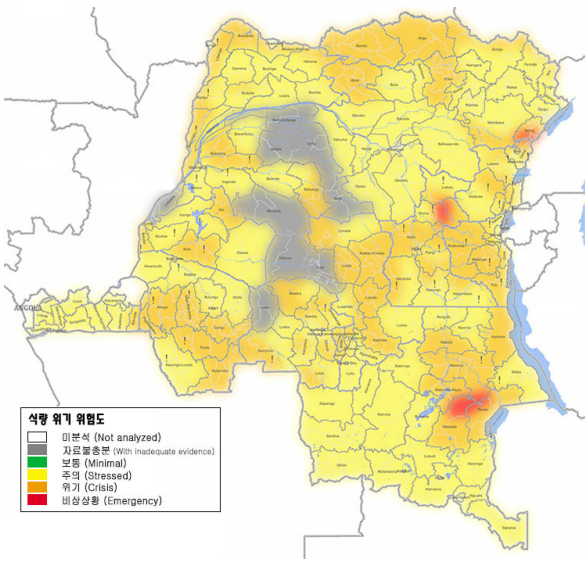


자료) UN

5) 빈곤율 (식량안보위협성 정도, 소득수준 등 고려)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DR콩고의 빈곤 현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긴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우선적 사업은 극심한 빈곤 문제로 인한 도전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극심한 빈곤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동부와 남동부 지역이지만 일반적인 빈곤은 전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0] 식량 위기 위험도



자료) IPC Technical Work Group(2013), 10th IPC Analysis (December 2013 - Jun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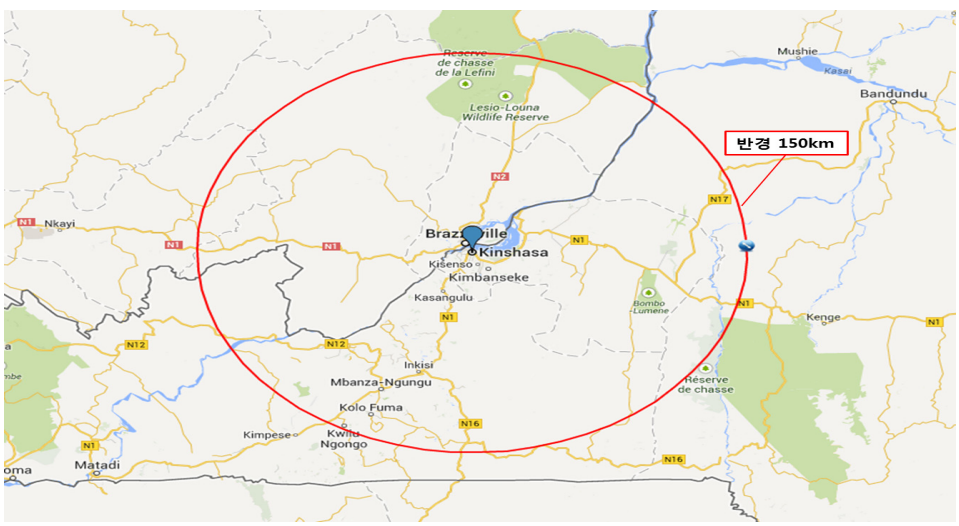
6) 결론

선진 공여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여국의 역량은 사업지역의 범위와 분명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여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비교우위 분야와 현지비교우위 및 경험이 많을수록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지역에서 할 수 있다. 한국의 ODA 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한국의 현지 역량, 지역별 빈곤율, 인구 밀집도, 정치적 지역 안정도, 도로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전국 지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빈곤율과 킨샤사(Kinshasa) 일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인구 밀집도, 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원조 사업들, 동, 북부에 지속적으로 위협요소가 되는 정치적 불안정, 대단히 낮은 도로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경험과 현지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진은 위 상황이 급격이 호전되지 않는 한 킨샤사(Kinshasa) 150km 반경 지역을 사업 지역으로 제시한다.

반경 150km 이내 지역은 ① 타 지역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으며, ② 도로 인프라가 비교적 개선되어 있고, ③ 타 공여국 및 기구들의 사업이 있어 인프라 및 기자재 공

조를 통하여 원조 조화와 상호 보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④ 수도 킨샤사(Kinshasa)에서 하루 거리로 통근이 가능하여 부족한 인프라와 통신을 상쇄할 수 있고, ⑤ 서부 지역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향후 DR콩고의 경제·정치·사회·문화적 인프라가 개선되고 한국의 역량이 축적된다면 사업 지역 또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1] 한국의 농업부문 ODA 사업 제안 지역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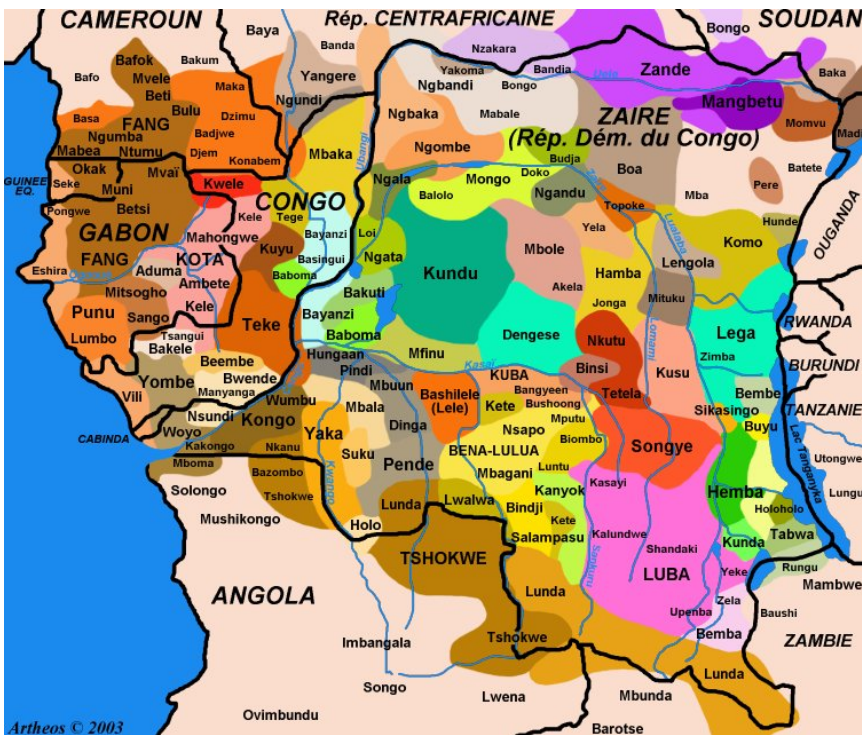
나. 토지 소유권 문제: 지역별 특성 고려

농업을 기초적 경제수단으로 삼고 있는 DR콩고에서는 토지는 개인뿐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삶의 토대이기도 하다. 향후 대 DR콩고 농업부문 ODA 사업을 하기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앞의 제2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소유이지만, 각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토양에 따라 개인 소유, 부족 소유, 가족 소유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직 토지 대장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기에 국가에서는 토지 문제를 명확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른 전통에 의하여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새로운 이주지역일 경우 많은 경우 토지의 사용권은 정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부족장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부족장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임대를 해온 주민들은 토지를 또 다른 이주민에게 임대하여 2중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인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 이용권을 본인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임대를 주기도 한다.

[그림 5-12]와 같이 DR콩고에는 다양한 부족이 공존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토지이용 전통문화가 존재한다. 사업에 앞서 토지 소유권 문화를 파악하는 것은 ODA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5-12] DR콩고 부족현황



자료) Artheos(2003)

다. 사업에 영향을 미칠 권력구조(Power Structure) 파악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토지, 물 등과 같은 자연물만이 아닌 개인과 사회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자연 대상뿐만이 아닌 인간/사회 대상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사회 대상의 질서를 우리는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권력이란 거칠게 말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DR콩고 농촌지역사회에서 누가 혹은 어떠한 집단이 권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적 역할 기능을 누가 할 수 있고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Bottle Neck)을 규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 개발사업에서 권력구조는 경제적 권력 구조와 사회/문화적 권력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 지역민들의 문화, 생활습관, 관습 그리고 공동체 의사수렴구조를 알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 지역단위별 농민 식습관, 명절문화, 공동체행사, 가족구성문화
- 지역모임에서의 발언 문화
- 현존하는 지역조직
- 지역 정체성의 핵심 문화
- 농촌지역 및 부락, 지역공동체, 이들의 전통과 거버넌스 주체
- 공동체 권력을 형성하는 핵심요소들
- 공동체 의사결정과정
- 국가(LGU 및 농업부)와의 관계 현황

위의 사항들을 파악하는 방식은 비정형 인터뷰, 설문지 등의 방식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질적 인터뷰 방식이다. 계량화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는 신뢰 관계 형성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라. 對 DR콩고 정부와의 협업관계 설정

현재 대 DR콩고 농업 협력 사업은 벨기에 모델, FAO 모델, 비상설 기구 모델, 국제기구 모델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각기 모델은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동하고 있다.

<표 5-12> 대 DR콩고 공여국 협력 모델

벨기에 모델	FAO 모델	비상설 기구 모델	국제기구 모델 (IFAD, UNDP, World Bank, AfDB 등)
정부 내 상설 협업 기구 설치 및 운영	정부에 비상설 정책자문	프로젝트 기반으로 비상설적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집행 없이 재원 조달 및 기술 자문

자료) 연구진 작성

벨기에의 경우 DR콩고에서의 오랜 경험과 막대한 ODA 자금을 기반으로 정부 내에서 상설된 협업 기구를 통해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FAO는 사업에 따라 DR콩고 정부에 정책자문 및 직접 사업을 하고 있다. KOICA를 비롯한 원조 기구들은 사업이 구성될 때 사업을 위한 시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을 하고 있다. World Bank, AfDB, UNDP 등의 많은 국제기구들은 사업의 직접 집행없이 기금 조성과 사업관리만 하고 있으며 DR콩고 정부에 대한 제언과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향후 KOICA는 현재와 같이 일시적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TC와 같이 상시적인 정부 내 조직을 만들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FAO와 같은 비상설 정책자문이나 국제기구 모델을 한다면 KOICA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드러나기 어려우며 또한 원조금액이 크지 않기에 DR콩고 입장에서는 한국의 개발 역량을 받아들일 매력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마. 사업의 효율적 집행방식을 위한 고려사항

한국의 ODA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조건들에 대한 냉철한 수용이 필요하다.

① 한국의 대 DR콩고 농업의 전문성 부재: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한국은 분명히 절대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앞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DR콩고에서의 현장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DR콩고 작물, 가축뿐만이 아니라 농업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축적하기에는 아직 ODA 역사가 짧다.

② 한국의 언어적 제약, 현지토착문화 및 관습에 대한 이해 부재: 현재 한국에서 DR콩고의 언어, 종교, 문화, 부족의 전문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아프리카의 일반 전문가(Generalist)가 아닌 DR콩고에 대한 세밀한 전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Specialist)를 배출하기에는 DR콩고 연구도 깊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풍부한 타 국제기구 및 현지전문가들: 현재 DR콩고에서 활동 중인 공여기구, 연구기관, NGO들에는 수십년 째 DR콩고 농업 부문에서 활동해온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축적해온 각 분야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과의 협력은 한국 ODA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전제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업 집행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현지화, 전문성 고려(Localization & South-South Cooperation)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현지 전문가 투입. IFAD, FAO 등의 국제농업 원조기구, INERA와 같은 연구 기관, USAID, BTC와 같은 공여기관 그리고 CARITAS와 같은 지역 NGO등과의 협력은 한국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사업의 전문성을 더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현지 협력 가능한 NGO에 대해서는 첨부를 참조). 위 기구들과의 협력은 단순한 농업 기술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닌 정치, 문화, 관습, 종교 등의 현지 context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콩고인들에게 깊숙이 작용하여 이들을 사업의 주체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결국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

DR콩고와 같은 관계중심의 문화가 중요시 되는 국가에서는 결과보다도 관계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결과를 중요시 할 때 일시적인 원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관계형성에 실패할 경우 콩고인들이 주인이 될 수 없게 되며 결국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사업 지역의 주민을 비롯하여 사업 파트너

인 농업부 및 지방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결과의 효과성만을 우선시 하는 Project based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한국측 사업 담당 기관/담당자(PMC, PM)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현지화와 현지 지역, 정부 관계자와의 관계 형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MC 및 PM의 역량 개발이 요청된다. KOICA의 사업자 선정 시 단편적 기술이나 절대 역량 평가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된 이해관계자 조율 역량과 현지 역량 이다. 지엽적 전문성의 부족은 현지 전문가를 통하여 보충될 수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PM/PMC가 현지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관계형성에 실패하면 사업의 성공은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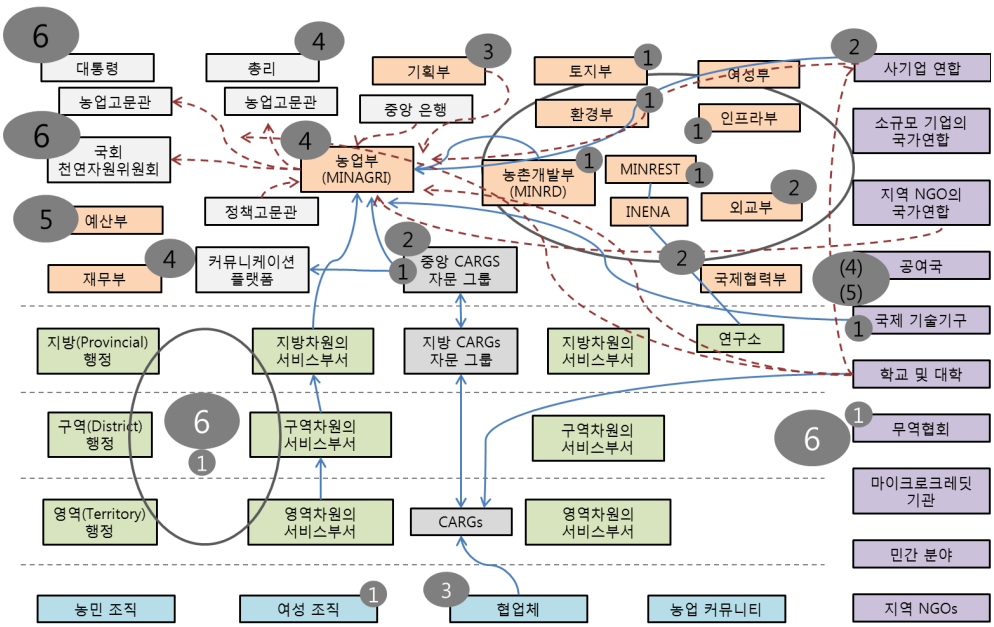
바. 사업별 협의체 구성

1)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이해

가) DR콩고 농업 정책수립 프로세스 내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계 및 영향력 정도

DR콩고 농업부와의 협력 사업 시 수반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R콩고 정부 내에서의 농업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그림과 표는 정부 부처 내에서 농업부가 관계하고 있는 관계와 그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농업 정책 수립에 있어서 농업부는 공여국, 국제 기술기구, 기획부, 중앙은행, 농촌개발부, 환경부, 외교부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안을 수립하고 이를 농업고문관, 재무부, 예산부, 국회, 및 대통령 실에 확인 절차를 거친다(그림 5-13).

[그림 5-13] DR콩고 농업 정책수립 프로세스 내 주요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전망, 관계 및 영향력



자료) IFPRI(2011), Institutional and Capacit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olicy Process

이 과정에서 농업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이며 차 순위로 공여국, 예산부처, 재무부 등과 농업부에 이어 기획부, 민간기업 연합, 토지부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대학과 농업연수 기관 등은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

<표 5-13> DR콩고 농업 정책수립 과정 내 다양한 Actor의 역할 및 영향력

주요 기관 및 인물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의 원천	영향력 (0~6)
대통령, 국회	국가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는 결국 다른 분야의 정부 부처 및 공공분야의 예산 분배와 지출에 영향을 미침.	6
공여국	재정지원, 조언, 분석 연구,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활동 등을 통해 지원함. 현지의 자원 동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여국의 재정 지원에 상당히 의존함. 또한 분석적 역량의 부족으로, 공여국의	4~6

주요 기관 및 인물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의 원천	영향력 (0~6)
	분석 연구 및 컨설팅에도 의존함. 공여국의 영향력 정도는 인터뷰마다 상이함.	
예산부처	각 부처의 실질적인 예산배분을 결정함.	5
재무부	실질적인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4
농업부(MINAGRI)	농업 분야에 있어서 자문과정, 정책의 계획, 기안, 시행 및 모니터링, 전략 및 계획수립을 조율함. 자원 및 정치적 지원 동원을 유도함.	4
총리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치를 이끌며 국가 우선순위를 살핌.	3
기획부	농업 전략 및 프로그램,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계획을 세움.	3
민간기업 연합 (Federation of Private Enterprises, FEC)	대기업 간 소통을 위한 포럼이며, 정책수립과정과 농업부에 자신들의 관심사, 필요, 우선순위 등을 제창함.	2
CARG[47]	정책담화 및 토론을 진행하고, 문제를 공유하여 합동대체를 강구하며, 지역 차원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세우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역의 수요와 필요를 옹호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1-2
농촌개발부(MINRD), 토지부, 인프라부, 연구부처 및 그 외	농촌개발부는 지역개발, 농촌 도로/지선 도로, 하천, 농촌 수자원공급 및 농촌 주택 공급을 맡음. 이 모든 부처는 정책 계획에 참여하고, 부처의 권한에 맞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이행함.	1
국제 기술기구 (FAO, IFPRI 및 기타 CGIAR 센터)	농업부 및 다른 부처의 많은 기능을 기술적으로 지원함.	1
국제협력부, 외교부	DR콩고의 국제협력관계를 관리함.	1
대학 (UNIKIN, Lubumbashi 대학, Yangambi 대학, UCC)	정책 대안에 연구 및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음. 하지만 현재는 농업부 및 다른 부처나 정책 수립과정과 연계되어있지 않음.	0
농업 교육연수기관	분야에서 일하는 교육자, 연구원, 농업 연구원 및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음 (정부, 민간분야, NGOs 등).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립과정에는 힘이 없으며 직접적인 참여도 없음.	0
COPEMECO 및 기타 국가연합	대체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이해, 농민 조직 및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립 과정에는 힘이 없음.	0

자료) IFPRI(2011), Institutional and Capacit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olicy Process
※ 조사 당시 농업부(MINAGRI)와 농촌개발부(MINRD)는 분리되어 있었음

47) CARG(Le Conseil Agricole Rural de Gestion): DR콩고 정부가 농업부문 개혁의 일환으로서 조직한 위원회로서 군단위, 주단위, 국가단위의 위원회로 되어있다. 정보공유, 협의, 지방의 농업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주요 참여자는 지방의회, 지방정부, 민간분야, 농민조합, 생산자협회, 대학, 연구센터,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다.

그러나 농업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여 농업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아래의 표는 농업 정책 프로세스에 있어서 기관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기관으로 나타난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예산부처가 타 부처에 비하여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Think Tank 역할을 수행 해야만 하는 대학과의 관계가 대단히 낮다는 것은 농업부의 정책 추진에 전문성이 많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대통령, 총리, 국회의 힘이 보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14> 농업 정책프로세스 내 기관 간의 관계 정도

관계망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설명
MINAGRI –INERA	4.8	0.9	3.0	6.0	고등교육부(MINREST)에 있음에도, INERA는 재정지원 및 전략수립에 있어서 MNAGRI의 지원을 받고 있음.
MINAGRI –CARG	4.6	1.0	3.0	6.0	CARG는 공식적으로 MINAGRI 소속으로, 지역거점은 MINAGRI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CARG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지역 이해관계자의 발언 창구로서의 가능성이 있음.
MINAGRI –국제파트너	4.5	1.1	2.0	6.0	MINAGRI는 국제적 파트너 간 접촉의 첫 선이지만 연구 결과와 컨설팅은 공유되지 않기도 함.
INERA–대학	4.2	1.2	2.0	6.0	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강한 연계를 보이지만, 정책 연구에 있어서는 연계성이 약함.
MINAGRI –MINRD	4.1	1.2	2.0	6.0	상호작용이 있지만 역할 및 책임(R/R)에 있어서는 뚜렷한 구분이 없음.
MINAGRI –기획부	4.0	1.2	2.0	6.0	MINAGRI 연구의 기획방향은 두 부처 간 연계의 초점으로 작용함. 그러나 실제적인 협력은 강하지 않음.
MINAGRI –재무/예산부	3.9	1.0	3.0	6.0	공식적인 예산 청문/심리 외 연계성 부재
대학간	3.9	1.2	2.0	5.0	교환교수가 때때로 있음; UNIKIN과 다른 지역의 대학의 교수 간.
국가차원의 MINAGRI –지역차원의 MINAGRI	4.0	1.3	1.0	6.0	통계 시스템과 자료 보고를 통한 연계성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는 부재함.
국가차원의 MINRD–지역차원의 MINRD	3.8	1.1	2.0	6.0	통계 시스템과 자료 보고를 통한 연계성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는 부재함.

관계망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설명
대학 –국제파트너	3.8	1.3	2.0	6.0	컨설팅과 연구기회가 있지만 제한적임.
MINAGRI –대통령, 총리,국회 사무실	3.7	1.0	2.0	6.0	사무실에 농업 고문관들이 있지만 이들은 MINAGRI나 연구 및 분석기관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
MINAGRI –NGO	3.6	1.3	1.0	5.0	NGO들은 MINAGRI가 지원하는 자문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함.
MINAGRI –대학	3.6	1.2	1.0	5.0	대학과 MINAGRI 간 공식적인 관련성은 부재함. 대학교수와 MINAGRI의 직원간의 비공식적인 관계망은 있음.
MINAGRI –타부처	3.5	1.3	1.0	5.0	국제 위원회; 식량 안보 T/F, cross-representation과 연계를 위한 중점 혹은 부서들
CARGs–NGOs (지역차원)	3.5	0.8	2.0	5.0	CARG 회의에 NGO는 제한적으로 참여함.
MINAGRI –민간분야	3.4	0.7	2.0	5.0	쌀 T/F가 MINAGRI 직원과 민간분야를 포함함.
CARGs–CRONGD– CNONGD	3.3	1.2	1.0	5.0	CARG 미팅에 NGO는 제한적으로 참여함.
CARGs–FEC	3.3	1.2	1.0	5.0	CARG 회의에 FEC는 제한적으로 참여함.
CARGs–FOLECO	3.2	1.0	1.0	5.0	CARG 회의에 FOLECO는 제한적으로 참여함.
CARGs–COPELECO	3.1	1.3	1.0	5.0	CARG 회의에 COPEMECO는 제한적으로 참여함.
CARGs–INERA	3.0	1.1	1.0	5.0	CARG 회의 혹은 토론에 INERA는 때때로 관여하지 않음.
CARGs–대학	2.8	1.1	1.0	5.0	CARG의 1주일 워크숍 중에만 참석함.
대학 –민간분야	2.8	0.9	1.0	4.0	민간분야와 대학 간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임.

자료) IFPRI(2011), Institutional and Capacit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olicy Process

2) DR콩고 정부 기관의 역량과 노동 인식

아래의 표는 정부 기관 내에서 자신의 노동과 노동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는 DR콩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노동에서 단순한 생산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고 있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및 노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DR콩고 정부 공무원들은 5점 만점에서 2.2점으로 대단히 낮은 평가를 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만족감도, 자존감도 그리고 상호 인정도 정당하게 하고 있지 못하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심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의 결여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표 5-15> DR콩고 내 여러 기관의 노동 환경 인식(2010)

노동 환경에 대한 설문	평균*	SD	최소	최대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든다.	1.3	0.5	1.0	2.0
일에 만족한다.	1.6	0.6	1.0	3.0
이 조직의 책임자는 활동적이고 감화를 주며, 존경받는다.	1.8	0.8	1.0	4.0
상사는 당신의 일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당신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	1.9	0.5	1.0	3.0
이 조직은 고객이나 파트너의 불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2.0	0.4	1.0	3.0
이 조직에는 승진을 위한 좋은 기회들이 있다.	2.0	0.8	1.0	4.0
상사는 당신에게 독립과 자유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준다.	2.1	0.7	1.0	4.0
이 조직에서의 인사고과는 공정하게 이뤄진다.	2.1	0.8	1.0	3.0
이 조직의 남녀직원은 승진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2.1	0.8	1.0	4.0
이곳에서는 어떤 정치적 관여도 없다.	2.1	1.1	1.0	4.0
이 조직에 종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적절한 자격을 갖고 있다.	2.4	0.9	1.0	4.0
이 조직의 직원들은 순수하게 가치에 근거하여 채용되고 승진된다.	2.4	0.8	1.0	4.0
이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기능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2.4	0.5	2.0	3.0
고객 혹은 파트너는 이 조직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	2.5	0.7	1.0	4.0
활동 영역의 이동이 쉽다.	2.6	1.0	1.0	4.0
이 조직의 직원들은 가까운 미래에 실직할 것을 염려해야 한다.	2.9	0.8	1.0	4.0
재정의 부패나 남용은 이 조직에서 문제가 아니다.	2.9	0.8	2.0	4.0
이 조직은 주어진 예산에 효율적이다.	3.0	1.0	1.0	4.0

자료) IFPRI(2011), Institutional and Capacit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olicy Process

<표 5-16>은 농업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기관들이 역량과 상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업 정책 수행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대학들의 역량이 대부분의 정부 부처의 역량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적, 시설, 조직, 관리체계, 모니터링, 평가, 조율 체계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주요 대학들이 농업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사실은 농업부의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량 차이이다. 중앙정부의 인적 역량에서 4.1인 반면 지방 정부는 3.2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의 시설 인프라가 3.2인 반면 지방 정부는 2.5, 중앙정부의 조직 절차 및 관리체계에서 3.1인 반면 지방 정부는 2.5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역량과 지방 정부의 역량 차이는 결국 농업개발의 현장에서 대단히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국제기구들이 언급하고 있는 중급 이하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표 5-16> 농업 정책 프로세스 내 주요 기관의 역량 정도

역량/기관	인적역량		시설 및 인프라		조직절차 및 관리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조율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체	3.8	1.2	3.2	1.2	3.3	1.1	3.0	1.2	3.3	1.1
주요 대학										
UNIKIN	4.6	1.1	3.7	1.3	3.6	1.2	3.3	1.3	3.6	1.3
UCC	4.5	1.0	4.3	1.3	4.0	1.1	4.1	1.1	4.0	1.2
Yangambi 대학	3.8	1.1	3.1	1.4	3.3	1.0	3.1	1.2	3.1	1.3
Lubumbashi 대학	4.3	1.2	3.5	1.2	3.5	1.3	3.2	1.5	3.3	1.4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										
MINAGRI-중앙	4.1	1.2	3.2	1.2	3.1	1.1	2.8	1.3	3.0	1.0
MINAGRI-지방	3.2	1.1	2.5	1.2	2.5	0.9	2.3	1.1	2.6	0.9
MINRD-중앙	3.4	1.1	2.6	1.1	2.7	1.0	2.4	1.1	2.7	0.9
MINRD-지방	2.9	1.4	2.3	1.0	2.7	1.0	2.3	1.2	2.4	1.0
Min. of Land	3.8	1.2	3.0	1.3	3.1	1.3	2.8	1.4	3.0	1.2
MINREST	3.6	1.4	2.9	1.3	3.1	1.3	2.8	1.4	3.2	1.3
환경부처	4.1	1.3	3.4	1.4	3.5	1.3	3.1	1.5	3.3	1.3
재무부처	4.1	1.2	3.8	1.3	3.5	1.3	3.1	1.5	3.6	1.1

역량/기관	인적역량		시설 및 인프라		조직절차 및 관리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조율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기획부처	4.2	0.9	3.6	1.2	3.6	1.1	3.3	1.4	3.7	1.0
인프라부처	3.8	1.0	3.3	1.1	3.4	1.1	2.9	1.2	3.1	1.3
여성부	3.6	1.5	3.3	1.8	3.4	1.4	3.0	1.5	3.3	1.4
중앙은행, 경제연구부서	4.5	1.1	4.5	1.0	4.0	1.2	3.8	1.1	4.4	1.0
주요 플랫폼 및 협회										
CARG	3.4	1.1	2.6	0.9	3.0	1.1	2.8	0.9	3.3	1.2
FEC	3.9	1.2	3.2	1.1	3.6	1.1	3.4	1.1	3.6	1.1
COPEMECO	3.5	1.1	2.8	1.0	3.1	1.0	2.9	0.9	3.2	1.1
FOLECO	3.7	1.1	2.9	1.0	3.2	1.1	3.1	1.2	3.5	1.1
CNONGD	3.6	1.1	2.8	1.1	3.0	1.0	2.9	1.0	3.2	1.0
CRONGD	3.6	1.1	2.7	0.9	3.0	0.9	3.1	1.0	3.2	1.0

자료) IFPRI(2011), Institutional and Capacit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olicy Process

3) 주인의식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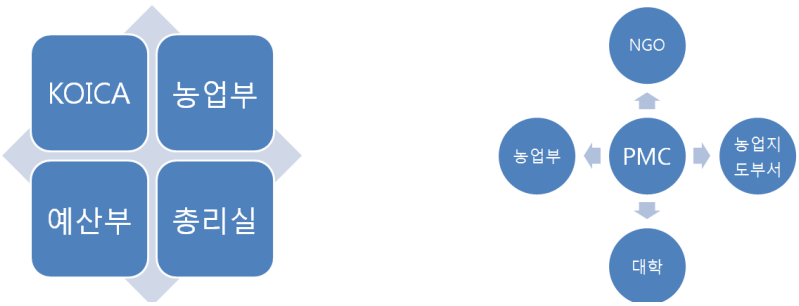
DR콩고 정부의 취약한 재정은 농업부 내에서 공무원들의 불안정한 노동태도를 가져왔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인의식의 약화를 초래 하였다. 평균 150달러 미만의 월급은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하였고 공무 이외의 여러 소득원을 찾게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ODA 사업이다. 국제기구들의 ODA 사업은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큰 소득원이 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부서 내 동료들이 경쟁자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부가 수입 창출을 위해 동료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협업을 어렵게 하고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기 힘들게 만든다. DR콩고 정부에서 제시한 비전이 공무원들의 것으로 습합되지 못한 데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기반이 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은 국가의 비전을 스스로의 것으로 여기지만 DR콩고의 경우 국가 발전과 자기발전 사이의 상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위에서 언급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이해를 요약 하자면 DR콩고 농업부는 다음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DR콩고 농업부의 예산, 거버넌스 역량이 대단히 취약하다. 농업부는 연구와 기술 관련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 이를 풍부히 가지고 있는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관계도 좋지 않아 농업생산성 및 가치사슬증진과 농업 시스템 향상을 주도해 나아갈 인적 기반과 역량이 부족하다. 게다가 어느 정도는 인적,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농업부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방단위의 농업부 사무소 등은 농업 정책 시행 역량이 너무나 취약하고 인적 역량도 충분하지 않아 거버넌스 시스템의 작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둘째, DR콩고 정부 부처들 가운데 농업부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취약하여 부처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시 타 부처들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업무를 추진할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반면, 대통령실, 국회, 예산관계부처는 농업관계 업무에 대해서도 농업부를 능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농업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조차 농업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셋째, 독립 후 지속된 DR콩고의 정치, 사회적 불안은 DR콩고 정부 부처 내에 팽배한 주인의식의 결여를 가져왔다. 이에 더하여, 농업부의 경우 열악한 공무원 대우와 추후 교육의 부재는 공무원들의 저하된 자존감과 낮은 직무 만족도를 초래하였다. 넷째, 농업부 예산의 높은 ODA 의존도와 더불어 낮은 임금은 농업부 부처 내 협력이 아닌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해외 ODA 기관들과의 협력 사업 참여는 공무원들의 가계 수입과 직결된 문제가 되므로, ODA 사업 참여를 위한 농업부내 경쟁은 심해지게 된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농업부에서 추진해 나아가야할 정책보다는 해외 ODA 사업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어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부처 내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기 위하여 KOICA, 예산부, 총리실, 농업개발부로 구성된 사업 협의체와 PMC, 농업 지도부서(SNV, INERA 등), 비정부기구(NGO), 대학, 사설컨설턴트로 구성된 집행기구가 필요하다.

[그림 5-14] 협의체 및 집행기구



협의체 집행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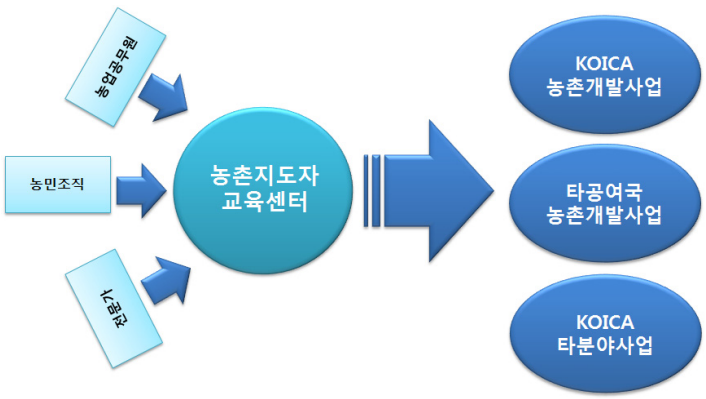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위의 협의체는 낮은 농업부의 정치적 역량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사업의 발굴과 집행에 대한 예산부와 총리실과의 협력은 정부 부처 내 사업 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또한 사업 집행 시 DR콩고 측의 사업 책임성 강화와 사업 후 지속가능성의 배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는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대립이나 예산배정문제를 해결하는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큰 틀에서 필요하다. 집행기구는 농업부의 낮은 인적 역량과 거버넌스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낮은 농업 실무 역량과 지방 행정 단위에서의 낮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역량이 강한 대학, NGO, 지도부서 등과 함께 구성함으로써 농업부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업 집행의 주체인 PMC 역량의 배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 프로그램적 접근의 사업 구성

향후 대 DR콩고 원조 사업은 역량 개발과 농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의 프로그램적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 및 지역의 농촌지도자 교육센터를 통하여 공무원, 농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역량을 개발 하고 개발된 역량을 KOICA의 농촌종합지역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타 공여기구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사업의 연계성 통합성을 강화 할 수 있게 되고 KOICA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원조조화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5-15] DR콩고 원조사업의 프로그램적 구성



자료) 연구진 작성

제6장
결 론

DR콩고는 일반적으로 삶의 환경을 규정하는 가장 광범위한 틀인 자연 환경 면에서,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보다도 훨씬 양호한 상황이다. 먼저 DR콩고의 면적은 세계에서 11번째로 크며, 아프리카에서 알제리에 이어 2번째로 넓은 영토 (남한의 24배에 달하는 면적)를 가지고 있다. DR콩고의 강우량은 매우 풍부하여, 약 8천만 ha 이상의 농지가 경작이 가능하다. 강이 많고 일조량도 풍부해서 각종 농산물 생산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DR콩고는 세계 2위의 열대우림(1.12억 ha)과 풍부한 목재 등을 보유한 산림, 거대한 잔디밭, 4천만 두 이상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사바나 평원, 풍부한 수자원, 다양한 어업자원 등 많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자연적 조건들은 아쉽게도 DR콩고에서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경제, 문화, 정치 등 콩고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들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고채무 최빈국이며 정치사회적으로는 취약국가(Fragile state)로 분류되고 있고 거버넌스는 세계에서 179개 국가 중 178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콩고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 상태는 너무나 열악하여 1일 필요량의 2/3를 채못 채우고 있다.

이러한 최빈국 DR콩고에서 원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과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깊숙이 뿌리박힌 부정부패와 주인의식의 부재, 독립 후 지금까지 수많은 개발 사업들의 실패로 인해 생겨난 패배의식, 적정치 못한 교육으로 인해 야기된 현지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과 취약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등은 공여 사업들을 난관에 부딪치게 만들고 있고 많은 실패로 이끌고 있는 형편이다.

DR콩고에서의 KOICA 공여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 사업의 단계마다 도전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KOICA는 앞으로 있을 대 DR콩고 개발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농업 부문 KOICA 공여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최종 수혜자들의 삶의 개선으로 연계되는데 필요한 전략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농업부문 개발 전략은 DR콩고 개발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콩고인들의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개발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65%가 넘고,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DR콩고 전체 경제 규모는 45%를 넘을 정도로 농업·농촌개발은 DR콩고 전체로 보았을 때도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농촌개발과 국가개발의 상관관계는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DR콩고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국가 농업투자계획, 신농업법, 2012~2016 행동계획, 그리고 농산업단지 계획은 DR콩고 정부가 농업·농촌개발을 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콩고 정부 정책들은 콩고 정부가 현재 콩고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DR콩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농업 및 농촌의 문제들은 그 인과관계에 있어 단순한 성격이 아닌 대단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심한 빈곤은 국가 재정을 약화시켰고 약화된 국가재정은 거버넌스를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내전 등의 혼란한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혼란들은 서부 지역의 이주민을 만들고 또한 농업지도 시스템을 붕괴 시켰으며 유통 체계의 혼란을 가져와 농시장 체계가 대단히 취약하게 되어 농민들의 빈곤율을 상승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DR콩고 정부의 정책들은 일대일 처방이 아닌 정부의 거버넌스를 안정화 하고 농업부문 투자를 증가시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농업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농촌 사회의 빈곤 퇴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에 앞서 대 DR콩고 원조 사업을 먼저 펼쳐온 국제사회의 활동은 KOICA에 의미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업 지역 및 사업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사업 규모도 큰 단체들 일지라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사업 지역과 영역을 몇 가지로 집중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먼저 가져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농업개발 사업에서 선진 공여국들이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역 현장에서의 사회·문화·정치·종교적 요소들을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현장 경험 노하우이다. 이를 위해 지역 NGO,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대단히 중요히 여기고 있는데 콩고의 다양한 문화, 전통을 존중하지 않을시 사업의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선진 공여국들의 경험과 추세를 토대로 하여 향후 KOICA의 사업이 향해 가야할 방향성은 내적으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위 역량과 CPS와 같이 지금까지 대 DR콩고 개발을 위해 축적한 전략들 그리고 외적으로는 DR콩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개발 전략 그리고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민영화와 같은 DR콩고의 대외 환경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공여기관들과의 협력이 될 것이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한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농업·농촌개발 분야를 타 공여 기구들과 협력하여 DR콩고 정부를 개발의 주인으로 만드는 공여사업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 검토한 바, 한국이 공헌해 온 해외 농업·농촌개발 분야는 농업정책, 농생산성 증대, 수확 후 관리, 농가공, 유통/마케팅, 농산업육성, 관개/농업용수, 농업 인프라, 농업교육, 농업금융 그리고 종합농촌개발 사업인데 그 중 한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분야는 농촌종합개발사업과 농업 교육 분야였다. 위의 모든 분야에서 DR콩고 농업을 개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선진 공여기구들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선택과 집중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에 두 개 사업으로의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에 따라 한국의 우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선진 공여국들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이 해온 사업분야가 있고 또한 한국의 대 DR콩고 협력 전략에서 제외가 된 분야도 있었고 이를 종합해본 결과 종합농촌개발 사업과 교육 분야는 두드러지게 한국이 공헌할 분야가 많았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한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운동에서 볼 수 있듯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농업·농촌개발의 독특한 사업 수행 방식과 조직 그리고 민관 협력의 방식이 다른 공여국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노하우로 남아 있고 ODA의 최종 수혜자들인 소농/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히 연관된 사업이기에 본 사업에서 한국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농업 교육 프로그램은 위의 사업을 뒷받침 하며 DR콩고 정부의 가장 큰 난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 공무원 역량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의 경우 농촌지도사 교육과 양성 그리고 파견에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DR콩고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타 공여기관들이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에 공무원, Extension Service, 그리고 지역 지도자 역량 개발 교육을 통한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중요하다. 성공적인 공여사업 선정이 사업 목표의 성취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대 DR콩고 농업 공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 접근은 사업 선정과 마찬가지로 공여국인 한국의 내적 그리고 DR콩고의 조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가장 먼저 한국은 아직까지 DR콩고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對人), 대물(對物)과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농업개발사업에서는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향후 KOICA의 농업개발사업의 주요한 전제가 된다. 시행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부족함은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타 공여국과의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이미 오랜 시간 DR 콩고에서 사업을 해온 개발기구들과의 협력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국의 역량 부족은 사업의 지역 선정에서도 가능한 교통, 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타 공여국들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농업부의 역량 부족은 사업 집행 시 기술, 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한 집행 비효율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DR콩고 정부 부처 내의 정치력의 한계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국회, 예산부처 등에 의해 농업 관련 사업이 정책적 판단에서 뒤로 남겨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향후 KOICA의 농업부문 공여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대단히 큰 난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KOICA는 사업의 집행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KOICA, 농업부, 예산부, 총리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정부 부처 내 정책 판단을 함에 있어 KOICA의 공여사업을 우선시 배려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실무적 집행을 현지 NGO, PMC, 대학 등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콩고민주공화국 국가협력전략 2012-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정환. 2012.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시선집중 GSnJ』 제 142호. GS&J Institute.
새마을세계화재단. 2013. 「새마을리더 봉사단파견-시범마을조성 모델」.
시장경제연구원. 2012. 『농업분야 개발협력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1. 『콩고민주공화국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3. 『DR콩고 농촌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BDS) 최종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림수산분야 발전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별 지원현황(에티오피아, DR콩고, 모잠비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KOICA 농림수산 분야 전략 (2013-2015)」.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0. 「DR콩고 츄엔게 농촌개발사업 기본설계조사 및 실시협의 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0.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4. 「KOICA-UNDP MDG Trust Fund: Community Recovery and Peace Consolidation in North Kivu」.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나. 국외문헌

AfDB. 2011. “Rural Development Support Project(PADIR)-Appraisal Report”. Tunis: AfDB.

_____. 2013. “2013-2017 Country Strategy Paper (DRC)”. Tunis: AfDB.

BBC news. 2013. “DR Congo government signs deal with M23 in Kenya”, Available at http://www.bbc.co.uk/news/world-africa-25357821.

BTC. 2012. “Rapport Annuel 2012”. Brussels: BTC.

____. 2014. “Programme Indicatif de Coopération 2014-2015”. Brussels: BTC.

De Janvry, Alain, Elisabeth Sadouret, 2002. “World Poverty and Role of Agricultural Technology: Direct and Indirect Effect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8:1-26. Taylor & Francis.

DGDC. 2002. “Note stratégique-Agriculture et sécurité alimentaire”. Brussels: DGDC.

EIU. 2012. “Country Report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London: EIU.

FAO, SIDA. 2013. “Relance de l'économie locale de Kungu en appui au processus de réconciliation et de paix (Rapport d'Avancement de Janvier à Décembre 2013)”.

FAO. 2013. “Cadre de Programmation Pays 2013-2017(CPP)”. Available at http://www.fao.org/tc/adam/data/index.html#BROWSE

Goldberg, Ray, et al. 2013. “Seeding Growth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Boston: Havard Business School.

IFAD. 2011.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Rome: IFAD.

_____. 2011. “Strategic Framework 2011-2015”. Rome: IFAD.

_____. 2013.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 Programme d'options stratégiques pour le pays”. Rome: IFAD.

_____. 2013. “PAPAKIN document de conception finale de programme”. Rome: IFAD.

IFC. Conflict Affected States in Africa (CASA).

IPC 2013. Technical Work Group. “10th IPC Analysis (December 2013 - June 2014)”. IPC Technical Work Group.

IMF. 2013. “Making Monetary Policy More Effective: The Cas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WP/13/226)”. Washington, DC: IMF.

_____. 2013. “DRC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Washington, DC: IMF.

NEPAD. 2013. “Rapport Pays: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Johannesburg: NEPAD.

OECD. 2010.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Belgium”. Paris: OECD Publishing.

_____. 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Sweden". Paris: OECD Publishing.

_____. 2013.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3: Ending Poverty". Paris:OECD Publishing.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u Développement rural. 2010. “Stratégie sectorielle de l'agriculture et du développement rural(SSADR)". Kinshasa: République Démogratique du Congo.

_____. 2013. “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PNIA) 2013-2020". Kinshasa: République Démogratique du Congo.

Ministère de l'Agriculture, Pêche et Elevage. 2009. “Note de politique agricole". Kinshasa: République Démogratique du Congo.

Ministry of Foreign Affairs/Sweden. 2009.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pril 2009-December 2012). Stockholm: Ministry of Foreign Affairs/Sweden.

Ragasa, Gatherine, Suresh C. Babu and John Ulimwengu. 2011. “Institutional and Capacit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olicy Proces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République Démogratique du Congo. 2011. “Loi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griculture". Kinshasa: République Démogratique du Congo.

_____. 2012. “Programme d’Action du Gouvernement 2012-2016". Kinshasa: République Démogratique du Congo.

Royaume de Belgique. 1999. Loi relative à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belge. Brussels: Royaume de Belgique.

SIDA. 2013. “Portfolio Overview SIDA 2013: SIDA’s Portfolio within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and Rural development 2012". Stockholm: SIDA.

Thirtle, Colin. et al. 2002.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he incidence of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DFID Report No.7946. London: DFID.

Ulimwengu, John, et al. 2010. “Paving the way for development: The impact of infrastructure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household wealth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UNDP, UNCDF. 2012. “Rapport Annuel Consolidé sur l'Etat d’Avancement du ‘Programme d'appuis au secteur de la Microfinance, Phase II’(PASMIF II)". New York: MPTF Office, UNDP.

USAID. 2010. “AgCLIR: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Commercial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Diagnostic of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s Agricultural Sector". Washington, DC: USAID.

_____. 2013. Fact Sheet #1, Fiscal Year 2014 o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Complex Emergency’”. Washington, DC: USAID.

von Thünen, Johann Heinrich. 1910. “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andwirthshaft und Nationalöekonnomie”. Fischer.

Washington Times. 2014. ‘UN says Congo's defeated M23 rebels active again’. Available at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4/jan/13/un-says-congos-defeated-m23-rebels-active-again/?page=all

WFP. 2014. “Country Overview". Available at http://www.wfp.org/countries/congo-democratic-republic-of/overview

World bank. 2008. “DRC: Implications of recent food price increases and policy op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06.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gricultural Sector Review”.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2. “Resilience of an African Giant”.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3.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for the Period FY2013-FY2016”. Washington, DC: World Bank.

다. 인터넷 웹페이지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 http://www.fas.usda.gov/psdonline/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jsp
BTC (Belgian Development Agency). http://www.btcctb.org/
FAO. http://faostat.fao.org/site/550/default.aspx#ancor
CIA World Factbook. www.cia.gov
IFPRI Global Hunger Index. www.ifpri.org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http://stats.oecd.org.
OECD/DAC. http://www.aidflows.org/
Relief Web. http://www.reliefweb.int
UNHCR. http://www.unhcr.org/pages/49e45c366.html
WFP, Global Food Security Update. http://www.wfp.org/content/global-update-food-security-monitoring
World Bank Country Data. http://www.worldbank.org/en/country/drc/overview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첨부



[별첨 1]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

아프리카 중점 협력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2014. 5. 26 (월)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KDS)

KDS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

I. 총론

II. 모잠비크

III. 에티오피아

IV. 콩고민주공화국

I. 총론

1. 아프리카 중점협력 3국의 특수성

- 농업의 절대적인 중요성
  - 세계 최빈대륙으로 높은 빈곤률 및 기아인구 유지
  - 극히 취약한 산업 발전 기반
  - 이를 반영, 국가개발전략 상 농업 및 농촌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 높은 인구증가율에 밑도는 농업생산 증가율
    - 예) DR콩고 - 인구증가율 3% vs 농업생산 증가율 2%
- 농업개발에 상당히 양호한 자연적 조건 보유
  - DR콩고 : 광대한 경지가능면적
  - 에티오피아 : 다양한 농업생산활동이 가능한 기후여건
  - 모잠비크 : 방대한 수자원
- 낮은 농업 정체성의 지속
  -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 농업성장률은 지난 20년간 정체
  - 최빈 상황에서 식량 순 수입 상태 지속

對 아프리카 개발 원조에 있어서 농촌 개발 분야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짐

2. 농업·농촌개발 정체의 요인

농민의식 및 행태	- 식민지배의 역사에서 동기부여 결여 - 농민으로서 개발을 위한 수단이 결핍
토지제도	- 토지의 국유화 혹은 부족장이 관리하는 전통적 토지 제도 유지 - 주요 기득권층이 양호한 조건의 토지 선점
농업생산 투입요소	-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농기계, 비료, 농업 기자재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
농가공산업 및 유통체계	- 농산품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 부재
농업인프라 (관개 등)	- 관개시설, 전기 공급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미비

농업·농촌개발 전반 총체적인 결핍 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

3.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원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국제적 지원**
  - **수원국의 농업·농촌개발 정책 기조와 긴밀히 연계**
    - 예) 모잠비크 : PASDEP, 에티오피아 : GTP, DR콩고 : PRGSP
  - **사업규모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다년도 사업**
  - **사업의 현지화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도모**
  - **국제사회의 원조조화에 대한 적극 고려**
  - **공여국 지사의 관심 및 비교우위 분야 우선**

- **한국의 지원**
  - **우리나라의 지원은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
  - **수원국의 정책기조 및 타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미흡**
  - **CPS하에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조 사업의 분절화·영세화**

아프리카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협력방식 정립 필요

4. 우리나라의 3국 농업·농촌개발 분야 협력 방안

- 농업·농촌개발 분야 비중
  -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농촌 분야 협력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함
- 사업 선정
  - 수원국 정책 기조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사업
  -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년도 사업
  - 분절화를 지양하고 CPS 하에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
- 사업수행방법
  -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지화를 적극 수용
  - 후속 또는 연계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원

전략적 목표 하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 현지화, 체계화 지향

Ⅳ. 콩고민주공화국

1. 농업·농촌 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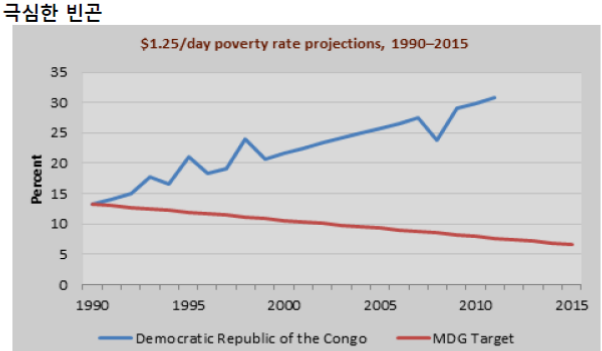
- **농업·농촌 개발 여건**

  - **농업분야 큰 잠재력 보유**
    - 풍부한 강수량·일조량·수자원·토지 자원
    -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 이상 농업 종사
  - **전체 인구 67% 농촌 거주, 농촌 거주자 대부분 빈곤층**
    ⇨ 농업·농촌 개발 통한 농업생산·농가소득 증대는 DR콩고 경제발전과 빈곤해결 위한 중요 과제
  - **현황**
    - 농산물 무역 수지 적자
      : 2010년 주요 농산물 20개 품목 수입액($7억 8700만)이 동품목 수출액($2억 2100만)보다 높음($5억 6600만)
    - 경작가능농지 중 관개가능 면적은 400만ha, 그 중 실제 관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은 13,500ha에 불과
    - 농경지의 98%가 천수답 이용, 2%만이 관개시설 이용
    - 농지 및 생산환경 관리 기술 부족, 빈약한 수송 인프라 등으로 만성적 식량 불안정
    - 취약한 농업관리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은 빈곤 유발
    - 내전 이후 농산물 자급기반 와해로 카사바를 제외한 식량은 주로 수입에 의존
    - 국민 대다수가 하루 필요 칼로리의 2/3만 섭취하고 있는 실정

1. 농업·농촌개발 현황(계속)

- **농업·농촌 개발여건**

  - **극심한 빈곤**



1990-2015년 DR콩고 빈곤선 이하 국민 분포도와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비교

- 2012년 현재까지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세계은행은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1. 농업·농촌개발 현황(계속)

- 농업·농촌개발 정책과 추진 계획

▫ The 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NIA)

- PNIA는 DR콩고의 농업 면적을 7천 5백만ha로 추정, 농업 GDP를 6% 상승시켜 농업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식량 생산 중심 농업 부문의 발전과 농민 및 기타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업의 발전
(2) 연구개발의 향상과 연구개발 결과의 이해관계자 공유
(3) 인력과 기관의 능력 향상 및 통합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영향력 강화
(4)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취약성 감소

▫ 2012-2016 Action Plan

- Strategy Paper(PRSP-II)의 일부는 2011년부터 4년내 빈곤률 10% 감축(현재 71%)을 목표

(1) 정부 통치 강화 및 평화 유지
(2) 성장 가속화를 위한 경제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3) 기초 사회 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인재 역량 강화
(4)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1. 농업·농촌개발 현황(계속)

- 농업·농촌개발 정책과 추진 계획

▫ Agricultural Business Parks

- Agricultural Business Park Corporation(ABPC)
  : 민관이 파트너십을 맺어 농산업에 초점을 둔 특별경제구역
- 본 파트너십에는 다자기구·민간 투자자·DR콩고 정부가 참여해 중앙 및 지방에서 협력
- ABPC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의 생산을 촉진하며, DR콩고가 다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약 $15억의 예산을 5년에 걸쳐 농업 트레이닝 센터, 지역 기반시설 ,에너지 관련 시설, 건강 센터 ,주택, 교통 등에 투자

1. 농업·농촌개발 현황(계속)

- **농업·농촌개발 제약요인**

  - **농산물 수급 불균형**
    - 내전 이후 농산물 자급이 급격히 어려워짐과 동시에 물류인프라 등도 파괴되어 지역 간 농산물 수급 불균형 발생. 현재 DR콩고는 주식인 카사바를 제외한 각종 식량 작물, 육류 등은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농산물 저장 및 가공**
    - DR콩고의 농민들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초보적 저장방식으로 농산물을 보관.
    - 흙·대나무·팜나무 잎 등으로 만든 저장수단이나 저장소에 옥수수·쌀·카사바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
  - **농산물 가공 유통**
    - 운송 인프라가 열악하고 농산물 저장시설 등 농업 관련 인프라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유통이나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 **숙련된 농업 노동력 부족**
    - 중등교육과 기술 및 직업교육과트레이닝(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시스템은 낮은 효율성, 열악한 교육의 질 등의 문제를 지님
    - TVET시스템은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농업과 비공식부문에 고용됨에도 불구하고 동 부문의 생산적 활동과 관련 있는 기술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1. 농업·농촌개발 현황(계속)

- **농업·농촌개발 제약요인**

  - **열악한 금융**
    - 소규모 농가들의 금융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
  - **민간부문 참여의 어려움**
    - 기반시설의 부족(에너지와 교통), 취약한 정부 통치력과 기업경영 규정, 숙련노동자의 부족, 높은 금융 비용 등 원인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
  - **통관 및 행정 절차**
    - 불투명한 통관수속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농업 투입요소 수입이 어려움

2.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 주요 공여국 지원 전략 및 현황
  - 지원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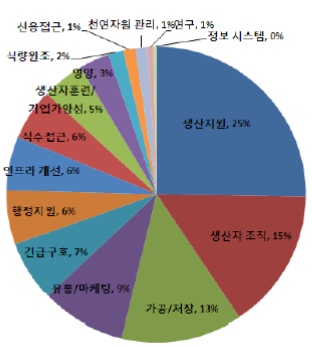
구분	다자지원				양자지원			
분야	AfDB	IFAD	FAO	World Bank	EU	벨기에 (BTC)	미국 (USAID)	스웨덴 (SIDA)
생산지원	21	8			27	19	11	25
생산자조직	5	17	17	25	18	14	6	17
유통 및 마케팅	5	8			16	14	22	8
가공/ 저장	16			25	16	16	17	8
인프라	16	25		25	4	6	11	
긴급구호					4	1		
식수접근		17			3			
천연자원관리	11				3	4		
행정지원	5		17		3	9		17
영양			33		3	4	17	
생산자훈련/기업가양성			33		1	12	11	17
정보시스템		8				1		
식량원조	5					1	6	
신용접근								8
연구						7		
기타	16	17		25				

자료) 세부분야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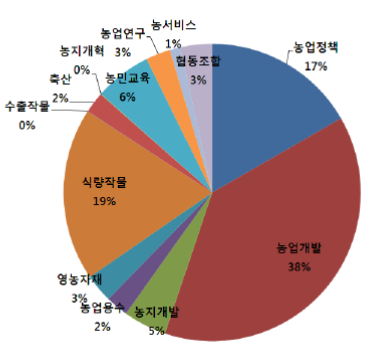
2.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 DR공고 분야별 ODA 지원현황

농업·농촌개발 분야
진행 사업 세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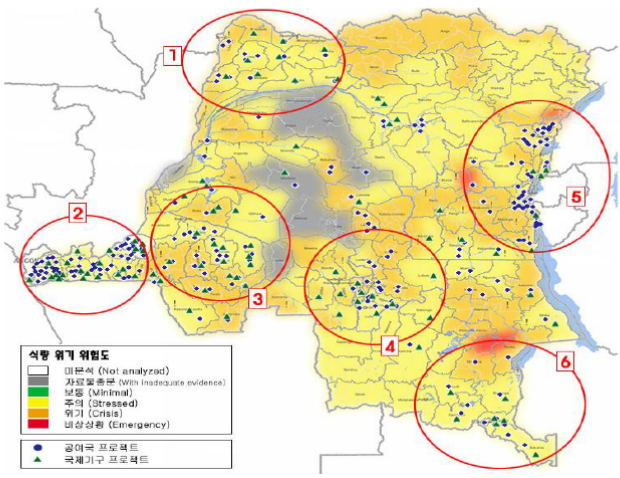


농업분야
진행 사업 세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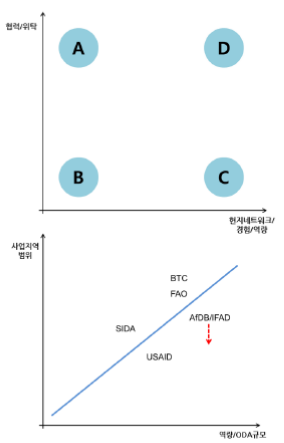
2.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

- DR콩고의 식량위기 위험도와 공여기관 농업 농촌개발 프로젝트 현황



2.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계속)

- 주요 선진 공여기관 모델



- A: 역량 약, 협력 강
  - 예: SIDA
- B: 역량 약, 협력 약
  - 예: World Bank
- C: 역량 강, 협력 약
  - 예: IFAD
- D: 역량 강, 협력 강
  - 예: BTC

- 지원규모 대비 사업지역이 넓을 경우 사업효과성의 가시성이 낮아지므로 사업지역을 소수로 한정하는 추세
  - 예: AfDB와 IFAD

2.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계속)

- 선진 공여국으로부터의 교훈
  - AfDB와 IFAD의 경우 지원규모 대비 사업지역이 넓을 경우 사업효과성의 가시성이 떨어져 몇 군데 지역으로 한정시키는 추세
  - DR콩고에서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기까지 선진공여국 및 현지 NGO와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
  - 사업 직접수행의 경우 현지 노하우와 경험 및 네트워크 확보여부를 고려
  - 사회·문화·정치·종교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수행
  -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 제고
  -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원조 공여국 간 원조 분업 및 조정 중요, ODA 규모 및 역량에 따라 사업지역 범위 결정
  -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사업경험에 비추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콩고 정부 및 프로젝트 관리 기관,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주인의식 고취 필요

2.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계속)

- 모범사례: 평화와 화해 지원을 위한 Kungu지역 경제재건프로젝트 by SIDA

사업 목적	• 농업생산증대·소득창출활동·시장접근 개선으로 지역 경제를 부흥시켜 분쟁으로 타격 입은 지역의 평화 재건
사업 내용	• 본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귀환민 (약 5000여 가구 상주)을 대상으로 농업·축산업·어업생산 지원·농민 조직 활동을 통한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가치사슬 개선 - 생산자조직화로 시민 사회 강화 및 조직운영역량 강화 - 농업·어업·축산업 생산지원 - 농가공 설비 지원 - 인프라개선(저장고·커뮤니티 시장·다리·도로보수·커뮤니티 라디오국 등)
주요 활동	- 기술 및 생산조직 지원·생산개선지원(농업·축산업·어업) - 지역의 농업생산물 연구로 농업부문 중점개발분야 파악 및 확정 - 생산자조직화 및 교육:워크숍 트레이닝 50회 실시(3,200여명 대상) - 농생산 다각화, 생산의 양적·질적 개선 - 마케팅 환경 개선 - 생산기술지원

▫ 교훈

- 인식제고활동 필요성

: 농생산자의 성공적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킬 수 있도록 남성, 여성, 촌장 등 관습적 권력자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상주 인력 배치의 중요성

: Farmers Field School 형태의 밀착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할 상주 인력의 배치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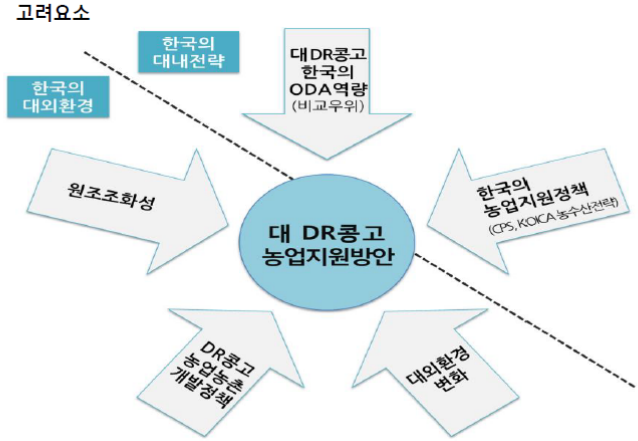
- 현지 NGO와의 협업의 중요성

: 현지 사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운영역량이 뛰어난 현지 NGO와의 협력으로 사업효과 제고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

- 농업·농촌개발 지원 전략 분석

▫ 고려요소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전략적 협력 분야 선택과 집중

<한국의 농업부문 ODA 분야별 분석표>

○: 2점, △: 1점, X: 0점

구분	DRC 농업농촌개발 정책	한국측 비교우위 분야	타공여국과의 원조조화	CPS	KOICA 농림수산분야 전략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지원사업	대외환경 변화	계
농업정책	○	X	X	X	○	○	X	6
농생산증대	○	X	X	X	○	○	X	6
수확후 관리/농가공	○	X	X	X	○	○	X	6
유통/마케팅	○	X	△	X	○	○	X	7
농산업육성	○	X	X	X	○	○	△	7
관개/농업용수	○	X	X	X	○	○	X	6
농업인프라	○	X	X	X	○	○	X	6
농업교육	○	△	△	○	○	○	○	12
농업금융	○	X	○	X	○	○	X	8
종합농촌개발	○	○	○	○	○	○	○	14
비고	DRC 농업·농촌 개발정책 주요 항목	ODA 규모, 혁신적접근법 절대비교우위 분야 및 현장우위 분야의 합	- 20건 미만 시 2점 배점 (○ 표시) - 20건 이상~79건 이하 시 1점 배점(△표시) - 80건 이상 ~ 100건 이하 시 0점 배점(X표시)	중점 협력 분야	중점 협력 분야		농공 단지 추진에 따른 소농 보호 프로그램	

자료) 연구진 작성

※ 타공여국과의 원조조화의 경우, 이미 해당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수가 많은 수록 낮은 점수 배점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선택과 집중 분야(1)

<농촌종합개발 사업 예시>

부문		세부 사업명
공통		정신 교육
생산기반	농촌도로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가설, 농촌교통
	농업구조	논두렁 정리, 경지정리, 농업용수 시설
	전기통신	전기사업, 마을통신
소득증대	증산사업	퇴비증산, 시한영농, 협동영농, 마을소득사업
	복차사업	소하천 가꾸기, 국토 가꾸기, 다목적 소류지, 마을양묘
	새마을공장	새마을공장, 농가공예품
치산녹화	소득조림	산지조림, 마을안 식수, 화전정비, 연료림 조성
	사방녹화	사방사업, 초지조성
	연료대책	아궁이 굴뚝개량
복지환경	주거환경	지붕개량, 주택개량, 하수구 정비, 취락정비
	농촌위생	간이급수시설, 위생우물, 이동병원
	공동시설	마을회관, 창고, 구판장, 목욕탕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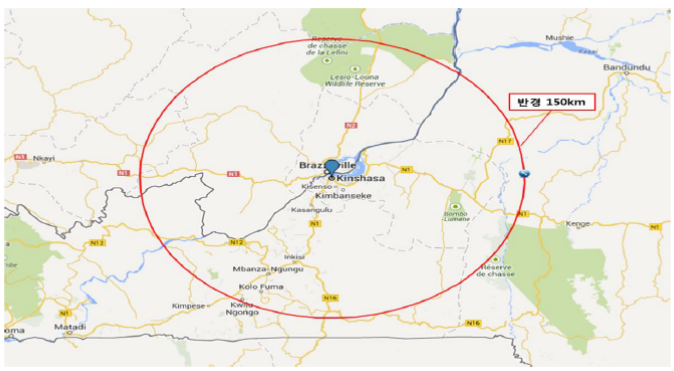
- 선택과 집중 분야(2)

<DR콩고 농업부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분석표>

구분	정의	관련 사업	비고
정부역량강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공무원들의 기술역량, 사업관리역량, 의식 등을 개발함으로써 전반적인 정부 역량을 개발	농업부 중앙 지방 공무원 중/장기 초청 연수	• 중급직을 대상으로 부서별 기능직 별 지역 별 초청연수 필요
		농업 역량 개발 센터 건립 및 운영	• 중앙 센터 건립 후 지역 거점 센터 운영 • DR 콩고 농업부 공무원들의 약점으로 지적된 주인의식 강화, 하위직 기술 역량 개발 등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농장 운영, 소규모 농가공 공장 등의 운영 필요
Extension Service 강화	정부의 역량이 농민들의 역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Extension Service의 궁극적 목표 정책적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직접 농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량의 확산은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확산을 위한 역량 개발을 요구함.	DR콩고 농업부 산하의 Extension Service 담당 부서의 교육법(Pedagogy) 및 지도력 개발을 위한 초청 연수	• SNV 등 DR 콩고 Extension Service 주관 부서의 지도력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농민 교육 역량 개발
		Extension Service 담당 부서와 NM 대상 농민 교육 프로그램 강화 프로젝트	•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커리큐럼 및 운영 방법 제시
		지속 가능한 지역 Extension Service 사무소 개발 프로젝트	• 현재 World Bank의 재정 지원이 끊긴 후 유명무실화 된 Extension Service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 재정 지원보다 재원 확보 위한 농장 운영, 유통 및 마케팅 대행 등 다양한 방법 제시
		농업 역량 개발 센터 건립 및 운영	• 중앙 센터 건립 후 지역 거점 센터 운영 • DR 콩고 농업부 공무원들의 약점으로 지적된 주인의식 강화, 하위직 기술 역량 개발 등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농장 운영, 소규모 농가공 공장 등의 운영 필요
농민역량개발	농촌사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조직 등의 역량 개발	시범 지역 농민 대상 지도력 개발 프로젝트	• SNV, 지역 NGO 및 타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한 주인의식 개발, 기술 역량 개발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선택과 집중 분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1)
  - 지역 설정
    - 안정·도로 인프라·원조 조화성·인프라·빈곤층 집중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선택과 집중 분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2)
  - 지역별 특성 고려
    - 전통·문화·토지 관련 지역 특성 고려 Case by Case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어떻게?'를 위한 사전 이해 – 농업부 이해

- 취약한 농업부 예산, 거버넌스, 역량
- 정부내 농업부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
- 주인의식 약화
- 부처내 경쟁

<DR콩고 농업 정책수립 과정 내 다양한 Actor의 역할 및 영향력 정도>

주요 기관 및 인물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의 원천	영향력 (0~6)
대통령, 국회	국가우선순위결정,다른분야의정부부처및공공분야에산분배와지출에영향을미침	6
공여국	재정지원,조언,분석,연구,기술지원및역량강화 등을통해지원,현지자원동원이제한적이므로정부는공여국재정지원에상당히의존함,분석적역량부족으로공여국연구및컨설팅에도의존,공여국의영향력정도는인터뷰별로상이	4-6
예산부처	각부처의실질적예산배분결정	5
재무부	실질적예산지출우선순위결정	4
MINAGRI	농업분야지원과정,정책의계획,가산시행및모니터링,전략및계획수립을조율,자원및정치적지원등원유도	4
총리	대통령과함께,국가정치를이끌며국가우선순위설정	3
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농업전략및프로그램,예산에영향을미치는국가경제계획수립	3
민간기업연합 (FEC)	대기업간소통을위한포럼,정책수립과정과MINAGRI에지산들의관심사필요,우선순위등을제정	2
CARG	정책담화및토론을진행하고,문제를공유하여합동대책을강구,지역자원의우선순위와전략을세우고,국가정책자원에서지역의수요와필요를중재하는플랫폼 역할수행	1-2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토지부, 인프라부, 연구부등	MINRD는지역개발,농촌도로/지선도로,하천,농촌수자원공급 및농촌주택공급을맡음,이모든부처는정책계획에참여하고,부처의권한에맞는활동과프로그램이행	1
국제기술기구 (FAO, IFPRI 및기타센터)	MINAGRI및다른부처의많은기능을기술적으로지원	1
국제협력부, 외교부	DR콩고의국제협력관계관리	1
대학 (UNIKIN, Lubumbashi 등)	정책대안에연구및기술적조언을제공하는역할수행,현재는MINAGRI및다른부처,사정책수립과정과미연계	0
농업 교육연수기관	분야에서일하는교육자,연구원,농업연구원및전문가들을교육하는역할(정부,민간분야,NGOs등)하지만실질적인정책수립과정에는힘이없으며적극적인참여도없음	0
COPEMECO 및 기타국가연합	대체적으로소규모기업의이해농민조직및시민사회를대표하는역할을맡고있지만실질적인정책수립과정에는힘이없음	0

자료) IFPRI(2011), Institutional and Capacit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olicy Process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선택과 집중 분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3)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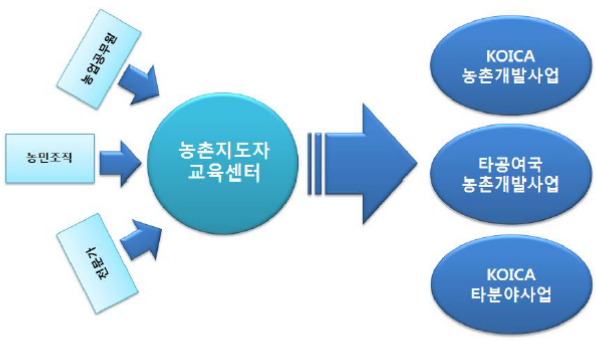


집행기구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선택과 집중 분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4)

<DR콩고 원조사업의 프로그램적 구성>



감사합니다.

[별첨 2] 현지 기관 면담 회의록

콩고민주공화국 기관 면담 회의록

<방문기관 목록>

콩고 팀 현지출장 면담기관	
1. KOICA DRC 사무소 2. 농업농촌개발부 3. 재무부 4. 벨기에(BTC) 5. 스웨덴(SIDA) 6. 미국(USAID) 7. 총리실 8. 농촌지도국(SNV) 9. 농업협동조합연맹 10. 킨샤사 대학교	11. World Bank 12. IFAD 13. AfDB 14. FAO 15. Caritas 16. IITA 17. INERA 18. 현장지도마을 등

1. 이호성 대사 예방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1월 30일(목) 14:30-15:00
- 장소: 이호성 대사 집무실
- 참석자: 김태진 KOICA 사무소장 대리, 김장생 교수, 박선희 기획관

(2) 회의내용

- 연구진 소개 및 아프리카 중점협력 3개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사업에 대한 설명

○ 이호성 대사의 당부사항 청취

- 한국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연구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를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2. KOICA 착수회의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1월 30일(목) 15:10-16:00

○ 장소: KOICA 회의실

○ 참석자:

- KOICA: 김태진 KOICA 사무소장 대리, 박준우 농촌개발 ODA 전문가, 윤장미 인턴, Gustave Cuma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연구진: 김장생 교수, 박선희 기획관

(2) 회의내용

○ 면담일정, 주요 활동내용 협의

○ KOICA측 요청 사항

- CAADP(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의 아젠다에 따른 콩고 정부의 농업분야 지원 계획과 공여기관의 지원 동향 조사
- 타 공여국 및 기구의 지원 전략, 사업수행방식, lessons learned 조사, KOICA 사업 적용 방안 도출 요청

3. 농업농촌개발부 focal point 면담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1월 30일(목) 16:00-17:00
- 장소: KOICA 사무소
- 면담대상: Luciane Lutula(Chief of Team, Division of Study and Planning)

(2) 회의내용

- 동 연구 사업의 목적 설명 및 연구진의 파견활동 계획 설명
- 농업농촌개발부와의 추가적인 면담 주선 요청 - 사무차관 면담, 타 공여국과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 면담, 한국 초청연수 참석자 면담
- 자료 요청 - 조직도, 농업농촌개발부의 전략 및 행동계획 자료 등

4. 벨기에 개발협력국(Cooperation Technique Belge, CTB-BTC)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1월 31일(금) 09:00-10:30
- 장소: BTC 사무실
- 면담대상: Maurice Schill(Country Coordinator)

(2) 회의내용

- BTC의 농업사업 접근법
  - Top level: 농업농촌개발부의 거버넌스, 정책입안, 전략수립에 대한 지원

- 타공여국, 기구와의 협업으로 National Investment Plan for Agriculture (PINA) 수립 지원

– Lower level: 지역사회체계(community level)에서의 지원

※ 커뮤니티 레벨의 지원은 단·중기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higher level에서의 지원 활동도 필요

– 가치사슬(value chain)개선 접근으로 지원
  - 개선된 종자공급 (INERA와 협업)
  - 영농법 개선(비료사용, 이동경작, 녹비작물 보급, 다양화된 작물 경작 등) 등 지원함

※ DR콩고에서 비료 가격이 매우 높아서 농민들의 비료사용이 아주 제한적임. Kasaï Oriental주에서 비료 한 포대가 $100에 거래되고 있음. 보통 1ha 당 적어도 5포대가 필요함.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료공급은 비용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
  - 수확 후(post-harvest) 단계에서의 지원: 저장시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 시장 접근 개선

○ 중점 지원 분야

– 사업지 주(州)마다 다름
  -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주된 애로 사항(bottle-neck)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사업 구성
  - 사회적 인프라, 언어 등 주마다 다름

○ 사업지역: Bandundu주, Maniema주, Kasaï-Oriental주, Kasaï-Occidental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사업지역 선정 시 고려사항(Where, What, with Whom에 집중)
  - 실제 농생산 지역을 파악하여 지선도로(feeder road) 건설
  - 인구, 소득수준, 인프라 여건 등 고려해서 사업지역 범위를 좁혀가며 검토함
  - 지역민들이 공여국인 우리보다 요구와 문제를 더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충분히 청취

○ DR콩고 농업농촌개발부 내 주요 협력 부서: 기획부서, 모니터링 및 평가부서, 통계부서, H&R부서, extension service 부서(SNV)

○ Challenges

- 방대한 영토에 기본적 인프라의 부족
  - 킨샤사 주 외 지방에서 사업수행 어려움
  -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로서 콩고 정부에서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진행 중임. 이로써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실행에 대한 권한이 더 커짐
  - 모든 프로젝트 시 지선도로 건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단, 다른 공여국의 지선도로 건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 지선도로의 효용성과 지속성(인구밀도, 농업활동의 정도, 유지관리 및 보수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취약한 거버넌스
  - 거버넌스 문제는 사업전반에 걸쳐서 사업성공에 영향을 미침
  - MINARD의 총 공무원 수가 대략 1,400~1,6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지방의 경우 65%이상이 퇴직 연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퇴직시키지 못하고 있음. 10년 전부터 신규공무원 채용에 힘쓰고 있으나 급여 지급에 대해 어려움이 있음
  - 농민들이 생산 후 판매하는 과정 중 뇌물을 요구받는 일이 허다하여 생산증대에 대한 농민들의 의지가 약해짐

○ Lessons learned

- 농민들은 조언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소극적임. 자문을 줄 때 먼저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 보임으로서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메시지와 지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할 것임
- 하나의 투입요소(예: 개선된 종자 보급)에 대해서 지식전수, 역량개발, 확산교육(extension service)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주요 질의응답

- 질문: 기업형 농업생산자의 대형투자자들에 대해 콩고의 소농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답변: Agro-business는 BTC의 지원전략분야가 아님. BTC의 주된 지원내용은 모두 소농들을 보호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짐

- 질문: 타 공여국/기구와의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려운 점은?
  - 답변: 정기적인 공여기관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PINA수립에 있어서 GIBADER(농업농촌개발분야 공여국/국제기구 그룹)이 각자 활동 중인 지역에 대해 방법론 제시 등 협업하였음

※ GIBADER(Inter-donors' group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다양한 공여기관과의 활동에 있어서 MINARD차원에서의 중심적인 코디네이션이 안 되고 있음. 적어도 사무차관(Secretary-General)이 중심이 되어 공여기관의 지원활동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코디네이트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질문: 농업농촌개발 분야 지원에 대한 그 외 조언은?
  - 답변: bottom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면 농민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현지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적정기술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농민들에게 무료로 input을 제공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함

5.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1월 31일(금) 10:30-12:00

○ 장소: SIDA 사무실

○ 면담대상: Victor Kitembo(National Programme Officer)

(2) 회의내용

○ SIDA의 지원 방향

- SIDA는 對 DR콩고 협력전략(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DRC)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현재 2014-2018년 전략 준비 중)

- 주요 지원 분야
  - Peace, reconciliation, democratic governance
  - Pro-poor economic development(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 Health(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관리, 성·생식보건 및 권리증진을 중심으로)

- 농업분야는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축의 일환으로서 다른 공여파트너 또는 UN기구와 협업하고 있음

○ SIDA의 농업분야 지원 활동

- Equateur 주(州) Kungu district에서 지역경제부흥과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중임
  - 사업의 수혜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RCA)로부터의 귀환민(returnee)이며 약 5,000가구에 해당하며 200여개의 농민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FAO이며 사업의 주된 요소는 농민단체 재조직과 농업학교(Farmers' field school)에서의 농민교육훈련
  - 사업의 주목표는 주민의 정착 및 통합, 농생산의 양적·질적 향상,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가치사슬 개선

○ 지원 체계

- UN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사업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스웨덴 정부의 협력전략에 잘 부합하는지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에 대해 결정함
- SIDA는 사업지 현장방문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평가를 함
- 현재 협력중인 공여국
  - 프랑스, 영국(DFID), EU, 네덜란드 등

○ Challenges

- 킨샤사에서 떨어진 지방에서 사업수행 시 건설장비 등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 시 어려움 - 도로가 중간에 단절되어 있어서 강을 이용해서 옮겨야 했으며 인근국가(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분쟁으로 어려움으로 저장고 건설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 성공사례(Case of Equateur Project, 2011)

- 사회적 결속측면
  - 분쟁의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희망 회복, 사회적 결속에 기여함
- 생산증대 측면
  - 농민 단체를 성공적으로 재조직, 역량 강화로 양적·질적 생산 증대기여

- 젠더 측면
  - 여성의 의견반영을 통해 여성의 활발한 참여 유도, 여성역량 강화에 기여함

○ Lessons learned

- 다른 공여기관이 활동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사업수행을 한다는 것이 모험적일 수도 있으나, 그 곳에 수혜자의 요구가 있는 이상 사업을 해야 할 것임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농민단체를 항상 조직해야 함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가치사슬을 고려한 사업접근을 해야 함
- 자신의 기관에서 부족한 전문분야의 경우 동일한 사업지역에서 활동중인 타 공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권유함

○ 향후 지원 전망

- 농업분야에 있어서 "2014-2018 협력전략"에 따라 더 큰 틀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
  - 인간안보, 생계지원 (여성과 청년을 위한 직업창출을 중심으로), 환경, 마이크로 파이낸스

※ 범분야인 여성역량 강화는 농업분야 지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될 것임

○ 그 외 질문 사항

- 질문: 부가가치의 증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수익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텐데, 그 오른 가격이 소비자층에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가?
  - 답변: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하고, 농민들을 팔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협상을 하게 됨.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농민조직을 통해 교육하여 적절한 가격에서만 거래하도록 농민들에게 인식을 넓혀야 함

6. 세계은행(World Bank)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1월 31일(금) 14:30-15:30

○ 장소: World Bank 회의실

○ 면담대상: Amadou Oumar BA(Senior Agricultural Services Specialist)

(2) 회의내용

○ World Bank의 농업농촌분야 지원 목표

- 농업생산 증대
  - 농촌지역의 여성, 청년층의 직업창출
  - Agro-business 개발

→ Agriculture-based Growth Pole 프로젝트 실시

○ Growth Pole Project

- 주요 development corridor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spatial development)프로젝트임
- "정부 행동계획 2012-2016"에서 제시하는 목표인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 직업창출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봄
- 1st Growth Pole project: 서부 지역(Matati-Kikwit-Mbandaka를 잇는 지역)
  - Bas-Congo 주의 농업 가치사슬 개발
  - Maluku에 SEZ 조성
  -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투자 유치
  - 콩고 정부의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모니터링 & 평가 역량 강화
- 2nd Growth Pole project: 남동부 지역(Bukavu-Kindu-Kalemie를 잇는 지역)
  -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 DR콩고 정부와의 협업

- 재무부가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Fragile States Unit(Facilité des Etats Fragiles)을 구성하여 사업의 준비와 실행을 코디네이트함. 관계부처, 사업지 주정부, 민간기관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사업의 요소에 따라 협업하는 기관이 상이함
  - Agribusiness: MINARD, INERA(국립농학연구소)[48], SENASEM(국립종자센터)[49], DVDA(농어촌도로공사)[50]등
  - SEZ(Special Economic Zone): Ministry of Industry
  - Business environment: Ministry of Planning
  - Monitoring & Evaluation: Ministry of Finance
- 정부기관 외에도 커뮤니티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업함
  - CONAPAC(농민조합연맹)[51], FEC(콩고기업연맹)[52] 등
  - 예로서, Bas-Congo주의 활발히 활동 중인 농민단체인 FOPACO[53]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고 사업에 도움이 됨
- 원래 단위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수행 시 컨설턴트를 기용하였으나 지금은 정부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Challenges

-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음
-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토지, 재정 이슈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지역의 지선도로를 복구해야함
- 아직도 예전방식의 영농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우수종자, 농기계 등 여러 투입요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파인애플, 바나나 등 과일의 수확 후 손실이 큼

48) Institut national pour l'étude et la recherche agronomique
49) Service national des semences
50) Direction des voies de desserte agricole
51) Confédération nationale de producteurs agricoles du Congo
52) Fédération des entreprises du Congo
53) Force paysanne du Kongo central

- 동부의 Great Lake지역의 security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으며, ORAF(Operational Risk Assessment Framework)를 이용하여 위험평가를 하고 있음

○ 그 외 질의응답

- 질문: 정부의 정치적 작용 등으로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 금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함.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고 출금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함. 사업의 코디네이션은 사업운영회의 검토에 따라 연간 예산계획(PTBA)에 따라 준비되어야 함. 최종 승인이 있어야 만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조달계획은 미리 팀리더에게 제출되어야 함.
  - 사업지 선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출신지역(지역구)을 사업지로 선정해 달라고 압박을 주기도 함
- 질문: 부가가치의 증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오른 가격이 소비자층에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가?
  - 킨샤사와 다른 큰 도시의 경우 이미 중산계층의 소비자층이 충분히 형성되어있어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임. 이미 높은 가격의 수입물품을 구매하고 있음

7. 총리실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1월 31일(금) 16:00-17:30

○ 장소: 총리관저 회의실

○ 면담대상: John Ulimwengu (농업자문관)

(2) 회의내용

○ National Agriculture Investment Plan(NAIP)

-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의 장기 계획(2014-2020)으로서 2013년 수립됨

○ 총리실 지원 프로젝트

- 총리실 지원으로 “Agricultural Business Parks”를 진행 예정
  - 20여개의 사이트를 선정하여 10,000~100,000ha에 이르는 SEZ(Special Economic Zone)를 조성
  - ‘생산 - 가공 및 포장 -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접근을 적용
  -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도입 예정
  - 첫 번째 Agro-industrial Park는 킨샤사에서 120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약 80,000ha 규모로 만들어 질 예정

○ 생산증대에 있어서 콩고 농업의 문제점

- 소농들이 아직도 전통적 방식으로 장도와 괭이를 갖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생산량은 내수시장의 식량수요에 미치지 못함
- 적절한 교육, 종자, 장비, 자문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함

○ 농업·농촌개발을 위해 중점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

- Policy making: 주정부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 Governance: MINARD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역량이 부족함
- Research: 농업분야 연구역량이 아주 열악함.
- Capacity building: 직업훈련, 대학을 통한 정식 교육 강화 필요

○ 질의응답

- 질문: 공여기관이 커뮤니티와 함께 일할 때 커뮤니티가 정부와 함께 협업하는 의지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공여기관과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좋음. 그러나 사업시 정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함. 사업실행도중에 이슈가 발생할 때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공공서비스 접근, 관정공사시 침공서비스도 또한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려움

※ 남키부 주 Ruzizi에 분쟁 이슈가 있었으나, 커뮤니티가 콩고 정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미국 컨설턴트팀을 기용하였으나, 정부의 개입이 없이 토지 문제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려웠음

- 커뮤니티가 NGO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하지 않음. NGO의 단기적 사업의 특성 때문.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임

– 질문: 'Market-driven'접근과 'Community-driven'접근 중에서 콩고 정부의 관점은 무엇인가?

- 답변: 콩고 정부는 두 가지 접근 모두를 고려함. 콩고 정부의 역할은 종자, extension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임.
- 지역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함. 동쪽지역의 경우 분쟁 후 지역커뮤니티의 개입이 큼

– 질문: 정부 부처 내 부족주의가 사업지 선정 등 공여국이 사업을 할 때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 답변: 콩고 전체에 450개가 넘는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어떤 부족도 타부족을 지배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임.

– 질문: MINARD 내에서 농업부와 농촌개발부 사이의 긴장관계는 없는지?

- 답변: 그런 긴장관계는 없음. 고위정책자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이끌어가야 할 리더십의 문제임. 정부 부처는 예산을 두고 경쟁해서는 안 되고 협력해야 함.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보건개선을 위해 보건부에 예산이 배당되지만 이는 결국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증진시켜 농업생산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임.

– 질문: 콩고의 각 부처마다 여러 공여기관과 협업을 하려면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음.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 이 중요할 것임

- 답변: 포괄적 아프리카농업개발프로그램(CAADP)에 따라 이제 모든 공여기관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함 – 최근 수립된 국가농업투자계획(National Agriculture Investment Plan)
- 정부 측과 공여국 측의 코디네이션을 위하여 G15(Thematic Group-15)이 있고, 다양한 공여국이 참여하는 Pooled Fund도 운용중임

- 총리실은 각 부처별 원조사업 활동에 대해 감독(supervision)을 하고 있음. 원조사업에 대한 담당 부처의 협조가 부족할 때 총리가 개입하여 진전시킬 수도 있음

- 질문: 공여국, 기구와 일할 때 어려운 점
  - 답변: 강력한 체제, 정부의 주인의식(ownership)이 필요함. 콩고의 요구(needs)에 대해서 공여국 및 공여기구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음. 지난 3년간 농업분야에 약 7,500만 달러의 지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돈이 어떤 효과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음
  - 좀 더 강력한 정부의 참여를 위하여 목표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계획을 함께 조율하고 기획해야 함. 총리실의 분야별 14명의 자문관이 있어서 협업이 가능함

- 질문: 한국정부(KOICA)에 기대하는 지원 분야는 무엇인가?
  - 답변: 콩고는 정책입안 절차(policy making process)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강화가 필요함. 지식생산체계로 정책을 개선시켜야 함. 정부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면 장기적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음. 역량 강화는 농민뿐 아니라 의회, 정부 부처 모두에게 필요함

8. 농업농촌개발부 농촌지도국(National Extension Service)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1일(토) 10:00-12:00

○ 장소: 농업농촌개발부 농촌지도국 회의실

○ 면담대상: Ignace Guka(국장), Benoit Nzaji Lupelekese(부코디네이터)

(2) 회의내용

○ SNV의 설립 배경

- 민간기관, NGO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농촌지도서비스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콩고 정부가 1989년 만들게 됨. World Bank가 주로 프로그램 디자인에 지원을 했었으나 콩고의 정치적 불안 등의 이유로 1991년 World Bank가 철수하였고 그 후로 활동이 정체되기 시작했음
- 주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는 'Visit for training'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Farmers field school'로 접근을 바꾸게 됨
  - 2002년 FAO에 의해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도입이 되었고, 콩고에는 2006년 도입되어 벨기에의 지원으로 실시(APEFE가 사업 수행)
  - 첫 번째 단계(2008-2010)는 원예작물, 축산, 양봉교육, 두 번째 단계(2010-2013) 생산과 마케팅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었음

○ SNV의 농촌지도 접근법

- 농촌지도사(extension officer)가 농민조직(25-30명의 농민으로 구성됨)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함 - Champs Ecole(field school)이라고 부름
  - 각각의 Champs Ecole은 25-30개의 작목별 Farmers association으로 구성함.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산자조합(Union of Producers)의 역할을 함
- 현장교육을 계속해서 확산하고 농민들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할 Internal Facilitator를 농민 중에서 선정함
  - 이 접근방법이 비용면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교육을 확산하여 추후 농민연수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봄
- 이 접근법으로 리서치(INERA)도 적용함 - 작물의 질병 등에 대해서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음
- SNV 내 전문가를 활용하고 필요시에 외부전문가를 기용함(INERA 등)
- 신품종을 이용한 시범포 운영을 위한 초기 종자 지원은 정부에서 하고, 농민들이 그 품종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각자 구매해야 함

○ SNV의 향후 계획

- 벨기에 BTC/UCAG, KOICA(2015년 농촌지도자센터 건립), KAFACI (Bas-Congo주 농촌학교를 통해 옥수수 생산증대), UNDP(기후변화관련 농촌지도), IFAD등과 농촌지도 관련 사업 등이 논의 중에 있음

9. 농업협동조합연맹(CONAPAC)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1일(토) 14:00-15:00

○ 장소: CONAPAC 회의실

○ 면담대상: Paluku Mivimva(회장), Sylvestre KAMBAZA(총무)

(2) 회의내용

○ CONAPAC 소개

- 2011년 11월 12일에 발족되었으며, 11개주 대표 11개 조합의 연합,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았음
- 농촌지역 번영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
  - 시장과의 연계성 증진
  - 농민 교육: 카사바, 감자, 쌀, 커피, 땅콩, 팜오일, 파파인, 키니네, 어업, 양식
  - 조직 거버넌스 강화
- 현재 약 600,000명의 멤버를 두고 있으며 60개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 콩고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하고 있음
  - SOS FAIM(벨기에), CORDAID, Agiterra(네덜란드)
- 각 멤버의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donor의 지원도 받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 옹호(Advocacy): 정부 부처와 의회 등 고위층을 상대로 소농의 권리 옹호
  -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정부에 보고 – Ministry of Land, MINARD
  - 정부가 추진 중인 농민 캠페인을 CONAPAC이 모니터링하고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보고함

- 역량 강화: 농민역량 강화, 농민 조직화

○ 질의응답

- 질문: 콩고 정부(SNV)의 농민지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답변: SNV의 농촌지도교육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INERA의 역할도 전혀 미치지 않고 있음
  - 농민의 필요에 따라 특정 작물의 교육이 필요할 시에 농민의 비용 부담으로 외부 지도사, NGO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기도 함
- 질문: 농촌 발전의 제약사항
  - 답변: 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서 농민들이 생산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약해짐. 가공과 보관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
- 질문: 농산물가격 변동에 대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답변: 시장가격변동에 농산물 가격보호 장치는 없음
- 질문: 농업관련 금융서비스가 있는가?
  - 답변: 농협과 같은 BCA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음. 일반은행에서도 농민우대서비스는 없고 대출에 대해 월 3%이자율을 똑같이 적용함.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만 있음)
- 질문: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지 선정에 대한 조언
  - 답변: 사업지 선정을 위하여 세 가지 기준을 봐야 함: ①생산 ②조직 ③시장접근성
  - 구체적 사업지 추천: Bas-Congo, Bandundu → Kinshasa시장 겨냥; Katanga, Lubumbashi 시, Ruzizi평야, Beni, Mbuji-Mayi

10. 킨샤사대학교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1일(토) 16:30-18:00

○ 장소: 킨샤사 대학교 연구실

○ 면담대상: Gaston Mudipanu Kapuku(교육학, 한국학교수), Patience Mpanzu Balomba(농경제학과 교수)

(2) 회의내용

○ DR콩고 농촌의 권력구조 파악

- 주마다 차이가 있음. 예) Sud-Kivu주는 전통적 권력자(Chief)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권력행사의 중심이 됨, 심지어 농민들에게 가축을 바칠 것을 강요하기도 하여 농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됨.
- 전통 농촌 사회의 권력 구조와 농업 사회 구성요소들 간의 부정적 상관 관계들을 변화시켜야 콩고 농업 발전의 토대를 쌓아갈 수 있음. 이는 단순한 농업 기계화 혹은 기술적 접근이 아닌 더욱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함.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콩고에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음.
- 대부분의 주는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땅을 빌려주거나 팔 때 전통적 권력자(Chief)의 영향이 큼. 단, 토지 사용권자에 대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DR콩고 농업발전의 제약요인

-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점임. 공동체가 없으면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함. 농민을 조직화해야 하며 한국처럼 커뮤니티 중심으로 파급된 개발이 필요함
- 국립농업연구센터(INERA)가 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신뢰할 만한 농업 통계자료가 없어서 국제기구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박사급의 수준 높은 연구원이 턱없이 부족함.

○ 농업농촌 개발분야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의 순서

① 대통령

② 공여국 및 기구

③ Ministry of Budget

④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Agriculture

⑤ Prime Minister, Ministry of Planning

⑥ Federation of Private Enterprises

⑦ CARGs(Agricultural and Rural Management Councils)

⑧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 Ministry of Land / Ministry of Infrastructure / Ministry of Research /기술적 지원 국제기구(FAO, IFPRI 등) /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oreign Affairs

⑨ 대학 / 농업교육 및 훈련기관 / COPEMECO(Con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f the Congo) 등 연맹

11. 농업농촌개발부 공무원 면담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일(일) 15:00-16:30

○ 장소: 호텔 카페테리아

○ 면담대상: 2013년 11월 KOICA연수 참석자(Ms. Lutula Lucianne, Mr. Kasai Jean, Mr. Tshibinda Joelle, Ms. Mayilanda Angelique, Ms. Ngonzimwiki Espérance, Mr. Tshimanga Carlos, Mr. Chihyoka Alain, Mr. Munudikanusu Roger, Ms. Bosengele Henriette, Mr. Bonjembo Jean Marie)

(2) 회의내용

○ 지난 연수 소감

- 연수 후 각자의 부서에서 feedback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배운 정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있음
- 가정과 직장에서 한국에서 정신교육의 내용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음

○ 콩고의 농업발전을 위한 연수단의 제안

- 콩고의 농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발전을 위해 정신교육이 중요함
  - 농민, 지역사회, 고위정책결정자들까지 정신교육의 확산이 필요함
- 농촌개발을 위해 정보공유, 신기술 확산이 중요한데 MINARD뿐만 아니라,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Media와의 협업으로 정보공유 및 확산의 효율성 높이도록 함

12. 현장지도마을 방문 (CEP, Champs Ecole Paysan)

(1) 방문개요

○ 일시: 2014년 2월 3일(월) 11:00-12:30

○ 장소: Mbudi Lutendele, Commune de Mont Ngafula

○ 면담대상: 마을주민(현장지도교육 수혜자)

(2) 조사내용

- 벨기에 Walloinnie Bruxelles의 지원으로 농업현장지도반(APEFE: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 l'Education et la Formation à l'Etranger)이 운영되고 있는 마을 현장 답사
- 주요 지원내용

- 농지 관개를 위한 저수지건설, 카사바, 원예작물 영농지도, 종자 지원
- 농업현장지도반은 총 1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명의 지도사가 3~4개의 그룹을 맡아서 교육함

– 마을주민 면담내용
- 농생산 증대에 기여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50여명의 주민 중 대부분이 종자라고 답하였고, 소수는 농업기술교육이라고 답함
- 앞으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운송수단과 마케팅임

13. IFAD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3일(월) 14:00-15:30

○ 장소: IFAD 회의실

○ 면담대상: Rasha Omar(Country Programme Manager)

(2) 회의내용

○ IFAD 소개

– 1980년대 초반에 DR콩고 operation 시작함

– 주로 생산성증대와 농민조직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음

– 사업종료 후 지속성이 부족하고 운영이 나빴던 문제가 있음

○ 지원전략

–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2012-2016)’을 수립

– 주요 전략적 목표
- 소농민에 대한 효과적인 생산서비스, 적정기술, 지역 시장에의 접근 개선

- 농민조직의 전문화 지원
- 지원활동

– 현재 3개 주에서 사업진행 중
- Maniema: PARAM
- Bandundu, Bas-Congo : PAPAKIN

– 사업수행 시 NGO와, 콩고 정부 부처, 연구기관과 최대한 협업하고자 함
- 주된 카운터파트는 MINARD의 사무차관(Secretary General), SENASEM, INERA 등

– 사업에 투입되는 농업전문가를 최대한 현지전문가로 활용함. 필요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등 인근 국가의 전문가를 기용함

○ Challenge

– 콩고의 역량 있는 전문가, 공무원을 찾기 어려움
- 농업분야 전문가는 찾기 어렵지 않으나, 재원관리, 모니터링&평가, 역량개발, 관개시설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움

– DR콩고 정부를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려움
- 재무부와 기획부가 사업의 과정에 잘 관여하지 않고 있음

– 방대한 영토: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어려움

○ 사업운영에 대한 조언

– 농업농촌개발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현지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찾기 어렵고,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함

– 지역커뮤니티에서 마을 촌장 외에 교회가 하나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질의응답

○ 질문: DR콩고가 갖고 있는 경쟁력

– 답변: 동부지방(Katanga, Kivu, Orientale주)는 아프리카 동부시장을 겨냥하고, 나머지 주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내수시장을 겨냥하면 좋음. 이제 팜오일, 고무, 커피 등을 수출하기 시작했음

○ 사업지 선정 시 고려하는 점

- ① 접근성(도로, 항로)이 좋은 곳
- ② 사업팀 주거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숙소, 은행 등)가 구축된 곳
- ③ 외부원조기관 뿐 아니라 DR콩고 정부의 투자가 있는 곳
- ④ 지역의 요구(needs)가 있는 곳
- ⑤ Security
- 질문: 콩고정부와 협업을 할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조검토(cross-checking)시스템이 있는가?
  - 답변: 모든 조달은 IFAD에 의해 검토되게 되어있고, 매달 재무보고서를 받아서 은행자료와 대조 검토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사업지를 방문하여 다각도에서 모니터링을 함. 꾸준히 현지 관계자(예: 농민조직)와의 채널을 유지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음
- 질문: KOICA와의 협력방안
  - 답변: 한 사업지에 여러 원조기관이 활동 중인데, 중복되지 않는 사업요소라면 놓을 듯: 팜오일 등 환금작물, 역량 강화 부분이 좋을 듯
- 질문: 재무부, 기획부 등 부처의 역할
  - 답변: 재무부는 유상원조사업일 경우 차관을 갚아야 하고, 이 외에도 세금감면, 카운터파트의 비용부담, 사업 모니터링, 사업수행 시 콩고측 부정행위 등으로 손실이 발생 시 보상 등의 역할을 해야 함

14. 농업농촌개발부(MINARD)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3일(월) 16:00-18:30

○ 장소: 농업농촌개발부 회의실

○ 면담대상: Abel Leon Kalambayi(Secretary General, Rural Development), Luciane Lutula(Chief of Team, Division of Study and Planning), Adolphe Fika Ntumba(Chief, Division of Technique in charge of Watercourse), Daniel Luhata-Kongolo(Director, Fishing in Rural Areas)

(2) 회의내용

○ MINARD와 원조파트너와의 협업체계

- BTC(벨기에): 'Joint Local Consultation Committee(SMCL)'을 두어 사업실행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 하부의 'Technical Assistant'가 사업을 수행함. SMCL은 DVDA(Directorate of road and construction and drainage), Office of Route, 시민단체, 주민대표, 사무차관, 그리고 주정부장관으로 구성됨. 사업의 결과는 연간보고서로 발간됨
- GIZ(독일):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개발프로그램으로 전환중임.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를 두어 지원 방향 제시와 의사결정, 연간예산 승인의 역할을 함. 그 하부에 프로젝트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가 있음.
- AfDB, World Bank: GIZ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프로젝트가 농촌개발 사업이면 농촌개발 사무차관이, 농업부 사업이면 농업사무차관이 이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맡음.
  - 이 운영위원회는 연간 1~2회의 총회를 가짐. 주(Province)레벨에서는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함.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2~3개의 Provincial 위원회가 있음. 이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지방분권화정책과도 상통함.
  - 조정위원회 아래 AfDB 와 World Bank의 절차에 따라 기용된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단(Project Coordination Unit)이 있어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담당함.

○ 공여국/공여기구와의 협업

-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두 가지의 컨셉 - 공동책임(Co-responsibility)와 공동관리(Co-management)-이 잘 적용되어야 함
  - 공동책임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이며, 공동관리 측면에서는 사업관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지방의 카운터파트들의 참여가 필요함(주로 재무 관리). 모든 프로젝트의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야 할 것임
  - 프로젝트 시행 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전문가와 콩고전문가가 짝을 이루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길 요청
  - 콩고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해야 함

15. KOICA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4일(월) 10:30-11:30

○ 장소: KOICA 사무소

○ 면담대상: 박준우 농촌개발 ODA전문가

(2) 회의내용

○ 진행 업무

-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진행 중
- 농업농촌개발분야 원조기관 회의참석
- 현지 NGO와의 협업방안 발굴 등

○ 콩고의 농촌개발 지원 방안 의견 공유

- 사업지 선정 시 유의할 요소로서 도로교통, security, 타원조사업과의 조화, 인근의 시장유무를 감안 할 때 킨샤사에서 50~100km 떨어진 지역까지 사업지로서 적절할 듯
- 농촌개발 사업에서 사업총괄(PM)의 역량이 중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
  - 실행할 때 협력기관, 전문가, 수원국 등과의 관계 조화롭게 조율
- 업무를 위한 다양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필요

16. KOICA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4일(월) 11:30-12:00

○ 장소: KOICA 사무소

○ 면담대상: Gustave Cuma(Project Coordinator)

(1) 회의내용

○ 농업·농촌개발 분야 GT15(Thematic Group 15)

- 월 1회 회의 개최하여 활동사항 공유, 주요 이슈 논의
- 정부, 공여국, 공여기구, 농민조직 등의 활동 내용이 GT15에서 공유됨
- NAIP이 농업·농촌개발에 대한 하나의 큰 틀로서 작용, 원조활동도 이에 잘 부합하여 진행되어야 함
  - NAIP에는 총 5개의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고, 총 5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함. 현재까지 30%의 재원이 확보되었음

17. AfDB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5일(수) 10:00-12:00

○ 장소: AfDB 회의실

○ 면담대상: Jean-Baptiste Kadiata (Senior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Officer)

(2) 회의내용

○ AfDB활동 소개

- 2001년부터 DR콩고 operation 시작
- 종료된 사업
  - Bas-Congo주에서 PASAR(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Rehabilitation Support Project)

- Kasaï, Katanga주에서 PRESAR(Agriculture and Rural Sector Rehabilitation Project)

→ 이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인프라 제약에 대해 인지하고 인프라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음

- 사업의 효과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개 지역에 집중 지원 - Kasaï 2개주와 Katanga 주

PADIR(R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pport Project)

- 사업대상지: 총 5개의 주(Kasaï Oriental, Kasaï Occidental, Bas-Congo, Bandundu, Katanga)
- 사업기간: 6년(2012-2017)
- 총 예산: 7,500만 달러
- 사업구성요소
  - 농촌도로건설, 식수, 창고, 도살장,
  - 직업훈련센터, 사회재통합센터, 작업장, 가공장
  - 인프라 담당 공무원, 전문가 교육

○ Challenge

- AfDB는 9~10%의 예산을 수원국 부담으로 하나, 콩고의 경우는 분담 사항 이행이 잘 되지 않음. 이는 돈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의지의 문제임

※ 타국가의 경우 이 비율분담을 지키고 있으며, 콩고공화국의 경우 15%까지 분담

○ Lessons learned

- 정부와의 협업 시 사업비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함
- 도로여건, 기후여건, 저장창고의 유무를 고려할 때 비료사업은 적절치 않음

○ 질의응답

- 질문: 콩고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처는 어디인가?

- 답변: 재무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부처임. technical 부처인 MINARD가 프로젝트 요청을 하면 재무부에게 결정권한이 있음. 선제조건 준비 등 프로젝트 결정이 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림
- 양자원조기관의 경우는 재무부와 외교부의 영향력이 큼. 사업 진전에 박차를 가하려면 대사관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질문: AfDB 사업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답변: 유사한 농촌인프라개발 프로젝트를 보았을 때, 타 국가(라이베리아, 베냉, 토고)의 경우 훨씬 더 사업효과의 가시성이 있음

– 질문: 향후 KOICA가 어떻게 강점을 살려서 농업·농촌개발사업을 하면 좋을지?
- 답변: 리더십 강화, 인적자원개발이 좋을 듯. 콩고 발전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가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리더가 없다는 점임

– 질문: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아프리카의 영어권 국가와 프랑스어권 국가의 개발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 답변: 있다고 봄. 거버넌스와 신뢰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 가나의 경우를 보면 DR콩고처럼 한때 파괴되었던 국가지만 재건되는 속도가 빨랐고 지금 상당히 발전하였음

18.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5일(수) 14:00-16:00

○ 장소: FAO 회의실

○ 면담대상: Ndiaga Gueye(Country Representative), Michel Disonama Sindo (Assistant Representative), Serge Tissot(Deputy Representative), Valériane Ndena(Projecct Coordinator)

(2) 회의내용

○ FAO의 지원 현황

- DR콩고에서 농업은 핵심분야로서 정부도 농업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지도 강함. 그럼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 FAO는 기술적 측면에서 DR콩고 정부를 지원함
  - DR콩고의 정책입안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문(advise) 하는 수준
  - 관계부처와 아주 긴밀하게 Working Group을 만들어 협업함.
  - 정기적 업무 회의를 함
  - 국제회의 발표용 자료 준비지원
  - 토지법, 농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지난 10년간 긴급구호와 재건에 주력했었으나 (여전히 동쪽지역에는 긴급구호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점점 더 회복(resilience)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음
- 타 원조기관 등 파트너와 협업
- DR콩고 농촌발전의 제약
  -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물류
  - 취약한 거버넌스
  - Security 이슈

○ FAO의 전문분야 그룹

- 카사바, 카사바 가공 설비
- 쌀, 팜오일
- 마케팅, 포장, 저장

○ 현지 전문가 협업

-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전문가는 주로 현지 전문가이며 소수의 우간다, 베냉 직원이 있음
- FAO의 지역사무소, 준지역사무소(Sub-Regional Office)의 전문가를 필요시에 활용함

- 콩고 전문가는 카사바 질병, 종자증식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나 농기계의 유지 관리측면에서는 콩고의 역량이 부족함
- 개별 컨설턴트(예: 콩고의 대학교수 등)를 고용할 때 FAO와 ToR을 맺어서 진행함

○ 타기관과의 협업

- FAO-WFP는 Food Security Cluster를 구성하여 IPC Map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을 제작하였음 - 전세계의 식량위기 상태를 나타내 줌
- UNDP를 통해 KOICA와 협업 중 (Community Recovery and Peace Consolidation in North Kivu)

○ 사업시 선정 시 고려사항

- security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됨. 단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주력해야 함
- 토지 문제
  - 사업의 규모가 가족농이냐 대규모 농업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규모 농업일 경우 토지 문제가 큰 이슈
  - 토지문제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음. 사업 선정 시 토지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어야 함. 합법적인 서류로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함
  - 전통적 권력자뿐만 아니라 광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광업회사와도 조율이 필요함
- 성평등 문제
  - 토지 접근권, 비즈니스 접근권에 여성에 대한 제약이 많음
  - 작물선택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예: 카사바 경작지는 주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여성은 주로 옥수수 위주의 사업)
- 인프라
  - 사업지에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생산지로서 충분히 역량이 있고 시장과의 연결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지로서 괜찮음

○ 권력구조관련

- 전통적 권력주체에 위계가 있고 그 영향력도 있으나, 결국 정부의 영향력이 큼. 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
- 역사적 환경에도 주시해야 함. 과거 보고서 등을 통해서 역사적 환경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공사례

- 지금까지 약 20%정도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봄. 나머지는 덜 성공적이거나 실패
- 주로 여성 커뮤니티를 이용한 경우 성공률이 높았음
  - 농산물 가공 사업
- 벨기에의 재원으로 시행했던 원예작물 사업
  - 원예작물 종자를 지원해 주고, 농민조직에 지속적인 기술자문을 주었음. 5년이 지난 후에도 성공이 지속됨

○ 질의응답

- 질문: KOICA가 지원했으면 하는 분야는?
  - 답변: 한국은 연구와 기술면에서 발전한 국가인 것을 감안할 때, 농학연구, 농업통계청, 교육 및 훈련분야에 지원을 하면 좋을 듯
- 질문: FAO와의 협업 가능성
  - 답변: EU와의 협업한 경험이 있으나 결과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음. 그럼에도 타 원조기관와의 협업을 계속 할 것임
  - Food Security Cluster처럼 재원을 모아서 협업하는 방법도 있음

19. Caritas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6일(목) 09:30-11:00

○ 장소: Caritas 사무실

○ 면담대상: Abbé Bruno Nzungu Nzanga Diubenz(Director), Robert Mandiangu (Food Security Program Officer)

(2) 회의내용

○ 활동 현황

- 벨기에 Caritas의 지원으로 3년간 식량안보증진 프로젝트 하고 있음. 총 4개의 구역(zone)
  - 총 1032개 가구, 83개 농민조직을 지원하고 있음
  - 기대효과: 농민 조직화, 농민조직운영으로 생산증대, 아카시아나무 및 녹비작물로 토양의 비옥화, 농업학교 운영으로 영농기술 개선

○ 활동 내용

- 20개의 가구의 시범 양계장 운영
  - 이미 양계장을 가지고 양계를 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다른 5개 양계 가구에 수정란 50개를 나누어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써야 함
- 가공 및 저장소
  - 각 구역(zone) 별로 방앗간 1곳씩 지원해 주고 커뮤니티가 운영하고 Caritas가 모니터링함. 커뮤니티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이 포함되어야 함. 단, 마을의 촌장 및 가족은 위원회 멤버가 될 수 없음
  - 커뮤니티 상점을 각 zone 별로 2개를 두어 킨샤사에서 농기구 등 물품을 구매해 와서 킨샤사시장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팜(보통 킨샤사시장보다 농촌 시장에서의 물건값이 더 비쌈)
  - 커뮤니티 저장고가 각 zone에 2개씩 있고, 농민조직의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식수 개발
- 시장가격정보를 농민들과 공유
- 농촌 지선도로 유지 관리
  -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인부 교육, 자재 지원

○ 질의응답

- 질문: 사업의 지속성 측면을 볼 때 수혜자의 계약 이행률이 어느 정도 인가?(지원받은 가구들이 유정란을 다른 가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 등)
  - 답변: 60%정도의 수혜가구가 약속을 이행함. 사업지에 있는 모니터 담당관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이웃가구에게 유정란을 못 나누어주는 수혜가구는 모니터링 요원이 조사하여 이유를 파악함. 징계는 하지 않으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질문: 방앗간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는가?
  - 답변: 방앗간 지원 시 연료와 윤활류를 조금 지원할 뿐 그 후에 Caritas는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해결함
- 질문: 가장 효과성이 있었던 사업요소는 무엇인가?
  - 답변: 양계, 축산; 식량작물; 농산물 가공; 녹비작물(아카시아 및 무쿠나); 양봉; 마케팅
- 질문: 해외 원조기관과 커뮤니티의 관계는 어떤가?
  - 답변: 원조기관들이 원조 수혜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되며, 프로젝트는 수혜자의 참여와 기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함. 수혜자 스스로가 발전과 성장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함
- 질문: SNV 등 정부 기관과 협업을 하는가?
  - 답변: SNV(National Extension Service), SENASEM(National Seed Service), SNHR(National Rural Water Service), SENAFIC (National Service of Fertilizers and related inputs)과 협업함

20.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IITA)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6일(목) 11:30-12:30

○ 장소: IITA 사무실

○ 면담대상: Willy Tata Hangy(Research Associate)

(2) 회의내용

○ 기관 현황

- 아프리카 전역에 120명의 연구원이 있으며, DR콩고에는 4명의 연구원과 16명의 부연구원, 2명의 사회경제학자가 있음
- 2001년부터 DR콩고 활동 시작, 2009년부터 사무소장이 상주함
- DR콩고 전역에 총 4개의 연구소가 있음: Bas-Congo, Kisangani, Kivu, Bukavu
  - IITA 연구소가 없는 곳에서는 INERA staff를 활용함
- 협업 국제기구 및 NGO
  - FAO
  - 콩고 현지 NGO: Basangugu, CADIM, Bas-Fleuve, CRAFOD,
  - 국제 NGO: COOPI(이탈리아), SNV(네덜란드), TROCAIRE(아일랜드)

※콩고 NGO와는 상시협업, 국제 NGO는 한시적 협업을 함

- 활동 현황
  - 주요 대상 작물

    뿌리 작물: 카사바(cassava), 얌(yam), 타로(taro)

    곡물: 옥수수, 쌀(african rice)

    콩류: 땅콩, 카우피(cowpea)
- IITA의 지원분야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부를 커버함

- 농촌지도 교육(extension service) 지원
  - 농민에게 직접 하는 교육이 아니라 농민과 활동하는 NGO와 같은 파트너를 교육함

○ 질의응답

- 질문: 신품종에 대한 현지 적용의 이슈는 없는가?
  - 답변: DR콩고 정부(SNV)의 농촌교육서비스가 아주 열악하여 NGO들이 주로 현지 적용을 지원함.
- 질문: 카사바의 모자이크병 퇴치와 신품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콩고 정부의 농촌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 답변: SNV의 서비스가 좋지 못하고, 운영이 어려움
- 질문: IITA도 공여국처럼 DR콩고 정부의 농업·농촌개발 정책을 따르는가?
  - 답변: IITA는 INERA(콩고 국립농학연구소)의 정책을 따르고, 긴밀히 협업하고 있음
- 질문: INERA에 비해 IITA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 답변: IITA가 업무 능력이 더 뛰어나고 INERA의 고위직을 교육 훈련함.
- 질문: 개량종자를 이용한 후 주민소득이 증대되었는가?
  - 답변: 분명히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대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카사바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 전국곳곳의 외딴 지역까지 미치지 못함

21. Institut National pour l'Etude et la Recherche Agronomique (INERA)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6일(목) 13:00-14:30

○ 장소: INERA 사무실

○ 면담대상: Jean-Paul Lodi Lama(Agronomist), Lunze Lubanga (Scientific Director)

(2) 회의내용

○ 기관 현황

- 국립농학연구소로서 Ministry of Scientific Research 산하에 있음
- 현재까지 MINARD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없었으나, 내달 MINARD와의 협업을 위한 준비 협의 시작
  - 젊은 연구원 교유, 주요작물(카사바, 옥수수, 쌀)에 대한 연구에 대한 협업 가능
- 현재 60명의 상주 연구원이 있고, 그 외 젊은 연구원 및 직원보유
- 협업기관
  - IITA(International Institute for Tropical Agriculture): 주로 카사바 프로젝트 지원
  - CIAT(International Center for Tropical Agriculture): Mvuazi, Mulungu, Kipopo and Ngandajila의 4개 연구소에서 콩류에 대한 협업
  - CORAF(West and Central African council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바나나 프로젝트 협업
  - Africarice: 쌀 종자와 쌀 연구에 대한 지원
  - CIMMYT: 옥수수 연구
  - ASARECA, SADEC
  - CIDA(캐나다), USAID(미국)
- INERA 연구원은 INERA에 분담된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협업하는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음
- 동부지역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Mulungu),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NGO와 협업(BDD, CEDECO, CADIM)

○ 타기관과의 협업

- 협업프로젝트 기준에 예산의 한도는 없음
- 3가지 타입의 프로젝트가 있음
  - INERA 연구소가 있는 지방의 기구에 조금의 협조를 주는 프로젝트의 경우 큰 비용이 들지 않음
  - INEAR의 mandate하에 INERA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비용이 많이 요구됨

- INERA에 연구, 종자공급 등의 서비스가 요청되는 경우, 연구원의 용역비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컨설팅 프로젝트의 경우 일당 250달러~400달러 범위에서 다양하게 지급됨
-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견되는 연구원의 사례비는 사업의 종류와 계약기간에 따라 상의하나 대략 750달러/월 이상임

22. 총리실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6일(목) 16:30-17:30

○ 장소: 농업자문관 집무실

○ 면담대상: John Mususa Ulimwengu(농업자문관)

(2) 회의내용

○ 콩고 역량 강화 필요성

- 농업사업에 있어서 농업부 외에도 국회, 재무부, 총리실, 대학 모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
- 콩고의 정부는 정책기안, 입안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
- 농업분야에 있어서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체계를 만들어야 함
  - 비료사용법,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 기록,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설정 등
- 연구역량, 분석적 능력, 정보 공유, 정보 확산, 정책입안, 소농을 위한 직업훈련이 요구됨

23. 미국 국제개발처(USAID)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7일(금) 10:30-12:00

○ 장소: KOICA 회의실

○ 면담대상: Augustin Kadima Ngeleka(Agriculture Program Specialist)

(2) 회의내용

○ 지원현황

- DR콩고에서 크게 2가지 측면의 지원
  - 긴급구호(동부지역): 식량지원, 초기 농업활동지원
  - 개발(동부지역)
- USAID는 GT-15(Thematic Group)의 멤버로서 DR콩고 정부와 협업함

※ 2015년 농업농촌개발분야 GT-15의 의장 역할을 할 예정

- 수원국의 분담금 없이 사업예산의 100%를 USAID가 지원함

○ 사업의 형태

- USAID가 직접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사업: USAID가 규정하는 대로 세세한 TOR대로 PMC가 사업실행
- Cooperative Assistance: 사전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PMC가 사업의 예산, 세부계획을 PMC의 재량으로 세워서 실행. 대부분의 경우 이 형태로 진행됨

○ 협력기관

- Implementing partner로서 있어서 다양한 NGO를 두고 있음
  - USAID의 규정상 역량개발 제고 측면에서 현지 NGO와 협업을 해야 함. 스크리닝 시스템과 auditor 시스템을 두어 USAID의 지원방향에 맞고 역량 있는 현지 NGO를 파악하고 있음

- 콩고 정부와 MOU를 맺어 점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DR콩고 정부의 부패 타파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콩고 외교부, 농업부와 MOU를 맺었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원 활동대한 보고를 함
  - 관계되는 모든 부처의 장관, 전문분야 직원, 지방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3개월에 1회씩 회의를 통해 지원활동, 제약사항 등을 공유함
- 기술적, 재원적 측면에서는 민간과 협업함

○ 중점지원지역

- 사업지를 산발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3개 지역에 집중하고 있음
  - Katanga 주, Kasaï Oriental 주, Kasaï Occidental 주
- 가치사슬 개선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미 그 지역에 원조활동을 하고 있는 AfDB와 협업함

○ 성공 사례

- LAV 프로젝트(1983-1991): 응용연구와 농민지도교육 프로젝트
  - 농민지도교육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 옥수수, 카사바, 땅콩 생산증대에 기여하였음. 연구에서 농민에게로의 교육확산이 원활히 잘 되었음
  - 당시에는 World Bank의 지원으로 SNV의 활동이 잘 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에 3~4명의 직원이 계획과 관리 위주로만 하고 있음
  - 단점은 시장으로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았던 점

24. 농업농촌개발부 농촌지도국(National Extension Service, SNV)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7일(금) 16:30-18:30

○ 장소: 호텔 카페테리아

○ 면담대상: Roger Mundi(Chief, Monitoring and Evaluation), Benoit Nzaji Lupelekese(부코디네이터)

(2) 회의내용

○ SNV에 대한 추가 자료 제공 및 상세 설명

- SNV 설립의 법적 근거
- 조직구성
- 부서별 전문 분야

25. 국회의원 면담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8일(토) 10:30-11:30

○ 장소: 호텔 카페테리아

○ 면담대상: Jean-Baptiste Kumasamba(국회의원)

(2) 회의내용

○ DR콩고 농촌마을에 필요한 지원

- 농민조직, 소액금융 시스템
- 종자 공급
- 경운기 공급
- 농가공시설

○ 원조사업의 문제점

- 원조기관들이 수혜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갖고 오더라도 국회가 제재역할을 하지 못함. 콩고 정부의 경우 늘 예산이 부족하므로 적절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거절하지 않음
- 정부 대 정부의 협력사업의 경우 부처 간 행정적 절차로 사업지연이 많음. 현지 NGO와 협력하는 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인적자원 역량 강화의 중요성

- 공공행정의 개혁과 공무원 역량 강화가 절실함
- DR콩고는 Mind set의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의 방식과 같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

26. KOICA보고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8일(토) 12:00-13:30

(2) 회의내용

○ 사업 결정 주요 요소(Programme component)

- DR 콩고 농업 농촌개발 정책
  - The 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The Government's 2012-2016 Action Plan, 2009 Strategic Plan for Agricultural Sector
- 한국 측 비교우위 분야
- 타공여국과의 원조조화
- 對 DR콩고 지원전략(CPS), KOICA 농수산분야 지원전략, 2011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보고서
- 대외 환경 변화(민영화)

○ 향후 對 DR콩고 KOICA 사업의 주요 요소(component)

- 사업 결정 주요 요소에 기반하여 다음의 2가지 사업요소를 제안함

1) 인적자원 개발

- 정부역량 강화(공무원 역량 강화: 기술역량, 사업관리역량, 의식개혁 등)
- Extension service 강화
- 농민조직 역량 강화

2) 지역종합개발(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 향후 사업과정 주요 결정 요소

- 지역선정 시 주요 결정 요소
  - 사업지 환경의 security
  - 사업지 접근을 위한 교통 인프라
  - 타 공여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과의 원조 조화
  - 시장 접근성 보장
  - 토지 소유권 문제
  - 빈곤율(식량안보위협성 정도, 소득수준 등 고려)
- 사업에 영향을 미칠 권력구조(power structure) 파악
  - 토지소유권 파악
  - 경제적 권력 구조 파악
  - 사회·문화적 권력 구조 파악
- 對 DR콩고 정부와의 협업관계 설정
- 벨기에 모델: 정부 내 상설 협업기구 설치 및 운영
- FAO 모델: 정부에 비상설 정책자문 제공
- Temporary body(KOICA 등): 프로젝트 기반으로 비상설적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국제기구 모델(IFAD, UNDP, World Bank, AfDB 등): 사업집행 없이 재원조달 및 기술 자문

○ 사업의 효율적 집행방식을 위한 고려사항

-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효율적 집행 방식 제안
- 한국의 Tropical Agriculture 전문성 부재
- 한국의 언어적 제약, 현지토착문화 및 관습에 대한 이해 부재
- 타국제기구 및 현지전문가들의 공여전문성 활용 및 공여조화 제고

○ 한국측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 강화 요구

1) 현지화, 전문성 고려(Localization & South-South Cooperation)

-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현지 전문가 투입
- 현지 기관과의 협업으로 사업의 현지화 제고

- 정치, 문화, 관습, 종교적 현지 context에 대한 이해
- 2) Relation-based project
- 정부 기구, 지역, 타공여 기관과의 관계형성
- project-based 사업과 달리 주민과의 상관관계에 기반한 지역종합개발

3) 수원국 정부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 투명성제고, 부패방지, 책임분담

○ 사업별 협의체 구성

–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사업별 협의체 구성 제안
- 취약한 농업부 예산, 거버넌스, 역량
- 정부 내에서 농업부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
-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
-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위험 감소
- 프로젝트 효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적 안전장치 확보
- 사업의 정책반영 지원
- 정부 내 부처별 파급성 강화

1) KOICA, Ministry of Finance, 총리실, 농업농촌개발부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 및 운영하도록 제안함

2) 집행기구에서의 농업지도부서(SNV, INERA 등), 비정부기구(NGO), 대학, 사설컨설턴트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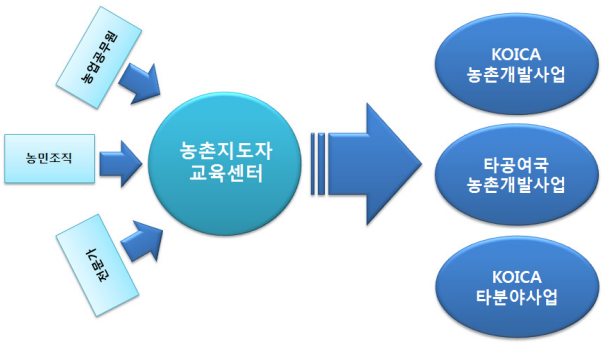
○ 프로그램적 접근의 사업 구성

– 사업 연계성, 통합성(integrity) 강화

– 정부지도자 및 농촌지도자 양성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타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제고

<그림 4-1> KOICA 향후 DRC 농업·농촌개발 분야 지원 모델



27. 재무부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8일(토) 16:30-17:30

○ 장소: 그랜드 호텔 카페테리아

○ 면담대상: Kabuya Kalala François(재무장관 비서실장)

(2) 회의내용

○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재무부의 역할

-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을 함. 재무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 원조사업 활동과 기자재 수입 등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 감면의 혜택 등 지원

○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언

- DR콩고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서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고위급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인식확대 해야 함. 각 부처 장관들이 먼저 공감을 하고 top-down방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효율적임

[별첨 3] 주요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공여국	BTC/CTB	Maurice SCHILL	Co-Responsable, Unité Conjointe d'Appui à la Gestion	maurice.schill@btcctb.org	243) 97-000-9298
	SIDA	Victor Kitembo	National Programme Officer	victor.kitembo@gov.se	243) 99-0151-554
	USAID	Augustin Kadima NGELEKA	Agriculture Program Officer	angeleka@usaid.gov	243) 81 555 4448
DR 콩고 정부	총리실(Primature)	John Mususa Ulimwengu	Senior Advisor, Prime Minister Office	john.m.ulimwengu@cgiar.org	243) 99 715 0180
	농업농촌개발부	Abel Leon KALAMBAYI wa KABONGO	Secrétaire Général, Secrétariat Général du Développement Rural	abelleon_kalambayl@yahoo.fr	243) 99 99 34 450
		Lucianne LUTULA SHOKO	Chef de Cellule, Direction d'Etudes et Planification	lutulal@yahoo.fr	243) 82 2 193 321
		Ignace GUKA	Directeur, Service National de Extension(SNV)	guka_ignace@yahoo.fr	243) 82 1 912 063
		Benoît NZAJI LUPELEKESE	Coordonnateur National Adjoint, Service National de Extension(SNV)	nzajib1@yahoo.fr	243) 99 920 3168
		Roger Munudi	Chef de Bureau de Suivi et Evaluation, SNV	rogermunudi@gmail.com	243) 82 405 4134
		Daniel LUHATA-KONGOLO	Directeur National, Pêche en Milieu Rural "PERIMU"	luhata_apim@yahoo.fr	243) 81 509 4342
		Adolphe FIKA NTUMBA	Chef de Division Technique chargé de Cours d'Eau	fikadol@yahoo.fr	243) 99 011 0109

구분	기관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재무부	François KABUYA KALALA	Directeur de Cabinet, Cabinet du Ministre	kabuyakalala@gmail.com	243) 81 333 0780
		Yves TANGI-MUZYUMBA	Conseiller en charge de Coopération	tangiyves@yahoo.fr	243) 99 136 4162
		Honoré TSHIYOYO	Coordinateur, Cellule de Suivi des Projets et Programmes	tshiyoyohonore@yahoo.fr	243) 99 85 19 742
		Clément MBIKAY M.MUSWAL	Chef de Section Chargé des Opération, Cellule de Suivi des Projets et Programmes	clement.mbikayi@yahoo.fr	243) 99 99 32 461
	외무부	LOKOSU	Directeur, Division de l'Asie et Océanne	–	243) 99 831 6300
국제 기구, NGO	World Bank	Amadou Oumar BA	Senior Agricultural Services Specialist	aba1@worldbank.org	243) 99 994 9015
	AfDB	Bakach Kikand Jean-Baptiste KADIATA	Senior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Officer	b.kadiata@afdb.org	243) 81 556 0291/ 99 892 3290
	FAO	Ndiaga GUEYE	Country Representative, DRC Office	ndiaga.gueye@fao.org	243) 81 192 29 79/ 99 590 3505
		Serge TISSOT	Deputy Representative, DRC Office	serge.tissot@fao.org	243) 81 880 5164
		Miche DISONAMA SINDO	Assistant Representative, DRC Office	michel.disonama@fao.org	243) 81 260 6089

구분	기관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Valériane NDENA	Responsable for coordination PTF -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valeriane.ndena@fao.org	243) 81 192 29 79/ 99 590 35 05
	IFAD	Rasha Omar	Country Programme Manager, West and Central Africa Division	r.omar@ifad.org	243) 97 002 0670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IITA)	Willy Tata Hangy	Associé de Recherche	w.tata_hangy@iitadrc.org	243) 998 29 72 63
	Caritas Développement Kinshasa	Abbé Bruno NZUNGU NZANGA DIUBENZ	Director	semdiokin@yahoo.fr	243) 81 813 2900
		Robert MANDIANGU	Food Security Officer	–	243) 81 904 6975
대학, 국립 연구소	Université de Kinshasa	Gaston Mudipanu KAPUKU	Director, Centre of Korean Studies	gastonkapuku@yahoo.fr	243) 81 521 8816
		Patience MPANZU BALOMBA	Professor, Faculty of Agronomic Science	mpanzu@gmail.com	243) 99 922 2641
	Institut National pour l'Etude et la Recherche Agronomique(INERA)	Jean-Paul LODI LAMA	Agronomist	lodilama_jeanpaul@yahoo.fr	243) 81 513 67 46/ 99 108 62 87
농민 조합 연맹	Confédération Nationale des Producteurs Agricole du Congo (CONAPAC)	Mivimba PALUKU	President	–	243) 99 838 -6456
		Sylvestre KAMBAZA	Secrétaire Exécutif	kambazasylv@yahoo.fr	243) 99 990 7251

[별첨 4] 주요 공여국의 지원 사업현황(2014년 2월 현재)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벨기에	Support to Seed Sector (ASS)	$9,110,469	CTB	72개월 2007~2012	Katanga	Haut Katanga	생산지원, 기관지원
						Haut Lomam	
					Kasa Oriental	Tshilenge	
						Sankuru	
						Kabinda	
					Bandundu	Kwango	
						Kwilu	
					Bas-Congo	Bas Fleuve	
						Cataractes	
						Lukaya	
	Development project of Small-scale fishing and Agriculture in Katanga(PRODEPAAK)	$6,500,000	CTB	60개월 2009~2014	Katanga	Haut Katanga	생산지원, 영양, 생산자단체지원, 가공/저장, 과학연구
	Support for improving crop production (AAPVII)	$6,175,000	CTB	45개월 2010~2013	Orientale	Tshopo	연구, 생산지원, 행정지원, 생산자단체지원, 기관지원
					Kasa Oriental	Kabinda	
					Bandundu	Kwilu	
					Bas-Congo	Cataractes	
					Katanga	Haut Katanga	
	Building capacity of people	$104,000	Frères des Hommes	36개월 2012~2014	Sud Kivu		생산자/기업가 교육, 천연자원 관리
	Louvain development	$631,877	CIALCA/IITA/cgiar	36개월 2011~2013	Sud Kivu	Sud Kivu	연구, 생산자/기업가 교육,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Yam bean (Enhancing the nutrient-rich Yam bean to improve food quality and avail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farming systems)"	$573,300	CIP/cgiar	54개월 2009~2013	Bas-Congo	Bas Fleuve	
					Sud Kivu	Sud Kivu	
	"Agroforestry Tree Products for Africa - AFTP4A"	$1,500,000	ICRAF/cgiar	54개월 2009~2013	Orientale	Tshopo	연구, 생산지원, 천연자원관리,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생산자 교육, 생산자단체지원, 영양
					Bas-Congo	Cataractes	
						Bas Fleuve	
						Lukaya	
					Kinshasa	Kinshasa	
	"Sustainable and Profitable Banana-based Systems"	$1,051,133	CIALCA/IITA/cgiar	58개월 2009~2013	Sud Kivu	Sud Kivu	연구, 유통/마케팅, 영양, 생산자/기업가 교육,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Building Impact Pathways for Improving Livelihoods in Musa banana -based Systems"	$1,050,096	CIALCA/Biodiversity Int'l/cgiar	58개월 2009~2013	Sud Kivu	Sud Kivu	연구, 유통/마케팅, 영양, 생산자/기업가 교육,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Revitalizing agriculture through the integration of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oupled to resilient germplasm and marketing approaches"	$1,033,695	CIALCA/TSBF-CIAT/cgiar	58개월 2009~2013	Bas-Congo	Lukaya	연구, 유통/마케팅, 영양, 생산자/기업가 교육,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Cataractes	
					Nord Kivu	Nord Kivu	
					Sud Kivu	Sud Kivu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Fight against vulnerability through small livestock (LUVUPEL) - FBSA -	$368,549	Vétérinaires Sans frontières	30개월 2011~2013	Nord Kivu	Nord Kivu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유통/마케팅, 영양, 생산자/기업가 교육
	Structuring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capacity of underprivileged rural population in North of Province Equateur - FBSA	$3,185,000	CDI Bwamanda	78개월 2008~2014	Equateur	Sud Ubangui Nord Ubangui Mongala	생산지원, 행정지원, 유통/마케팅, 인프라개선, 정보시스템, 가공/저장
	Integrated Rural Developpment of Lubéro territory- FBSA	$4,160,000	NGO Vlaams Internationaal Centrum (VIC)	105개월 2005~2014	Nord Kivu	Nord Kivu	생산지원, 행정지원, 유통/마케팅, 인프라개선, 가공/저장
	Support for development of diocese of Inongo, Mai Ndombe territory	$2,769,000	TRIAS	72개월 2008~2014	Bandundu	MaiNdombe	생산자단체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생산지원, 마이크로파이낸스, 인프라개선
	Support Programme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of small family farm and small entrepreneurs in Lukula and Tshela territory,	$2,019,869	NGO Trias	36개월 2011~2013	Bas-Congo	Bas Fleuve	생산자단체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생산지원, 마이크로파이낸스, 인프라개선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and strengthening of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Kinshasa						
	Action Plan 2011-2013: Development of rice value chain in the sector of Beni - Mbau and Bapere	$1,038,904	NGO Vredeseilanden	36개월 2011~2013	Nord Kivu	Nord Kivu	생산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생산자단체지원
	Program of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Béni et Lubéro - FBSA	$1,300,000	NGO Vredeseilanden	36개월 2011~2014	Nord Kivu	Nord Kivu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인프라 개선
	Research group for policy support for Food and Agriculture in Africa (Grap3A)	$185,317	Grap3A	48개월 2009~2013	Bundundu	Kwilu	연구, 생산지원, 유통/마케팅
						Kwango	
					Kinshasa	Kinshasa	
					Sud Kivu	Sud Kivu	
	Support Program of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2009-2012	$3,735,459	CARITAS INT.	36개월 2012~2015	Equateur	Equateur	행정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지원, 가공/저장, 농민단체역량 강화
					Kinshasa	Kinshasa	
					Bandundu	Kwango	
	Program of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Tracks in DRC II (PREPICO II)	$14,300,000	CTB	42개월 2009~2013	Maniéma	Maniema	인프라개선, 유통/마케팅, 중소기업 증진
					Katanga	Tanganika	
					Kasa Oriental	Sankuru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Orientale	Tshopo	
					Bandundu	Kwilu	
						Kwango	
					Bas-Congo	Bas Fleuve	
	Program of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Tracks in DR Congo III (PREPICO III)	$36,400,000	CTB	48개월 2010~2014	Maniéma	Maniema	인프라개선, 유통/마케팅, 중소기업증진
					Katanga	Tanganika	
					Kasaï Oriental	Sankuru	
					Orientale	Tshopo	
					Bandundu	Kwilu	
						Kwango	
					Bas-Congo	Bas Fleuve	
벨기에	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 2009 –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Sud-Kivu by adopting the use of micro-doses of fertillizer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oil Fertility (GIFS)	$399,708	VLIR - Vlaamse Interuniversitaire Raad	60개월 2009~2014	Sud Kivu	Sud Kivu	연구, 생산지원, 생산자교육, 천연자원관리
	Development of appropriate technologies in the agri-food areas and renewable energy and transformation products by industry players	$321,256	CODEART	24개월 2011~2013	Nord Kivu	Nord kivu	가공/저장, 생산지원, 생산자교육, 천연자원관리
					Kasaï Oriental	Tshilenge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 2010 - Acade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pplied research on small mammal pests in DR Congo	$260,000	VLIR - Vlaamse Interuniversitaire Raad	36개월 2010~2013	Orientale	Tshopo	연구, 생산자교육, 가공/저장
	CIUF PIC 2008 Innovation, livelihood security and improving rural livelihoods in Sud-Kivu	$450,597	CIUF - Conseil Interuniversitaire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de Belgique	75개월 2008~2014	Sud Kivu	Sud Kivu	연구
	Food security in communities most affected by armed conflict and displacement in Fizi Territory, RD Congo	$1,160,160	ONG Tearfund	30개월 2010~2013	Sud Kivu	Sud Kivu	생산지원, 식량원조
	-	$319,579	CDI Bwamanda	35개월 2011~2013	Bandundu	Kwilu	생산지원, 식량원조
	Promotion of Livestock in Urban Vulnerable (PROMELVU)	$448,988	Vétérinaires Sans Frontières	36개월 2011~2014	Nord Kivu	Nord Kivu	생산지원
	Support to producers and beekeeping	$992,339	APEFE	36개월 2011~2013	Bas-Congo	Cataractes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자/기업가 교육,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생산지원
	Support to producers and market gardening sector	$910,075	APEFE	36개월 2011~2013	Kinshasa	Kinshasa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자/기업가 교육,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생산지원
	Support to producers and the poultry industry	$897,211	APEFE	36개월 2011~2013	Kinshasa	Kinshasa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자/기업가 교육,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생산지원
	Contribution to the better functioning of agricultural technical schools	$1,501,815	WOB	36개월 2011~2013	Bandundu	Kwilu	생산자/기업가교육, 행정지원, 정보시스템
	Unit for supporting management (UCAG) in MAPE	$8,450,000	CTB	48개월 2011~2015	Kinshasa		행정지원
	Unit for supporting management (UCAG) in MINIDER	$10,400,000	CTB	48개월 2011~2015	Kinshasa		행정지원
	Program of rural roads in Kwilu and in Kwango (Bandundu) - PRODEKK	$26,000,000	CTB	48개월 2011~2015	Bandundu	Kwango Kwilu	인프라개선, 행정지원
벨기에	Project to support advocacy and	$1,159,906	9 ONG belges (lead: TRIAS)	24개월 2011~2013	AA Toutes		생산자단체지원, 행정지원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provincial and national peasant structuring - Alliance AGRICONGO		+ONG locales (Alliance AGRICONGO)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in Kwilu Kwango - (PRODAKK)	$26,000,000	CTB	60개월 2012~2017	Bandundu	Kwilu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행정지원, 농촌여성리더십교육
						Kwango	
	Solidar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362,834	Broederlijke Delen	36개월 2011~2013	Kasa Oriental	Kabinda	
					Kasa Occidental	Kasayi	
					Katanga	Haut Katanga	
	Sustainable peasant Agriculture in DRC	$296,951	Entraide et Fraternité	36개월 2011~2014	Maniéma	Maniema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Sud Kivu	Sud Kivu	
	Towards a sustainabl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of the peasants	$643,640	Oxfam Solidarités Belgique	36개월 2011~2013	Sud Kivu	Sud Kivu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자/기업가 교육,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Nord Kivu	Nord Kivu	
	Access and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the Great Lakes region (DRC component)	$304,374	PROTOS	36개월 2011~2013	Nord Kivu		
	Supporting rural in their fight against poverty	$1,183,556	SOS Faim	36개월 2011~2013	Bas-Congo		
					Nord Kivu		
					Nord Kivu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벨기에	Project P4P	$6,370,000	PAM (avec FAO, SNV, Oxfam UK)	48개월 2010~2013	Equateur Katanga	Equateur Tanganika	생산지원, 생산자/기업가 교육, 가공/저장, 인프라개선, 정보시스템
	Support to P4P in Katanga and in Equateur	$1,300,000	PAM	18개월 2011~2013	Nord Kivu Katanga	Nord kivu Tanganika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기업가 교육, 생산자단체지원, 정보시스템
	Support P4P	$2,600,000	FAO	18개월 2011~2013	Sud Kivu	Sud Kivu	
	Café in Kivu: Improved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of farmers and leus families through better market access	$510,442	Oxfam Solidarité Belgique	30개월 2011~2013	Sud Kivu	Sud Kivu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Disaster Preparedness for Food Security Risks in the Great Lakes Region - Improving responses to the threat of banana diseases	$155,824	FAO	15개월 2012~2013	Sud Kivu Nord Kivu		긴급구호, 생산자/기업가 교육, 정보시스템
	Capacity building of production and marketing of farmers' organizations	$1,434,519	SLCD	36개월 2011~2014	Kinshasa Bas-Congo Orientale	Lukaya Tshopo	생산지원, 천연자원관리,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벨기에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in Kasaï Oriental (PRODAKOR)	$27,300,000	CTB	60개월 2013~2018	Kasaï Oriental	Kabinda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행정지원, 농촌여성리더십강화
						Sankuru	
						Tshilenge	
	Program to open up Kasaï Oriental - PRODEKOR	$26,000,000	CTB	61개월 2013~2018	Kasaï Oriental	Kabinda	인프라개선, 행정지원
						Sankuru	
						Tshilenge	
	Program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opening of Tshopo PRODADET (to be completed)	$39,000,000	CTB	60개월 2014~2018	Orientale	Tshopo	인프라개선,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Support to family agriculture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in the territory of Lomela and its surrounding area	$257,501	CCAEB	24개월 2011~2013	Kasaï Oriental	Sankuru	생산지원, 가공/저장, 생산자/기업가 교육
미국	Non Emergency Food Aid Program (NEFAP)	$57,917,800	Food for the Hungry (FH)	60개월 2011~2016	Katanga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생산자/기업가양성, 영양
					Sud Kivu		
	Cassava Mosaic Disease (CMD) Resistant Variety Improvement Activiti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4,000,000	IITA	60개월 2009~2014	AA Toutes		생산지원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Food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Activity	$32,500,000	DAI	60개월 2011~2016	Bas-Congo	AA Toutes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유통/마케팅, 생산지원
					Kinshasa	AA Toutes	
					Bandundu	AA Toutes	
	FARMERS TO MARKETS In Equateur Provinc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650,000	Paul Carlson Partnership	40개월 2009~2013	Equateur	Sud Ubangui	생산지원, 유통/마케팅
	DCA Portfolio loan guarantee for farmers in Katanga Province	$4,770,000	TMB	84개월 2009~2016	Katanga		신용접근, 생산지원
	DCA Portfolio loan guarantee for SM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2,800,000	BIAC	48개월 2011~2015	AA Toutes	AA Tous	신용접근
	DRC Pool Malebo Kingabwa Rice Intensification Project (GDA activity with EUCORD & BRALIMA)	$2,037,785	Winrock	36개월 2011~2014	Kinshasa		생산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Reinforcement of Livelihoods/People Centered Approach to Conservation Project-Salonga Landscape	$10,000,000	WWF	66개월 2014~2019	Equateur		생산지원
					Maniéma	Ituri	
					Nord Kivu		
	Reinforcement of Livelihoods/People	$7,209,983	WCS	48개월 2009~2013	Orientale	Ituri	생산지원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Centered Approach to Conservation: Ituri –Epulu- Aru Forest Landscape						
	Agriculture Policy Support Activity	$2,900,000	IFPRI	38개월 2010~2013	Kinshasa Bas-Congo Bandundu		생산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Reinforcement of Livelihoods/People Centered Approach to Conservation Project-Maringa-Lopori -Wamba Landscape program	$9,399,799	African Wildlife Foundation (AWF)	84개월 2008~2014	Equateur		생산지원
	RISE/CIMAMA	$40,000,000	Mercy Corp	60개월 2011~2016	Nord Kivu	Nord Kivu	긴급구호, 영양, 식량원조
	“Jenga Jama”	$52,000,000	ADRA	60개월 2011~2016	Sud Kivu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생산자/기업가 양성, 영양
네덜란드	Project Cassasva	$1,300,000	SNV-Nederlandaise	36개월 2011~2013	Kinshasa Bas-Congo	Maluku, Cataractes	생산지원, 유통/마케팅, 생산성 향상
	Project Rice	$1,170,000	SNV-Nederlandaise	36개월 2011~2013	Kinshasa Bas-Congo	Bas Fleuve, Cataractes et Lukaya, Pool Malebo	생산성향상, 마케팅
	Local Capacity Development Facility	$390,000	SNV-Nederlandaise	15개월 2012~2014	Bas-Congo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SNV Agricultural Value Chain Development Program: Palm Oil, Cassava, Honey and exploring Rice	$4,875,000	SNV	60개월 2011~2015	Bas-Congo		가공/저장, 생산지원, 연구, 유통/마케팅
					Equateur		
					Kinshasa		
	CATALIST: Catalyse Accelerated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Stability	$9,529,000	IFDC	60개월 2012~2017	Nord Kivu	Nord Kivu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비료개선
					Sud Kivu	Sud Kivu	
스웨덴	Support Microfinance Program: Phase II	$4,560,000	PNUD + UNCDF	50개월 2010~2014	AA Toutes	AA Toutes	신용접근, 생산지원, 행정지원, 유통/마케팅
	Revival of the local economy Kungu to support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peace sector Dongo / Territory Kungu / Sud Ubangi District / Equateur province	$4,380,002	FAO	40개월 2011~2014	Equateur	Sud Ubangui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지원, 생산자교육, 가공/저장
	REDD financing, human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forest communiti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4,792,038	FPP Forest peoples programme	37개월 2011~2014	Bas-Congo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자/기업가교육, 행정지원, 생산지원
					Bandundu		
					Equateur		
					Orientale		
					Nord Kivu		
					Sud Kivu		

국가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독일	Productive Capacity of 20,000 households	$1,000,000	WHH	33개월 2010~2013	Maniéma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긴급구호
	Integrator Project of a dam(dyke) for making cultivable 10,000 ha	$1,015,000	GRAD	30개월 2010~2013	Sud Kivu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Development of 15 hectares of irrigated rice	$393,000	UCB-CAPPA	21개월 2011~2013	Sud Kivu		생산지원
한국	Project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of Tshuenge / Kinshasa	$9,184,000	KOICA, KREI et MINAGRI	40개월 2010~2014	Kinshasa	Tshangu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식수접근, 가공/저장, 인프라개선, 역량 강화
일본	Support for the national reconstruction program of the DRC for the restoration of conditions of life and peace	$2,600,000	ONUDI	24개월 2011~2013	Bas-Congo	Cataractes	생산자/기업가 양성 및 교육, 가공/저장

[별첨 5] 주요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현황 (2014년 2월 현재)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EU	Strengthening of food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Gungu	$2,430,352	HSS	60개월 2009~2014	Bandundu	Kwilu	생산지원,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인프라개선
	Supporting sustainabl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rketing at Mai Ndombe	$2,318,597	TRIAS	65개월 2009~2014	Bandundu	MaiNdombe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rtisanal fishing on the Congo River	$4,373,434	APEFE	48개월 2011~2014	Bandundu	MaiNdombe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행정지원, 유통/사업화
	Support Programm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ctivities and agricultural sectors in the valley of Luala-Luozi	$3,692,556	AGRISUD	18개월 2010~2014	Bas-Congo	Cataractes	생산지원,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Project for sustainable improvement of production systems and marketing channels in the territory of Bulungu - District Kikwit	$2,361,405	Secours catholique France	44개월 2010~2014	Bandundu	Kwilu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행정지원, 유통/마케팅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come through sustainable management of ecosystems	$2,442,007	CDI Bwamanda Belgique	48개월 2010~2014	Bandundu	Kwilu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인프라개선, 가공/저장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Support for revitalis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opening up productive areas in Equateur	$4,328,657	UNOPS	48개월 2010~2014	Equateur	Tshuapa	인프라개선, 생산자단체지원,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Development Project of food agricultural sectors in Mayanda	$4,373,434	GRET	48개월 2010~2014	Bas-Congo	Boma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APODEK agroforests for development of Kipushi	$4,030,000	GRET	60개월 2012~2017	Katanga	Haut Katanga	생산지원,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PASAGAR - Support program of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and rural governance in the districts of Boma and Bas Fleuve	$2,665,000	WWF Int.	60개월 2012~2017	Bas-Congo	Bas Fleuve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지원,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Integrated Program response to malnutrition and food insecurity in the DRC	$2,860,000	FAO	36개월 2012~2015	Kasaï Oriental	Sankuru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가공/저장, 영양
	Augmentation de la disponibilité des denrées alimentaires sur le marché de Kinshasa par l'appui à la production dans les plateaux Batéké, phase II	$2,795,000	COOPI	36개월 2012~2015	Kinshasa	Kinshasa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유통/마케팅, 가공저장, 영양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the capacity of farmer organizations in Kwango and Kwilu	$3,835,000	ISCO	60개월 2012~2017	Bandundu	Kwango Kwilu	생산자단체지원, 유통/마케팅, 식수접근, 영양
	ASustainable Agriculture and professionalization of agricultural	$3,139,500	AGRISUD	54개월 2012~2017	Bas-Congo	Bas Fleuve	생산지원, 유통/마케팅, 정보시스템,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sectors in the Mayombe - territories of Lukula and Tshela						생산자단체지원
	Support to farmer organizations engaged in agroforestry in the territory of Gungu	$2,145,000	HSS	60개월 2013~2017	Bandundu	Kwilu	생산지원, 가공/저장, 천연자원관리
	Agroforestry Project NTSIO - 'Men, trees and field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2,350,000	HSS	60개월 2013~2017	Kinshasa	Kinshasa	생산지원, 천연자원관리, 식수접근, 생산자단체지원
	Enhancing food security in the territory of Popokabaka	$1,812,590	ISCO	26개월 2012~2014	Bandundu	MaiNdombe	긴급구호,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AFODEK agroforests for development of Kipushi	$3,900,000	GRET	72개월 2012~2017	Katanga	Kolwezi	긴급구호, 생산지원, 생산인력 양성
	DI'ODIA DIA Dimena "3D"= help them grow	$3,640,000	CRS	52개월 2012~2017	Bas-Congo		긴급구호,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AfDB	Rehabilitation Project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PRESAR	$59,048,780	UNOPS-AfDB - Min. Rural Dev.	80개월 2006~2013	Kasaï Oriental	Kabinda	식량원조,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가공/저장
						Tshilenge	
					Kasaï Occidental	Lulua	
					Katanga	Kolwezi	
						Haut Katanga	
						Haut Lomam	
						Lualaba	
	Project to support regional development programme integrates Lake Tanganyika: PRODAP	$18,187,154	BAD - Min.Agri	108개월 2004~2013	Katanga	Tanganika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가공/저장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Sud Kivu		행정지원, 천연자원관리, 기관역량 강화
	Project to Support Development of Rural Infrastructure (PADIR)	$75,000,000		53개월 2012~2017	Bandundu		인프라개선, 가공/저장, 유통/마케팅, 행정지원, 농촌지역 식수개선
					Bas-Congo		
					Kasaï Oriental		
					Kasaï Occidental		
					Katanga		
	REDD pilot project built around the Luki Reserve (CBFF Luki)	$3,243,500	WWF-BE/ WWF-RDC	30개월 2013~2015	Nord Kivu	Nord kivu	생산지원, 천연자원관리
	REDD pilot project built around the Luki Reserve (CBFF Luki)	$3,040,837		36개월 2013~2016	Bas-Congo		생산지원, 천연자원관리
IFAD	Recovery program of agriculture in the district of Orientale in Province Tshopo (PRAPO) - FBSA	$26,000,000	Min. Agriculture	74개월 2007~2014	Orientale	Tshopo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인프라개선, 식수접근, 교육 및 보건, 행정지원,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Integrated Rehabilitat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in Maniema Province (PIRAM)	$39,020,000	Min. Agriculture	108개월 2010~2019	Maniéma	Maniema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지원, 인프라개선, 식수접근, 보건
	Program to support poles supply Kinshasa food and garden produce (PAPAKIN)	$114,900,000	Min. Agriculture	120개월 2012~2022	Bandundu	Kwilu	생산자단체지원,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유통/마케팅,
					Bas-Congo	Lukaya	
						Cataractes	

	사업명	총 예산	수행기관	기간	사업대상지 (Province/District)		주요내용
	Listening clubs, the fight against poverty, food security and gender	$700,000	FAO	24개월 2012~2014	Orientale	Tshopo	생산지원, 정보시스템
World Bank	Support Project for Rehabilitation and Recovery Agricultural sector (PARRSA)	$120,000,000	Min. Agriculture	60개월 2011~2016	Equateur	Mongala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기관지원
						Nord Ubangui	
						Sud Ubangui	
					Kinshasa	Kinshasa	
	Growth Poles	$110,000,000		64개월 2013~2018	Kinshasa		생산지원, 인프라개선, 가공/저장, 생산자단체지원, 민간분야개발
					Bas-Congo		
FAO	Support for food and nutrition secur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ja industry	$495,000	FAO	30개월 2011~2013	Bandundu	Kwango	생산지원, 생산자교육, 생산자단체지원, 영양
					Bas-Congo	Boma	
	Support for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fight againt poverty in Konzo	$457,000	FAO	24개월 2011~2013	Bandundu	Kwango	생산지원, 생산자교육, 영양, 행정지원
UNDP	National Action Program of adapation: Support for small farmers for to adpat to climate chane	$14,250,000	UNDP+ INERA	53개월 2013~2017	Bandundu		
					Bas-Congo		
					Kalanga		
					Kasaï Ori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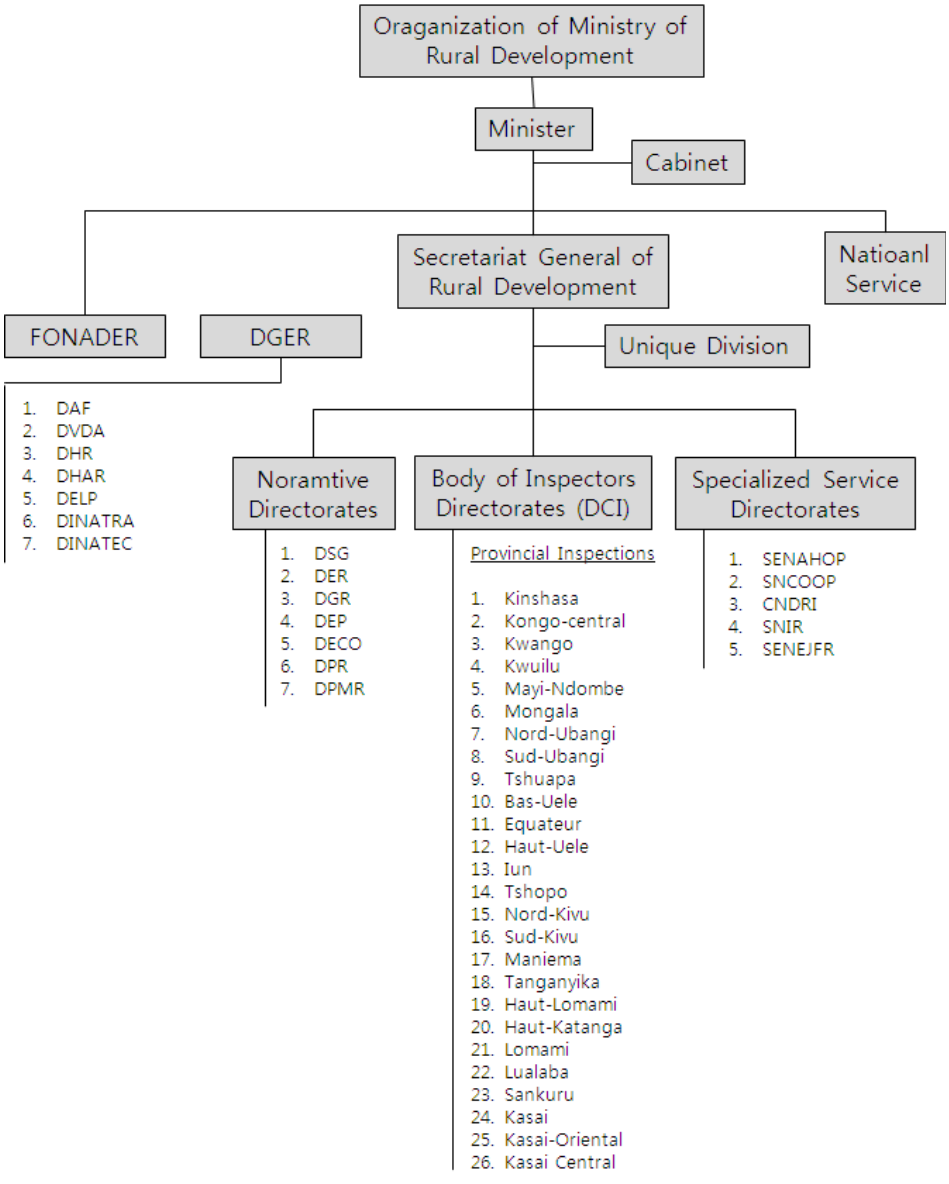
[별첨 6] DR콩고 농업·농촌개발 공여기관 그룹(GIBADER) 개요

- GIBADER(Groupe Inter-Bailleurs Agriculture et Développement Rural: Inter-donors group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 농업 및 농촌개발부를 중심으로 하는 GT15(Groupe Thematique 15)에 속함 (GT15는 DR콩고 정부가 농업농촌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공여기관(GIBADER), 생산자조직, 민간부문, 시민단체, 등의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작업반 임)
  -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으로 구성됨.
  -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지원활동 내용을 공유함
  - 원조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원조 조화를 꾀하기 위한 활발한 토의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FAO-IFAD-WFP 컨소시엄이 의장을 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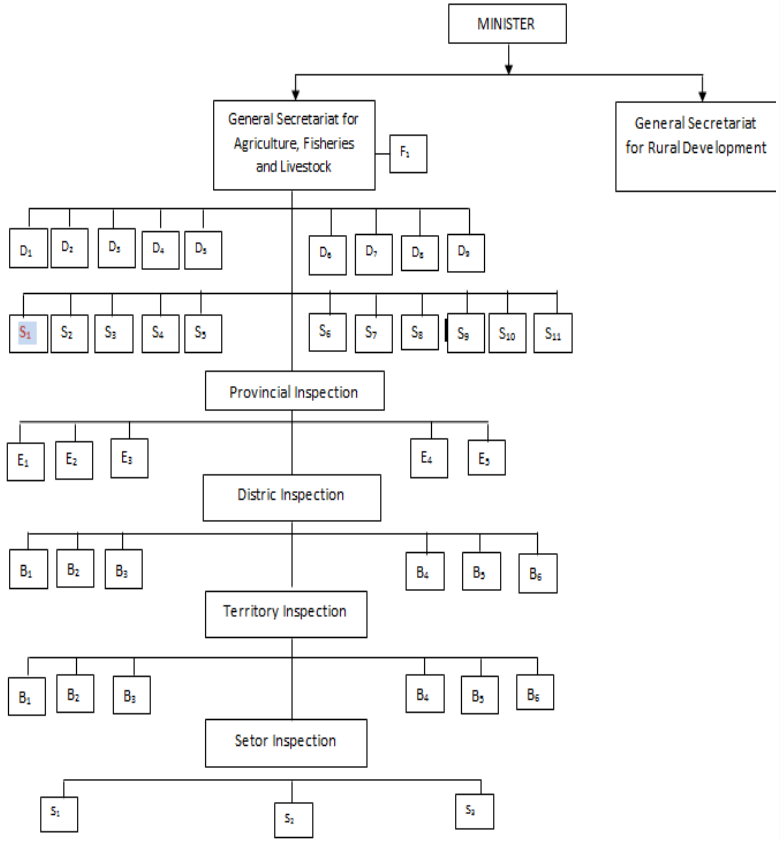
GIBADER 구성 현황

- 공여국: BTC, Belgium Embassy, Canada, China, British Embassy(DFID), German Embassy(FCP),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The Netherlands Embassy, SIDA, USAID - 국제기구: AfDB, EU, FAO, IFAD, IFPRI, IITA, UNDP, UNOPS, WFP, World Bank

[별첨 7-1] 농업농촌개발부 조직도(Secretariat General of Rural Development)



[별첨 7-2] 농업농촌개발부 조직도 (Secretariat General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Livestock)NS



GENERAL SECRETARIA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BREEDING	
D	Direction
d	Division
B	Bureau
IP	Province Inspection
ID	District Inspection
IT	Territory Inspection
IS	Sector Inspection
D1	Directorate General Services
D2	Directorate of Studies and Planning
D3	Department of General Administration Projects
D4	Directorate of Production and Plant Protection
D5	Directorate of Production Animal Health
D6	Markets Department , Price and Credits of Country
D7	Body Directorate of National Inspectors
D8	Directorate of Fisheries
D9	Representation to FAO, WFP, IFAD in Rome (Italy)
S1	National Extension Service
S2	National Seed Service
S3	National Service of Fertilizers and Related Inputs
S4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S5	National Service of Agricultural Engines
S6	National Aquaculture Service
S7	National Service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ies
S8	National Veterinary Service Inputs
S9	Veterinary Laboratory of Kinshasa
S10	Veterinary Laboratory of Lubumbashi
S11	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Family Farming
E1	Project "Support to Farmers Agricultural Sector"
E2	Restructuring Project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E3	Project Management of Genetic Resources
E4	Pan African Programme for the Fight against Epizooties
E5	Programme for the Fight against Animal Trypanosomiasis
F1	Division One

[별첨 8] DR콩고 농업농촌개발 프로젝트 수행기관 리스트

Action Aid RDC
Action Contre la Faim USA
Agrisud International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 l'Education(APEFE)
Café Africa
CDI Bwamanda
Centre Agro Vetérinaire Tropical de Kinshasa(CAVTK)
Christian Aid
CONCERN
Coopération Technique Belge(CTB)
Entraides et Fraternités
Fondation Hanns Seidel(HSS)
Force paysanne Bas Congo(FOPACO)
Human People to people(HPP)
Impresa Servizi Coordinati(ISCO)
OXFAM - Belgique
OXFAM - Canada
Secours Catholique France
TRIAS
UNOPS
Villages et Villes à Vivre(VVV)
Welt hungerhilfe(AAA)
UNDP
APROFEL
IFDC
COOPI
ACTED
Caritas Belgique
Solidarité
SOS Faim
GRET
Incontro fra i Popoli
CISP
11.11.11
VVOB
Catholic Relief Services

연구자료 서아프리카 2014-08-127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발 행 2014년 6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서아프리카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이프리넷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물 등록번호 11-B260003-000411-01